

ISSN 1226-9638

大韓齒科醫史學會誌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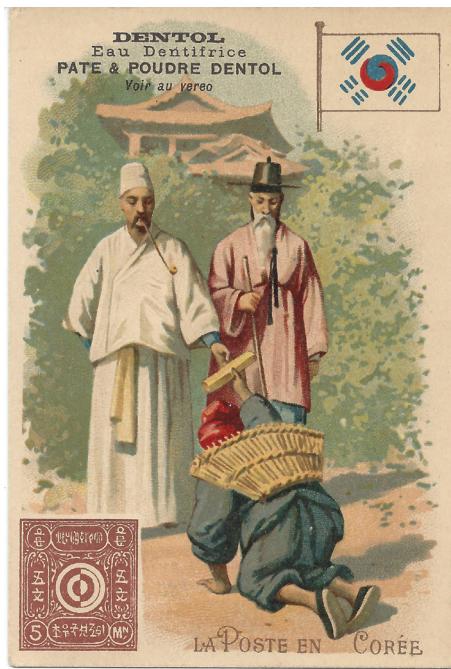
2015

제 34권 제1호 통권 36호

함석태 특집호

大韓齒科醫史學會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1960년 10월 7일 창립



〈표지설명〉

115년 전인 1900년 프랑스에서 발행한 치약 광고 엽서로, 앞면에 한국을 소개하면서 “DENTOL (치약 이름), 액체 치약, 페이스트 & 가루형 DENTOL, 뒷면을 보시오”라고 써있다 (조영수 감사님 해석, 권 훈 이사님 제공).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학회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치과의사학회 (大韓齒科醫史學會) 는 치의학의 역사를 연구하는 유일한 인증 학회로서, 치의학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려는 목적으로 1960년 10월 7일 창립되어 현재 57주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학회는 역사의식과 인문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창립 이래로 꾸준히 학회지를 발간하여 치과계의 역사를 되새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을 얻을 수 있도록 관련 도서들의 출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치과의사학회 50년사’는 역사적 자료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회의 발전과 회원 간의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이사회와 집담회를 진행하여 역사 및 인문학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국사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역사에 대한 중요성이 환기되고 있습니다. 치의학 역사를 연구하는 학회로써 치과계의 역사의식을 고양하고 치과의사학이 발전해 확고한 학문으로 재정립하도록 적극적인 학회 활동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의 윤리 문제를 살펴보는 인문학에도 초점을 맞추어 현대 사회에서 치과의사의 역할이 단순히 환자만 치료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에 대한 사고를 심화하는 인문학적 소양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치과 역사의 보존이 아닌, 세대별로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가 그 가치에 공감하는 역사 그리고 세대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기록해 나가겠습니다.

대한치과의사학회는 치의학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과거를 통해 현재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넓은 안목을 키우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역사의식 고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장 박 준 봉

목 차

인사말	3
	박준봉 회장(President)
새로 고친 함석태(咸錫泰) 연구(研究)	7
The Study of Suk Tae Ham	
	신재의(Shin, Jae Eui)
한국 최초의 치과 개원의 함석태 (咸錫泰) 탐방	33
	변영남(Byeon, Yeong-Nam)
함석태와 강우규, 그리고 대동단	41
	이해준(Lee, Hae-Joon)
치과의사학 학생발표수업의 실제와 개선방향	93
The actual direction and improving teaching Student Lecture and Presentation in	
Dental History Class	
	이주연(Lee, Jue Yeon)
치과의사학으로 떠나는 프랑스 여행	105
A trip to France through history of dentistry	
	권 훈(Kweon, Hoon)
대한치과의사학회지 투고규정	137
The Regulation of Contributions for the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학회활동	141
Academic Activities	
임원명단	147
List of Board Members	

새로 고친 함석태(咸錫泰) 연구(研究)

The Study of Suk Tae Ham

신재의
Shin, Jae-Eui

1. 머리말
2. 가족, 교육, 나라사랑
3. 치과의사
4. 문화재수집가
5. 결론
6. 참고문헌

새로 고친 함석태(咸錫泰) 연구(研究)

대한치과의사학회 고문 신 재 의

The Study of Suk Tae Ham

Abstract

The western dentistry was introduced to Korea by Japanese and Westerners. There appeared dental technician before dentists in Korea, which was the situation of transitional period. This was when Suk Tae Ham became a dentist.

Suk Tae Ham was born in Youngbyun, Pyeong-An Buk Do Province in 1889, and he was very strict and orthodox but gentle and warm-hearted. Korea became a colony ruled by Japan from 1910 to 1945. When Suk Tae Ham graduated from Japan Dental Professional School in 1912, the formal, systematic dentist system of Korea was not prepared yet. At that time, the regulation for dental treatment were to open a dental clinic and practice dentistry under the control of the Japanese police. Suk Tae Ham was registered as the first dentist in February 5, 1914.

As a dentist, Suk Tae Ham tried to evoke public attention to dentistry. He opened his dental clinic in Seoul in June 19th, 1914 and concentrated his efforts on oral surgery, doing some prosthetic dentistry. When Suk Tae Ham was practiced dentistry, there were 4 Japanese dentists and 1 American dentist in practice in Seoul. Also, there were 3 to 4 Korean dental

technician.

Suk Tae Ham belonged to the Dentists' Society of Kyungsung, but he joined the campaign for dental hygiene, thinking of his own people, Koreans other than Japanese. Dentists were produced under the government regulation and Korean dentist graduating from Kyungsung Dental Professional School opened their own dental clinics. Suk Tae Ham organized the Hansung Dentists' Society for Koreans only and became its president. From 1928 on, this organization arranged departments, established the system for discussion and developed in various areas such as academic research, campaign for dental hygiene and welfare of members. Under Japanese pressure, however, it was joined to the Chosun Dentists' Society United, under which the dentist's society was made in each province. Again under Japanese pressure Hansung Dentists' Society and Kyungsung Dentists' Society was united in October 1st, 1942.

Suk Tae Ham, as a Korean dentist, tried to contribute to Korean people and Korean students and widen the understanding for dental hygiene. He also lectured on dental hygiene. We can find his distinguished capacity of dentistry from his ad, which stated he could do oral surgery which dental technicians couldn't do.

Suk Tae Ham had a keen eye for cultural assets, and he showed his love for his country by collecting them. At the end of Japanese rule there was an order of evacuation and after that he went to his hometown with them. After liberation communist regime was established in the north, when he left his hometown for Hwanghae-Do province and was never heard of ever since. Where has the Geumgangsan Yunjuck(Geumgangsan mountain-shaped water dropper for oriental calligraphy or painting) his favorite antique collection gone?

National Museum Of Korea held exhibition called "treasures from Pyoungyang, North Korea" from June 13 to August 16, 2006. That water dropper is a national treasure of North Korea, and his other 7 cultural assets are there too. But up to now, we don't know how the first Korean dentist, Suk Tae Ham lived or died.

In conclusion, Suk Tae Ham was an intellectual who recognized the situation which the group of his own profession faced in the Japanese rule. He also loved his country and his people. But he didn't seem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Japanese rule which he belonged to.

I. 머리말

일제는 한국 병합 후 한국에 총독부를 설치하여 입법·행정·사법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 통치 방법은 현병경찰제도에 의한 강압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일은 정치·경제·사회·의료계는 물론 치과의료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서양치과의학은 외국인들에 의하여 소개되었다. 1885년 미국인 의사 알렌(Horace N. Allen)이 선교 목적으로 입국하여 제중원에서 행한 구강외과적 시술이 처음이었다. 1897년 서양인 치과의사로 처음 한국에 온 사람은 라빈슨(Robinson)이다. 특히 미국인 치과의사 소어스(Sauers)는 국왕인 고종 황제의 보철 치료를 행함으로서 일반 백성들의 의식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일본인 치과의사 노다 오지(野田應治)는 1893년 7월 이후 인천과 서울에서 개업을 하였다. 그는 구강영역의 질환이나 치아의 결손을 보철하는 한편, 구강검사를 하면서 질병 예방법도 소개하였다. 그 후 일본인 치과의사는 거류민단의 한성병원과 일본 육군의 한국주차군사령부를 통해 입국하여 철도 연변에서 개업을 했다.

이 시기에 일본인 입치사는 치과의사의 수 배에 달하였다. 한국인 입치사는 치과의사보다 먼저 등장하였다. 1907년 최초의 한국인 입치사는 최승룡(崔承龍)이다.

1912년 함석태(咸錫泰)는 일본치과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14년 최초의 한국인 치과의사가 되었다. 함석태에 관한 기록은 아직까지 자료로 남아 있다. 1919년 《매일신보》, 1924년 《동아일보》, 1932년 《매일신보》와 《동아일보》에 게재된 함석태의 글은 당시 치과계 상황과 구강위생계몽활동을 제공하는 자료이다.¹⁾ 1936년 9월 《만선지치계(滿鮮之齒界)》의 함석태의 회고록은 그의 개업 초기 치과계 상황을 보여 준다. 함석태는 일제 강점기에 치과의사라는 전문 직업으로 살아간 사람이었다. 그는 그가 속한 전문 집단의 상황을 파악하고 지도한 자식인이었다. 함석태는 최초의 치과의사로서 당당함을 보여주어 치의학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환기시키려 하였다. 또한 후진의 앞길을 열어주는 데에도 책임을 감당하려 하였다.²⁾ 《조선의보(朝鮮醫報)》의 기록은 함석태가 한성치과의사회를 창립한 이래 회의 체제를 확장하여 지속적으로 이끌어 왔음을 보여 주고 있다.³⁾ 《만선지치계》의 기록은 함석태가 활동한 한성치과의사회가 조선연합치과의사회에 가입한 사실과 일제의 강압으로 해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

박명진⁵⁾, 신인철⁶⁾, 김영창⁷⁾, 최정봉⁸⁾, 안종서⁹⁾, 윤계친¹⁰⁾ 등은 함석태를 한국 최초의 치과의사로 기록하며, 한성치과의사회의 회장으로 한국인만의 한성치과의사회를 이끌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한수는 함석태를

1) 咸錫泰. 〈夏季에 대한 위생문제 구강위생에 대한 주의〉. 《매일신보》, 1919. 7. 23.

咸錫泰. 〈口腔衛生-緊急한 要件〉. 《동아일보》, 1924. 2. 11.

咸錫泰. 〈치과위생의 근본 義에 대하여〉. 《매일신보》, 1932. 10. 14.

咸錫泰. 〈치과위생의 근본 義에 대하여〉. 《동아일보》, 1932. 10. 14.

2) 〈회고록〉. 《滿鮮之齒界》, 1936. 5권 9호, 23-24쪽.

3) 〈雜報 漢城齒科醫師會 役員 改選〉. 《朝鮮醫報》, 1934. 3권 4호, 31쪽. ; 1936. 6권 1호, 21쪽.

4) 《滿鮮之齒界》, 1935. 4권 7호, 42쪽. ; 4권 10호, 33쪽. ; 11권 10호, 37쪽.

5) 朴明鎮. 〈한국의 치과의학〉.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9-10쪽.

6) 申仁澈. 〈한국근대치과의학의 연혁〉.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23-24쪽.

7) 金永昌. 〈8·15후의 치과계 발전상〉.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33쪽.

8) 崔正奉. 〈한국치과계개관〉.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40쪽.

한국인 최초의 정규 치과의사라 했으며 치과와 구강외과 2과목을 표방했다고 하였다.¹¹⁾ 기창덕은 함석태의 일본치과의학전문학교에서의 교육 사정을 밝히고, 《조선의보》에 기재된 한성치과의사회의 역원 명단을 찾아냈다. 함석태가 평양의학강습소에서 발간하는 강의록 《의약월보(醫藥月報)》에 치과학을 연제로 게재된 것을 밝히기도 하였다.¹²⁾ 1933년 《동아일보에》에 의사권한문제 최초의 판결례에서는 조선연합치과의사회장과 함께 한성치과의사회장 함석태의 담화 내용이 게재되었다.¹³⁾ 윤치호¹⁴⁾와 주요한¹⁵⁾의 글에서는 치과의사 함석태의 일화를 볼 수 있었다.

1985년 치과임상편집부는 함석태의 손자 함각(咸珏)의 인터뷰 기사로서 치과의사 함석태 뿐만 아니라 자연인 함석태 그리고 문화재 수집가 함석태를 조명하게 한다.¹⁶⁾ 함석태가 남긴 글〈골동한담〉¹⁷⁾과 〈이조(조선왕조)의 도자기〉 함석태, 〈조선왕조(이조)의 도자기〉¹⁸⁾, 《문장(文章)》의 〈공예미(工藝美)〉¹⁹⁾는 그의 문화재 수집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와 정신세계를 알게 해 준다. 박병래가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에서는 문화재 수집가로서 함석태의 몇 가지 일화를 제공한다.²⁰⁾ 정양모²¹⁾와 장병혜의 글²²⁾과 《매일신보》의 〈취미인 순례기〉 매일신보 기자, 〈취미인 순례기〉²³⁾,에서는 문화재 수집가들의 분위기를 일깨우게 한다. 함석태의 글 중 《매일신보》의 〈묘향의 청산〉²⁴⁾ 함석태, 〈방산심수(訪山尋水)〉²⁵⁾와 〈고전미(古典美)〉²⁶⁾ 그리고 《문장(文章)》의 〈청복반일(淸福半日)〉²⁷⁾은 그가 한문 문장, 시 등을 공부한 인문학적인 교양이 있는 분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그 외 사진과 수필과 그의 호 토선(土禪)이 쓰여진 그림이 남아 있기도 하다.²⁸⁾

함석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2005년 이전까지 시도된 바가 없다. 함석태는 일제 강점기에 치과의사라는 전문 직업인으로 살아간 사람이었다. 그는 그가 속한 전문 집단의 상황을 파악하고 지도한 지식인이었다. 또한 한국인으로 나라와 동포를 사랑한 면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속한 일제의 강제 통치 체제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다. 저자는 이러한 함석태를 자연인, 치과의사로서의 전문인, 그리고 문화재 수집가로 조명해보려 하였다.

9) 〈우리나라 치과계의 今昔談〉,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69쪽.
〈1920~30년대 나의 치과의업 회고기〉,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1. 54쪽.

10) 윤계찬, 〈한국치과의학 발달과정의 고찰〉 1, 2, 3, 《치계》, 2권, 9, 10, 12호, 1968.

11) 李漢水, 『韓國齒學史』, 서울대학교출판부, 1988. 453쪽.

12) 奇昌德, 『韓國齒科醫學史』, 아카데미아, 1995. 奇昌德 편저, 『의학·치과의학의 선구자』, 아카데미아, 1995. 195~202쪽.

13) 〈의사권한문제 최초의 판결례〉, 《동아일보》, 1933. 12. 19

14) 김상태 편역, 『윤치호 일기』, 1916~1943, 역사비평사, 2001. 303쪽

15) 주요한, 『안도산전』, 삼중당, 1975. 341쪽.

16) 치과임상편집부, 〈한국치의학 100년의 재조명—최초의 한국인 치과의사 함석태 스토리〉, 《치과임상》, 1985 ; 6, 23~29쪽.

17) 함석태, 〈골동한담〉, 《매일신보》, 1938. 3. 2.

18) 함석태, 〈조선왕조(이조)의 도자기〉, 《매일신보》, 1938. 4. 10.

19) 함석태, 〈工藝美〉, 《문장》, 1939~1941. 175~177쪽.

20) 박병래, 〈집안망치는 골동〉, 《중앙일보》, 1973. 10. 1. ; 〈금강산 연적〉 1973. 10. 20.

21) 정양모, 『수정선생수집문화재』, 『국립중앙박물관소장유물도록 수정선생수집문화재』, 국립중앙박물관, 1988.

22) 장병혜, 『상록의 자유훈』, 『장랑장택상기념사업회』, 1992.

23) 매일신보 기자, 〈취미인 순례기〉, 《매일신보》, 1928. 3. 16. 함석태의 사진이 있다.

24) 함석태, 〈묘향의 청산〉, 《매일신보》, 1939. 9. 3.

25) 함석태, 〈방산심수〉, 《매일신보》, 1939. 10. 24.

26) 함석태, 〈고전미〉, 《매일신보》, 1940. 4. 7.

27) 함석태, 〈청복반일〉, 《문장》, 1940. 1.

육심 없이 깨끗하고 행복한 반나절이라는 뜻으로 1939년 10월 29일에 성북동 이태준의 집 방문기이다.

28) 함석태, 〈일요일의 봉변〉, 《매일신보》, 1939. 11. 8. 손재형, 〈승설암도〉 1945. 4. 5. 토선이라는 함석태의 호가 쓰여 있다.

노수현, 서향석, 〈비경팀승 장수산행〉, 《동아일보》, 1938. 8. 20. 함석태의 사진이 있다.

당시 문화재 수집가로 함석태를 조명해보려 한 것은 한계가 있었다. 그리하여 2003년 “금강산연적은 어디에 있는가?”로 글을 마무리 할 수밖에 없었다. 글을 보완할 기회는 주어졌다. 2010년 전반에 쓴 김상엽의 글〈한국 근대의 고미술품 수장가 : 치과의사 함석태〉을 보고, 그의 허락 하에 글을 보완하게 되었다.²⁹⁾ 2015년 2월 함석태의 손자 함각(咸玆)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함석태에 관하여 조사, 정리한 이승을 선생을 만나게 되어 크게 도움을 받았다.

II. 가족, 교육, 나라사랑

함석태는 1889년 평안북도 영변군 오리면 세죽리에서 부유한 집안의 독자로 태어 났다. 함석태는 강릉 함씨 희천파(熙川派)이며 호는 토선(土禪)이다. 취미는 서화, 분재, 여행, 하이쿠(俳句), 골동, 꽃꽂이, 특히 전다(煎茶)를 좋아하였다.³⁰⁾ 부친은 함영택(咸泳澤)으로 성균관 진사와 의관(議官)을 지냈으며, 영변 직조 조합장³¹⁾으로, 지역 철도의 기성회원³²⁾으로, 서북학회 회원³³⁾으로 박은식, 이승훈, 안창호 등과 같이 교류하였으며, 민립대학 설립 운동 참여³⁴⁾, 독립군자금³⁵⁾, 간도 동홍중학교³⁵⁾ 및 영변승덕학교, 영변농업학교 기부금³⁷⁾, 국채보상운동³⁸⁾, 안주군 수해 시에 기부³⁹⁾ 등을 볼 때 지방의 부유한 저명인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⁰⁾

고향에선 남의 땅을 밟지 않고 다녔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니까 상당히 부자였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치과임상편집부, 〈손자咸玆의 인터뷰〉, 앞의 글, 24쪽.⁴¹⁾

29) 김상엽, 〈한국 근대의 고미술품 수장가 : 치과의사 함석태〉, 『향토 서울』76호, 2010 ; 251-291쪽.

3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현대인물자료(<http://db.history.go.kr/url.jsp>) 대경성공직자 명감

출신지 : 平安道 寧邊郡 梧里面 細竹洞 61(원적)

현주소 : 京城府 三角町 1

가족관계 : 부 咸泳澤, 모 어머니(64세), 부인(45세), 자녀 장남(28세), 장녀(22세)

학력 : 日露戰爭 당시 일본에서 유학. 1912년 일본 齒科醫科學專門學校를 졸업하고 이후 3년간 實施研究.

경력 및 활동 : 三角町 總代. 1914년 봄에 조선으로 귀국하여 현주소에서 현재 업종에 종사.

 三角町 衛生組合을 조직하고 長이 되어 20여 년간 위생방면에 노력함.

수상 : 漢城齒科醫師會로부터 府內 普通學校 兒童口腔診查 공로자로서 2회 표창 받음.

 1935년 2월 京城府尹으로부터 衛生組合長 20년 근속으로 표창 받음.

취미 특기 : 서화, 분재, 여행, 俳句, 골동, 꽃꽂이, 특히 煎茶를 좋아함.

기호품 : 술, 담배, 떡, 과일.

인물평 외모 : 일본 및 조선 고유의 미풍을 존중하고 상부상조를 강조, 町民의 존경을 받음.

31) 〈영변 직조 조합장: 함영택〉, 『시대일보』, 1926. 5. 28.

 〈영변 직조 조합 감사: 함영택〉, 『동아일보』, 1926. 11. 14.

32) 〈맹강철도 기성 군민대회 개최〉, 『동아일보』, 1923. 8. 9.

33) 〈신입회원 입회비 납부보고〉, 『서우』, 1907. 6. 1.

34) 〈백오십 군에서 민립대학 발기인〉, 『매일신보』, 1923. 2. 20.

35) 〈독립군자금〉, 『동아일보』, 1921. 11. 20., 1924. 1. 14.

36) 〈동홍중학 설립자 대회〉, 『매일신보』, 1925. 8. 31.

37) 〈기부금〉, 『동아일보』, 1922. 10. 29., 1928. 11. 10.

38) 〈국채보상의무금〉, 『황성신문』, 1907. 5. 18.

39) 〈출금 사건〉, 『독립신문』, 1899. 11. 28. 〈出義救人〉, 『황성신문』, 1899. 11. 1. 고도서《日新》, 1899. 9. 29.

40) 李漢水, 『李漢水齒學博物誌』, 석암사, 1976. 137쪽 ; 치과임상편집부, 앞의 글, 23-29쪽.

41) 치과임상편집부, 〈손자咸玆의 인터뷰〉, 앞의 글, 24쪽.

함석태가 당시에는 특별히 생소한 학문이었던 치의학을 택한 것은 함석태의 집(家)에서 학교를 후원하는 등 사회사업을 하며 문명·개화에 관심도 적지 않았을 견문이 작용했을 것이다. 함석태는 유복하고 순조로운 성장만큼 배움의 길도 순탄했다. 그는 1909년 이전에 일본 동경에 유학하였다.⁴²⁾

그러나 함석태의 일본치과의학교(日本齒科醫學校) 입학전의 교육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일본치과의학교의 입학에 자격은 갖추었으리라 짐작된다. 함석태는 일본치과의학전문학교를 1912년에 졸업한 인정과 제2회 졸업생이었다. 1907년 6월 설립시에 일본치과의학교의 수업은 2년제이었으나, 1909년 8월 전문학교령에 의한 일본치과의학전문학교 3년제로 승격되었다. 함석태는 1909년 8월 이전에 입학한 것 같다. 왜냐하면 재학생은 인정과로서 수업을 받고, 전문학교령에 의한 3년제로 승격된 후 입학한 학생들은 지정과로서 수업을 받았기 때문이다.⁴³⁾

함석태는 최초의 치과의사로서 그 당당함을 보여주어 사회에 인식을 환기시키려 하였다. 또한 후진의 앞길을 열어주는 데에도 책임을 감당하려 하였다. 함석태는 금의환국을 바랬으나 조선사회는 치과의학에 대한 이해가 없어 개업을 해도 쉽지 않으리라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이비과(耳鼻科)를 더 전공하고 돌아가려는 마음으로 1913년말까지 동경에 머물렀다. 일본치과의학전문학교 교장 나카하라(中原市五郎) 등은 일본과 조선은 치과의 발전이 완전히 일치하므로 조선은 장래가 유망하리라는 격려를 받고 돌아 왔다.⁴⁴⁾

함석태는 외아들 철훈(哲薰)과 두 딸 순정과 문희를 두었고, 양녀로 강영재(姜英才)가 있다. 함석태의 손자로는 완(玩)과 순(珣), 어렸을 때 죽은 진(珍?)과 옥(玉?), 그리고 막내 각(玗)이 있었다. 함석태의 다섯 손자의 이름은 함석태가 지었으며, 각자마다 임금왕 변(王)이 들어가게 지었다. 완은 1965년경에 사망했고, 순은 6.25 때 실종되었다.⁴⁵⁾

함석태는 절대로 여름에 부채와 흰 구두 흰 모자 흰 양복을 아니 입으며 또 어린아이들을 아무리 늦어도 전차(電車)를 아니 태운다 하였다. 1935년 제2고보(高普: 현 경복고등학교)에 다니는 그 아들도 그 먼 곳으로 도보(徒步)를 시킨다 하였다.⁴⁶⁾

막내 손자 각은 살아남아 증언하고 있다. 함석태는 손자 함각에게는 매우 근엄하고 엄숙하신 편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막내 손자인 함각을 특별히 귀여워해서 식사 때는 겸상을 했는데 함각은 항상 무릎을 단정히 꿇고 앉아 밥을 흘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먹어야 했다.⁴⁷⁾

42) 치과임상편집부, 앞의 글, 23~29쪽.

43) 奇昌德,『韓國齒科醫學史』, 앞의 책, 344쪽.

함석태가 졸업한 日本齒科醫學專門學校는 '임상의그룹 20일회'를 모체로 하였다. 이 '임상의그룹 20일회'는 中原市五郎에 의하여 1901년에 설립되어 학술 연찬과 후진양성에 힘쓰면서 치과의사의 사회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런 중에 1906년 치과의사법에 따르는 公私立齒科醫學校 指定規則이 제정되었다. 1907년 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일본치과의학회'를 결성하고, 6월에 私立公立齒科醫學校 설립을 신청하여 인가를 받았다. 1909년 6월 학교명을 日本齒科醫學校로 개칭되었다. 이 학교는 따라서 이 학교는 치과의사법과 치과의학교지정규칙에 의한 최초의 치과의학교였다. 현재 日本齒科大學이다.

44) 《滿鮮之齒界》, 1936, 5권 9호, 23~24쪽.

45) 치과임상편집부, 앞의 글, 23~29쪽.

46) 「삼천리 싸론」,『삼천리』 제7권 제2호, 1935. 2. 1.

박영철, 윤치호, 한상룡, 함석태 등 4인의 가규(家規: 집안의 규율이나 예법)을 소개하였다. 함석태의 철저한 근검절약 정신을 알 수 있다.

47) 치과임상편집부, 앞의 글, 23~29쪽.

문화재 수집가 박병래에게는 성품이 온아하고 다감한 인정을 가진 분이었다. 박병래보다 여러 해 손위였으나 피차 선생으로 호칭하면서 간절하고 신애가 넘치는 존경심으로 대해왔다.⁴⁸⁾ 이와 같이 함석태는 사회적으로도 유명한 인사들과 교분을 쌓았다. 이들 중에는 손재형, 윤치영, 박병래, 한상억, 한상룡, 이여성, 도상봉, 장택상, 이태준, 김용준, 길진섭, 배정국 등이 있었고, 전형필, 김성수, 조동식, 조만식, 오세창과도 아는 사이였다.⁴⁹⁾

나라와 동포를 사랑한 면도 있었다. 그의 손자 함각의 증언에 의하면 1919년 9월 2일 오후 5시 남대문역(서울역)에서 사이토 미노루(齊藤實) 총독을 저격했던 독립투사 강우규(姜宇奎)의 어린 손녀 강영재(姜英才)를 함석태가 맡아 친딸처럼 키웠다는 것이다. 강영재 집에서 확인한 함석태의 사진 중에는 강영재가 함석태의 자녀들과 어울려 있었다.⁵⁰⁾ 이처럼 함석태가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일제강점기에 양녀로 키웠다는 사실은 함석태의 나라와 동포를 사랑한 면을 보여 주는 중요한 사실이 된다.⁵¹⁾

함석태의 경우에는 문화재를 수집한 것도 나라를 사랑한 일면일 것이다.

조선의 귀중한 고물이 자꾸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이 차마 애석하여져서 힘껏 모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가 모은 중에는 질그릇, 목공, 철공, 죽공 무엇이든지 다 몇 가지씩은 있습니다.⁵²⁾

그는 병원에서 환자를 기다리는 치과의사로서 모든 시비를 떠나고 일체의 경계를 초월하고 싶었을 것이다.

차라리 깨끗하게 모든 是非를 떠나고 一切 境界를 超越하야 저 無色이 흙과 티끌에 묻혀 있는 옛 朝鮮의 工藝美術의 理解 있는 임자가 되어 보고자 하는 것도 또한 猥濫하나마 나의 閑 煩惱의 한 끝이었다.⁵³⁾

그는 모든 일을 초월하여 공예미술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리하여 장택상의 사랑방에 모여 문화재 수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들은 오세창(吳世昌)의 지도로 민족문화재를 수집하는 데 힘을 써 문화재가 일본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았다.⁵⁴⁾ 그는 좋은 경치를 보며 아담한 조선왕조의 사기 연적을 떠올리며⁵⁵⁾, 역사를 생각하며, 사회와 국가의 반성까지도 하였다.⁵⁶⁾

문화재 수집가 함석태는 그 열성이 하도 대단해서 심지어 기인 소리를 들을 정도의 일화를 남긴 분이었다. 특히 작은 물건을 좋아해서 바늘통이며 담배물부리 같은 것을 잔뜩 사 모았다. 이것은 치과의사로서의

48) 박병래, 〈금강산 연적〉, 『중앙일보』

49) 함석태, 〈淸福半日〉, 『문장』, 1939~1941, 158~160쪽.

50) 강영재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교수와 농협중앙회부회장을 지낸 채병석과 결혼했다. 이 가정에서 발견된 사진 속에서 함석태와 그 자녀들과 강영재는 어울려 있었다. 함석태의 사진은 『매일신보』의 '취미인 순례기'와 『동아일보』의 '비경탐승 장수산행'에도 있었다.

51) 치과임상편집부, 앞의 글, 23~29쪽.

52) 함석태, 〈취미인 순례기〉, 『매일신보』, 1928, 3, 16.

53) 함석태, 〈工藝美〉, 『문장』, 1939~1941, 176쪽.

54) 오세창 저, 『국역 근역서화집』상, 하. 서울: 시공사, 1998.

55) 함석태, 〈淸福半日〉, 『문장』, 1939~1941, 158~160쪽.

56) 함석태, 〈工藝美〉, 『문장』, 1939~1941, 175~177쪽.

섬세함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짐작되기도 한다.⁵⁷⁾

함석태는 치과의사로서 1927년 9월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김약수와 1932년 6월 안창호를 치료하기도 했다. 기록에 의하면 안창호는 치아가 무척 나빴던 것 같다. 앞니 6개만 두고 모두 빼야 할 정도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몸은 돌 볼 틈이 없었던 것 같다.

1932년 6월 22일 수요일

9시 30분에 경무국의 미와 씨가 찾아왔다. 그는 한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낯선 사람이 유치장에서 미와 씨로부터 엄중한 취조를 받고 있는 안창호 씨란 걸 알고, 난 소스라치게 놀랐다. 안씨는 27년 동안 너무 많이 변해서, 미와 씨가 소개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를 도저히 알아볼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다. 미와 씨 말로는 안씨의 치과 진료를 위해 함께 치과에 –함석태 씨에게– 다녀오다가 우리 집 부근을 지나는 길에 잠깐 들러 우리에게 인사를 나눌 기회를 주어, 날 놀라게 해줄 심산이었다고 한다. 난 미와 씨의 사려 깊은 친절에 심심한 사의를 표했다.⁵⁸⁾

도산이 상해에서 체포되기 전에 틀니를 할 작정으로 앞니 여섯 개만 두고 나머지를 전부 빼었었는데, 미처 이를 하기 전에 체포되었으므로, 상해 일본 영사관에 구류되는 동안에 아무상 치과의가 출장하여 틀니를 하였었다 한다. 그것이 경기도 경찰부 유치장에 있을 때에 부러져 치과의 함석태가 출장하여 치료했고,⁵⁹⁾ 함석태가 안창호를 치료했다는 사실, 특히 일제의 최첨단 앞잡이 미와가 안창호를 데리고 함석태에게 치료받게 했다는 것은 우연하지 않은 일로서 함석태의 치과의사로서의 명망과 당시 사회에서의 위치를 짐작하게 한다.

III. 치과의사

1) 처음의 의미와 그 후의 치과의사들

함석태는 1912년 일본치과의학전문학교(日本齒科醫學專門學校)를 졸업했으나 한국에서는 치과의사로서 활동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일제는 1913년 11월 15일에 이르러서야 의료 관련 각종 규칙을 공포하였다. 이들 규칙에는 의사규칙(醫師規則), 치과의사규칙(齒科醫師規則), 의생규칙(醫生規則)이 있었다. 이 치과의사규칙에는 치과의사가 되려면 조선총독의 면허를 얻도록 되어 있었다.⁶⁰⁾

이 규칙은 일본 국내의 치과의사법에 따라 문부대신이 지정한 치과의학교를 졸업한 자와 치과의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치과의사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규칙을 제정할 때에는 한국 내에 치과의학교도 없었고 치과의

57) 박병래, 〈집안망치는 골동〉; 〈금강산 연적〉《중앙일보》

58) 김상태 편역, 『윤치호 일기』 1916-1943, 역사비평사, 2001, 303쪽.

59) 주요한, 앞의 책, 341쪽.

60) 〈부령 제101호 치과의사규칙〉《조선총독부관보》, 제389호, 1913. 11. 15.

제1조에 “치과의사가 되고 저 하는 者는 아래의 資格을 가지고 朝鮮 總督의 免許를 얻을 것을 要함.”이라고 되어 있다. “1. 치과의사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치과의술개업시험에 합격한 자.”라 하였다. 이는 치과의사법 제1조에 문부대신이 지정한 치과의 학교를 졸업한 자와 과의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하는 것이었다. “2. 조선 총독이 지정한 치과학교를 졸업한 자.” “3. 외국의 치과의학 교를 졸업하고 또는 외국에서 치과의사의 면허를 얻은 자로서 치과의업을 영위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사시험제도도 없었다.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치과의사가 되는 방법이 없었고 다만 일본이나 외국에서 동등의 자격을 얻는 길뿐이었다.

일제는 통치 방침으로 질서 유지를 언명하였는데, 그 방법은 현병경찰제도에 의한 강압적인 것이었다. 치과의사는 의사와 의생과 같이 개업과 의료행위까지 경찰의 감시를 받게 했다. 치과의사규칙에 따른 취급수속이 12월 11일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훈령 갑 제45호로 제정되었다.⁶¹⁾ 이렇게 함석태는 전문학교 졸업 후 규칙과 취급수속이 마련되고 1914년 2월 5일에 이르러서야 치과의사면허 제1호로 등록한 치과의사가 되었다.⁶²⁾

함석태는 처음이라는 의미를 갖는 치과의사로서 당당함을 보여주어 사회에 치과의학에 관한 인식을 환기시키려 하였다. 그는 1914년 6월 19일경에는 서울 남부 곡교(신가 삼각정 1번지 전화 본국 79번) 부근에서 건물을 신축하고 개업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수술무료’라는 안내를 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그가 수술에 있어서는 입치사와는 달리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어 개업의 방편으로 ‘수술무료’를 안내하고 있었을 것이다.⁶³⁾ 이 ‘수술무료’는 발전하여 1924년경에는 치과와 동등하게 구강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함석태는 보철 등 치과일반을 치료하면서 구강외과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⁶⁴⁾

함석태가 개업한 1914년경 서울의 치과의료계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일본인 치과의사가 4명 개업하고 있었고⁶⁵⁾, 미국인으로 1906년 1월에 한국 서울에 주재하는 치과의사 한(David Edward Hahn)이 한국명 한대위(韓大偉)로 개업하고 있었을 뿐이었다.⁶⁶⁾ 한편 일본인 입치사들이 통제가 없는 한국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입치사는 치과의사의 몇 배가 되었다. 한국인 입치사들도 3~4 명이 치술원을 개원하며 서양치과의학의 도입과정에서 대행계층(代行階層)으로 서양치과의학을 수용한 치과의료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다.⁶⁷⁾

일본인 치과의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함석태는 ‘독무대’로 몇 년을 지내게 되었다.⁶⁸⁾ 1919년 김창규(金昌圭)⁶⁹⁾가 광화문에서, 1921년 이희창(李熙昌)⁷⁰⁾이 무교동에서 개업을 했으나 개업이 순조롭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⁷¹⁾ 한편 1917년 한동찬(韓東燦)⁷²⁾은 평양에서, 1922년 임택룡(林澤龍)⁷³⁾은 세브란스 병원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렇게 한국인 치과의사는 5명 정도가 있었다.

62) 〈의적등록 치과의사부〉《조선총독부관보》, 제482호, 1914. 3. 11.

63) 〈광고〉《매일신보》, 1914. 6. 19.

64) 〈광고〉《동아일보》, 1924. 원단.

65) 咸錫泰, 〈口腔衛生-緊急한 要件〉, 《동아일보》, 1924. 2. 11.

即 距今 十年前 大正三年(1914년)에 本人이 開業할 當時에 京城에 日本人 齒科醫師가 四人이요 朝鮮人側으로 本人이 一人이던바

66) H. B. Hulbert, 『The Korean Review』, 6, 1906, pp.315.

67) 《滿鮮之齒界》, 1936. 5. 권 9호, 23~24쪽.

68) 咸錫泰, 〈口腔衛生-緊急한 要件〉, 《동아일보》, 1924. 2. 11.

日本人 同業者는 恒常 本人을 向하여 君은 獨舞臺이낫가 조흐리라고 하고 稱贊합니다 만은이 獨舞臺야 말로 무슨 意味의 獨舞臺임낫 가 暫間 對答하기 거북합니다. 假令 覆巢之下의 一卵이 完全하蔫다면 그런 意味의 獨舞臺가 안인가 하고 自愧自歎합니다.

69) 〈의적등록 치과의사부 제10호〉《조선총독부관보》, 제1682호, 1920. 4. 20.

동양치과의학전문학교(현 일본대학 치학부)졸업

70) 〈의적등록 치과의사부 제17호〉《조선총독부관보》, 제1682호, 1922. 1. 14.

日本齒科醫學專門學校 졸

71) 咸錫泰, 〈口腔衛生-緊急한 要件〉, 《동아일보》, 1924. 2. 11.

即 距今 十年前 大正三年(1914년)에 本人이 開業할 當時에 京城에 日本人 齒科醫師가 四人이요 朝鮮人側으로 本人이 一人이던바 今十年後 大正十三年(1924년)에 至하여 日本人은 二十一人이 되고 朝鮮人은 亦一人에 不過하오니 참으로 可惜可愧한 일이 아니오낫가 無論 朝鮮側으로도 其間에 一二人的 開業者가 有하얏스나 如何間 存續치 못하는 것을 보면 此로써 우리 社會의 口腔衛生思想의 程度를 可知할 것이 올시다.

이러한 일본인 치과의사들이 말하는 '독무대'는 치과의사시험규칙에 의하여 치과의사가 배출되므로 끝나게 되었다. 조선총독부 치과의사시험규칙은 1921년 2월 14일에 공포되었다. 치과의사규칙이 발표된 후 8년 만의 일이었다. 조선총독부치과의사시험규칙의 시행 주무부서가 총독부 경무국 위생과로 이 시험에서도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경찰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⁷⁴⁾ 1921년 10월 9일 제1회 치과의사시험에서 고상목(高相穆)이 합격하였다.⁷⁵⁾ 1922년 9월 13일 제2회 시험에서 배진극(裴珍極)⁷⁶⁾, 이성모(李成模), 변세희(邊世熙)⁷⁷⁾, 이상철(李相喆)⁷⁸⁾, 유창선(俞昌宣)⁷⁹⁾이 합격되었고⁸⁰⁾, 1923년 5월 16일 시험에서 김연권(金然權)이 합격하였다.⁸¹⁾

72) 〈의적등록 치과의사부 제9호〉《조선총독부관보》, 제1682호, 1918. 3. 18.

東京齒科醫學專門學校 毕業

73) 이희창의 1년 후배, 1922년 귀국, 日本齒科醫學專門學校 毕業

74) 〈조선치과의사시험규칙〉《조선총독부관보》, 제2550호, 1921. 2. 24.

조선총독부령 제27호인 조선총독부치과의사시험규칙 제1조에는 시험은 매년 京城에 시행하며 시험기간은 告示하도록 되어 있었다. 제2조에는 시험을 제1부와 제2부로 나누어 보도록 하였다. 제1부는 藥理學(組織學 포함), 生理學, 病理學(細菌學 포함), 口腔外科, 齒科治療學(齒科矯正學 포함), 齒科技工學였으며, 시험은 치과의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와 정도였다. 제2부는 實驗시험으로 口腔外科學, 齒科治術學, 齒科技工學였다. 제3조는 시험을 제1부와 제2부를 나누어 치룰 수 있게 했으며, 제1부를 합격한 자에 한하여 제2부 시험을 볼 수 있게 했다. 제4조는 시험자의 자격으로 3년 이상의 치과학교를 毕業했던가 또는 5년 이상 치과의술을 修業한 자로 하였다.

75) 〈의적등록 치과의사부 제16호〉《조선총독부관보》, 제2824호, 1922. 1. 14.

《동아일보》, 1921. 10. 16.

九日 施行한 第一回 朝鮮總督府 齒科醫試驗은 受驗者 總員이 四十名인 바 合格者는 左記六名이라더라. 合格者, 高相穆 外 日本人 五人

76) 〈의적등록 치과의사부〉《조선총독부관보》, 제39호, 제3385호, 1923. 11. 14.

77) 〈의적등록 치과의사부〉《조선총독부관보》, 제25호, 제3102호, 1922. 12. 13.

78) 〈의적등록 치과의사부〉《조선총독부관보》, 제22호, 제3073호, 1922. 11. 14.

79) 〈의적등록 치과의사부〉《조선총독부관보》, 제24호, 제3102호, 1922. 12. 13.

80) 1922년에는 배진극, 이성모, 변세희, 이상철, 유창선 등 5인이 합격하였으니 기록은 다음과 같다.

《동아일보》 1922. 6. 28.

本年 十月 朝鮮總督府에서 醫師, 齒科醫師 試驗을 施行할 터인데 期日 等은 左와 如하더라.

齒科試驗: 期日 1922년 9월 13일부터.

○ 試驗場所: 京城醫學專門學校

○ 願書締切: 1922년 8월 15일

○ 願書提提出官廳: 朝鮮總督府 警務局 衛生課

1922. 8. 15.

齒科醫 開業試驗 來 9月 13일부터 總督府에서 施行할 齒科醫師 開業試驗 受驗者는 19名 이더라

1922. 9. 17.

齒科醫 試驗 終了

第2回 齒科醫師試驗은 去 13일부터 總督府醫院內 齒科學校에서 施行한 事는 既報와 如하거니와 同日 試驗者는 50명인데 15일로써 學說 試驗을 終了하았더라.

1922. 9. 22.

齒科醫 合格者 總督府醫院에서 施行한 齒科醫師 試驗에 合格한 者 中 朝鮮人인 左와 如하더라.

齒科醫師 試驗 合格者

李成模, 裴珍極, 邊世熙, 李相喆, 劉昌宣, 同第一部 學說 試驗合格者 方貞均

81) 〈의적등록 치과의사부〉《조선총독부관보》, 제41호, 제3619호, 1923. 9. 4.

《동아일보》, 1923. 2. 14.

總督府에서는 齒科醫師 規則 第1條에 依하여 來 5월 16일부터 京城醫學專門學校에서 齒科醫師의 試驗을 施行할 터이라는 此에 應코자 하는 人은 4月 15일까지 齒科醫師 試驗規則 第六條에 規定한 願書, 添付書類 及 사진을 具하야 總督府警務局 衛生課에 提出함이 可하더라

《동아일보》 1923. 3. 23.

齒科醫師試驗 1923년도 朝鮮齒科醫師 시험은 5월 16일부터 京城醫學專門學校에서 施行할 터인데 受驗志願者는 4월 16일까지 警務局 衛生課에 願書를 提出함이 可하더라

《동아일보》 1923. 6. 4.

過般에 舉行한 第三回 齒科醫師試驗에 合格한 者는 9명인데 日本人인 八名이요, 朝鮮人은 多年 總督府醫院 齒科에서 勤務하든 金然權氏가 合格되잇다더라

정리하면 함석태는 1912년에 일본치과의학전문학교를 졸업했다. 한국에 치과의사 제도가 마련되기 이전에 졸업한 것이었다. 제도가 마련되자 함석태는 1914년 2월 5일에 치과의사면허 제1호로 등록하였다. 함석태는 1914년 6월 19일경에는 서울 남부 곡교 부근에서 개업을 시작하였다. 함석태는 보철 등 치과일반을 보면서 구강외과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2명의 치과의사가 개업을 했으나 개업이 순조롭지 못한 것으로 보였으며, 치과의사규칙에 의하여 치과의사가 배출되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의 치과의사의 개업과 의료행위는 경찰의 감시를 받는 제도였다.

2) 최고의 의미와 한성치과의사회

한성치과의사회의 설립의 배경은 이러하다. 함석태는 개원한 후 몇 명이 안 되는 치과의사였기 때문에 자연히 일본인 동업자들에게서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함석태는 동업자들의 모임인 경성치과의사회에 참가하여 친교를 가지게 되었다. 그는 경성치과의사회의 한 사람으로 일본인 초등학교 학생들의 구강검사 또는 치아위생에 대한 계몽운동에 동참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와 초등학교의 구강위생에 대하여 봉사할 결심을 새롭게 하였다.⁸²⁾

1925년 3월 21일 동아일보 가십(gossip)란 “휴지통”에 이러한 기사가 있었다.

경성치과의사회는 회원 20여명 중 조선 사람으로는 함석태씨 한 사람이 섞여 있었는데 사회봉사사업으로 시내 일본 소학교아동에게 구강진찰을 하여 오던 중 함석태씨가 종로 소학교를 받게 되었으나 그 학교 교장 片岡이라는 사람은 조선사람 의사는 우리 학교에 일이 없다고 거절을 하였다던가. 아가리로는 소위 일선 융화를 부르짖는 자들이 모다 이 모양이다. 조선 사람의 손에 입을 벌려 나를 보이는 것이 그다지 대화민족의 수치가 되더란 말인가? 그 따위 것들을 드러내 말할 거리도 못되고 토심스러운 일이 그 뿐이랴 만은 휴지통 이니까 한 자루 쓸어 집어넣어 보는 것이다.⁸³⁾

이를 보면 일제강점기 조선인 치과의사에 대한 일본인의 편견과 무시를 알 수 있다.

1922년 4월 1일 개교한 경성치과의학교에서 한국인 학생들은 배움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교육 환경은 일본인들의 그것과 같을 수는 없었다.

“허다한 국난과 불가피하게 봉착하는 애로를 극복하여야만 하는 학창생활 가운데 학문의 탐구에 전력하는 동시에 적들에 대한 유형무형의 항쟁 또한 계을리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듯 역경과 싸우면서 수업한 연후에는 거의 대다수가 다만 습득한 임상 기술을 응용하는 치과 개업의로서 비교적 안이한 생업을 택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학창에 정진하고자 하는 자는 극소수에 한하였던 것이다.”⁸⁴⁾

82) 咸錫泰, 〈口腔衛生-緊急한 要件〉, 《동아일보》, 1924. 2. 11.

83) 〈휴지통〉, 《동아일보》, 1925. 3. 21.

84) 金永昌, 〈8·15후의 치과계 발전상〉,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33쪽.

대부분의 치과의사는 학창생활을 국난과 애로를 극복하며 학문의 탐구와 유형무형의 항쟁 또한 계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업을 마친 후에는 임상 기술을 응용하는 개업의로서 비교적 안이한 생업을 택하게 되었다. 계속적으로 학창에 정진하고자 하는 자는 극소수뿐이며 한국을 떠나 생활하는 이들도 있었다.

세브란스를 사직하고 빠고다공원 뒤에서 2~3개월 개업을 하다가 곧 천진으로 갔다. 빠고다공원 뒤 2층 기와집에서 개업을 하니 첫 달 수입이 700엔이었는데 이것은 당시의 일반의사들도 별 수 없는 거액이었지만 나로서는 그래도 수지가 맞지 않았다.

내 포부뿐 아니라 그때 젊은이들의 포부는 최근 청년들의 그것과는 비할 수 없을 만치 크고 높은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크게 좀 더 광대한 지나 대륙에나 가서 힘껏 일해 보고 싶은 생각을 했다. 그러자 천진에 있는 명성 높은 중국인 상류층 가정 출신들이 공부하는 남개대학에 치과교의로 갔다.⁸⁵⁾

이러한 상황에서 뜻 깊은 하나의 단체가 탄생되었다. 한국인만의 한성치과의사회(漢城齒科醫師會)가 설립된 것이다. 한성치과의사회는 1925년 4월 15일 경성치과의학교 제1회로 졸업한 젊은 치과의사들의 제안에 의하여 1925년에 조직된 치과의사회였다.⁸⁶⁾ 함석태는 한성치과의사회의 회장이 되었다. 총무에는 경성치과의학교 제1회로 졸업한 안종서(安鍾書)를 선임하였다. 설립 초기의 회원은 7명으로, 김용진(金溶瑨), 최영식(崔永植), 박준영(朴俊榮)은 경성치과의학교 제1회 졸업생이었고, 조동흠(趙東欽)은 1925년 오오사까(大阪)치과의학전문학교 졸업생이었고, 김연권(金然權)은 1923년 5월 16일 치과의사시험에서 합격하였다.⁸⁷⁾

함석태는 한성치과의사회의 회장으로 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 회원은 매년 증가되었다. 1926년에는 문기옥(文箕玉), 이수만(李壽萬)이 입회하였고, 1927년에는 신현식(申獻植), 신응현(申應鉉)이 참가하였다. 1928년에는 박명진(朴明鎮), 장지원(張志遠), 김종찬(金鐘贊), 남수희(南壽熙), 신인철(申仁澈), 이유경(李有慶), 김용봉(金溶奉), 이천홍(李天興)이 가입하여 회원이 20명이 되었다⁸⁸⁾. 또한 1933년 말 총회에서 선출된 이동환(李東煥), 정보라(鄭保羅), 김종환(金鐘煥), 조경호(趙敬鎬) 등의 이름이 보이는데 이들은 1928년 이후에 입회한 회원으로 추정된다.⁸⁹⁾ 이와 같이 1936년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에 정보라(鄭保羅) 이외에 안병식(安炳植), 한도수(韓道洙), 이수만(李壽萬), 김철용(金喆庸) 등도 1928년 이후에 가입된 회원일 것이다.⁹⁰⁾

함석태는 1928년도부터는 각 부서를 결정하여 회의 체계를 확립시켰다. 설립 시에는 회장과 총무뿐이었으나 1933년 12월 31일 총회에서는 부회장이 추가되었고 이사와 평의원제를 채택한 것은 회의 체계를 확립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1933년 12월 31일 총회에서는 임원이 개선되었다. 회장에는 함석태가 유임되었고, 부회장에 조동흠이 선임되었다. 이사에는 이동환(李東煥), 이유경, 최영식, 평의원에 박명진, 정보라, 김

85) 安鍾書, 〈1920~30년대 나의 치과의업 회고기〉, 54쪽.

86) 불행히도 설립한 월일은 전하지 않는다. 경성치과의학교 졸업생이 나온 후라 했으니 4월 15일 이후 일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87) 安鍾書, 〈우리나라 치과계의 今昔談〉, 69쪽.

1925년에 치과의사회를 한국사람끼리 조직하였다. 그때의 초대회장은 함석태였고 회원은 전부가 7명 김용진, 김용권, 조동흠, 김창규, 박준영 그리고 나 안종서였다. 재미있는 것은 회원 7명이기에 모두가 간부요 모두가 회원이라는 것이었다.

88) 申仁澈, 앞의 글, 23~24쪽.

89) 《朝鮮醫報》, 3권 4호, 31쪽. 1934.

90) 《朝鮮醫報》, 6권 1호, 21쪽. 1936.

종환, 남수희, 조경호를 선출하였다.⁹¹⁾

1936년 총회에서도 함석태는 회장으로 유임되었고, 부회장 조동흠이었다. 이사에는 정보라, 최영식, 남수희, 평의원에 박명진, 안병식, 한도수, 이수만, 김철용을 선출하였다.⁹²⁾ 이 평의원제를 채택한다는 사실은 많은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평의원을 선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함석태는 전국적인 단체인 조선치과의학회 및 조선치과의사회에도 참석하는 등 당시 의료계의 체제를 벗어날 수는 없었다. 1927년과 1928년 조선치과의학회 총회에서는 연회제에 역원으로⁹³⁾, 1928년 7월의 경성 치과의사회에서는 간사로 참석하였다.⁹⁴⁾ 그는 1936년과 1938년에는 한성치과의사회를 대표하여 조선연합 치과의사회의 평의원이었다.⁹⁵⁾ 1936년과 1937년 6월 4일 충치예방(蟲齒豫防)의 날에 한성치과의사회는 회원과 협력하여 무료 검사 및 치료를 하기도 했다. 특히 1937년 6월 4일 한성치과의사회회장 함석태는 제2방송을 통해 충치예방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⁹⁶⁾ 그는 1941년 5월 4일 경성 중앙그리스도청년회관에서 한성치과의사회의 주최로 구강위생 및 학생의 건강을 위한 강연 및 영화회를 경성치과의사회와 나누어 실시하기도 했다.⁹⁷⁾ 1943년에는 조선치과의사회 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⁹⁸⁾

함석태가 회장으로 재직하던 1935년 9월 25일 한성치과의사회는 조선연합치과의사회에 가입하게 되었다.⁹⁹⁾ 이때까지의 치과의사회는 임의 단체였으므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 한사람 한사람을 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부산치과의사회에서 발발된 분규로 통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통제는 치과의사 한 사람 한사람을 치과의사회에 강제입회의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¹⁰⁰⁾ 이것은 법정치과의사회의 견으로 정착되어, 실시 촉진하자고 했다.¹⁰¹⁾ 조선연합치과의사회가 법정치과의사회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인만으로 구성된 한성치과의사회에게 가시적인 어려움이 작용하여 한성치과의사회는 조선연합치과의사회에 가입하게 된 것이다.

한성치과의사회는 1935년 이후 경성치과의사회와 같은 치과의사회로 서울에서 활동하였다. 1936년, 1937년의 충치예방의 날과 경성치과의사회의 간친회, 25주년행사, 그리고 군사후원연맹가맹, 1938년의 경성치과용품조합 조합기 입hon식, 1941년의 치아와 건강전람회, 조선치과용품상조합이 상업조합령으로 발족할 때에 한성치과의사회는 경성치과의사회와 동등한 자격으로 참석하였다.¹⁰²⁾

1940년 일제는 국방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총력운동 조선연맹을 만들어 모든 분야를 통제하고 있었다. 국민총력운동의 일환으로 의료계는 위생사상의 보급이라는 명분으로 통제되고 있었다. 조선총독부 위

91) 《朝鮮醫報》, 3권 4호, 31쪽. 1934.

92) 《朝鮮醫報》, 6권 1호, 21쪽. 1936.

93) 《조선치과의학회 잡지》6권, 1927. 38~39쪽.; 1928. 10권, 40~43쪽.

94) 《조선치과의학회 잡지》, 1928. 8권, 33쪽.

95)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편찬위원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사》, 1995. 141, 146쪽.

96)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편찬위원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사》, 1995. 141, 143쪽.

97) 최효봉, 이병태. 〈요람시대의 우리나라 치과 14〉. 《치과연구》1987. 22권 3호. 50쪽.

98) 최효봉, 이병태. 〈요람시대의 우리나라 치과 17〉. 《치과연구》1987. 22권 6호. 49쪽.

99) 《滿鮮之齒界》, 1935. 4권 7호, 42쪽.; 4권 10호, 33쪽.

조선연합치과의사회 총회에 한성치과의사회가 험흉, 목포, 신의주, 전주, 광주, 평남, 수원, 개성의 치과의사회와 함께 한성치과의사회가 참석하였다.

100) 《滿鮮之齒界》, 1권 1호, 32~35쪽.

101) 朝鮮聯合齒科醫師會 總會는 1933년, 1934년, 1935년, 1939년에 법정치과의사회 문제를 의안으로 채택했다.

102)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편찬위원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사》, 1995. 135, 137, 141, 142, 143, 147, 152, 162쪽.

생과장 니시카매 산께이(西龜三圭)는 조선연합치과의사회 총회에 매번 참석하는 내빈이었다. 그는 실제로 의안이 총독부와 관계된 문제에는 직접 관여했다.¹⁰³⁾

1940년 3월 31일 조선연합치과의사회 제18회 총회는 도치과의사회 설립에 관한 건을 통과시켜 조선연합 치과의사회 아래 도 단위 치과의사회를 발족하였다. 이 도 단위 치과의사회는 자재 배급 등을 이용하여 통제와 억압을 하게 된다.¹⁰⁴⁾ 1941년 3월 23일 조선연합치과의사회 소속 가맹회장 회의에서 조선연합치과의사회 개조의 건으로 종래의 각 지방 치과의사회는 도 산하로 들어가고, 그 후 각 지방 치과의사회는 자연히 소멸되도록 결정했다.¹⁰⁵⁾

다음으로 조선연합치과의사회는 법적인 뒷받침을 하려 하였다. 1941년 5월 25일 제19회 총회에서 치과의사회령 발포 촉진에 관한 건과 1942년 5월 24일 제20회 정기총회에서 치과의사회령 발포에 관한 건이 통과된 것이 그러한 것이다.¹⁰⁶⁾ 이 후 일제는 서울에서 1942년 10월 1일에 한성치과의사회를 경성치과의사회와 강제로 합치게 한다.¹⁰⁷⁾ 이렇게 한성치과의사회는 일제의 통제와 압력으로 와해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성 치과의사회는 자랑스럽게 회의록 등은 남길 수 없었으나 의연하게 존재했음이 증명되고 있다.¹⁰⁸⁾

한성치과의사회의 설립 시에는 친목기관으로 매주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회원이 증가되고 회의 체계가 확립되자 회(會)의 목적은 친목 이외에 학술연구, 구강위생계몽, 회원복리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성치과의사회에서는 실패담 또는 성공담 등의 임상적 토론을 통해 상호간에 지식을 교환하는 정도로 회 운영이 잘 되었다고 중언되고 있다.¹⁰⁹⁾

3) 구강위생계몽

함석태는 구강위생계몽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치과의생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었다. 그는 1913년 의생규칙(醫生規則)이 반포되어, 종래의 한의사들이 의생면허를 얻게 됨에 따라 서양의학에 의한 소독법과 위생법에 관한 강습이 요청되었기 때문이었다. 함석태가 평양의학강습소에서 발간하는 강의록 《의약월보(醫藥月報)》에 치과학을 연제로 게재한 것은 통신교육으로 의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교육한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¹¹⁰⁾

함석태는 개업 안내 광고에서도 차별화된 구강위생계몽활동을 발견할 수 있다. 그의 개업안내 광고를 보면 ‘수술무료’라는 강조된 문귀를 볼 수 있는데 이는 함석태가 보철 등을 하면서 구강외과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 표현은 입치사들은 하지 못하며 출혈이 오는 구강외과 수술은 치과의사만이 치료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03) 최효봉, 이병태, 〈요람시대의 우리나라 치과 보완편5〉, 『치과연구』 1988, 23권 6호, 66–75쪽.

104) 이 문제는 1940년, 1941년, 1942년, 1943년 朝鮮聯合齒科醫師會 總會의 주요 안건이었다.

105)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편찬위원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사』, 1995, 160쪽.

106)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편찬위원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사』, 1995, 161, 164쪽

107) 《滿鮮之齒界》, 1942, 11권 10호, 37쪽.

108) 1942년 한성치과의사회가 경성치과의사회와 합병할 때의 이사장은 조동흠이었고, 회장은 박명진이었다.

109) 申仁澈, 앞의 글, 23–24쪽.

110) 奇昌德 편저, 『의학·치과의학의 선구자』, 아카데미아, 1995, 200쪽.

咸錫泰 齒科 口腔科醫院 敢히 時代의 要求에 順應하야

簡單히 紙上으로써 年賀의 禮를 略함

咸錫泰

京城府三角町 一番地 電話(本局) 七九番¹¹¹⁾

함석태는 한국 사회에서나 교육계에서 일반위생과 구강위생을 이해해 주기를 바랬다. 그는 지난 10년을 한결 같이 치과의사로서의 사회봉사를 했다. 그는 또한 한국인 치과의사로서 일본인 치과의사와는 다른 점이 있었다. 그는 독무대로 인구비례에서 일본인들에 비하여 유리하나 개업이 어려웠고, 일반대중의 위생관념 부족으로 직업인으로서 한국인 치과의사는 힘든 상태였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대조적인 치과이용 현상을 말한 것이다.

十年前 大正三年(1914년)에 本人이 開業할 當時에 京城에 日本人 齒科醫師가 四人이요 朝鮮人側으로 本人이 一人이던바 今十年後 大正十三年(1924년)에 至하여 日本人은 二十一人이 되고 朝鮮人은 亦一人에 不過 하오니 참으로 可惜可愧한 일이 아니오Nit가(中략)

此可憐한 獨舞臺의 過程을 經過하는 十年の 長一月에 自己營業 以外의 무슨 齒科醫로서의 社會奉仕의 何等努力이든지 辭치 아니 하겠다는 생각은 實히 繼綿不絕이었습니다. 그러나 此方面으로 우리 社會의 衛生觀念이一向不進하니 至今形便으로는 不禁이 自禁으로 朝鮮社會와는 相互交涉이 적어지고(中략) 願컨데 우리一般社會나 教育家에서도 좀 더 一般衛生 乃至 口腔衛生을 理解하여 주면 비록 一個人의 微力으로라도 幸히 附職의 望을 達할가 하나이다.¹¹²⁾

함석태는 한국 학생의 구강의 건강상태는 실지조사한 일이 없어 명확하지 못하였으나 가정에서 학생의 구강위생에 주의하기를 바랬다. 한국인 학교는 구강검사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함석태는 일본인 치과의사가 부족하여 일본인 학교에 가서 구강검사를 하였다. 함석태가 검사한 日本 학생의 구강검사 성적은 충치 없고 치아의 발육이 완전한 학생이 사꾸라이(櫻井)소학교 학생수가 963명중에 7~8명에 불과하니 1%가 끝되었다. 함석태는 이러한 통계와 비교하여 한국인 학생의 구강위생에 관심을 보였다.

함석태는 한국인 학생의 칫솔질에 관심을 가졌다. 한국인 학생의 칫솔질에 있어서도 일본 학생과 비교했을 뿐만 아니라 이 닦는 습관과 치아치료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중에게 구강위생에 관한 설명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 사회에도 중류 이상은 대개 니솔을 쓰고 치약을 쓰는데 칫솔을 쓰고 나서 음습한 곳에다 두었다가 그 이튿날까지 마르지 아니한 것을 그대로 쓰는 일이 흔하니 이렇게 습한 것에는 균이 붙었을지라도 모르고 전염병이 발생할 염려도 있으니 되도록은 일광에 말리어서 쓰게 함이 좋을 것이오.¹¹³⁾

111) 《동아일보》, 1924년 원단 광고

112) 咸錫泰, 〈口腔衛生-緊急한 要件〉, 《동아일보》, 1924. 2. 11.

齒刷子의 使用率 卽 每日 規則的으로 養齒를 하는 兒童의 數를 調査한 比例로 말称之하여 보면 小學敎生徒 一學年으로 四學年까지의 兒童年齡이 七八歲로 乃至 十, 十一歲間인데 此程度 兒童의 齒刷子 使用하는 數가 大略 百에 對하여 二十 乃至 三十이나 됩니다. 그런데 朝鮮兒童의 同程度의 年齡으로 每日 正規(正規)로 이를 닦는 數가 如何할가 하면 더욱 小數로 생각합니다. 其理由는 日本 兒童의 使用하는 齒磨粉은 甘味가 있고 容器가 美麗하고 잇솔이 입부닛가 兒童이 一種 好奇心으로 玩具品가치 使用하는 故로 不知不識間에 習慣이 되야 每日 계속 使用하지 만은 朝鮮兒童은 家庭의 自來慣習에 依하여 多部分은 齒磨用으로 食鹽을 使用하나니 食鹽은 鹹刺할 뿐 아니라 此를 手指에다 웃쳐서 딱그라고 命令的으로 가르친데야 到底히 兒童心理에 嗜好할 배萬無합니다. 그럴뿐 아니라 食鹽養齒일망정 어른들이 規則的으로 勵行시키는 家庭도 僅少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京城가튼 都會地兒童들은 朝鮮兒童들도 日本兒童과 가치 菓子나 糖分을 만히 먹습니다. 그러면 齒牙를 破壞하는 것은 가치하고 此를豫防하는 것은 그와 가치 떠려지면 그 結果가 如何하게옵니까 實로 彼此의 重大問題입니다.

日本兒童의 健康齒牙가 百對一이 弱한 比例 보담도 또 數倍띠려 질 것이 올시다. 그러면 齒牙健康은 全部 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比例를 熟知하시는 有志와 兒童을 親愛하시는 諸君은 此 口腔衛生의 問題를 더욱 注意 研究할 必要가 切實합니다.¹¹⁴⁾

칫솔은 소독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칫솔의 사용률로는 매일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일본 학생은 연령이 7~11세에서 20~30%였다. 그러나 한국 학생은 양치를 하는 관습 때문에 더 적을 것이다. 일본 학생이 사용하는 치약과 칫솔은 좋은 것을 사용하는 반면에 한국 학생은 식염을 손가락으로 문지르게 한다. 이처럼 소금과 손가락으로 닦는 습관과 치아치료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중에게 구강위생에 관한 설명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당시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식염 양치일망정 어른들이 규칙적으로 시키는 가정도 적다. 서울의 한국 학생들도 일본 학생과 같이 과자나 당분을 많이 먹게 되었다. 충치를 예방하는 것은 실로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 학생이 일본 학생의 치아 건강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이를 숙지하여 구강위생의 문제를 더욱 주의하여야 하겠다는 내용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1920년 11월 5일 일본연합치과의사회와 동경시치과의사회가 공동 주체로 내무성 지원 아동위생전람회를 계기로 '우치(齲齒)의 날' 행사를 하였다.¹¹⁵⁾ 서울에서는 1926년 5월 4일 '호치일(護齒日)'로 정하고 구강위생계몽을 하게 되었다. 1927년에는 구강위생강연회를 하였다.¹¹⁶⁾ 1928년 제1회 '충치예방의 날'은 각 치과의사회, 문부, 내무성의 지원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가 되었다.¹¹⁷⁾

1930년 일본인들이 조선치과의사회 주최로 "충치예방의 날"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할 때까지 한성치과

113)咸錫泰, 〈夏季에 대한 위생문제 구강위생에 대한 주의〉, 《매일신보》, 1919. 7. 23.
원문을 현대어로 고쳤음

114)咸錫泰, 〈口腔衛生-緊急한 要件〉, 《동아일보》, 1924. 2. 11.

115) 회사편찬특별위원회, 『동경치과의사회70년사』, 사단법인 동경치과의사회, 1968. 196쪽.

116) 신인철, 앞의 글, 23쪽.

117) 『동경치과의사회70년사』, 앞의 책, 196쪽.

의사회에서는 단독으로 나름대로 행사를 하기도 했으나 한국인 치과의사는 일본인 치과의사와 공동으로 운영하기도 하였다.¹¹⁸⁾ 이 행사는 학교와 사회를 위하여 계획되어 구강검사를 비롯하여 구강위생상담, 무료진료, 강연, 표어모집, 팜프렛 제작 배포, 전람회, 슬라이드 및 영화 상영 등을 행하였다.

이와 같이 함석태는 최초의 한국인 치과의사로서 생활하는 가운데 한국 사회와 한국 학생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1928년 제1회 ‘충치예방의 날’이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가 되기 이전부터 한결 같이 한국인 치과의사로서 사회봉사를 하려 했다. 그는 위생관념의 부족을 한국 사회에서나 교육계에 좀 더 일반위생과 구강위생을 이해의 폭을 넓히려 하였다. 함석태는 일본인 학교에서 구강검사를 하는 중에도, 칫솔의 사용에 있어도 한국 학생의 구강위생에 주의하기를 계몽하였다.

IV. 문화재수집가

함석태의 경우에는 문화재를 수집한 것도 나라를 사랑한 일면일 것이다. 1928년 3월 16일 함석태 치과의원의 치료실, 응접실, 서재, 낭하(廊下)까지 조선 고대의 미술 공예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함석태는 그가 문화재를 수집하게 된 동기를 이야기 하고 있었다.

제가 동경 어느 노인의 집에 묵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노인이 고물에 많은 취미를 가진 관계상 조선의 옛날 질그릇을 매우 좋아하여 제가 고향에 돌아 올 때마다 고물을 얻어 오라는 부탁이 있어서 그 말에 응종(應從)하는 동안에 자기도 차차 맛을 들여서 이리 된 것이고, 그를 따라 조선의 귀중한 고물이 자꾸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이 차마 애석하여져서 힘껏 모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가 모은 중에는 질그릇, 목공, 철공, 죽공 무엇이든지 다 몇 가지씩은 있습니다.¹¹⁹⁾

함석태는 문화재에 관한 글을 몇 편 남기었다. 1938년 3월 2일〈골동한담(骨董閑談)〉은 문화재수집을 하는 함석태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글이다.

골동을 이야기 하게 된 것은 극도로 발달된 과학문명에 대하여 염증을 일으킨 사람들의 개인의 창작품을 존중히 여기게 된 것에서 시작된 것 같다. 조선의 공예품은 인공으로 된 예술품의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 선조들의 피와 정신과 수택이 역력히 남아 있다. 이런 작품을 볼 때마다 우리 선조 예술가에게 면접하는 것 같은 승엄한 감격과 법열을 느낀다.

중국의 공예품은 호사하고 변화한 것에 지나쳐서 조선의 골동품같이 담박하고 간결한 맛이 도무지 없고, 일본의 골동품은 너무 담백해서 맛이 없는데 조선의 골동 공예품은 이 중간으로 소박하고 청담(清淡)하고 간결한 것이 민족성에 의한 것으로 담박 무욕한 처사(處士)와 같은 기질을 반영한 것일 것이다.

118) 신인철, 앞의 글, 24쪽.

119) 함석태, 〈취미인 순례기〉, 『매일신보』, 1928. 3. 16.

조선의 골동품이 공교(工巧)한 외식(外飾)이 없고 자연 그대로 기교 없이 만들어진 때문이라고 생각 된다. 조선의 골동품이 존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조선의 공예 골동품을 대별하여 세 가지로 신라의 금석물, 고려의 도기 그리고 이조(조선왕조)의 도자기, 기타 일반의 공예품이 이것이다.

그러나 신라나 고려의 그것은 다소 미숙(彌熟)하고 정교한 편이어서 그 중에도 조선왕조의 공예품 특히 도기가 소박한 맛이 제일 많아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조선의 골동 공예품의 특색은 서양이나 일본의 공예품이 작자(作者)의 서명이 붙어 있는데 반하여 조선 것에는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 할지라도 작자의 서명이 없다. 이것은 고인(古人)들이 그것을 만들어 자기의 이름을 후세에 전한다는 아무런 세속적 욕심이 없었던 까닭이다. 나는 고인의 이 같은 겸허한 처사(處士)와 같은 예술가적 기질을 사랑함으로 조선의 골동 공예품을 더욱 애완(愛玩)하는 것이다.¹²⁰⁾

1938년 4월 10일〈이조(조선왕조)의 도자기〉는 함석태의 조선왕조의 도자기에 대한 감상을 볼 수 있는 글이다.

첫째로, 조선왕조 도자기의 특수성은 외식이 없이 순진 그대로의 진면목으로 실명적 작품이나 상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제조한 상품이 아니고 고인의 훌륭한 여운의 손으로 만든 작품임이다.

둘째로, 근대 분원을 중심으로 한 조선왕조 도자기의 세밀한 질과 명랑한 색과 아담한 태도를 자유자재로 취입해야 강하고 부드러운 원이 완전한 선으로 1점 무리가 없고 1획의 허식이 없이 의존함이 없고, 집착이 없고, 간사함이 없는 수법인 예술미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닌가 한다.

셋째로, 조선왕조 도자기의 작품을 예술적 가치로 보아 따라가 미칠 수 없는 명품임을 불구하고 타국의 고대 작품같이 작자의 낙관이나 이름을 적거나, 연대, 지명 등 그 작자의 자취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자못 조선인의 수법인 줄을 알 수 있어도 후세에 이름을 붙이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다.

끝으로 조선 사람은 시적 정취나 선미(禪味)나 질박한 맛을 이루어내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고 예술도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래 가정이나 생활환경이 비속한 새로 들어온 제품에 도취하고 속화(俗化)하야 가는 유행현상은 참으로 유감이다. 우리의 고유한 공예품, 도자기 뿐 아니라 석공, 목공, 죽공, 철공, 종이 공예 등 모든 세공품이 다 같이 역력히 우리 생활을 미화라고 우리의 감정을 고상케 할 수 있으니 우리의 소질을 배양하고 우리의 생활을 향상하기를 끝내 권하고 싶다.¹²¹⁾

1939년 9월 〈공예미(工藝美)〉에서 보이는 그의 문화재수집관은 이러 했다.

大體 우리 人類의 古今 變遷의 자취를 찾는데 있어 文字 記錄이나 傳說이나 文獻이 다 같이 좋은 歷史가 아닌 바 아니지만 옛 사람의 純眞이 낳은 工藝美야말로 文字나 傳說을 다 합한 綜合藝術이오 幾千年後 우리의 實感的 歷史이니 (중략) 同時에 그 時代 人類의 文化 程度의 尺度가 됨에 있어 史記나 經典에도 똑똑히 실려 질 수 없을 微妙한 點까지라도 넉넉히 알아 볼 수 있기로는 훨씬 더 貴重한 史室이다.¹²²⁾

120) 함석태, 〈골동한담〉, 《매일신보》, 1938. 3. 2. 원문을 현대어로 고쳤음

121) 함석태, 〈이조(조선왕조)의 도자기〉, 《매일신보》, 1938. 4. 10.

122) 함석태, 〈工藝美〉(문장), 1939. 9. 175-177쪽.

그는 공예의 아름다움이야말로 문자나 전설을 다 합한 종합예술이고, 실감적 역사라 했다. 인류 문화 척도(尺度)에서 기록할 수 없는 것도 알아 볼 수 있는 귀중한 역사의 보고라는 것이다.

그는 장택상, 윤치영, 한상억, 박병래 그리고 이한복와 이만규, 도상봉, 손재형와 이여성 등과 같이 문화재 수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들은 오세창의 지도로 민족문화재를 수집하는 데 힘을 써 문화재가 일본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았다. 이들은 문화재 수집 취미 덕분에 막연한 사이가 되었고 저마다 내노라 하는 수장가였다고 하였다.¹²³⁾

함석태는 열성이 대단해서 심지어 기인 소리를 들을 정도로 문화재에 애착을 가졌다. 문화재에 들인 정성은 정흔을 기울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침·저녁 신들린 사람처럼 골동을 부비며 애완하는 모습은 일견 사기그릇의 반질반질한 멧물(유약)의 표면을 뚫고 왕래 소통하는 정신의 소작인 것 같기도 했다. 그는 특히 작은 물건을 좋아해서 바늘통이며 담배물부리 같은 것을 잔뜩 사 모았다.¹²⁴⁾

함석태의 문화재에 대한 수집 경향은 소물진품대왕(小物珍品大王)이라는 평대로 그의 치밀한 치과의사의 성품을 반영한 것이었다.¹²⁵⁾

함석태가 지극히 아끼던 물건 가운데 금강산 연적의 일화가 있다. 금강산 모형으로 만들어진 연적이었다. 그는 이것을 애지중지해서 꼭 싸서 가지고 다녔다. 연적 자체야 크기가 얼마 안 되지만 싸고 또 싸서 부피가 불어났다. 부산에서 연락선을 타려면 그 당시 조사가 상당히 심했다. 맨 처음 그 연적을 가지고 갔을 때에는 상당히 세밀한 검사를 받고 여러 가지로 추궁 당했다. 일본의 형사가 문화재 수집가의 정성스러운 열의를 이해했을 리 전혀 없다. 그러나 여러 번 왕래하는 동안에 나중에는 소문이 났다. 그래서 금강산 연적만은 검사를 할 때도 거들떠보지 않을 정도로 잘 알려지게 되었다.¹²⁶⁾

함석태는 목공예에도 상당한 식견이 있었다.

언젠가 하루는 함석태가 원남동 근처를 지나가는데 웬 달구지에 이삿짐을 싣고 가는 것을 무심코 본 모양이었다. 당시는 현재의 서울대학병원 앞길은 인적이 드물고 적적하기 그지없었다. 소달구지를 유심히 바라보던 함석태는 이삿짐 끝에 대롱대롱 매어 달린 옛날 장롱에 눈길을 멈추고 펴놓 달구지 뒤를 쫓기로 하였다. 지금의 고려대 우석병원이 그 당시 여자의학전문학교였는데 지금은 개천을 덮었지만 그때는 그대로 물이 흐르고 있었다.

달구지가 개천 옆으로 난 길을 한참 따라가더니 어느 집으로 쑥 들어갔다. 집을 알아둔 함석태는 속으로 됐다고 하면서 돌아왔다. 그는 목공예에도 상당한 식견이 있어 그 장롱을 문화재를 넣어두는 장으로 쓸 심산이었다. 때맞추어 우차에 이삿짐을 실어간 사람은 새로 들어간 집에 가서 쌀가게를 차렸다. 함석태는 매일 그 집을 찾아가서 쌀을 꼭 한 되씩만 샀다.

주인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함석태의 거동을 조금 미심쩍게 여기게 되었다. 이렇게 되니 함석태도 사정을 다 얘기하고 그 장롱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자기네 조상 적

123) 박병래, 〈집안망치는 골동〉《중앙일보》

124) 박병래, 〈금강산 연적〉《중앙일보》

125) 吳鳳彬, 〈서화골동의 수장가-박창훈씨소장품 매각을 기로〉, 《동아일보》, 1940. 5. 1.

126) 박병래, 〈금강산 연적〉《중앙일보》

부터 내려오는 전세품(傳世品)이라 절대로 안 된다고 딱 잡아떼어 별도리가 없었다. 그런데 문제의 장롱을 굴뚝 밑에다가 끈으로 엮어 대롱대롱 매달아놓고는 그리 대단치 않게 다루는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함석태는 조르고 졸라 결국에는 삼월백화점(현재의 제일은행본점자리)에서 상등품으로 치는 신식 양복장을 하나 사다주고 그 골동 장롱을 얻어왔다.¹²⁷⁾

함석태가 종로 건너편에 흔히 광화문 비각(碑閣)으로 불리는 고종즉위사십년칭경기념비각(高宗卽位四十年稱慶記念碑閣)의 대문을 샀던 일도 잘 알려진 일이다. 이것은 현재 광화문에 있는 비각의 문으로 도로 원표이다.¹²⁸⁾

서울 안에 제작끼리 있으면서 떨어진 지 삼십년을 그저 만나지 못하는 슬픈 짹들이 있다. 삼각정 토선 댁 철 문짜와 본정 삼목정 어느 부호의 집에 있는 만세문 들이다. 워낙 광화문 네거리 동북부에 있는 비각의 정면 울타리요 문이었다. 길을 넓히느라고 뜯어 경매할 제 토선께서 그 문짝의 공예성의 우수함을 보고 철공소로 가 부셔질 것을 구해 내인 것이었다. 그때는 하숙 시대라 문만도 파출소 뒤에다 여러 달을 두었다 하니 그 거창한 울타리며 석물들까지야 샀어도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울타리와 석물은 어느 철공소로 갔었는데 그 철공소에 별장 문을 맞추러 왔던 진고개 부호가 그 울타리에 흥미를 가진 것이다. 돈이면 으레 될 줄 믿고 토선께 문짝까지 교섭이 왔으나 벽처에 있는 개인의 별장을 꾸미려는 것이라 그 물건에 대한 심경이 양편이 너무나 거리가 있었다. 여러 번 거액으로 탐내 왔으나 토선은 굳게 문짝을 보관해 온 것이요, 저쪽도 별장에는 단념하고 진고개 저의 집 울타리로 써 버린 것이다. 이 어엿한 유서(由緒)가 있는 만세문이 어서 한 자리에 어울려 제 모양대로 길이 보전되기를 누가 바라지 않으리오! 물건도 이렇듯 별리해후(別離邂逅)의 애락(哀樂)이 있다. 생각하면 세상 섭리란 묘연(渺然)할 따름이다.¹²⁹⁾

함석태는 문화재를 보는 눈이 탁월했다. 박병래는 진사연적을 머리맡에 놓고 자기도 하고 매일 만져보기도 했다. 또한 사람들이 오면 자랑을 하면 모두가 좋다고 감탄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함석태가 우연히 들렸다가 그 연적을 보더니 대뜸 “선생, 그것 넣어두시죠”한다. 그때 함석태의 말을 듣고 자세히 뜯어보니 과연 가짜가 분명했다.¹³⁰⁾

함석태는 박병래의 부친이 자신을 보고 “함 선생, 골동을 하면 망한다는데 어떻소”하고 물으시니까, “그야 서화를 하면 망한다지만 골동은 안 그래요”라고 대답했다. 당시 윤치호 같은 분은 서화 때문에 재산을 탕진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함석태는 박병래를 변호해 주기도 했다.¹³¹⁾

함석태는 문화재 수집하며 전람회에 출품하여 알리고 위상제고 하고자 하였다.

1930년 10월 17~22일 동아일보사 주최 조선고서화진장품 전람회 4점 출품

127) 박병래, 〈금강산 연적〉《중앙일보》

128) 치과임상편지부, 앞의 글, 29쪽.

129) 이태준, 《陶邊夜話》, 《春秋》3권 8호, 朝鮮春秋社, 1942, 8

130) 박병래, 〈금강산 연적〉《중앙일보》

131) 박병래, 〈집안망치는 골동〉《중앙일보》

崔北의 金剛總圖, 秋史의 隸書十幅屏, 石坡大院君 蘭, 檀園의 動物 등 4점을 출품하였다.¹³²⁾

1932년 10월 1~5일 동아일보사 주최 조선고서화전장품 전람회 3점 출품

檀園 金弘道의 九龍瀑, 小癡 許鍊의 山居圖, 北山 金秀哲의 扇面梅竹 등 3점을 출품하였다.¹³³⁾

1934년 6월 22~30일 동아일보 조선중국명작고서화 전람회 20점 출품

그는 당대의 주요한 수장가들 장택상, 이병직, 김찬영, 金殷鎬, 박창훈, 金寧鎮, 김용진, 이한복 등 과 함께 출품을 하였다.(도 7, 8)

蓮潭 金明國 仙人圖 一, 畝雲 柳德章 墨竹 一, 謙齋 鄭 故 金剛全景額 一, 上同 虎溪三笑 一,

玄齋 沈師正 梅島(圖의 오류) 一, 上同 墨蓮 一, 檀園 金弘道 花鳥對幅 一, 上同 九龍瀑 一, 上同 老貌掀鬢 一, 犀齋 權敦仁 墨蘭 阮堂提跋 一, 阮堂 金正喜 行書七言對聯 二, 上同 積古堂隸額 一, 上同 芙蓉秋水比鄰居額 一, 上同 墨蘭 一, 毫生館 崔北 金剛全景扇面 一, 北山 金秀哲 花卉對幅 二, 大院君 墨蘭對幅 二,(김상엽 글에서 인용)

1935년 『조선고적도보』15권(조선시대 도자) 15점 수록

1940년 2월 화신백화점 기원 2600년 봉축명가비장고서화 전람회 출품

2006년 6월 13일~8월 16일 국립중앙박물관 북녘의 문화유산 평양에서 온 국보들

함석태 소장 금강산 연적 전시

1945년 6월 광복되기 직전에 일제는 소개령을 내리고 모두들 지방으로 피신하라고 했다. 함석태는 그가 그렇게 좋아하는 문화재를 모두 추려 가지고 고향으로 갔다. 훗날 함각이 말하기를 당시 10세였던 자신은 알 수 없는 물건들을 세 차나 싣고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들이 다 문화재였다고 했다. 해방 후 공산정권하의 고향에서 함석태는 있을 수가 없었다. 고향을 떠나 월남을 하기 위해 황해도 해주 방면으로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 후 그의 행방은 알 수가 없다. 금강산연적은 어디에 있는가?¹³⁴⁾

치과의사로서 문화재 수집가 함석태를 조명해보려 한 것은 한계가 있었다. 그리하여 “금강산연적은 어디에 있는가?”로 글을 마무리 할 수밖에 없었다. 글을

함석태 소장품이 사진으로 확인 되는 목록¹³⁵⁾

번호	명칭	북한 명칭	크기	소재 도록
1	白磁陽刻十長生文托盤	백자십장생 돌을무늬 잔과 잔대	잔 높이 3.5cm, 잔대 너비 14cm	『도보』 15권, 도판번호 6313
				『도자기』, 도 66

132) 〈盛況이 期待되는 古書畫珍藏品展 十七日부터 本社樓上에서〉, 《東亞日報》, 1930. 10. 10. 4면 참조.

133) 〈古書畫珍藏品展 明朝十時開場 一日부터 五日間 本社 樓上에서 陳列點數 一百餘〉, 《東亞日報》, 1932. 10. 1. 5면 참조.

134) 치과임상편집부, 앞의 글, 29쪽.

135) 김상엽, 〈한국 근대의 고미술품 수집가 : 치과의사 함석태〉, 《향토 서울》76호, 2010 ; 251~291쪽.

번호	명칭	북한 명칭	크기	소재 도록
2	白磁透刻煙管臺	백자뚫음무늬 담배대받침	높이 5.1cm	『도보』15권, 도판번호 6346
				『도자기』, 도 92
3	染付辰砂繪山岳形水滴	진홍백자 금강산모양연적	높이 16.8cm	『도보』15권, 도판번호 6615
				『도기』, 도 308
				『북녘의 문화 유산』, 도 63
4	染付辰砂繪筆洗	진홍백자 금강산모양붓빨이	직경 20cm	『도보』15권, 도판번호 6624
				『도자기』, 도 311
5	辰金弘道, 〈老貌掀夔〉	늙은 사자	25.4×30.8cm	『회화』, 도 235
6	金弘道, 〈九龍瀑〉	구룡폭	29×428cm	『회화』, 도 120
				『조선』, 84쪽
7	崔北, 〈金剛全景扇面〉	金剛總圖	26×72cm	『조선』, 82쪽
8	許鍊, 〈山居圖〉	산골 살이	34.5×76cm	『회화』, 도 43
				『조선』, 32쪽

『도보』는 일제강점기에 발행한 『조선고적도보』를 말한다.

보완할 기회는 주어졌다. 2010년 전반에 김상엽의 글<한국 근대의 고미술품 수집가 : 치과의사 함석태>을 보게 되었다.¹³⁶⁾ 또한 2015년 함석태의 손자 함각(咸玆)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함석태에 관하여 조사, 정리한 이승을 선생을 만나게 되었고, 도움을 받아 내용을 보충하여 글을 쓰게 되었다. 이제 금강간 연적의 소재는 북한의 박물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최초의 치과의사 함석태의 만년(晚年)은 어떻게 되었는가?

V. 결론

서양치과의학은 서양인 의사들이 들어왔고 그들은 구강외과적 수술을 시술하였다. 서양인 치과의사들은 보철 치료를 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인 치과의사는 거류민단의 병원과 일본군의 한국주차군사령부을 통하여 입국하여 철도 연변에서 개업을 했다. 한국인은 치과의사보다 입치사가 먼저 등장하였는데 이는 과도기적인 현상이었다.

일제강점기의 강압적인 통치 방법은 정치·경제·사회·의료계는 물론 치과의료계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이러한 시기에 함석태는 일본치과의학전문학교를 1912년에 졸업한 치과의사였다. 저자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간 함석태를 자연인, 치과의사로서의 전문인, 그리고 문화재 수집가로서 조명해보았다.

함석태는 1889년 평안북도 영변에서 부유한 집안의 독자로 태어 났다. 함석태가 당시에는 생소한 학문이었던 치과의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집안에서 학교 사업할 때의 견문이 배경이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함석태

134) 치과임상편집부, 앞의 글, 29쪽.

135) 김상엽, <한국 근대의 고미술품 수집가 : 치과의사 함석태>, 『향토 서울』76호, 2010 ; 251–291쪽.

136) 김상엽, <한국근대의 고미술품 수집가 : 치과의사 함석태>, 『향토 서울』76호, 2010 ; 251–291쪽.

는 매우 근엄하고 엄숙했으며 때로는 성품이 온아하고 다감한 인정을 가진 분이었다.

함석태는 나라와 동포를 사랑한 면도 있었다. 함석태의 손자 함각의 증언에 의하면 독립투사 강우규의 어린 손녀 강영재를 함석태가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일제강점기에 양녀로 키웠다. 이는 함석태가 나라와 동포를 사랑한 면을 보여 주는 중요한 사실이다. 함석태가 문화재를 수집한 것도 나라를 사랑한 일면일 것이다. 함석태가 김약수와 안창호를 치료했다는 사실은 우연하지 않은 일로서 함석태의 치과의사로서의 위치와 당시 사회에서의 위치를 짐작하게 한다.

함석태가 1912년에 일본치과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것은 한국에 치과의사 제도가 마련되기 이전이었다. 치과의사의 개업과 의료행위까지 경찰의 감시를 받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제도가 마련된 후 함석태는 1914년 2월 5일에 치과의사면허 제1호로 등록되었다.

함석태는 처음이라는 의미를 갖는 치과의사로서 그 당당함을 보여주어 사회에 치과의학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려 하였다. 그는 1914년 6월 19일경에는 서울 남부 곡교 부근에서 개업을 시작하였다. 함석태는 보철 등을 하면서 구강외과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함석태가 개업한 때의 서울의 치과의료계 상황은 일본인 치과의사가 4명, 미국인으로 감리교 선교 치과의사인 한(David Edward Hahn)이 개업하고 있었다. 한편 입치사는 10여 명이 있었다. 그중에 한국인 입치사들도 3~4명이 치술원을 개원하며 서양치과의학을 수용한 치과의료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다.

함석태는 개원한 후 경성치과의사회에 참가하여 친교를 맺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구강검사 또는 치아위생에 대한 계몽운동에 동참하며 일본인과 비교되는 한국인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후 치과의사규칙에 의하여 치과의사가 배출되고,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한국인 치과의사가 개업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대부분 안이하게 생업을 하였고 학술에 정진하고자 하는 자는 극소수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만의 치과의사의 조직의 필요성을 느껴 뜻 깊은 하나의 단체가 탄생되었다.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가 설립된 것이다. 한성치과의사회는 경성치과의학교 제1회로 졸업한 젊은 치과의사들에 의하여 한국인만으로 조직된 치과의사회였다. 함석태는 한성치과의사회의 회장이 되었다. 회원은 매년 증가되었다. 한성치과의사회의 설립 시에는 매주 만나는 친목기관이었다. 1928년도부터는 각 부서를 결정하여 회의 체계를 확립시키어 학술연구, 구강위생계몽, 회원복리로 발전하게 되었다.

1935년 9월 25일 한성치과의사회는 조선연합치과의사회에 가입하게 되었다. 한국인만으로 구성된 한성 치과의사회가 하나의 치과의사회로써 조선연합치과의사회에 참석한 사실은 통제를 위한 가시적인 어려움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일제는 국민총력운동 조선연맹의 강압에 의해 1940년 조선연합치과의사회 아래 도 단위 치과의사회를 발족시켰다. 일제는 서울에서 1942년 10월 1일에 한성치과의사회를 경성치과의사회와 강제로 합치게 한다.

함석태는 구강위생계몽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치과위생에 관한 강의도 하고 있었다. 또한 개업 안내 광고에서도 차별화된 구강위생계몽활동을 발견할 수 있다. 입치사들이 하지 못하는 관혈적인 구강외과 수술을 함석태는 시술한다는 것이다.

함석태는 한국인 치과의사로서 한국 사회와 한국 학생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하려 했다. 그는 한국 사회와 교육계에 일반위생과 구강위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려 하였다. 또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대조적인 치과

이용 실적을 비교했다. 초기에 그는 한국인 치과의사로서는 독무대여서 인구비례에서 일본인들에 비하여 유리하나 개업이 어려웠고, 위생관념의 부족으로 직업인으로 한국인 치과의사는 힘든 상태였다. 그는 일본인 학교에서 구강검사를 하는 중에도, 칫솔 사용에 대해 대중에게 학생의 구강위생에 관한 설명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함석태가 문화재를 수집한 것도 나라를 사랑한 일면일 것이다. 그는 문화재를 수집하는 데 힘을 써 문화재가 일본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았다. 그는 문화재에 애착을 가져 그 열성으로 심지어 기인 소리를 들을 정도였다. 문화재를 보는 눈이 탁월했던 것이다. 그는 목공예에도 상당한 식견이 있었다. 그가 지극히 아끼던 물건 가운데 금강산 연적이 있었고 중학동의 고종즉위사십년청경기념비각(高宗卽位四十年稱慶記念碑閣) 대문을 구입한 일도 있었다. 일제 때 철(鐵)이 남아나지 않을 무렵 그가 애써 구하여 보관하였다. 그가 아니면 오늘날에 그 문은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광복되기 직전 일제의 소개령으로 함석태는 그가 그렇게 좋아하던 문화재를 가지고 고향으로 갔다. 광복 후 공산정권하 함석태는 고향을 떠나 황해도 방면으로 갔으나 그 후 그의 행방은 알 수가 없다.

2006년 6월 13일~8월 16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북녘의 문화유산 평양에서 온 국보들이 전시되어 금강산 연적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와 함께 7점의 함석태의 소장품도 우리에게 알려졌다. 그러나 함석태의 노년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언제나 알게 되려나 궁금하다.

결론적으로 함석태는 일제 강점기에 전문 직업인으로 그가 속한 전문 집단의 상황을 인식한 지식인이었으며, 한국인으로 나라와 동포를 사랑한 면도 있었으나, 그가 속한 일제의 강제 통치 체제를 벗어나지 못한 한계성도 가지고 있었다.

VII. 참고문헌

1. 《조선총독부관보》
2. 《황성신문》
3. 《독립신문》
4. 《일신》
5. 《朝鮮醫報》
6. 《滿鮮之齒界》
7. 《동아일보》
8. 《매일신보》
9. 《중앙일보》
10. 《조선치과의학회 잡지》
11. 《치과연구》
12. 《文章》
13.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4. 윤계찬,〈한국치과의학 발달과정의 고찰〉1,2,3,《치계》,2권 9호,10호, 12, 1968.
15. 회사편찬위원회,『동경치과의사회70년사』, 사단법인 동경치과의사회, 1968.
16. 주요한,『안도산전』, 삼중당, 1975.
17. 박병래,『백자에의 향수』, 심설당, 1980.
18. 치과임상편집부,〈최초의 한국인 치과의사 함석태 스토리〉,《치과임상》,1985; 6.
19. 李漢水,『李漢水齒學博物誌』, 石암사, 1976.
20. 李漢水,『韓國齒學史』, 서울대학교출판부, 1988.
21. 李漢水,『齒科醫史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8.
22. 정양모,『수정선생수집문화재』,『소장유물도록 수정선생수집문화재』,국립중앙박물관, 1988.
23. 장병해,『상록의 자유흔』, 창랑장택상기념사업회, 1992.
24. 奇昌德,『韓國齒科醫學史』, 아카데미아, 1995.
25. 奇昌德 편저,『의학 · 치과의학의 선구자』, 아카데미아, 1995.
26.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편찬위원회,『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사』, 1995.
27. 오세창 저, 동양고전학회 역.『국역 근역서화정』상,하. 서울: 시공사, 1998.
28. 김상태 편역,『윤치호 일기』1916~1943, 역사비평사, 2001.
29. 김상엽,〈한국 근대의 고미술품 수장가 : 치과의사 함석태〉,《향토 서울》76호, 서울특별시편찬위원회, 2010.
30. 국립중앙박물관 편찬위원회,『북녘의 문화유산』, 국립중앙박물관, 2006. 6

〈교신저자〉

- 신재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동 71-16
- Tel : 02-3679-1084, Email: allens@kornet.net

한국 최초의 치과 개원의 함석태 (咸錫泰) 탐방

변영남
Byeon, Yeong-Nam

1. 서론
2. 함석태 본인의 인맥
3. 이태준家 모임 참석자(1939. 10. 29)
4. 최초의 치과의사 함석태 (咸錫泰), 손자 함각(咸珏)을 만나다

한국 최초의 치과 개원의 함석태 (咸錫泰) 탐방

변 영 남

I. 서론

우리나라 최초의 치과의사이자 최초의 개원의는 함석태 (咸錫泰)이다. 1914년 6월 19일 서울 삼각정 1번지 옛 濟蒼局 (제창국) 자리 동쪽에 3층 목조건물을 신축 개업하였다. 금년이 개원 100주년 되는 해이다. 그 때 나이 25세였다. 당시 그 위치에 그 규모의 개원의라면, 부모님의 경제적 뒷받침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으리라.

치과의사로서의 함석태 (咸錫泰). 고미술 수장가로서의 함석태, 애국자로서의 함석태 등 3회에 걸쳐 선생님을 회고하고자 한다.

초겨울 바람이 쌀쌀한 2014년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선생님의 발자취를 더듬어 개원 위치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 답사의 길을 나섰다. 답사 순서는 먼저 최초 개원 자리의 현재 위치 확인과 함석태 선생님과의 사연이 얹힌 비각, 서울역 광장의 강우규 의사 동상 순으로 탐방키로 했다. 치협 박영섭부 회장, 이병태 치과 의사학회장, 김평일 서치 편집위원장, 이재윤 서치 공보이사, 치의신보 안정미 기자, 치과신문 편집장 최학주, 치협 직원 권남학 씨 등이 함께했고 탐방을 위해 몇 가지 자료를 수집했다.

안산, 인왕산이 보이고 濟蒼局 간판과 그 아래 “치과”라고 선명하게 나온 청계천 다리와 함께 찍힌 1930년대 사진 한 장, 곡교 (曲橋), 주교 (舟橋)가 선명히 나온 1907년도 고지도, 삼각정 1번지 함석태 (咸錫泰)라고 선명히 이름까지 나온 1933년 三中出版社에서 펴낸 京城情密地圖, 大京城 公職者 名鑑 자료 (1936년 경성일보에서 펴냄), 1914년 6월 19일 자 매일신보에 게재된 “함석태 치과의원” 개원 광고 등이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종각역을 출발, 광교를 거쳐 최초 개원지였던 장소의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미래에

셋 센터 빌딩 앞, 현재 녹지로 되어있는 삼각형 땅이 그곳이라고 확인했다. 표지석을 만드는데 안성맞춤이다. 실로 감개무량했다.

왜 우리는 함석태 선생을 기리고 그분의 정신을 되새겨야 하는가? 지금같이 어려운 치과계 현실에 그분의 생애를 회고하고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며, 광화문 네거리 비각으로 향했다.

다음 탐방지는 비각이었다. 함석태 선생님의 나라 사랑하는 면면을 생각해보기 위해서였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광화문 네거리 동북부에 있는 碑閣원 명칭은 大韓帝國大皇帝寶齡六旬御極四十年稱慶紀念碑閣에 관한 일화이다. 이 철제문도 함석태 선생님이 보관했다. 이 비는 대한제국 대황제, 곧 고종황제의 연세가 육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왕위에 오른 지 40년이 되는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비인데, 일본인들이 길을 넓히느라 뜯어 경매할 때 “함석태 선생이 경매로 낙찰 받은 것이다.” “진고개 부호가 거액으로 사겠다고 했으나 거절하고 굳게 보관해온 것이다.”고 이태준의 글에 나온다. 나중에 이것을 고종황제께 바쳤다.

함석태 선생의 민족애를 생각하며 발걸음을 서울역 광장 독립운동가 강우규 의사 동상을 찾았다. 강우규 의사은 1919년 삼일독립만세후 9월2일 오후5시 남대문역 (현 서울역)에서 사이토 미노루 (齊藤實)총독을 저격했다. 姜宇奎 의사의 어린손녀 姜英才를 養女로 삼아 이화여전까지 졸업시켰다. 실로 나라사랑을 높이 기릴만하다. 비록 반나절의 탐방이었으나 그분의 뜻을 기려볼 만한 시간이었고 진즉 했어야 할 일들이다.

Ⅱ. 함석태 본인의 인맥

함석태의 인맥은 다양하다. 부친 함영택 인맥과 연계된 분도 계시고 서예, 골동품 수집가, 독립운동가, 언론인, 정치인 등 각계각층을 망라한다.

윤치호 (1864~1945)는 그의 일기에 함석태가 안창호의 치과 치료를 했다는 기록을 남겼다. 오세창 (1864~1953은) 서화 골동품 수집가로 3·1민족대표 33人 中의 1人이며, 「근역서화징」 민족대학설립운동 (함영택 참여)을 했으며, 사학자 손진태에게 “함석태가 목공품을 많이 수집한다.”고 소개했다. 남강 이승훈 (1864~1930)은 신민회 가담. 정주 오산학교 설립자이며 동아, 조선일보 사장을 역임했다. 민립대학 설립운동과 3·1민족대표 33人 中의 1人이며, 부친 함영택과 잘 알던 분이다. 함석현이 그의 제자이다. 도산 안창호 (1878~1938)는 평남 강서 출신으로 독립운동가이며 동명, 점진, 대성학교를 설립했고, 평양에서 도자기회사, 서우, 서북학회 창립회원 (함석태 부친 함영택도 회원)이다. 함석태가 서대문 형무소를 찾아가 치과치료를 해주었다. 박은식 (1859~1925)은 독립신문, 황성신문 주필 (함영택 아주군 수해시 기부 기사 실립)이며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지협사 저술,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지냈다. 서우 주필로 함영택과 연관이 아주 많다. 서북협성학교 교장을 지냈고 함석태가 협성 실업학교에 출자금을 냈다. 조만식 (1883~1950)은 조선일보 사장, 오산학교 교장,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했다. 물산장려운동 및 신간회 활동을 했다. 삼각정 함석태의 집에 유숙하며 독립 운동을 했다. 메이지대학시절 김성수, 송진우와 사귀며 함께 민립대학 기성회를 조직했다. 함영택도 참여했다. 춘강 조동식 (1887~1969)은 동덕 여학단 설립자이며, 함석태와 함께 경성종로 금융조합을 운영했으며, 우성협회 발기인이였다. 인촌 김성수 (1891~1955)는 동아일보, 경성방직 사장

을 지냈고,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했다. 보성전문학교 (고려대)도 설립했다. 동아일보에 함석태 기사가 많이 실렸고, 함석태와 시화전도 같이 한 적이 있다. 함석태가 보성 전문 발기인 408人 中의 一人이였다. 一友 오봉빈 (1893~?)은 함석태의 고향 영변 출신 서화 수집, 수장가이다. 영변에서 교육 사업하던 천도교 지도자로 3·1 운동으로 옥고를 치렀다. 오세창의 지도로 조선 미술관을 설립했다. 6·25때 납북되었다. 오봉빈은 함석태를 “小物真品大王”이며 “소털을 쏟아서 제 구멍에 붙는 이”라고 평했다. 심산 노수현 (1899~1978)은 개성 출신 화가이다. 동아일보기자로써 만화 “명텅구리”연재했다. 국전 심사위원이고 함석태와 비경탐승 “장수산행”을 함께했다. 소전 손재형 (1902~1981)은 서예가, 서화수집가이다. 전 국회의원이었으며, 박정희 대통령의 서예 스승이다. 1939년 10월 이태준家에 갈 때 함석태와 같이 다녔다고 기록했다. 김약수 (1890~1964)는 사회주의적 독립운동가로 제헌의원, 국회부 의장까지 지냈다. 6·25때 월북했으며 1959년 숙청되었다. 청정 이여성과 의형제를 맺었으며, 함석태가 서대문 형무소에 있을 때 치과 치료를 해주었다. 서항석 (1900~1985)은 함경남도 홍원 출신 동아일보 기자이다. 연극계의 원로이며, 함석태와 “비경탐승 장수산행”에 동행했다. 간송 전형필 (1906~1962)은 문화재 수집연구가이며 교육자이다. 오세창의 지도로 문화재 수집을 시작했으며, 함석태와 시화전도 같이했다. 성북동 간송미술관을 설립했다. 함석태는 다정다감한 분으로 금강산 연적을 몹시 아껴 일본에 갈 때도 가지고 다녔다.

III. 이태준家 모임 참석자 (1939. 10. 29)

상허 이태준 (1904~1970)은 철원 출신으로 “단편소설의 아버지”로 불리는 소설가이다. 1939년 창간된 〈문장〉지의 편집인 “소련기행” 6·25때 북한측 종군작가였으며 해방 후 월북했다. 1955년 숙청 되었다. 벽돌공장 노동자로 병사했다는 증언도 있다. 저서 「도변야화」에서 함석태가 가지고 있는 광화문비각의 문이 충무로 어느 부잣집에 있는 석불과 한 세트임에도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썼다. 토선 함석태 (1889~?)는 최초의 치과의사, 골동품수집가였다. 이태준 집 방문 후 〈문장〉지에 “청복반”을 기고했다. 소전 손재형 (1902~1981)은 진도 출신으로 서예가이다. 국회의원, 진도중학교 재단 이사장, 국전 심사위원을 지냈고 박정희의 서예스승이다. 추사의 세한도를 일본에서 찾아오는데 기여했다. 배정국은 『문장』지 발행인으로 백양단 출판사 사장이다.

이 답사를 준비하던 중 두 가지 오류가 있었던 점이 밝혀졌다.

그 첫 번째가 최초로 개원한 치과의원 명칭이다. 거의 모든 책과 인터넷에 “한성 치과의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 회사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실제 1914년 6월 19일자 매일신보 광고에 의하면 “咸錫泰齒科醫院”이라고 쓰여 있다. 新築落成, 診察毎日, 京城三角町曲橋 咸錫泰齒科醫院 / 手術無料, 電話七拾九番, 開業披露라고 광고했다. 확실한 근거가 있는 만큼 고쳐야 할 부분이다. 내가 탐문한 결과 “인물과학사”라는 책과 기창덕 선생님 “의사, 치과의사 선구자” 책에만 “함석태 치과의원”이라고 표기되었다.

두 번째가 함석태 치과의원의 위치가 곡교 근처 濟昌局 東쪽에 있다고 대부분 쓰여 있다. 1930년대 청계천을 중심으로 장통교 다리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에 의하면 濟蒼局 이라고 간판이 선명히 보인다. 그리고 그

아래 “치과” 간판도 보인다. “昌”은 蒼의 잘못된 표기이다. 검증 없이 어떤 사람에 의해 써져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번 자료준비 과정에서 밝혀졌다. 검토 후 수정되어야 한다.

탐방을 마치고 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와 함께 서울특별시에 전의해 표지석을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IV. 최초의 치과의사 함석태 (咸錫泰), 손자 함각(咸玆)을 만나다

2015년 2월 26일, 한국 최초의 치과의사 선생님의 유일한 혈육인 손자 咸玆씨와 좌담회를 가졌다. 1936년 生으로 80세가 되었으나 체구도 크시고 정정한 편이었다. 만나고 싶었던 분 중의 한분으로 咸錫泰 선생님에 관한 몇 가지 궁금증을 풀 수 있었다.

다음은 咸玆이 증언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첫째, 삼각동 1번지 함석태 치과의원 건물에 대한 궁금증이 풀렸다. 함각의 증언에 의하면 건물은 2층 목조건물로 지하실이 있었다. 건물 입구에 진료실이 있었고 그 안쪽에 살림집이 있었다. 1951년 1.4후퇴이후,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하다 그 이듬해 쯤 형 咸玩 가족과 서울에 와보니 할아버지가 계시라라 믿었던 할아버지 치과의원 자리에 삼각동 동사무소가 들어서 있었다. 간판까지 붙어있었다고 회고했다. 할아버지 집이라고 권리를 주장하니 말도 못 꺼내게 하면서 “빨갱이” 집인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고 거절당했다. 그 때 당시 이북으로 월북한 사람은 “빨갱이”라 취급했고 개인이나 국가에서 건물을 몰수하거나 차지했던 일이 비일비재했다. 고심 끝에 형 玩 (함석태 맏손자)이 기억을 더듬어 본인이 남산에서 결혼식 때도 뵈었고 치과에서 바둑도 할아버지와 두었던 지인을 생각해 찾아뵙게 되었다. 바로 그 분이 당시 국무총리였던 張澤相이었다. 어렵게 몇 번에 걸쳐 청해 면담했다고 한다. 참고로 함석태와 장택상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1930년 대 초반 장택상의 집에서 만난 “장택상 사랑방”모임은 당대 최고의 고미술품 수집가와 호사가들의 주요 모임이었고 아무나 참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함석태는 당시 이 모임에 참여하며 장택상과 두터운 친분을 가졌다. 張澤相의 도움으로 그 집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 후 뇌를 다쳤던 큰형님 玩이 생활고로 그 집을 팔고 익선동에 새 집을 사서 이사했다고 회고했다.

둘째, 함석태 선생님의 해방 전후의 행방에 관한 것이다. 함석태는 해방 전 총독부 소개령에 의해 아끼던 고미술 소장품을 싣고 고향 평북 영변으로 피난했다. 乙酉 清明日 (1945년 음력3월 청명절 식목일)에 소전 손재형이 그린 승설암도에 참석자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土禪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때까지 서울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차 3대의 분량이었다고 한다. 함각 회고에 의하면 그때 나이는 9살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서울에서 영변에 오셨는데 집을 갖고 오셨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집도 풀지 않은 채 계셨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사실 집은 본인 아버지 咸哲勳 (함석태 맏아들)씨가 미리 마련한 집이라고 했다. 본인이 살던 영변 집과는 약간 떨어진 청천강 건너 기차역이 있는 평남 구장 (球場)이라는 곳이었다고 한다. 영변과는 강 하나를 사이로 서울 강남과 강북과 같은 정도의 가까운 거리라고 했다.

당시 함각 씨는 아버지 咸哲勳 (함석태 큰아들) 어머니 김숙종, 큰형 咸玩, 둘째형 咸珣, 그리고 조카 함명숙과 함께 영변에서 살았다고 한다. 큰형 玩은 영변농업학교를 졸업했고, 둘째형 瑞은 신의주 동중을 다녔다고 한다. 함각 씨는 할아버지 함석태는 구장에서 사시면서 집도 풀지 않으셨다고 기억한다. 그 후 1년

쯤 지나 큰형 玩의 전언에 의하면 할아버지는 서울로 월남하기 위해 짐을 싣고 해주로 가셨다고 몇 번에 걸쳐 얘기했다고 한다. 해방 후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대지주 숙청이 시작되었는데, 함석태 선생님도 여의치 않아 해주를 통해 월남하고자 하신듯하다. 맏손자 玩에게 황해도 해주에 들려 월남하겠으니 뒤따라 올 것을 부탁 했다. 이후의 행방은 알 수 없다. 해주를 통해 월남루트를 택한 것은 배에 가족과 고미술품을 함께 싣고 월남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아버지가 서울에 꼭 계시리라 믿었으나 계시지 않았던 그 후의 행방은 본인들은 알 길이 없다고 했다. 2006년 노무현 정권시절 “북녘문화재” 전시품 중 국보인 금강산연적과 몇 개의 국보는 모두 함석태 소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미루어 소장품을 뺏긴 것은 확실하다.

셋째, 함석태 선생의 유일한 사진을 찾은 경유이다. 1985년 함각 씨는 지인 제약회사 사장의 주선으로 치과임상 신종호 선생과 만나게 되었다. 함석태 선생님의 사진을 구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 끝에 출처를 찾기 시작했다. 본인은 훌훌단신으로 내려와 아무것도 없었다. 강우규 의사 손녀 강영재를 데려다 기르셨다는 점에 착안하여 찾기 시작했다. 강우규 의사 독립운동 연금 수령자를 추적한 결과, 채수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분은 강영재의 아들로 목사 신분이었다. 만나기 2개월 전에 강영재 (강우규 손녀)는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 전 함석태 친척이 찾아올 것이라는 얘기를 남겼다고 한다. 진짜 손자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과 사진의 인물을 알아맞히는가를 테스트한 후 넘겨받게 되었고 현재 소장하고 계신다고 증언했다.

넷째, 함각과 형 함완의 월남 경위를 밝혔다. 해방되고 나서 공산당들이 집권하면서 이복에는 숙청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대지주들의 숙청이었다. 당시 영변에서 대지주였던 함석태 일가는 숙청대상 1호였고 땅을 뺏기고 이주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함경도 지방에 대토를 주겠다고 하여 그쪽에 갔던 함완(함석태 맏손자)씨는 그곳 마을 사람들에게 죽을 정도로 두들겨 맞고 생명만 부지한 채 영변으로와 한의원에서 치료 후 겨우 생명만 구할 수 있었다. 그 후 유증으로 뇌를 다쳐 평생 고생 고생했다. 정신이 오락가락 했다고 한다.

월남 후 서울에 와서 서울대 병원에서 뇌수술 후 돌아가셨다고 한다. 암박과 감시가 심해 형 함완과 형 수, 조카 함명숙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다. 외가인 평남 순천으로 피난했고 여의치 않아 철원에 할아버지 지인 (함석태 친구) 집으로 갔으나 그곳에서도 내부 서원의 감시가 심해 그곳 사람들조차 피해를 입을까 싶어 오래 있지 못하고, 다시 원산으로 가 1950년 12월 원산 철수 시 배를 타고 부산으로 피난 오게 되었다. 파란 만장한 피난살이였다.

다섯째, 지금 교보빌딩 옆 광화문 네거리 모퉁이에 비각이 있는데 태극문양이 있는 철문이 함석태 치과의 원 지하에 묻혀있던 것과 똑같은 모양이라고 증언했다. 자기도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했다. 그 비각은 서울 도로의 기점이다. 그리고 원표이다. 중요 문화재이다. 그 비각은 원명칭이 大韓帝國 大皇帝 寶齡望六旬四十年 稱慶碑閣이다. 이 비는 대한제국의 대황제를 고종황제의 나이가 육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왕위에 오른 지 40년이 되는 경사를 위해 세운 비인데 이태준의 표현에 따르면 길을 넓히느라 뜯어 경매할 때 함석태가 낙찰 받은 것으로 “진고개부호”가 거액으로 탐내왔으나 굳게 보관해 온 것이다. 아마 소개령 때 영변으로 갈 때 부피가 커서 갖고 가지 못하고 지하실에 묻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마 맏손자 玩이 국가에 기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철문은 에피소드가 많은 유명한 철문이다.

좌담회를 통해 많은 것이 밝혀졌지만 궁금한 것이 아직도 있다. 함석태 일가의 몰락은 우리나라 역사의 한편을 보는 것 같아 가슴 아프다. 한편의 드라마 같다.

〈교신저자〉

- 변영남
- 서울 동대문구 휘경2동 320-7
- Tel. 02-967-8854, Email: toothbud@hanmail.net

함석태와 강우규, 그리고 대동단

이 해 준
Lee, Hae-Joon

1. 서론
2. 강우규(姜宇奎) 의거
3. 의친왕(義親王)과 최준(崔浚)
4. 신한혁명당 사건(보안법 위반 사건)
5. 고려국 건설계획과 3.1운동
6. 의친왕(義親王) 망명 미수사건(朝鮮民族大同團 사건)
7. 결론
8. 참고 문헌

함석태와 강우규, 그리고 대동단

이 해 준

I. 서론

함석태(咸錫泰)는 치과의사면허 1호로 알려져 있는데, 강우규(姜宇奎)의 손녀인 강영재(姜英才)를 맡아 키워 이화여전을 졸업시켰다. 1930~40년 대표적인 한국인 수장가 가운데 한 사람인 함석태(咸錫泰)는 ‘小物珍品大王’이라는 평을 들었으며, 당시 주요한 고미술품 수집가인 장택상, 윤치영, 한상억, 이한복, 박병래, 이태준 등과 교유하였다. 일제시기 말인 1944년 일제의 소개령에 따라 자신의 수장품을 모두 차에싣고 고향인 평안북도로 가서 광복을 맞이하였다가 월남에 실패한 함석태의 이후의 소식은 알 수 없다. 아마도 황해도 해주에서 배를 이용하여 가족들과 고미술품을 함께 가져오려다 실패한 듯하다.

함석태(咸錫泰)의 부친인 함영택(咸永澤)은 박은식(朴殷植), 안창호(安昌浩), 윤치호(尹致昊), 조만식(曹晚植), 오세창(吳世昌), 이승훈(李昇薰) 등과 친교가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강우규(姜宇奎) 의거의 배후조직에 대하여 알아보고 함영택(咸永澤)과 함석태(咸錫泰)의 존황의식에 대하여 알아보자 한다.

1) 김덕형: 한국의 명가 근대편 1, 21세기북스, 2013. 184쪽116) 신인철, 앞의 글, 23쪽.

2)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 강우규, 1911년 북간도 두도구(頭道溝)로 망명하여 연해주를 넘나들면서 뜻있는 동료들을 만나 조국의 독립을 의논하였다.

3) 이동희 부친

II. 강우규(姜宇奎) 의거(1919년 9월 2일)

지린성(吉林省) 라오허현(饒河縣) 신흥동에 거주하는 강우규(姜宇奎)^{1,2)}는 1919년 3월 26일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에서 박은식(朴殷植), 이발(李撥)³⁾과 노인동맹단을 조직하고 라오허현(饒河縣) 지부 책임자가 되었다. 노인동맹단은 강우규(姜宇奎) 의거와 이발(李撥) 자결사건을 유발하였다.

1919년 5월3일 강우규(姜宇奎)는 노인동맹단을 대표하여 조선총독을 폭살할 계획을 품고 훈춘(琿春)에서 최진동(崔振東)⁴⁾이 건네 준 폭탄을 가지고 허령(許炯)과 같이 원산을 거쳐 서울에 도착하였다. 안국동 김종호(金鍾鎬)의 집에서 숙식하면서 허령(許炯)으로부터 신임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齊藤 實)의 사진과 부임 정보를 입수하였다. 강우규(姜宇奎) 9월 2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경주의 최준(崔浚)에게 보내는 공한을 허령(許炯)에게 전해준 후 남대문 정거장에 나가 사이토 마코토(齊藤 實) 일행이 마차를 타려는 순간 폭탄을 던졌다. 조선민족대동단^{5,6)}과 강우규(姜宇奎) 의거 관련자들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강우규(姜宇奎)는 군중 속을 빠져나와 한기동(韓基東)의 도움으로 박영호, 김종호(金鍾鎬), 장익규이 집을 전전하다가 9월 16일 사직동 임승화의 집에서 애매한 젊은이들을 고생시킬 수 없다고 한인 순사 김태석(金泰錫)에게 자수하였다. 1920년 12월 29일 강우규(姜宇奎)는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1. 함석태(咸錫泰)



- 4) 김춘선, 안화춘, 허영길: 최진동 장군, 흑룡강 조선민족출판사, 2006. 57쪽~58쪽
 5)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권 대동단사건 I >경무총감부, 경찰서 조서 >李在浩 신문조사(제3회) 문: 대동단 중에서 네가 알았던 자는 누구누구인가? 그 역할은 무엇인가? 답: 全協이 대장이며, 그 밑에 鄭必成 일명 洪宇植, 羅昌憲 별명 王世俊 및 姜宇奎, 韓基東, 李乙圭, 宋世浩 및 楊楨, 金中玉, 董昌律 등이다. 특별히 역할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
 6)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6권 대동단사건 II >에심재판사신문조사 >韓基東 신문조사 문: 피고는 폭탄범인 姜宇奎의 숙소를 주선하여 준 일이 있는가? 답: 그렇다. 작년 9월 10일경이었는데, 柴橋 예배당(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성동 156)의 목사 李觀雲을 그 교회에서 만났을 때 露領에서 姜燦九라는 사람이 와 있으니 찾아보라고 하므로 嘉會洞 姜燦九의 숙소를 찾아갔던 바. 그는 자기는 병든 몸이라 이 집에서는 불편하니 어딘가 조용한 집이 있으면 주선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므로 樓下洞의 林이라는 사람의 집을 주선해 주었던 일이 있다. 문: 姜燦九는 무엇하러 京城에 왔으며, 또 피고는 무슨 용무로 그 사람을 찾아갔었는가? 답: 그가 무엇을 하려고 와 있는지는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다. 또 나도 특별한 용무가 있어서 찾아갔던 것은 아니고, 나도 전에 露領에 있었던 적이 있으므로 李觀雲이 露領에서 목사가 와 있다고 하기에 어떤 사람이 와 있는가 생각하여 다만 찾아갔을 뿐이었다. 그러나 李觀雲은 그가 露領에 있는 軍政府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러 와 있다고 하였으므로 혹시 그를 위해 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도 생각하였다.

참조: 자고 교회는 1900년 4월15일 미국 남감리교 여선교사 캠벨(Mrs. J. P. Campbell)에 의해 배화학당 내에서 창립되었다. 1919년에서 1920년 당시 이관운 전도사가 9대 담임자로 있었다.

강영재(姜英才)는 강우규(姜宇奎)⁷⁾의 장남인 강건하의 딸이다. 강건하는 강우규(姜宇奎)의 옥바라지로 가산을 탕진하였으며, 요시찰인으로 일제의 감시아래 살았다. 강건하는 고향 친지인 함석태(咸錫泰)^{8,9)}에게 강영재(姜英才)의 양육을 부탁하고 작고하였다. 강우규(姜宇奎)의 고향은 평안남도 덕천군이고 함석태(咸錫泰)는 평안북도 영변군이었다. 함석태(咸錫泰)는 강우규(姜宇奎)의 손녀인 강영재(姜英才)를 맡아 키워 이화여전을 졸업시켰다. 함석태(咸錫泰)는 1912년 일본치과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14년 치과의사면허 1호로 서울에서 함석태 치과의원을 개업하였으며,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 초대회장이 되었다. 순종황제(純宗皇帝)와 윤황후(尹皇后)도 함석태(咸錫泰)의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기록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1932년 7월12일 동아일보 기사에는 함석태(咸錫泰)가 안창호(安昌浩)의 치과치료를 위하여 경찰서 유치장으로 출장 진료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함석태(咸錫泰)는 김약수(金若水), 조만식(曹晚植) 등도 치료하였다.



광화문 네거리 동북부에 있는 비각의 원명칭은 대한제국대황제보령 육순어극사십년징경기념비각(大韓帝國大皇帝寶齡六旬御極四十年稱慶紀念碑閣)이다. 이 철제문을 함석태(咸錫泰)가 보관하였다. 일본 사람들이 길을 넓히느라 뜯어서 경매할 때 이태준(李泰俊)의 글에는 “함석태(咸錫泰) 선생이 경매로 낙찰 받은 것이다. 진고개 부호가 거액으로 사겠다고 하였으나, 거절하고 굳게 보관해온 것이다.”라고 나온다. 함석태(咸錫泰)는 후에 이것을 고종황제(高宗皇帝)께 바쳤다.¹⁰⁾

함석태(咸錫泰)의 부친 함영택(咸永澤)은 성균관 진사와 의관(議官)을 지냈다고 전하나 ‘조선문과방목’에서 함영택은 찾을 수 없다. 함영택(咸永澤)은 박은식(朴殷植), 안창호(安昌浩), 윤치호(尹致昊), 조만식(曹晚植), 오세창(吳世昌)¹¹⁾, 이승훈(李昇薰) 등과 친교가 있었다.¹²⁾

치과임상 편집 팀과의 인터뷰에서 함석태의 손자 함각은 “가세(家勢)는 어느 정도 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대단한 부호였음에 틀림없다. 소작을 주는 전토도 많아서 고향에서는 남의 땅을 밟지 않고 다닐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중조부 함영택(咸永澤) 진사는 재산이 많은 만큼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는 등 소위 ‘사회사업’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다. 조부 함석태(咸錫泰) 선생이 일본에 유학까지 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7) 김춘선, 안화춘, 허영길: 최진동 장군, 흑룡강 조선 민족 출판사, 2006. 56쪽~57쪽. 반일투사 강우규 의사도 최진동 장군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강우규는 1911년 북간도 두도구(頭道溝)로 망명하여 1916년 큰아들 중건(重建)과 며느리 및 갓 태어난 손녀 등 일가식솔들을 거느리고 연변을 경유하여 연해주로 향했다. 당시 도문 월청 하소에는 강우규의 친척들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그들 일행은 연해주로 이주할 때 한동안 이곳에 있는 친척집에 체류한 바 있다. 그때 강우규는 의술로 질병으로 죽어가는 조선조 이주민들의 병을 고쳐 주었으며 한편으로는 뜻있는 지시들을 만나 조선의 장래와 반일운동의 방략을 의논하였다. 강우규 의사가 하소에 임시 거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최진동 장군은 즉시 그들을 봉오동에 모셔와 박영 등과 함께 극진히 대접하면서 반일독립운동을 모의하였다. 2015년 12월 4일 강우규기념사업회 회장 강인섭은 강중건이 강우규의 시신을 모셨다고 증언하였다.

8) 신재의: 한국근대치의학사, 도서출판 침윤퍼블리싱, 2004. 56쪽

9)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2010 문화, 예술, 체육계를 빛낸 치과의사들, 2011. 10쪽

10) 변영남: 2014년 12월22일 (월) 치의신보 2282호 33면, 최초의 치과개원의 함석태(咸錫泰)임방

11) 유년시절에 의친왕 이강(李岥)은 오세창(吳世昌), 권동진(權東鎮), 이종훈(李鍾勳), 윤치소(尹致昭) 등과 필운학당에서 수학하였다.

12) 2015년8월20일 변영남 증언

13) 1921년 11월20일 동아일보 3면 사회 “평안 양도 참의장”

14) 대한청년단의 성격 규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1921년 11월 20일 동아일보 “평안 양도 참의장(平安 兩道 參議長)¹³⁾의 기사에 관덴현(寬甸縣)에 근거를 둔 체포된 대한 청년단¹⁴⁾원은 함영택(咸永澤)에게서 군자금 100여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함영택(咸永澤)이 함구하여 증거불충분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1922년 10월 29일 동아일보 “영변중학 기성”¹⁵⁾의 기사에는 영변중학 기성 발기인 명단에 함영택(咸永澤)이 있다. 1923년 2월 20일 동아일보 “백 사십여군에서”¹⁶⁾의 기사에는 민립대학 발기인 명단에 함영택(咸永澤)이 있다. 1924년 1월 14일 동아일보 “독립단 부친에게” 1924년 1월 14일 동아일보 2면 “독립단 부친에게”¹⁷⁾의 기사에는 함영택(咸永澤)이 군자모집원이라는 강도에게 오십원을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1926년 11월 14일 동아일보 “영변 산업조합 창립 준비회 개최” 1926년 11월 14일 동아일보 4면 “영변 산업조합 창립 준비회 개최”¹⁸⁾ 기사에는 감사에 함영택(咸永澤)이 있다. 1926년 12월 10일 동아일보 “승격운동 맹렬”¹⁹⁾ 기사에는 영변 공립농업학교의 학년 연장 승격운동으로 대표자 함영택(咸永澤) 등이 평안북도 당국에 진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1928년 11월 10일 동아일보 “영변 공농교 승격운동 맹렬” 1928년 11월 10일 동아일보 4면 “영변 공농교 승격운동 맹렬”²⁰⁾ 기사에는 함영택(咸永澤)이 1천원을 자발적으로 회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III. 의친왕(義親王)과 최준(崔浚)

의친왕(義親王)과 영친왕(英親王)²¹⁾은 경주에 가면 최준(崔浚)의 집을 방문하여 바둑을 두고 최부자 가문의 음식을 즐겼다. 영친왕(英親王)이 1907년 12월 일본에 인질로 갔으므로 이 이야기에서 의친왕(義親王)은 1907년 12월 이전부터 최준(崔浚)과 교류한 것을 알 수 있다. 고종황제(高宗皇帝)가 의병거사를 위해 의친왕(義親王)과 영친왕(英親王)을 최준(崔浚)에게 보낸 것이다. 의친왕(義親王)은 청송의 심부자의 송소고택도 방문한 기록이 보이는 데 이러한 이야기도 구한말 의병과 관련된 내용이다.

의친왕(義親王)은 경상도 거창의병거사를 도모하기 위해 1909년 10월경 다시 최준(崔浚)을 만났다. 정태균(鄭泰均)과 최준(崔浚)은 사돈관계를 맺었다.²²⁾ 최준(崔浚)은 안희제(安熙濟), 손병희(孫秉熙), 최익현(崔益鉉), 신돌석(申豆石), 김성수(金性洙), 정인보(鄭寅普), 여운형(呂運亨), 장덕수(張德秀), 송진우(宋鎮禹) 등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대한광복회²³⁾ 총사령 박상진(朴尙鎮)은 최준(崔浚)의 사촌 자형이

15) 1922년 10월 29일 동아일보 4면 사회 “영변 중학 기성”

16) 1923년 2월 20일 동아일보 3면 사회 “백사십여군에서”

17) 1924년 1월 14일 동아일보 2면 “독립단 부친에게”

18) 1926년 11월 14일 동아일보 4면 “영변 산업조합 창립 준비회 개최”

19) 1926년 12월 10일 동아일보 4면 “승격운동 맹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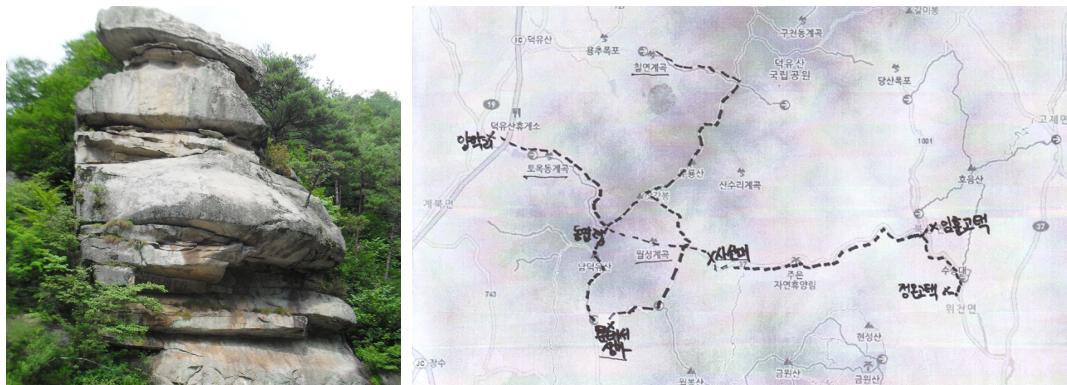
20) 1928년 11월 10일 동아일보 4면 “영변 공농교 승격운동 맹렬”

21) Oro세계인터넷바둑의 허브. Home>컬럼>이정>史野碁林(의친왕이강) 근대와 현대. 그리고 바둑-3.바둑을 좋아하던 의친왕 2013.2.23.

22) 정태균의 큰손자 정우순(鄭禹淳)과 최준의 딸 최희(崔熙)가 혼인을 하였다. 최희는 당시 경주에서 거창까지 이틀에 걸쳐 왔다. 대구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또 다시 택시를 타고 거창까지 왔다. 그리고 당시 최희의 시아버지께서 동래온천으로 신혼여행을 보내주셨다.

23) 대한광복회란 ‘광무(光武)의 회복’, 즉 ‘대한제국의 회복’을 의미한 복벽주의를 지향하였다.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32 32권 독립군자금모집 1) 예심신문조사(國한문) 禹利見 신문조사(제2회) 답: 吉林성내에서 朱鎮洙, 梁載勳, 孫一民, 李洪珠와 회합하고, 만주에 사령부를 두어 군대를 양성하고, 시기를 엿보아 호기가 오면 구한국의 국권의 회복을 기도하려고 하는 의논을 하였다. 답: 光武를 회복하는 의미 즉 구한국의 국권을 회복한다고 하는 의미로 光復會라고 명명한 것이다. 그리하여 사령부는 光復會에 속해 있는 것이다. 문: 光復會 조직의 의논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하였는가? 답: 대정 4년(1915년) 음 1~2월중, 吉林城내 성명불상 중국인의 여관에서 나와 朱鎮洙, 梁載勳, 孫一民, 李洪珠의 4인이 회합, 의논하여 조직한 것이다.



다. 대한광복단은 1918년 조직이 일제에 노출될 때까지 4년간 국내외에서 활동한 가장 큰 비밀결사단체였다. 최준(崔浚)은 자형에게도 아낌없이 자금을 지원하였다. 1918년 최준(崔浚)은 백산상회를 세웠다. 군자금을 지원하려면 논밭을 팔아서 돈을 만주로 자유롭게 반출할 수 있는 무역회사가 적격이었다. 독립운동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최준(崔浚)은 전답을 담보로 식산은행과 경상합동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 자금을 수출입용으로 위장하여 안희제(安熙濟)를 통해 상하이(上海) 임시정부로 보냈다. 10년 만에 부채가 당시 130만 엔²⁴⁾에 달했다. 최준(崔浚)은 백산무역 설립 이후 한동안 대출과 상환을 제대로 해 은행의 환심을 산 뒤 본격적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나갔다. 조선 제일의 부자였기에 은행도 의심하지 않았다. 최준(崔浚)은 의친왕(義親王)이 망명을 시도했던 대동단 사건에도 연루되어 고초를 겪었다.

1928년 독립운동 자금을 대느라고 최준(崔浚)이 주도한 백산무역이 파산 위기를 맞았다. 최준(崔浚)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던 의친왕(義親王)은 식산은행 총재이던 아리가 미츠도요(有賀光豊)를 시켜 총독부를 설득하였다. 식산은행 총재 아리가 미츠도요(有賀光豊)는 사이토 마코토(齊藤 實) 총독의 심복이었다.

“최씨 집안 하나가 망하는 거야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이 일로 총독부가 육을 먹고 국민 총화에 금이 갈까 걱정됩니다. 다른 지주들 같으면 소작인들에게 소작료를 더 많이 부과하여 부채를 금방 갚겠지만, 그 집에서는 올해에도 흉년이 들자 관에서 못하는 기아자 구휼에 많은 재산을 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소.”

최준(崔浚)의 논밭이나 집 등 부동산 문서는 물론이고 가구나 집기에도 몽땅 딱지가 붙은 지 열흘 후 식산은행의 아리가 미츠도요(有賀光豊)로부터 즉시 그에게 찾아오라는 통지가 왔다. 아리가 미츠도요(有賀光豊)는 일본 귀족출신 실력가로 경제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한편 문화적 소양도 대단한 사람이었다. “사이토 마코토(齊藤 實) 총독각하의 뜻에 따라 우리 은행에 진 최 선생의 부채가 모두 80만 엔 중 40만 엔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나머지 40만 엔은 천천히 갚도록 하십시오.” 일본 육군성은 사이토 마코토(齊藤 實) 총독에게 경고를 보냈지만, 이것으로 최준(崔浚)의 부채는 일단락되었다.

총독부는 총칼통치를 강행해서는 한국 민심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해 문화정책으로 돌아서면서 민중들의 존경을 받던 최부자를 파산시켜버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했기 때문에 상환유예를 결정하였다. 이때 의친왕(義親王)은 사랑채에 옛새를 머물며 최준(崔浚)에게 ‘문파(汝坡)’라는 호를 지어 주었다.²⁵⁾

24) 쌀 3만 석에 해당되는 돈

25) 2006년 8월 13일 한국일보 문화 경주 최부자집 사랑채 ‘옛모습 그대로’



IV. 신한혁명당 사건(보안법 위반 사건)

1915년 3월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에서 상하이(上海)로 이동한 이상설(李相禹)은 상하이(上海)의 신규식(申圭植), 박은식(朴殷植), 베이징(北京)의 유동열(柳東說)²⁶⁾, 성낙형(成樂馨), 이춘일(李春日), 유홍열(劉鴻烈)²⁷⁾, 김규홍(金圭興, 金復) 등과 신한혁명당을 결성하였다. 본부장 이상설(李相禹)과 교통부장 유동열(柳東說)은 베이징(北京) 서단파루(西單牌樓) 93호 김자순(金子順)²⁸⁾의 집에 본부를 차리고, 조성환(曹成煥)²⁹⁾을 만주지방의 조직강화를 위해 서간도로 파견하였다. 그리고 고종황제(高宗皇帝)와 의친왕(義親王)을 망명시키려는 계획으로 외교부장 성낙형(成樂馨)을 고종황제(高宗皇帝)로부터 중국 정부와 중한의방조약체결에 필요한 신임장을 받아오기 위해서 국내에 잠입시켰으나, 성낙형(成樂馨)이 검거되어 실패하였다.³⁰⁾ 일제는 조성환(曹成煥)의 활동영역으로 칭다오(青島)를 지목하였는데 조성환(曹成煥)은 베이징(北京)을 근거지로 삼고 남으로는 상하이(上海), 동으로 연해주에 걸쳐 움직이면서 독일의 핵심 근거지인 산둥(山東)반도에서 활동하였다.³¹⁾

중한의방조약은 중국 원수, 대한국망명정부 원수, 독일황제가 1915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한 조약이다.

‘독일정부의 보증하에 중국정부와 신한혁명당이 대한국망명정부 사이에 사전군사동맹을 체결해 독립전쟁에 대비한다. 한민족이 독립전쟁을 감행하면 중국정부는 즉시 군대와 무기를 후원하며, 중일전쟁이 일어날 경우 대한국 독립군은 중국을 도와서 일제의 안봉철도³²⁾를 파괴하고 한중공동의 항일전선을 구축한다. 대한국은 광복한 후 30년간 중국의 원조에 대한 배상을 실시할 것이며, 중국이 배상을 구실로 대한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못한다.’

중한의방조약은 사후적인 문제까지도 주도면밀하게 명기해 놓았으며, 독립전쟁 기간에 중국 측에서 군관을 파견해 주는 문제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조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중국 원수와 대한국 망명정부 원수 및 독일 황제의 인준까지 거치도록 하고 대한국이 광복될 때까지는 서로가 비밀을 지킬 것을 명시하였다. 이 사

26) 이성복(李聖復)이라는 중국 이름을 사용하였다.

27) 1915년 6월 상하이(上海)에서 병사

28) 중국으로 귀화한 조선인으로 김자순의 집에 신화민단(新華民團)을 설치하였다.

29) 조육(曹煜)이란 이름을 사용하였음. 조성환과 신규식은 난징에서 孫文과 宋教仁을 만났다.

30) 김삼웅: 이희영 평전, (주)책으로 보는 세상, 2011, 115쪽-116쪽

31) 김희근: 독립군을 기르고 광복군을 조직한 군사전문가 조성환, 역사공간, 2013, 50쪽

32) 안동(安東)에서 평톈(奉天)까지의 남만주철도

건이 1915년 일제에 의해 비밀리에 붙여졌던 ‘보안법 위반 사건’인데 이상설(李相嵩)이 주도한 고종황제(高宗皇帝)와 의친왕(義親王)의 망명계획이었다.

1차 세계대전은 1914년 7월 28일부터 1918년 11월 11일까지 진행되었는데, 독일황제와 중국 원수³³⁾가 신한혁명당을 매체로 대한국 망명정부와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한제국 고종황제(高宗皇帝)와 의친왕(義親王)의 망명을 후원하였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그 당시 중국과 독일은 대한제국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 된다. 신한혁명당은 두 가지 방침을 세웠다. 하나는 전쟁이 일어날 경우 중국을 지원하기 위해 안봉선(安奉線) 철도를 파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종황제(高宗皇帝)로부터 위임을 받아 중국 정부와 중한의방조약(中韓誼邦條約)이라는 밀약을 맺는 것이었다. 그런데 첫 번째 구상은 중국의 위안스카이(袁世凱)가 일본의 21개조 요구를 모두 수락함으로써 무산되고 말았다. 두 번째 구상도 성낙형(成樂馨)이 1915년 7월 서울에 들어와 변석봉(邊錫鵬) 등과 함께 고종황제(高宗皇帝)의 밀명을 받을 방법을 협의하던 중 일본 경찰에 붙잡힘으로써 이 또한 수포로 돌아갔다.

성낙형(成樂馨)은 변석봉(邊錫鵬) 집에서 앞서 밝힌 동지에게, 재 중국 불평조선인의 운동방침으로서 중국은 위안스카이(袁世凱)가 제위(帝位)에 오르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다만 그 발표 일을 조정(遲速)할 뿐이다. 또 독일은 황제에 의해 지배받는 나라이어서 제1차 세계대전(1914)은 결국 독일의 승리로 돌아갈 것이며, 일본은 영국의 선동에 편승할 이유가 없으며 독일에게 개전하고 한편으로는 중국을 향하여 무법 요구를 하여 중국 상하의 원한을 샀기에 풀려고 할 것이다. 이 형세라면 제1차 세계대전(1914) 종국 후 일본은 동양에서 고립되어 점점 퇴세(頽勢)를 나타내어 중국, 독일의 연합군대와 대전할 수밖에 없는 곤경에 빠질 것이다. 조선의 독립회복은 지금부터 중국 및 독일과의 조약을 통하여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나, 두 나라는 군주정치로서 종래와 같이 조선이 공화정치를 주장한다면 불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명분으로 하여 결국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이씨 왕가의 1인을 이 운동의 맹주로 결정하였다는 뜻을 알렸다. 변석봉(邊錫鵬), 심인택(沈仁澤), 정일영(鄭鯏永) 등은 이왕(李王)은 어리석지 않고 왕세자는 일본에 의지하지 않으며 현재 가장 불평(不平) 중에 있는 자가 있다면 이태왕(李太王)과 이강공(李岡公)이 될 것이다. 이태왕(李太王)은 양위에 즈음하여 이강공(李岡公)을 황태자로 할 뜻이 있었으나 권세의 무리가 이를 배척하여 왕세자를 후사로 정하자 이에 이강공(李岡公)의 한만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 특히 이태왕(李太王)과 위안스카이(袁世凱)는 절친한 사이이고, 또 궁궐의 간수는 견고하여 일상소식을 통하는데 장애가 많아서 마땅히 이강공(李岡公)을 통하여 이 운동을 하여야 할 것 같다고 말하고 결정하였다. 심인택(沈仁澤)은 이태왕(李太王)에게, 정일영(鄭鯏永)은 이강공(李岡公)에게 접근을 하고, 박봉래(朴鳳來)는 양반 사이에 동지를 구하는 운동을 담당하고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이후 동일부터 27일 본 건으로 검거되기에 이르기까지 다음의 행동을 하였다.³⁴⁾

제1차 세계대전(1914)은 독일의 승전으로 돌아갈 것이 명백함으로 중국 후에는 칼끝을 동양을 향하고 일본

33) 위안스카이(袁世凱)

34) 警高機發 제1358호 5. 조선보안법 위반사건 검거의 건(『조선통치사료』 5, 1915. 9. 27) -(2) 조선보안법 위반 사건 검거의 건 1915년 9월 27일 접수 보안법 위반 사건 검거의 전말

을 공격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리고 중국은 일본에게 원망(積怨)이 있음으로 독일과 연합하여 일본을 고립에 빠트릴 것이니 이때가 바로 조선독립회복의 시기가 됨으로 독일 및 중국을 향해 지금부터 연락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두 나라는 제정(帝政)이어서 공화정치를 표방해서는 목적을 이루기 어려우니 차라리 이(李) 왕가를 이용하는 것이 득책이 되기 위해 신한혁명당의 조직을 협의하고 본부를 북경에, 지부는 우선 중국에는 상해, 한구, 봉천, 장춘, 안동현, 연길부에 조선에서는 경성, 원산, 평양, 회령, 나남에 설치하고 재정, 통신연락, 단원 모집을 개시할 것을 협의하고 본부장에 이상설(李相禹)을 추대하며 그 아래에 재정, 교통, 외교부를 두고 외교부장은 성낙형(成樂馨), 교통부장은 유동열(柳東說), 재정부장은 이춘일(李春日)이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상해지부장은 신규식(申圭植), 감독은 박은식(朴殷植)으로 하고 장춘지부장에는 이동휘(李東輝), 연길지부장에는 이동춘(李同春)³⁵⁾, 회령지부장에는 박정래(朴定來-북경에 있는 자라고 함), 나남지부장에는 강재후(姜載厚)를 추대하기로 정하였다. 그리고 본 운동개시와 함께 필요한 비용은 중국혁명당(中國革命黨)을 모방하여 기부 및 기타의 징모(徵募)방법에 따라서는 금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상에서는 해적, 육상에서는 강탈을 하여도 무방하다했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당수(黨首)를 정하는 것으로써 동지 중 조선에 임명하여 이태왕(李太王)에게 연락하는 것이 급무라고 결정하였다. 성낙형(成樂馨)이 이를 담당하고 변석봉(邊錫鵬)을 통해 계획했으나 성낙형(成樂馨)과 변석봉(邊錫鵬) 사이에 서신 왕복한 것 뿐이고 아직 면식이 없어서 유홍렬(劉鴻烈)에게 소개장을 우송하였던 것이다. 또 혁명단규칙 및 취지서는 박은식(朴殷植)이 기초하는 것으로 협의 성립하였다.³⁶⁾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에서 고종황제(高宗皇帝)의 망명을 기도했다 실패한 이상설(李相禹)은 1915년 상하이(上海)로 가서 신규식(申圭植), 박은식(朴殷植), 유동열(柳東說)³⁷⁾, 성낙형(成樂馨) 등과 신한혁명당을 창당하고 고종황제(高宗皇帝)와 의친왕(義親王), 김사준(金思濬)의 망명을 꾀하였다. 그러나 외교부장 성낙형(成樂馨)이 1915년 7월 체포되는 바람에 실패하여 김사준(金思濬)은 1915년 10월 30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무소 복역 중에 병 보석된 후 곧 사망하였다.³⁸⁾ 이 때 체포된 사람은 의친왕(義親王)의 장인인 김사준(金思濬)³⁹⁾을 비롯하여 김사홍(金思洪), 김승현(金勝鉉), 변석봉(邊錫鵬), 김주원(金胄元), 심인택(沈仁澤),

35) 함경부도 회령출신인 이동춘(李同春)은 1894년 청일전쟁 때 위안스카이(袁世凱)의 통역관으로 고종황제의 신임이 두터웠는데 일본 경찰의 주목을 받자 연변 개선둔 일대로 망명하였다. 이동춘(李同春)은 연길에서 동남로관찰사공서의 고급관원이 되어 한인사회의 민족교육과 독립운동을 지원해 주었다. 1909년 간민교육회를 설립하여 경영하였고, 1912년 12월에는 간민회 결성에 관여해 식산총업 과장직을 맡는 등 북간도지역을 중심으로 활약하였다. 이동춘(李同春)은 이동휘(李東輝), 이용(李鏞), 구춘선(具春先), 김립(金笠), 윤해(尹海), 최진동(崔振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1914년 신한혁명당을 조직할 때, 이동춘(李同春)은 엔지(延吉)지부장에 선임되어 최진동(崔振東)과도 자주 만났으며, 후에 박영(朴英, 泳, 應世), 이춘승(李春承) 등과 함께 최진동(崔振東)의 군무도독부에 중대장으로 가담하였다. 김춘선, 안화춘, 허영길: 최진동 장군 흑룡강 조선 민족 출판사, 2006. 53쪽, 89쪽

36) 警高機發 제1358호 5. 조선보안법 위반사건 검거의 건(『조선통치사료』 5, 1915. 9. 27) –(2) 조선보안법 위반 사건 검거의 건, 1915년 9월 27일 접수 보안법 위반 사건 검거의 전말

37) 유동열의 다른 이름은 이철이다. 일제기밀문서 1916년 9월15일 조선인과 독일인의 내통음모의 간: 김규홍과 이철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계획은 일본에 위협을 주는 것이므로: 1차세계대전 중인 1914년 8월 일본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여 칭다오에서 전투를 벌였다. 김규홍은 폭탄을 제조하여 시베리아 철도를 폭파하여 일본과 러시아의 동맹을 방해하고 독일군 포로를 구출할 계획을 세웠다.

38) 순부 8권, 10년 (1917 정사 / 일 대정(大正) 6년) 3월 13일(양력) 2번째 기사. 양궁에서 이병규와 박주빈을 친정 김사준의 장의식장에 보내다. 칭덕궁(昌德宮)에서 사무관(事務官) 이병규(李秉規)를, 덕수궁(德壽宮)에서도 사무관 박주빈(朴胄彬)을 각각 독립문(獨立門) 앞에서 있었던 고(故) 친정(贊政) 김사준(金思濬)의 장의식장(葬儀式場)에 보냈다.

39) 경성의 불평단체: 김승현의 집을 사무소로 정하고, 전회(閩會)인 시회(詩會)를 1914년 1월에 조직한 것으로서 남작 김사준(金思濬)이 회장이고 회원은 김사홍(金思洪), 김승현(金勝鉉), 변석봉(邊錫鵬), 김주원(金胄元), 심인택(沈仁澤), 박봉래(朴鳳來), 정일영(鄭馳永), 이용구(李龍九), 이승욱(李承旭) 등 불평의 무리들만이 아니었고 대개 이름을 시회로 빙자하고 일찍이 이미 재외 불평조선인과 연락을 통하여거나 또는 불평의 모의를 한 기관인 것이다. 警高機發 제1358호 5. 조선보안법 위반사건 검거의 건(『조선통치사료』 5, 1915. 9. 27) –(2) 조선보안법 위반 사건 검거의 건, 1915년 9월 27일 접수 보안법 위반 사건 검거의 전말

박봉래(朴鳳來), 정일영(鄭馯永), 염덕신(廉德臣), 이경창(李慶昌)⁴⁰⁾등이었다.

보안법 위반 사건의 의친왕(義親王) 관련 부문 재판 기록은 다음과 같다. 일제는 이 사건을 사법비밀로 처리하였다.

“한편으로 경각서를 이태왕(李太王)에게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강공(李岡公)에게 개입하여 이태왕(李太王)을 설득하고자 하여 먼저 이강공(李岡公)에게 접근하기 위해 동 공비의 아버지인 김사준(金思濬)의 4촌 종제인 김사홍(金思洪)에게 그 계획을 설명하고, 성낙형(成樂馨)을 이강공(李岡公)에게 접근시키기 위해 그 지름길로 김사준(金思濬)을 면회할 기회를 달라는 뜻으로 위촉하자 김사홍(金思洪)은 이에 찬동하며, 7월 22일(음력 6월 11일)경 김사준(金思濬)에게 가서 그에 대해 성낙형(成樂馨)의 계획을 설명하고, 김사준(金思濬)도 이를 찬동하여 성낙형(成樂馨)과 면회하고자 하였다. 이에 성낙형(成樂馨)은 7월 26일(음력 6월 15일) 오전 10시 김사홍(金思洪)과 더불어 상하이(上海) 회의의 결과로 이루어진 김주원(金胄元)이 정서한 중한의방조약안을 휴대하고 김사준(金思濬)의 집에 가서 부인이 없는 사이에 거실에서 김사준(金思濬)과 화합하여 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이태왕(李太王)에게 전달하기 위해 조약안을 이강공(李岡公)에게 제공해달라는 취지를 말하고 이를 교부하니 김사준(金思濬)은 그 계획을 칭찬하고 조약안은 즉시 이강공(李岡公)에게 제공할 터이니 그러면 틀림없이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하고 이를 받았다.⁴¹⁾

1915년 9월 23일 성낙형(成樂馨)은 국권회복을 위해 동지를 규합하여 오던 중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독일의 승리를 예측하여 독일이 중국과 연합하여 일본에 대해 개전을 하면 그때에 독일과 협력하여 독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혁명단을 조직하였다. 그 때를 대비하여 독일과 중국 양국으로부터 무기와 자금을 원조받을 비밀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어 19개조의 ‘중한의방조약안’을 작성하고 고종(高宗)으로부터 조약체결권에 관한 밀지를 받기위해 7월 상순 경성에서 김사준(金思濬)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성낙형(成樂馨)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고 조약안을 건네면서 의친왕(義親王) 이강(李岡)을 통해 고종(高宗)에게 보임으로써 조약체결에 관한 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하였다. 이에 김사준(金思濬)은 1915년 10월 3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았으며 남작의 작위를 박탈당하였다.⁴²⁾

신한혁명당은 무력으로 국내로 진공계획을 수립하였다.⁴³⁾

1. 군병 출구시 통화(通化), 화이린(懷仁), 지안(集安)현 3군의 군병은 합동해 초산군 전구를 건너 습격해 신의주에 유진할 것.

40) 변석봉은 대원군파로서 1897년 모반사건으로 15년 유형을 받은 후 1907년 사면되었다. 김사홍도 같은 사건으로 15년 유형을 받은 것으로 미루어 변석봉과 관련된 인물로 보인다. 김사준은 이강공의 장인으로 구 황실과는 사돈지간이며, 김승현 또한 그의 딸이 명성황후가 죽은 후 왕비간택의 약속을 받은 바 있던 인물이었다. 박봉래와 정일영은 왕실사무 담당관청인 궁내부 출신이며, 염덕신은 내승으로 광무황제의 시중을 드는 층근이었다. 국내조직의 이러한 이점을 기반으로 신한혁명당의 계획은 비밀리에 신속하게 광무황제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제 17권, 1910년대 국외 항일운동 Ⅱ-중국, 미주, 일본, 제 1부, 1910년대 중국 관내 항일운동, 제 2장, 국제적인 연대와 신한혁명당 2.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신한혁명당

41) 경고기발(警高機發) 제1358호 5. 조선안보법 위반사건 검거의 건('조선통치사료' 5, 1915. 9. 27)-(2) 조선보안법 위반 사건 검거의 건, 1915년 9월 27일 접수 보안법 위반 사건 검거의 전말

42) 네이버 지식백과: 김사준, 위키백과

43)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제 17권, 1910년대 국외 항일운동 Ⅱ-중국, 미주, 일본, 제 1부, 1910년대 중국 관내 항일운동, 제 2장, 국제적인 연대와 신한혁명당 2.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신한혁명당

2. 왕청(汪清)현 군병은 계현 등의 지역에 출몰해 일병을 유인하여 장마촌의 후구를 습격할 것.
3. 푸쑹(撫松)현 군병은 연락해 엔지(延吉)부 · 시베리아 구원병을 합해 두만강을 거슬러 회령과 나남면에 유진해서 돌격할 것.
4. 뤄순(旅順), 다롄(大連)의 원조병과 평톈(奉天)군대를 합쳐 잉커우(營口)의 기차를 급속히 차단할 것.

이러한 군사계획을 세운 것은 중국과 독일이 연합하여 일본을 공격할 경우 미국, 영국, 러시아도 모두 이를 원조할 것이며, 이때 우리 군대는 일본군 운반의 요새지를 방어하면 일본군은 상하로 분열되어 전승하리라는 확신에서였다. 그리하여 일본이 산동(山東)지역의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고 믿었다.

신한혁명당은 이 기회에 우리의 독립군도 각국과 연합하여 독립쟁취의 길을 모색하고자 계획하였다. 이러한 상황판단을 전제로 독립전쟁 준비계획이 추진되었다. 신한혁명당의 독립전쟁 수행을 위한 군비정비는 기존 독립군과 무기 등을 기반으로 할 수 있었으므로 보다 신속하게 조성될 수 있었다. 즉 시베리아지방의 중심단체인 권업회가 강제 해산당하기 직전에 조직했던 대한광복군정부가 비밀리에 구성한 군대조직이 그 모태가 되었다고 추측된다. 대한광복군정부는 러일전쟁 10주년인 1914년을 맞아 러시아 전역에 대일 복수열이 절정에 달하여 대일 개전의 조짐이 보이자, 이상설(李相嵩), 이동휘(李東輝), 이동녕(李東寧), 이종호(李鍾浩), 정재관(鄭在寬)⁴⁴⁾ 등이 중심이 되어 러시아와 중국에 산재한 동지를 망라하였다. 이어 정도령을 선거하여 군무를 통할게 하였는데, 초대는 이상설(李相嵩), 다음은 이동휘(李東輝)가 되었다. 군대를 비밀리에 편성하고 중국 왕청(汪清)현 나자구(羅子溝)에 사관학교인 대전학교, 동림학교도 설립하였다. 대한광복군정부는 만주(滿洲)와 시베리아를 비롯한 국외 모든 독립운동 무장세력을 규합해 광복군으로 총괄하려는 군사령부적 성격의 단체였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 후 권업회 해산과 동시에 대한광복군정부 계획도 무산되고 말았다. 비록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지 못했지만, 이에 관여한 인사들이 신한혁명당에 동참하면서 군사적 기반이 신한혁명당의 군비로 전환될 수 있었다. 신한혁명당은 이를 토대를 독립전쟁을 대비해 국내 국경지역 진공계획을 수립하였다.⁴⁵⁾

신한혁명당 사건이 실패하면서 독립운동 세력에서 군주제를 주장하는 세력이 약화되었으며, 점차로 공화제를 주장하는 세력이 늘어나게 되었다.

V. 고려국 건설계획과 3.1운동

1. 양기탁(梁起鐸)과 정안립(鄭安立)의 고려국 건립계획(1917년)

1917년 가을 중국 남방파 군벌인 주사형(朱士衡)이 북방파 군벌을 견제하기 위하여 만주의 독립을 선전하고 다녔다. 즉 만주가 독립하면 만주의 한민족도 독립된다는 계획이었다. 실행방법으로 독군의 명의로 일본에서 무기를 차관하여 남방광동군(南方廣東軍)의 병력으로 일거에 만주독립을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양기

44) 고종황제의 제국익문사(帝國益聞社, 언론통신사를 가장하며 고종이 만든 비밀첩보기관) 미주총책요원으로 1902년 미국으로 건너가서 장인환, 전명운 의거의 막후 기획자이다. 후에 블라디보스톡으로 건너가 안중근을 만나며, 1년 후 이토오 히로부미가 총살되었다.

45)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제 17권. 1910년대 국외 항일운동 Ⅱ-중국, 미주, 일본, 제 1부. 1910년대 중국 관내 항일운동, 제 2장, 국제적인 연대와 신한혁명당 2.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신한혁명당

탁(梁起鐸)은 주사형(朱士衡)의 계획이 만주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을 기반으로 한 독립국 건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적극 호응하였다. 그리하여 정안립(鄭安立)의 동삼성한족생계회(東三省韓族生計會)와 연계하여 맹보순(孟輔淳), 장진우 등이 함께 고려국 건립을 계획하였다. 1918년 8월 양기탁(梁起鐸)은 주사형(朱士衡)과 함께 간도를 출발하여 지린(吉林), 테링(鐵嶺), 창춘(長春) 등을 경유하며 동지 규합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양기탁(梁起鐸)은 다시 상하이(上海)에서 주사형(朱士衡)과 재회하기로 약속하고 12월초 텐진(天津)에서 상하이(上海) 행을 준비하던 중 밀고에 의해 일경에 체포되었다. 고려국 건립 계획은 1918년 양기탁(梁起鐸)이 체포되고 주사형(朱士衡)의 계획도 흐지부지되어 실패로 돌아갔다. 양기탁(梁起鐸)은 국내로 압송되어 중국 재류금지 3년과 거주 제한 처분을 받아 다시 부자유스런 몸이 되고 말았다.⁴⁶⁾

양기탁(梁起鐸)과 정안립(鄭安立)은 고려국 건설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고종황제(高宗皇帝)나 의친왕(義親王) 그리고 영친왕(英親王)의 망명을 계획하였다. 1918년 텐진(天津)에는 이회영(李會榮)의 비밀조직이 활동하였기 때문에 양기탁(梁起鐸)과 이회영(李會榮)이 고종황제(高宗皇帝)나 의친왕(義親王) 그리고 영친왕(英親王)의 망명계획을 상의하였을 가능성성이 높다. 후에 하란사(河蘭史)가 베이징(北京)에서 독살되는 것도 베이징(北京)에 독립운동 비밀조직이 관여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베이징(北京)과 텐진(天津)은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같은 독립운동 비밀조직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양기탁(梁起鐸)과 손정도(孫貞道)가 1924년 동우회에서 만나서 일하는 것도 같은 비밀조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⁴⁷⁾

양기탁(梁起鐸)이 텐진(天津)에서 일경에 체포된 후에 정안립(鄭安立)이 고려국 건설을 주도하였는데 갑자기 고종황제(高宗皇帝)가 독살되면서 망명계획이 잠시 연기되었다. 그러나 대동단장 전협(全協)이 은밀하게 움직이면서 의친왕(義親王) 망명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게 되었다.⁴⁸⁾ 전협(全協)과 정안립(鄭安立)은 1910년대 초반 만주에서의 행적이 비슷하다. 정안립(鄭安立)이 의친왕(義親王)의 망명을 배후에서 지원하였다.⁴⁹⁾

의친왕(義親王)의 망명은 조선민족대동단 사건이 실패한 뒤로도 몇 번 더 추진되었다.

의친왕(義親王)의 망명이 실패로 돌아가자, 정안립(鄭安立)은 영친왕(英親王)의 망명을 계획하였다.⁵⁰⁾ 영친왕(英親王)이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가다가 상하이(上海)에 기착하는 순간 망명을 결행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이기권(李基權)이 일본에서 상하이(上海)로 가서 임시정부에 영친왕(英親王)의 유럽순방계획을 알렸으나, 일제가 사전에 알고 영친왕(英親王)의 상하이(上海) 정박을 불허하여 실패하였다.⁵¹⁾

2. 정안립(鄭安立)의 동삼성한족생계회(東三省韓族生計會)와 조선고사연구회(朝鮮古史研究會)

1916년 만주에 온 양기탁(梁起鐸)은 미주의 안창호(安昌浩)에게 편지를 보내 미주의 동포들이 만주로 이주하거나 자금을 내어 만주에 농장을 경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미주의 동포들은 군사나 무기가 있어도 독립전투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으니 미주 동포들이 만주로 이주하거나 농장을 설립하여 독립운동 자금으로

46) 김성민: 계몽운동에서 무장투쟁까지의 선도자 양기탁. 역사공간. 2012. 99쪽

47) 김성민: 계몽운동에서 무장투쟁까지의 선도자 양기탁. 역사공간. 2012. 134쪽

48) 신보룡: 대동단 실기, 도서출판 선인, 2003.

49) 1919년 10월 3일 발신한 '機密公 件 58호 불령단관계집간) - 조선인의 부(部) - 재만주(在滿洲)의 부(部) 12 선인(鮮人) 비밀집회 상황보고 의 건' 발신자: 森田寛藏(길림총영사), 수신자: 内田康哉(외무대신)

50) 정순택: 선각자 정안립, 예술의 숲, 2010. 21쪽

51) 안천: 횡실은 살아있다. 하. 인간시당, 1994. 173쪽

활용하자고 제안하였다. 자금이 넉넉한 미주 동포들 중 미화 5백 원 정도를 가진 여러 명을 만주로 보내 토지를 사서 모범농장을 경영하고 이익금의 1/2 내지 1/3을 공익으로 제공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노력이 실천에 옮겨진 것이 동삼성한족생계회를 설립한 것이었다. 양기탁(梁起鐸)은 오주혁(吳周赫), 정안립(鄭安立) 등과 함께 만주지방 일대에 근거를 두고 있는 동포들의 생계를 증진시키고 안정을 꾀하여 서서히 결합력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동삼성한족생계회⁵²⁾를 조직하였다. 지린성(吉林省), 평톈성(奉天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등 동삼성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를 통일하는 기관으로 삼을 목적이었다. 본부는 지린성(吉林省)에 두고 회장은 여준(呂準), 부회장은 김약연(金耀淵)이 선임되었고, 실무는 정안립(鄭安立)이 맡았다.⁵³⁾

1917년 12월 16일 지린성(吉林省) 간도 일대에서 정안립(鄭安立), 여준(呂準), 김약연(金耀淵), 이탁(李鐸), 박무림(朴茂林), 김동삼(金東三), 윤세준, 맹간, 전영일(全永一), 여종렬, 박태려(朴泰麗), 유동열(柳東說) 등은 항일독립운동 자치조직인 동삼성한족생계회의 설립을 중국의 대총통, 국무원 총리, 외교부와 내무부 총장 등에게 청원하였다.⁵⁴⁾ 이들은 만주에 독립국(고려국)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하였는데, 이 회의 설립을 주도한 인물은 정안립(鄭安立)이었다. 동삼성한족생계회의 설립이 추진되자, 1918년 1월에 이범윤(李範允)이, 2월에는 이동휘(李東輝)가 지린(吉林)을 방문하였다.⁵⁴⁾ 이 조직은 노령의 한인사회와 미국의 대한인국민회와 연계되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이 조직을 ‘한국독립회’라 일컫고 정안립을 안중근에 비유하며 ‘정선생’이라고 존칭하였다. 정안립(鄭安立)은 동삼성을 5대 구역으로 나누어 회원모집에 나섰다. 5대 구역⁵⁵⁾은 제 1구 백두산 부근, 제 2구 서간도, 제 3구 안봉선, 제 4구 북간도, 제 5구 동청선이었다. 1918년 4월 13일, 14일에 지린성성(吉林省城) 소동문외(小東門外)에 있던 정안립(鄭安立)의 거처에서 동삼성한족생계회 제 1회 총회가 열렸다. 참석인원은 26명이었는데 모두 중국복장으로 참석하였다. 일제는 이 회의 성격을 국권회복을 위한 비밀단체로 독립 자치의 기초를 만들고자 하는 단체로 인식하였다.⁵⁷⁾

1918년 12월 18일 서울 돈의동 장춘관에서는 정안립(鄭安立), 맹보순(孟輔淳),⁵⁸⁾ 이상규(李相珪) 등 80여 명이 명목은 조선 고대역사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만주에 고려국을 건설하기 위한 모금을 목적으로 조선고사연구회를 발기하였다.⁵⁹⁾

52)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40 40권 중국동북지역편 ॥ 해제, 특히 정안립이 주도한 동성한족생계회에 대해 일본측은 집요하게 조사하였으며 회유책을 강구하였다. 정안립은 이것을 역이용하였다.

53) 김성민: 계몽운동에서 무장투쟁까지의 선도자 양기탁, 역사공간, 2012, 97쪽~98쪽

54)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40 40권 중국동북지역편 ॥ 중국동북지역민족운동 ॥ 東省韓族生計會組織ニ關スル件, (180)朝憲機 제79호(大正七年1월 28일)(秘受四四六〇號), 東省韓族生計會組織ニ關スル件

55) 국외항일자료, 일본외무성기록, 불령단관계집간-조선인의 部-재만주의 部 7) 배일선인관광단 조직계획에 관한 건, 기밀공신 제41호, 1918년 10월 07일, 배일선인관광단 조직계획, 장우근의 재만 배일한인 회유방안 제출, 장우근의 배일한인 관광단 조직, 배일한인의 관광 후 일본 귀순, 재만 한인회유책으로 토지경작 보호제공, 압록강연안 한인의 황무지 개간 증가, 재만 한인에게 동양척식주식회사의 금융 편의 제공 필요, 일본의 吉林 한인에게 대출 및 토지매수자금 공급예정, 중국거주 한인의 회유 사실상 곤난, 중국귀화 한인의 일본귀순 시 국적 문제 발생, 중국의 배일한인 비호, 장우근의 대한제국 경무관으로 신문과장 역임, 장우근의 만철 및 철령역사의 후원으로 육영학교 설립, 정안립의 대한제국 외부협판과 군수 등 역임, 정안립의 보성학교교장 역임, 정안립의 간도기독교연합전도회 평의원 역임, 정안립의 동성 한족생계회 조직, 정안립이 袁世凱 앞으로 청원서 제출, 정안립이 동삼성 내 간민통합관서 설치 청원, 동성한족생계회 총회 개최, 이범윤과 이동휘가 정안립 내방, 정안립과 이범윤 이동휘의 동성한족생계회 발전 밀의, 동성한족생계회의 한족회와 대한인국민회와 기맥 상통.

56)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40 40권 중국동북지역편 ॥ 중국동북지역민족운동 ॥ 東省韓族生計會組織ニ關スル件續報 (205)朝憲機 제214호 (大正七年4월 18일)(秘受 7692호)

57) 박걸순: 북간도 간민회 해산과 추이, 중앙사론 30집, 중앙대학교 사학연구소, 2009, 236쪽~242쪽,

58) 호는 東田, 유학자

59) 1920년 4월 10일 동아일보 3면 사회 “古史研究會 解散”

동삼성한족생계회는 일제의 방해공작 등으로 1918년 11월경에 해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19년 1월 부민단이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할 때 부족한 경비는 동삼성한족생계회의 재산을 사용한다고 결의한 흔적으로 보아 동삼성한족생계회가 파리(Paris) 강화회의 밀사파견에 관여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⁶⁰⁾ 1918년 4월2일 일제 정보보고인 ‘노지령(露支領) 지방의 배일선인의 상황’에 의하면 이동휘(李東輝), 양기탁(梁起鐸), 조성환(曹成煥)이 독일과 러시아가 일본과 충돌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서 부지런히 활동하던 인물로 지명하면서 생계회라는 조직이 성립되었다고 기록하였다. 그 후 조성환(曹成煥)은 이동녕(李東寧), 양기탁(梁起鐸)등과 함께 지린(吉林省)으로 돌아왔다.⁶¹⁾

일제가 1920년 4월 20일 조선 총독과 육군대신 앞으로 보낸 문서인 고경 제 9818호 ‘지린성(吉林省)에서의 조선고대사연구회 해산에 관한 건’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지나 지린(吉林省)에 거주하는 조선인 정안립(鄭安立), 맹동전(孟東田), 양기탁(梁起鐸) 등은 지나인(支那人) 주사형(朱士衡)과 같이 모의하여 1918년 9월 들어왔다. 만주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으로서 만주에 독립국(고려국)을 건설하고자 기획했다. 후쿠오카현(福岡縣) 사람인 스에나가 미사오(末永節)가 참여하고 획책한 바 있다. 그리고, 양기탁(梁起鐸)은 1918년 12월11일 텐진(天津) 주재 제국총영사로부터 재류 금지를 명령 받고, 주사형(朱士衡)은 당시 자금을 수집할 목적으로 상하이(上海)로 갔으나, 소식이 두절되어 계획이 거듭 무너지고 꺾였다. 그러나 그들은 본래의 뜻을 변복하지 않고 도쿄(東京)과 만주에서 비밀리에 모의를 진행하였다. 규칙을 기초하였고 기와 휘장 등을 준비하였다. 12월 18일 스에나가 미사오(末永節)와 정안립(鄭安立), 이상규(李相珪) 등 약 50여명이 경성부 돈의동 장춘관⁶²⁾에서 회합하여 조선고사연구회 발회식을 거행하였다. 본회는 조선고대역사의 실제적인 발자취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조선 민족의 발전을 비보함에 목적으로 칭하였으나, 그 실은 조선인으로 만주에 독립국을 건설하는데 있음은 대동민국 창립 장정 문안에 의해서도 확실히 나타났다. 아래에 회원의 행동을 주의한 바 최근에 이르러 간부 등은 관헌의 양해를 얻었다고 칭하고 회원과 기부금 모집에 분주하기에 이르렀다. 본 건은 실은 만주에서 음모를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만 일본과 지나(支那)의 국교를 해할 뿐 아니라 조선의 치안에 관계함이 적지 않음으로서 경기도 지사는 소할(所轄) 경성 동대문 경찰서장으로서 동 회장 이상규(李相珪), 총무 김병수(金秉洙)를 소치하여 해산을 엄히 훈육한 바, 그들은 이를 승복하고 4월 1일 동 회를 해산하였다. 발송선: 내각총리대신, 외무대신, 육군대신, 척식국장관, 아까스까 총영사, 조선군 사령관⁶³⁾

60) 박걸순: 북간도 간민회 해산과 추이, 중앙사론 30집, 중앙대학교 사학연구소, 2009. 242쪽, 혹시 손병희가 장우근에게 1919년 2월 중순 송금한 돈은 아닌지 궁금하다.

61) 김희곤: 독립군을 기르고 광복군을 조직한 군사전문가 조성환, 역사공간, 2013. 59쪽

62) 1년 뒤 대동단원들의 모임이 장춘관에서 있었다.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6권 대동단사건 II >공판시말서 >공판시말서(三) 피고 金商 說에게 문: 그런데 마침내 선언서는 11월 27일 오후 5시에 발표하기로 되어 동대문 안 한일은행 지점 앞, 조선은행 앞, 배재학당 앞 등 3개 소에 자동차를 배치하여 동지들이 타고 선언서를 배포하면서 혹은 도중에 노상 연설을 하면서 보신각 앞에 모이고, 학생, 기타는 단체를 만들어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열심히 시위운동을 하지만, 노인조는 장춘관에 가서 요리를 먹고 손병희 등이 조용히 불들려 간 것 같아 제2의 손병희가 되려는 계획이었다는데, 어떠한가? 답: 그러한 일은 없었다. 문: 그리하여 피고와 이종준, 김익하는 지정된 시간에 장춘관에 가서 [이경용은 고향에 돌아갔기 때문에 參會하지 않음] 8명이 올 것이므로 5房에서 탁자에 앉아 요리한 상과 술 5병을 가져오라고 시켜놓고 부족하여 다시 술 5병을 시키고 전화를 걸어 둑여 갈 예정이었으나 아무도 전화를 거는 사람이 없어 범늦게 귀가했다는데, 어떠한가? 답: 틀린다. 술 3잔을 마셨을 뿐이다. 문: 다만 이신애가 총독부에 내도록 봉투를 피고에게 맡긴 것만은 장춘관에 가기 전에 우편함에 투입하고 장춘관에 갔다는데, 어떠한가? 답: 그러함에 틀림없다.

63) 정순택: 선각자 정안립, 예술의 숲, 2010. 116쪽~118쪽

이 사실은 만주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이 만주에 고려국을 건설하고자 기획하였는데 중국에서 자금 모금이 순조롭지 않지만 뜻을 유지하며 도쿄(東京)과 만주에서 비밀리에 진행시키고 있으며 고대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활동을 합법적으로 보장받으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1919년 4월 정안립(鄭安立)은 여준(呂準) 등과 함께 파리강화회의에 ‘조선독립안’을 제출하기 위한 대계획을 수립하였다. 정안립(鄭安立)은 민족의 자립과 독립을 꾀하고, 중국, 러시아, 조선 세나라가 서로 화합하는 것을 앞세우며 독립운동을 하다가 중국 관헌에 체포되기도 하였다. 일제가 1919년 10월 3일 발신한 ‘기밀공(機密公) 제 58호(비수11915호) 불령단 관계 잡건(不逞團 關係 雜件) – 조선인(朝鮮人)의 부(部) – 재만주(在滿洲)의 부(部)12 선인(鮮人) 비밀집회 상황보고의 건’ 1919년 10월 3일 발신한 ‘機密公 제 58호(비수11915호) 불령단 관계 잡건 – 조선인의 부(部) – 재만주의 부(部)12 선인(鮮人) 비밀집회 상황보고의 건’⁶⁴⁾에 의하면 ‘정안립(鄭安立)을 수령으로 하는 각지 조선인 동지 제1차 비밀회의를 1919년 9월 22일 지린(吉林) 북쪽 뒷산의 여관에서 개최하였는데, 중국(지나), 조선 및 러시아의 세 민족이 결속하여 만주, 봉고 및 러시아 영토를 연합한 새로운 하나의 한(韓)연합독립국을 건설하는 것을 논의하였다. 정안립(鄭安立)은 이러한 계획을 단행할 실력이 있느냐 질문에 대해 무형적으로 오직 민족의 결사적인 용감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군자금 등에 관해서는 비밀이라며 설명을 피했으며, 회의 참석자들은 정안립(鄭安立)을 추대해서 러시아와 중국 지역 조선인 총대표로 만들고 재정외교를 대변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정안립(鄭安立)은 대표를 고사하였고 의친왕(義親王)과 영친왕(英親王) 중에 누구를 추대하느냐는 논의에서, 영친왕(英親王)을 반대하는 사람이 다수여서 의친왕(義親王) 추대하기로 하고 재정외교는 정안립(鄭安立)에게 위임하였다. 그리고 한중연합 수뇌회 개최, 마적 두목 김정신(金鼎臣) 초청, 임시연합군정부 설립, 의친왕 호송, 군자금 조달 등을 결의하였다. 정안립(鄭安立)은 비밀회의 기록장부를 오가와(小川) 서장에게 보고한 동기가 어디에 목적이 있는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만일 이러한 계획이 그들의 순수한 정치적 사상에서 빚어진 것이거나 현시점의 일반 조선인의 망상이 소위 구한국의 회복 독립이라면 그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과거 그들의 조상의 역사에 기인한 한 편의 공상임을 피할 수 없다. 더구나 정안립(鄭安立)이 이 계획을 동지 이외에는 절대비밀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결의서를 특히 오가와(小川) 서장에게만 제시한 것은 심증을 의심할 만하다. 그들은 아무런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또한 러시아와 중국 측의 관련자에게도 사전에 어떤 양해를 얻은 것 같지는 않다. 특히 중국관헌의 조선인 행동에 대한 비밀조사 단속은 비교적 엄중하다. 오늘날 이러한 계책의 단행은 의심스러울만하다. 더욱 지속적으로 주의 중에 있음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大正 8년(1919년) 10월 3일’라고 기록되어 있다.

1919년 12월 13일 관동군 참모부에서 보낸 관참첩(關參諺) 제681⁶⁵⁾에는 정안립(鄭安立)과 이규(李圭) 등 10여 명을 체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정안립(鄭安立) 등이 체포된 이유는 봉길문제(奉吉問題) 분규로 고사빈(高士賓)⁶⁶⁾이 마적두목 김정신(金鼎臣) 등과 공모하여 조선의 독립을 동삼성 독립으로 전환하여 동삼성과 시

64) 1919년 10월3일 발신한 ‘機密公 제 58호(비수11915호) 불령단 관계 잡건–조선인의 부(部) – 재만주의 부(部)12 선인(鮮人) 비밀집회 상황 보고의 건’ 발신자: 모리다 칸조우(森田寛藏) 길름총영사, 수신자: 우치다 코사이(内田康哉)외무대신

65) 국외 항일 자료, 일본 외무성 기록) 불령단 관계 잡전, 조선인의 부, 재지나 각지 1. 關參諺 제681호 선인 소요사건 2 (1919년12월13일) 정안립(鄭安立), 이규(李圭), 김동진(金東鎮), 박건(撲建), 박민근(撲敏根), 권색일(權色一), 오항(吳抗), 권성일(權誠一), 강일희(姜一喜), 정서권(鄭瑞權)

베리아에 독립국을 세우는 것을 기도하였다는 것이며, 수뇌는 정안립(鄭安立)으로 과거 조선 관헌이었으며 의친왕의 망명미수사건에 관여하였는데 의친왕이 안동(安東)에 오는 것을 맞이하려 가다가 중국 측에 체포되었으며, 장쭤린(張作霖)과 가까운 시일내에 간담회를 갖는다고 기록되어 있다.⁶⁷⁾

정안립(鄭安立)은 동삼성 순열사인 장쭤린(張作霖)을 일제가 암살할 것이라는 정보를 알고 급히 전보로 알려 장쭤린(張作霖)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였다.⁶⁸⁾ 그 결과로 정안립(鄭安立)은 장쭤린(張作霖)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이기권(李基權)이 장쭤린(張作霖)과 교섭하는 과정에서 정안립(鄭安立)이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일제 측 보고에 의하면 정안립(鄭安立)은 1918년 8월, 동성한족생계회에는 비밀에 불이고 일본을 여행하였다.⁶⁹⁾ 이때 정안립(鄭安立)은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種種의 優遇’를 받았고, 귀순 표명을 하였다고 한다.⁷⁰⁾

아마 1918년 8월7일 정안립(鄭安立)은 장우근(張宇根)과 함께 일왕을 독대한 것 같다. 실권자인 테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1916년 10월~1918년 9월 총리대신역임) 총리대신은 만난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⁷¹⁾ 이때 야당당수로 도야마 미쓰루(頭山満)⁷²⁾와 중국인 2명이 배석하였다는데 도야마 미쓰루(頭山満)는 만주에

66) 장작림이 오패부에게 패하자, 고사빈(高士賓), 노영귀(盧永貴) 등이 흑룡강성 동남쪽의 소련 국경과 가까운 수이푼허(綏芬河)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고사빈은 전 길림군 제1사단장으로 이전에 장작림의 책략으로 쫓겨났던 길림독군 맹은원의 사위였다. 옛 부하인 노영귀 역시 가담하여 제19훈성여단을 무장해제시키고 수분하 주변의 중동철도를 장악하였다. 약 3,000여명 정도였던 반란군은 주변의 철도 경비대와 치안부대, 마적들까지 끌어모아 1주일도 안되어 15,000명 이상으로 불어났다. 오패부는 고사빈을 길림성 토역총사령에 임명하였다.

67)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42 42권 중국동북지역편 Ⅳ) 중국동북지역민족운동 Ⅳ) 권도상 형제 및 정안립에 관한 건] (68) 내전 제385호

68) 1916년 5월27일 이후 일제가 장쭤린(張作霖)에 대하여 2번의 암살시도가 있었다.

69) 정안립은 장우근과 협작하여 일본을 방문하였다.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40 40권중국동북지역편 Ⅱ) 중국동북지역민족운동 Ⅰ) 장우근/배일 선인회유방법에 관한 건 大正7년(1918년)8월7일

70) 박걸순: 북간도 간민회 해산과 추이, 중앙사론 30집, 중앙대학교 사학연구소, 2009, 242쪽

71)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40 40권 중국동북지역편 Ⅱ) 중국동북지역민족운동 Ⅱ) 張宇根及鄭安立二關スル件(273) 政機密送 제106호, 張宇根及鄭安立二關スル件

72) 한국근현대잡지자료, 별간곤 제14호 >역대반역자 열전. 민중으로 일어난 갑오대변란, 동학군도원수 전봉준, 1928년 07월01일, 金秉濬. 갑신개혁운동의 수령 김옥균 선생은 일본에서 십개성상을 무료히 보내면서 항상 과거의 실패를 개탄하고 장래의 기회를 기대하고 있던 중 쫓은(1893년) 가을에 한국 풍운이 점점 급전하여 김을 보고 인천의 모동지를 중개하여 멀리 동학당과 기택을 통하여 내옹외공으로 일기에 군족의 간당을 심제하고 청국의 세력을 구축하여 완전한 독립국을 만들기로 밀약이 있었는데 불행히도 동학혁명이 일어난 후 삼개 월 즉 甲午(1894년) 봄 3월 28일 上海埠頭 一旅館에서 한국자객 홍종우의 총알이 무참히 김옥균 선생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 이 참보를 접한 일본사회는 일시에 참매노호의 천지로 변하는 동시 頭山満(도야마 미쓰루) 일파의 양인지사들은 이일을 심상 묵과할 수 없다하여 伊藤總理에게弔慰戰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에 끝나고 오직 김옥균 선생의 유지를 계승하려고 하는 일파는 모험도한의 의를 결해야 鈴木天眼, 吉倉汪聖, 内田良平, 大原義剛, 大崎正吉, 田中侍郎, 白水健吉, 武田範之 등 16,711인이 부산에 도래해야 山紫水明閣에 모여 한 단체를 조직하니 이것이 곧 동란사 중 一異彩인 소위 天佑俠이다. 때는 마침 甲午暮春이라 멀리 동학군이 전라 충청 일대를 석권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사를 토의한 결과 이제 동학을 도와 閔奸淸黨을 구축하고 김옥균 선생의 유지를 이루기로 가결하였다. 그리하여 大崎正吉는 군자금 調辨과 무기 준비의 사명으로 귀국하여 頭山満(도야마 미쓰루) 기타 동지의 翰旋으로 폭탄 및 자금 조달을 받아 가지고 부산에 회래하여 활동을 개시하였다. 이에 天佑俠 일행은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부산을 출발하여 동학군 본영을 찾아갈때 도중 창원에서 馬木金鑛을 습격하여 폭탄화약 등을 강탈하여 가지고 동학군 대본영 소재지인 순창에 도달하여 전봉준을 장대에서 회견하였다. 전봉준은 그 실패한 원인이 일본원병에 있다 하여 처음에는 심히 天佑俠 일행을 의려하다가 서로 필담교환이 오랜 후에 그 성의로 내원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날에 대연을設하야 그 遠步의 로를 *慰하고 비장한 말로 「나는 사세의 불리로 일시 실패하여 此에 至하였으나 최후로 일대 격전을 試하야 자웅을 결하려 하노니 원컨대 공 등은 周到한 지도가 있기를 바라노라.」고 하였다. 기일후 마침 정찰대가 명일 중에 반드시 四路官軍의 내습이 있으리라고 보고하는지라 이에 天佑俠 일파와 함께 군사회의를 열고 각부서를 정할때 도종독이 전봉준, 군사에 한씨, 武田範之, 時澤右一, 동면군에 조씨, 田中侍郎, 日下寅吉, 남면군에 김씨, 鈴木天眼, 本間久介, 서면군에 배씨, 吉倉汪聖, 千葉之助, 木門군에 이씨, 大崎正吉, 大久保肇, 유격대에 이씨, 大原義剛, 井上藤三郎, 돌격대에 강씨, 内田良平, 西脇榮助, 이럴게 부서 조직을 끝난 후, 다음날 아침 6시부터 각각 소정 방면으로 향하여 남원, 담양, 고부, 임실 4로의 관군을 당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오전 10시경에 관민 양군의 충돌이 시작되어 오후 3시까지 대격전을 계속하였는데 관군이 일시 예봉을 피하기 위하여 퇴진하였으나 피차 수리 무상하였다. 그러나 전봉준은 벌써 대세 이거한 것을 짐작하고 다음날 3군을 호위하는 석상에서 서풍을 향하여 시불리혜를 느끼면서 청일 양군의 간섭을 통룬하며 시운의 부조를 비관하고 초연히 잠시 동학군을 해산하고 나는 심산에 은둔하여 시기의 재래를 기대하겠으니 제군들은 각자 도

고려국을 세우는 일에 호의적이었다. 일본 내각에서는 조선 총독⁷³⁾이 승인해주면 고려국 건설을 고려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안립(鄭安立)은 서울에서 조선 총독을 만나 고려국 건설을 타진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하자 조선 총독에게 잉크병을 던지며 통치의 잘못을 꾸짖었다고도 한다.

정순택이 기록한 정안립(鄭安立)의 일화는 다음과 같다.⁷⁴⁾

“윌슨(Thomas Woodrow Wilson) 대통령이 민족자결권을 부르짖자 일본 정부는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정황을 살피고자 하여 대상을 물색할 때 만주별판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는 정안립(鄭安立)이 적임자로 보였다. 당시 정안립(鄭安立)은 간도의 수령이라 칭했고, 두세 명의 회장과 같이 일하고 있었다. 고종황제의 쳐조카인 장 씨라는 분⁷⁵⁾이 있었다.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분이었다. 그를 앞세워 타진했는데, 정안립(鄭安立)은 어떠한 처지에서 지목되었는지 정확히 판단하고는 농락하기로 작정하였다.”⁷⁶⁾

그리고, 첫째로 비용을 스스로 조달할 것이고, 둘째는 일본에 건너가 하고자 하는 말은 다 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는 ‘지린(吉林)’으로 무사히 귀임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하였다. 일본정부에서는 군말 없이 이를 수용하였고, 때 맞춰 내각을 소집하여 각료회의를 열어 총리와 면담이 이루어졌다.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공개하였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기대했다면 오금이 저렸으면만 기개를 보여주고 싶었을 터이니 당당했다고 한다. ‘만주에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데 알다시피 우리는 가진 게 없다. 부득이 손을 내밀고 있음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첫째가 자금이고 둘째가 병력인데, 6만 명의 군사를 맡겨주면 만주에서 활개치고 있는 군벌들을 쳐부수겠다. 그래서 국가가 건설되면 일본이 맹주로서 군림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리되면 한국과 일본, 중국이 안정되어 더욱 발전할 것이다. 자고로 동양 삼국은 세 발로 서 있는 솔단지 같다. 그런데 일본은 한 발을 자르고자 한다. 만약 쓰러진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생쌀로 허기를 달랠지도 모른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서로가 불행한 것이니 우선 막고 보아야 할 일이다. 일본은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고 넉넉히 밥을 지어 같이 먹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상상하지 못한 말에 각료들은 웅성거렸고, 여기저기서 컵에 담겨 있던 물이 춤을 추었다. 그에 맞춰 일본

피하라는 통절비절의 일대 별사를 술했다. 이에 天佑俠 일단은 모든 포부와 목적이 개위됨에 실망하여 천을 양할 뿐이었다. 다음날 天佑俠은 비분교지 중에서 전봉준을 이별하고 순창을 떠나 각각 산귀할때 혹은 계룡산으로 혹은 북조선을 경유하여 海蓼威로 北海道에 혹은 조선내지에서 日淸 전역의 군대에 편입 혹은 공사관원의 밀정으로 그리하여 天佑俠 일행은 당시 도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직 동란사상에 기우의 기록을 남길 뿐이었다. 그후 선내에 두류하고 있던 田中侍郎은 경성감옥의 간수를 매수하여 심야에 전봉준을 면회하고 ‘당신이 이상의 반분도 이루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기다리는 것은 남아의 할 바가 아니라 당신이 옥을 탈출할 결심만 있다고 하면 관리 매수와 공사관 교섭, 인천선박 준비 등은 내가 맡아할 터이니 당신이 탈출하여 일본에 망명하였다가 시기를 대야야 권토중래하는 것이 어떠하나’고 간근하였으나 전봉준은 죽기를 각오한 결심을 보이면서 ‘나의 할 일은 이만큼 하여두고 나머지 일은 후생에게 맡길 때 름이오. 일본지사의 후의는 감사하나 일본정부의 무성의라는 것보다 동학군에 대한 태도는 족히 신뢰할 수 없으며 나의 다리도 이와 같이 중상(被捉時 左脰 被劍)하여 행보불능이니 탈옥은 단념하노라.’하고 從容히 경의를 표하여 여러분께 감사한 뜻을 전하여 달라하고 처연한 안색으로 田中을 목송하였다 한다. 田中은 그 친우에게 ‘이날 밤 전봉준 장군과 영별한 것이 나의 일평생 단장의 비곡이었다.’고 말하였다.

73) 당시 조선총독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1916.10~1919.8. 조선총독)였다.

74) 정순택: 선각자 정안립, 예술의 숲, 2010. 19쪽~22쪽

75) 의친왕의 외사촌으로 당시 철령에 거주하는 장우근(張宇根)임. 순병희는 3.1운동 2주전에 장우근에게 송금을 하였다. 이 지금은 정안립(鄭安立)에게 전달된 것 같다.

76) 국외항일운동자료, 일본외무성기록, 불령단관계잡간-조선인의 部-재만주의 部 7)장우근과 정안립의 등정에 관한 건, 12558(暗) 제70호, 1918년 09월27일, 장우근 여준 등 일본관광단원 선정, 정안립이 한인의 일본관광 불필요 聲言, 정안립과 장우근 中傷, 정안립과 장우근의 길림영사 방문.

수상은 아킬레스건을 물고 늘어졌다. ‘만주에 국가를 세우면 조선은 어찌할 것인가?’ 처음부터 말장난이었으니 망설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귀국의 소신껏 하라.’ 정안립(鄭安立)의 서슴없는 말이었다.

그런데 농락하면서도 본심의 일부는 들어낸 것 같다. 일본의 자금을 끌어들여서라도 터전을 닦은 후, 고종황제(高宗皇帝) 혹은 영친왕(英親王)이나 의친왕(義親王)을 모시고 망명정부를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혹자는 정안립(鄭安立)을 입헌군주론자라고 하였다.

우리민족의 새 터전을 마련할 자금이 필요한데, 궁여지책으로 순 내밀게 되었다며 포부를 밝혔다. 사람이 살지 않는 만주벌판에 이주하여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면 누이 좋고 매부 좋지 않겠는가. 일본은 옛날부터 섬에서 탈피하고 싶어 했다. 우리는 간도를 개간하여 옥토로 만들 능력이 있다. 문제는 넉넉한 자금이다.

전쟁사를 보면 힘을 비축할 때까지 잠시 땅을 내어주어 적이 포만감에 히죽히죽 웃게 하는데, 교묘한 일본은 안 말려들었던가 보다. 총독의 결재만 받아오면 지원해 주겠다는 말로 얼버무렸다. 결과적으로 빈손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그 후였다. 언제나 그림자와 같이 하여 조그마한 일조차 알려지는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안립(鄭安立)은 김규홍(金奎興, 金復), 박용만(朴容萬)과 같이 둔전제를 실시하려고 하였는데 이것은 임시정부와 교감을 이뤘고, ‘대고려’국이 건설되면 합한다는 약조가 있었다.

1958년 5월 박계주(朴啓周)가 동아일보에 연재한 소설 ‘대지의 성좌’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다.

‘정안립(鄭安立)이 간도로 망명하여 <농민회>와 <대성유교>(공교회)를 만들어서 간민회에 반기를 들었다. 정안립(鄭安立)의 주장은 <독립 정신을 가진 자는 독립운동을 할 것이요. 간민회는 농민들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즉 독립운동자가 간민회의 탈을 쓰고 일반 주민을 지도한다는 것은 부당하니 농민 자신에게 자치행정을 맡기라.>고 공개적인 성토를 하면서 맹렬히 반대하였다. 그래서 간민회로서는 정안립과 그 일당을 일본의 앞잡이인 주구들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품었다.

그러나, 정안립(鄭安立)은 이범윤(李範允) 일파의 잔여인사들과 손을 잡고 진심에서 애국운동을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으며, 특히 기미년 3.1운동이 있기 전에 그는 북간도 대표 5인을 자의로 선정하여 멀리 중국 광동(廣東)에 가서 국민당의 두령 쑨원(孫文) 총리를 면회하고 한인의 독립운동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77,78)}

정안립(鄭安立)은 쑨원(孫文)과 장제스(蔣介石) 등을 만나 조선의 실정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존명당(尊明黨)을 조직하여 4만 여명의 당원을 모았으며, 60만 원의 자금을 확보하였다.⁷⁹⁾

‘의군부는 이범윤(李範允)이 간도관리사 시대에 그를 추종하며 북간도 최초의 독립군이었던 사람들이 지난 10년간 농촌에 파묻혀 있으면서 정안립(鄭安立)과 함께 농민회와 공교회를 만들어 농민운동과 유교운동을 하고 있었으나 그 존재가 희미했었다. 그러다가 기미년 3.1운동이 있는 직후 각지에 흩어진 동지들을 규합하여 무력 독립단체인 의군부를 조직하였다. 의군부의 총재에는 일찍이 시베리아(Siberia)로 망명해버린

77)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5 5권 3.1운동편 1) 제1편 3.1운동 관계 신문보도 1. 국내신문 논설 기사) 대한독립신문, 대한독립신문 제10호 (간도). (출전) 4252년(1919년) 4월 27일 발행 大正八年(1919) 6月 9日 신문계역한인. 존명당의 대활동, 廣東來信에 거하면 만주와 시베리아 거주 鮮人으로써 조직된 삼면조의 존명당 대표자 정안립은 上海에서 중국여사 憑自由와 동행하여 廣東에 지하여 국회의원과 신문기자 등을 방문하고 조선독립에 찬성할 것을 유세하는 동시에 該黨 대표자 2명을 上海에 파견하고 손일선, 손홍이 등의 연락을 통해 파리체재의 종국위원회으로 하여금 조선독립문제를 회의하고 요구하기로 하였으나 중국 南地의 언론계는 성의로써 多大한 동정을 표하였다고.

78)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5 5권 3·1운동편 1) 제1편 3.1운동 관계 신문보도 2. 국외신문 논설 기사) 中華商報 (출전) 1919년 5월7일 발행. 한 국의 혁명정형

79) 1958년 5월10일 동아일보 4면 생활/문화 ‘대지의 성좌’

이범윤(李範允)을 명의만으로 추대하고 총사령관에 김현규(金鉉奎), 참모장에 진학신(秦學新), 총무부장에 최우익(崔友翼), 군사부장에 김청풍(金清風), 외교부장에 신립(申立), 통신부장에 지우강(池雨江)이었으며, 본거지는 연길현 명월구(明月溝)였다.⁸⁰⁾

의군부의 최초 근거지는 봉오동 입구에 있는 가야하 동쪽의 초모정자, 동림동에 두었다가 엔지현(延吉縣) 이란꺼우(依蘭溝)를 거쳐 엔지현(延吉縣) 맹웨꺼우(明月溝)로 이동하였다.⁸¹⁾ 당시 의군부는 5개 대대의 병력이 있었다. 정안립(鄭安立)은 이범윤(李範允)과 같은 노선의 독립운동을 하였다.

3. 정안립(鄭安立)

정안립(鄭安立, 1873~1948)⁸²⁾은 진천출신으로 본명은 정영택(鄭泳澤)이다. 1888년에 전우(田愚)의 문하생으로 사마시 생원과에 합격한 후, 1895년 법관양성소를 졸업하였고, 1897년 한어학교(漢語學校)를 졸업하였다. 1902년 해민원 주사에 임명되었으며, 1904년 법관양성소 교관으로 천문학 강술을 하며 감독사무를 보았다. 1905년 5월 고종황제(高宗皇帝)의 권유로 보성전문학교가 설립되었을 때 보성전문학교 학감과 교감을 지냈으며, 1909년 2월 3대 보성전문학교 교장⁸³⁾을 지냈다. 1907년 신민회에 가입하여 신교육구국운동을 하였다. 1908년 2월 기호홍학회⁸⁴⁾를 설립하고 교육사업에 종사하였다. 1909년 5월 10일 청주에 보성학교를 설립하고, 오창면 기암리에는 기암학교를 설립하는 등 구국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청주갑부 민영은(閔泳殷)⁸⁵⁾과 처남 매부지간이어서 민영은(閔泳殷)의 후원을 많이 받았다. 1910년 7월 보성전문학교 교장을 사임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정태은(鄭泰殷), 김만배(金萬培, 益濟), 이중수(李曾秀) 등 여러 동지들과 우국단을 조직하여 항일독립운동의 방략을 모색하였다. 국내에서의 활동이 여의치 않자 정태은(鄭泰殷), 김만배(金萬培, 益濟) 등과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가려고 하였으나, 정안립(鄭安立)은 안질로 검역에서 탈락하여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다. 그리고 일본을 더 많이 알기 위하여 정안립(鄭安立)은 양성군수를 역임하였다. 정안립(鄭安立)은 양성군수 재직도중인 1910년 11월 질이 나쁜 일본인을 죽기 직전 까지 때리고 자금을 몸에 지닌 채 상복차림⁸⁶⁾으로 원산에서 배를 타고 룽징춘(龍井村)으로 망명하여 이름을 정안립(鄭安立)이라고 개명하였다. 1911년 이범윤(李範允)과 합심하여 농민회와 공교회를 조직하여 농민운동과 유교운동을 하였다. 정안립(鄭安立)은 모범학당 학감으로 교육사업에 종사하고 서일(徐一)과 중광단을 조직하여 무력투쟁을 하였다. 1911년 6월 정안립(鄭安立)은 사숙개량회를 조직하여 낙후된 한학 사숙을 일으켜 이주한 북간도 학자 간의 단결을 도모하였고, 12월에는 국자가(局子街, 延吉)에서 간민회(墾民會)⁸⁷⁾를 조직하여 민족운동에 힘썼

80) 1958년 5월24일 동아일보 4면 생활/문화 '대지의 성작'

81) 김준선, 안화춘, 허영길: 최진동 장군, 흑룡강 조선 민족 출판사, 2006. 106쪽

82) 정순택: 선각자 정안립, 예술의 숲, 2010.

83) 김성수가 정안립을 대면할 때는 무릎을 꿇고 선생님으로 모셨다 한다.(정안립 손자 鄭昊溶 증언)

84) 1908년 1월 민족자강을 위한 교육계몽운동을 목적으로 발기인 정영택(鄭永澤)을 비롯, 기호인사 105명이 서울 신문로의 보성소학교(普成小學校)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초대회장에 이용직(李容植), 부회장에 지석영(池錫永), 총무에 정영택을 선출하였다. 기호홍학회 월보 창간호에는 '의친왕의 '咸與維新(함여유신)'이라는 친필을 실었다. 기호홍학회 교육부장 및 사무장 김가진, 천무원 명부에 김사준, 장인근, 김창한, 김영진, 민영달, 김택영 등이 기록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기호홍학회,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역사>근대사

85) 2014년 10월 31일 조선일보 사회 '친일파 민영은의 일짜배기 청주땅, 올해말 국가 귀속된다.' 민영은은 겉으로는 친일을 가장했지만, 남모르게 독립운동가를 후원하였다. 올바른 친일파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86) 의친왕도 망명시도 시에 상복차림으로 체포되었다.

87) 2006 봉오동전투승리 86주년 기념 학술회의 요지, 간민회 왕칭현 분회장에는 최명록(최진동)이 선임되었다.

다. 1915년 6월 정안립(鄭安立)은 간도방면의 예수교도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하였다. 1916년 12월 정안립(鄭安立)은 간민회(墾民會) 대표로서 중국에 입적한 한국인의 한인 관할 문제에 관한 청원서를 중국 외교총장에게 발송하였다. 1917년 12월 정안립(鄭安立)은 독립자치의 목적으로 동삼성한족생계회 대표 및 존명당(尊明黨) 대표⁸⁸⁾를 지냈는데, 동삼성(東三省)과 시베리아(Siberia)에 당원이 4만 명이고 자금이 60만원으로 그 세력이 지린(吉林), 통화(通化), 창춘(長春), 싱징(興京), 류허(柳河), 허룽(和龍), 엔지(延吉) 각 현과 북하얼빈(哈爾濱) 지방까지 아울렸다. 1919년 4월 파리(Paris) 강화회의에 정안립(鄭安立)은 여준(呂準) 등과 함께 조선독립안을 제출하였으며, 대계획을 수립하여 쑨원(孫文)과 면접하고 임시정부 국회의원 측에 운동을 하였으나, 부결되자 무력시위를 하였다. 1919년 간도방면 항일 조선인 집회 정황에는 지린(吉林)에서 정안립(鄭安立)을 수령으로 하는 독립군 부대⁸⁹⁾가 무산방면으로 진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90,91)} 1919년 만주에 고려국을 건설하기 위한 모금목적으로 맹보순(孟輔淳)⁹²⁾, 양기탁(梁起鐸), 이상규(李相珪)⁹³⁾, 김병수(金秉洙)⁹⁴⁾ 등 약 50여명이 경성부 돈의동 장춘관에서 회합하여 조선고사연구회 발회식을 하였다.

1920년 4월 10일 동아일보에는 동년 1월 18일 정안립(鄭安立), 일본인 스에나가 미사오(末永節)⁹⁵⁾과 장춘관에서 조선고사연구회 창립총회를 하였다는 기사⁹⁶⁾가 있으며, 1921년 12월 15일 동아일보에 ‘대풍수전공사(大豐水田公司) 발기’란 제목⁹⁷⁾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동삼성의 수전 개척과 기타 농민에 대한 유리사업을 목적으로 하야 중국 지린(吉林)성에 재류하는 정안립(鄭安立), 맹은원(孟恩遠) 씨등 조선인 급 중국인 20여인의 발기로 자본금 5백만 원의 대풍수전 고분공사를 계획 중이라는데 주식 반분은 조선 내지에서 모집키 위하여 정안립(鄭安立) 씨와 중국인 방효낭(方孝朗),

88)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41 41권 중국동북지역편 Ⅲ) 중국동북지역민족운동 Ⅱ) <鄭安立支那排日派馮某ト提携、獨立問題提起ノ件、(15) 來電 廣東 制59호 (秘受 4518號), 大正八年(1919年) 4月15日 午後 5時50分發 16日 午前10時35分 着, 廣東 井上中佑 總長 宛 '東三省及西伯利ニ會員約三百萬ヲ有スト稱シアル朝鮮人ヨリナル秘密結社尊明黨カ約六十萬ノ資金ヲ得其ノ黨員中一名ヲ朝鮮内地ニ派遣シ獨立運動シツノアリシカ在上海黨員中鄭安立ナ爾鮮人支那ニテモ有名ナル排日派タル馮某ト共ニ去ル八日廣東ニ來リ馮ノ紹介ニテ國會ニ對シ朝鮮獨立問題ヲ歐洲會議ニ提出ノ件ヲ決議セシメントン運動スル處アリタルモ國會ハ取合ハサリシト、然ルニ鄭ハ昨夜國會議員新聞記者及基督教會員十八名ヲ旅館ニ招待シ更ニ國會ニ對スル運動方哀願スル處アリタリ新聞紙上ニハ岑春煊ヲ訪問シ軍政府ノ援助ヲ求メタル旨記載シアルモ目下ノ處サル事實ナシ、岑春煊ハ數日前ヨリ賢臘病ニテ一時ハ可ナリ重ナリシモ昨今ハ稍輕快ニ赴ケリ'

89) 재외동포사 종서 13 중국 한인의 역사 (상) 제1장 초기 한인 이민 사회의 형성(1860~1919) 국권피탈과 만주 한인사회》북간도 지역의 한인 사회와 독립운동. 대한정의군정사(大韓正義軍政司)는 안투(安圖) 현에서 이규(李圭), 강희(姜熹), 홍정천(洪禎贊), 장남섭(張南燮), 이동주(李東柱), 조동식(趙東植), 오일(吳一)의 병들이 중심이 되어 3·1 운동 직후인 1919년 3월 대한정의단임시군정부를 조직하고 1919년 10월에 대한정의군정사로 개편하였다. 그 병력은 본영인 내도(內道)에 둔 100여 명 이외에도 소사동(小沙洞)에 240명과 화덴 현 고동동(古桐洞)에 100명이 있었다. 1920년부터는 교련과장이었던 조동식의 전술이 그 위세를 전 만주에 떨치기도 하였다.

90) 이규(李圭). 강이중(姜以仲, 受禧)과 관련된 대한정의단 임시군정부가 무산방면으로 진격하였다. 1920년 8월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낭안현(寧安縣)으로 퇴각한 뒤 12월에 김좌진(金佐鎮), 이청천(李青天) 부대와 합류하여 대한의용군을 조직하였다. 네이버지식백과, 대한정의군정사, 두산백과>한국사>일제강점기

91) 국외 항일 자료, 일본 외무성 기록) 불령단 관계 잡전, 조선인의 부, 재만주의 부 10.기밀 제 22호 정안립의 배일행동에 관한 건 (1919년 5월 17일) 이때 국가가 잡화상인 이복여(李福汝)는 강이중(姜以仲, 受禧)에게 전보를 보냈는데 이들은 정안립과 관계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대한정의단 임시군정부와 관련되어있다.

92) 용인출신으로 이희영과 친교가 깊다.

93) 회장

94) 총무

95) 스에나가 미사오는 동양척식회사와 총업은행이 1천만 원을 지출하여 한국인 측에 대여하고 그들을 개척 사업에 종사시키며, 또한 회사 측도 미개간지를 매수함으로써 30만 내지 50만 명의 한국인 실업자를 수용하여 구제할 수 있다고 계획하였다. 구체적인 운동지금까지 제시한 이러한 계획은 만성적인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던 당시의 한국 독립운동가 들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스에나가 미사오는 1918년 8월 당시 하얼빈 아시아 통신사 사장으로 있었다.

96) 1920년 4월 10일 동아일보 3면 사회 '고사연구회 해산'

97) 1921년 12월 15일 동아일보 2면 사회 '대풍수전공사 발기'

항석진(項席珍) 양 씨는 일전에 입경하야 여화원(麗華園)에 체류 중이라더라.'

정안립(鄭安立)은 대풍수전공사(大豐水田公司) 설립을 위한 원조를 청하기 위해 조선총독인 사이토 마코토(齋藤 實)와 직접 접촉하기도 하였다. 이 계획은 일본측 세력과 제휴하여 중국 영토를 침범하기 위한 배신 행위로 알려졌으며, 특히 재만 중국인들 사이에서 심한 마찰이 생겨 좌절되고 말았다.

정안립(鄭安立)은 1924년 7월에도 화풍수전공사(華豐水田公司)라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전에는 현지 중국인들의 반발로 유한공사의 설립이 좌절되고 말았던 것을 반성하여, 이번에는 저명한 중국인 인사들이 다수 포섭함으로써 계획을 성공시키려고 한 것을 알 수 있다. 화풍수전공사(華豐水田公司)의 목적사업은 중국인 측에서는 유리한 토지로 출자하고 한인측에서는 상당한 개간비를 판출하여 수전을 경영하고 토비를 방어할 계획이었다.⁹⁸⁾

그리고 1925년 4월 21일 '용산서 활동음모사건 발각'이라는 기사⁹⁹⁾는 다음과 같다.

'정안립(鄭安立)의 사돈인 권보상(權輔相)의 집에 상하이(上海)임시정부의 특파원이 독립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주류한 형적이 있었고, 중대사건 연루자가 용산에 잠복하였던 사실이 있다는 단서를 잡아 권보상을 취조한다.'

'권보상(權輔相)¹⁰⁰⁾의 동생인 권명상(權命相)은 모 사건으로 수감된 후 출감하여 평톈(奉天)에 있으며, 조카 권희목(權熙穆)¹⁰¹⁾도 장쭤린(張作霖) 군의 군의로 참전하였다가 행방불명되었다.'

권보상(權輔相)은 1907년 설립된 국문연구소¹⁰²⁾의 내부 서기관을 지냈는데 주시경(周時經), 지석영(池錫

98) 1923년 10월 28일 동아일보 기사 '鄭安立 泣告 祖國同胞書'

99) 1925년 4월 21일 동아일보 2면 사회 '龍山署活動 陰謀事件發覺'

100)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42 42권 중국동북지역편 IV)중국동북지역민족운동 IV)권도상, 보상 구류사건에 대한 회신의 건 (24) 내전 제385호 大正八年(1919) 12月20日 後午6時00分、奉天發 二十一日 午前八時一五分 本省着 赤塚總領事、内田外務大臣、貴電第一九六號ニ關シ (極秘) 權道相及權輔相兄弟ハ先頃當地支那監獄ニ拘禁中ナリシ處交渉ノ結果同時ニ逮捕セラレタル他ノ七名ト共ニ一昨十八日釋放セラレ 權兄弟ハ昨日朝歸國ノ途ニ就ケリ鄭安立ハ一時釋放セラレタルモ支那官憲ハ再ヒ彼ヲ逮捕シ目下秘密裡ニ取調中ナル趣ナル處鄭ハ歸化鮮人ナルヲ以テ之力取還シ多少ノ困難ヲ見ルヘシト思考ス。右鮮人拘禁ノ理由ハ支那側ノ謂フ所ヲ聞クニ彼等鮮人ハ囊ニ吉奉問題紛糾ノ際高士賓ト結ヒタル馬賊ノ頭目金鼎臣及高士賓ノ舊部下等ト通謀シ東三省ノ獨立ヲ企劃シ治安ヲ紊ルノ虞アリシ由ルト云フニアル處右東三省獨立ノ陰謀ハ權兄弟力直接本官二語ル所ニ依レハ事實ニシテ未永節ヲ初メ在東京内田良平其他多數ノ浪人之ニ關聯シ居ル趣ニテ又本莊浪衛ノ内話スル所ニ依レハ該陰謀ニハ我政府部内ニモ贊成者アル趣ニテ運動資金ハ政友會ヨリ出テ居ルトノコトナリ陰謀ノ動機ハ朝鮮ノ獨立ヲ東三省ニ轉換スルノ目的ヲ以テ鮮人ノ爲東三省並露領西比利ノ一部ニ獨立國ヲ建設スト云フニアリテ露國人ノ一部モ此運動ニ贊意ヲ表シ居レリト云フ尙鄭安立ハ此ノ陰謀ノ首腦者ニシテ囊ニ朝鮮官憲ヲ驚カシタル義和官即チ李堉公誘拐事件モ之ニ關聯シ當時鄭等ハ同公ヲ推シテ右獨立運動ノ人氣ヲ集ムル計劃ヲ立テ李堉ヲ迎フル爲安東ニ向フ途中支那側ニ逮捕セラレタルモノナリト云フ尙本官ハ近日中張作霖ニ懇談ノ上鄭安立ヲ借受ケ詳細内容ヲ聽取りタル上更ニ詳報スヘシ (續ワ) 권도상 권보상 형제가 중국(지나) 감옥에 구금된 이유는 길봉문제(吉奉問題)인데 고사빈(高士賓)의 옛 부하와 마직두목 김정신(金鼎臣)을 결속시켜서 동삼성 독립을 기획한 것이다. 여기에는 스에나가 미사오(末永節)과 동경에 사는 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 등 기타 다수의 낭인(浪人)이 관련되어 있다. 일본정부내에서도 찬성자가 있으며, 운동자금은 정우회(政友會)에서 나온다. 이러한 음모의 동기는 조선의 독립을 동삼성으로 전환시켜서 조선인으로 동삼성과 시베리아 일부에 독립국을 건설한다는데 러시아인 일부도 이러한 운동에 찬성을 표시하였다. 오히려 정안립이 이 음모의 수뇌자로 전에 조선관리를 놀라게 했던 의친왕의 망명미수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당시 정안립은 의친왕을 추대하여 독립운동의 인기를 결집시킬 계획으로 의친왕을 환영하기 위해 안동으로 향하는 도중에 중국(지나) 관현에 체포되었다고 한다. 본 관리는 근일중 장작리를 면담하고 정안립과 주고 받은 상세내용을 듣고 보고하는 것이다.

101)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권희목(1891~1930): 일제 강점기 제천 출신의 독립운동가이다. 본관은 안동(安東). 권상하(權尚夏)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권도상(權道相)이다. 공화주의 정신에 바탕을 두어 전개된 3·1 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나라 안팎에서 여러 개의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서울에서는 3·1 운동의 감동 속에서 한성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1919년 4월 2일 권희목(權熙穆)은 이규갑 등 여러 동지들과 함께 인천의 민국공원(현 자유공원)에서 국민 대회를 열어 한성 임시 정부 수립을 결의하였다. 그해 4월 7일 밤, 안국동에 있는 박이근(朴理根)의 집에서 박이근, 허익환 등과 함께 '조선민국임시정부조직포고문'과 '도령부령(都領府令)' 제1,2호 2,000여장을 인쇄하여 서울 시내 요소에 배포하였다가 일제에 체포되었다. 당시 권희목은 천도교가 만세 운동을 주도한다고 보고 천도교와는 별개의 정부조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경성지방법원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경성복심법원에서 1년형으로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102) 네이버 지식백과, 국문연구소, 두산백과/언어>한국어

永)등과 같이 활동하였다. 동아부인상회¹⁰³⁾는 1920년 조직됐던 주식회사 겸 협동조합으로 기혼 여성만으로 결성된 조직이었으며 부인들이 필요로 하는 가정용품을 주로 판매하였다. 이 때 권보상(權輔相)은 상무원 이사로 김성수(金性洙)와 같이 활동하였다.

또 1925년 11월 21일 동아일보 '수상한 정안립(鄭安立)' 기사¹⁰⁴⁾는 다음과 같다.

'기미년 3.1운동이 있은 후 한참은 만주방면에서 민족운동을 하다가 년전에 일본당국의 양해를 얻어 만주에 무슨 회사를 설립하고 조선 사람을 이민시키자는 주창을 한 일로 세상에서는 좋지 못한 비평을 하여오던 정안립(鄭安立)은 한 달 전부터 만주에 있는 박찬익(朴贊翼), 박취석(朴醉石), 김병희(金炳喜)등 몇 사람과 자주 상종을 하여 왔다는데 운동자금이라고 민병○에게 돈 오백 원을 청구하다가 그만 거절당하고 11월 초에는 김병희(金炳喜)를 평톈(奉天)으로 파견하여 자금을 모집한 일이 있었고, 근일에는 김병희(金炳喜)와 수명을 조선 내지로 파견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중이라는데 정안립(鄭安立)이 그 모집한 돈으로 장차 무엇을 하려는지 당국에서는 매우 주목을 한다더라.'

김병희(金炳喜)¹⁰⁵⁾는 1919년 박용만(朴容萬)의 지시로 박상환(朴祥煥)과 함께 김성수(金性洙)와 민영달(閔永達)을 만나러 가다가 청량사에서 일경에 체포된 사람인데 1925년에는 정안립(鄭安立)과 같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관찰된다.

일본측 세력과의 유착관계로 인해 정안립(鄭安立)의 운동은 내외의 한국인 사이에서 매우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관련해서 임정에 참여한 독립운동가 사이에서는 '대고려국' 운동의 배후에 미츠노 렌타로(水野鍊太郎) 등의 후원이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고, 당초 부터 정안립(鄭安立)의 움직임에 경계심을 갖고 비판적으로 보았다. 동아일보에서는 그가 시도한 모금활동에 대한 경계를 촉구하고 있다.

그 외의 정안립(鄭安立) 관련기사는 다음과 같다.

'만주에다 대고려 왕국을 건설한다고 분주히 활동하던 정안립(鄭安立)은 1927년 7월 10일 종로서에 검거되어 평양경찰서로 압송되었다.'¹⁰⁶⁾

'정안립(鄭安立)이 세계연방 자유연맹을 조직하려 했다.'

1927년 정안립(鄭安立)은 만주를 중심으로 세계평민(世界平民), 호조(互助), 합작(合作), 경제균등(經濟均等) 등의 정신을 근본으로 하고 생존상 자유평등의 장해를 제기하여 세계평민자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세계개조를 위하여 동서의 필요한 지대에 근거를 두고 세계평민 연방 자치기관을 건설하며 세계 공용어와 공통 화폐를 사용하는 것 등 여러 가지 강령을 가진 세계연방자유연맹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선전하기 위해 국내로 귀국하였다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일제에 체포되었다.¹⁰⁷⁾

'용의조선인 명부' 227쪽에는 정안립(鄭安立)이 만주사변 후에 상하이(上海)에서 동아국제연맹(東亞國際聯盟 1933~1940)¹⁰⁸⁾을 조직하여 일본과 중국 등을 무대로 특히 도쿄(東京)에 있는 대관들에게 진정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다가 정안립(鄭安立)은 일제 고등계 형사들에 의해 서울로 압송되어 중부

103) 네이버 지식백과, 동아부인상회, 네이버 기관단체사전:종합/기관/단체>경제

104) 1925년 11월 21일 동아일보 2면 사회 '수상한 鄭安立'

105) 김도훈: 미 대륙의 항일무장투쟁론자 박용만, 역사공간, 2010. 116쪽

106) 1927년 7월 14일 동아일보 2면 사회 '鄭安立 被逮'

107) 1927년 3월 13일 동아일보 2면 사회 '세계를 개조하고 연방자치를 운동'

108) 1927년 7월 16일 동아일보 2면 사회 '세계연방—— 자유연맹 조직'

서에 연금되었다.

4. 흑룡회(黑龍會)와 중국혁명동맹회의 구상

1901년 2월 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의 집에서 ‘흑룡회(黑龍會)’가 발족되었다. 흑룡회(黑龍會)는 창립되자마자 일본과 러시아 간의 주전론을 맹렬히 주장하였다. 흑룡회(黑龍會) 사람들은 중국의 혁명운동가들인 쑰원(孫文), 장빙린(章炳麟), 송자오런(宋教仁)과 일진회 이용구(李容九)와 송병준(宋秉峻)과 친교를 맺었다. 흑룡회(黑龍會)는 성립당시부터 러시아를 의식하면서 만주(滿洲)와 시베리아(Siberia)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러일전쟁이 끝났지만 흑룡회(黑龍會)의 만주(滿洲) 일대에 대한 관심은 여전했고, 그들은 만주(滿洲)에 신국가를 건설하여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대한 방벽으로 삼을 계획을 수립하고자 했다.¹⁰⁹⁾ 한편 중국혁명동맹회는 일본으로 망명한 멸만홍한파 중국인 혁명가 인사들이 와 손을 잡고 대동단결하여 만든 모임인데, 이들은 당시의 청나라 조정인 만주(滿洲)족을 몰아내고 한(漢)족의 국가를 재건하는 것을 지향하였고, 그 때문에 만주(滿洲)와 몽골(蒙古)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소유 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그들도 러시아가 만주(滿洲)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남하를 저지할 필요는 있다고 여겼다. 장빙린(章炳麟)은 만주(滿洲)와 몽골(蒙古)을 방기해 두면 한(漢)족의 영원한 화근을 남긴다면 사람이 드문 공백지 만주(滿洲)를 러시아의 손에 넘기는 것을 반대하면서, 속히 만주(滿洲)를 공개해서 토착지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만주(滿洲)와 몽골(蒙古)에 이주하는 민족에 대해서는 굳이 한(漢)족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흑룡회(만주 신국가 건설), 중국혁명동맹회(만주의 토착화), 일진회(회원의 생활 보장) 세 그룹의 뜻이 합쳐되어 탄생한 프로젝트가 바로 일진회 백만 회원의 만주(滿洲) 이주 계획이었다. 1907년 8월, 일진회 재단 선언서가 발표되면서 ‘일진회 재단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흑룡회(黑龍會)가 출판한 ‘동아선각지사기전’에 의하면, 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는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 통감에게, 한일병합운동이 성공하면 일진회에게 40만 엔 이내의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고, 통감은 이에 찬성하면서 50만 엔 정도를 조달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리고 가쓰라 다로(桂太郎)총리에게도 한일병합에 따른 지원을 요청하여 약속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와 이용구(李容九), 송병준(宋秉峻)은 한일병합 성사 직후, 일진회 회원 1백만 명을 만주(滿洲)로 이주시키고, 조만간 일어날 지나(支那)혁명을 틈타 만몽(滿蒙)의 독립을 달성하면서, 한일연방을 본뜬 만몽(滿蒙)연방을 창설하여 동아 대연방을 실현하려고 했다. 그러기에 앞서 미리 다수의 회원들을 간도¹¹⁰⁾ 지역에 선발대로 보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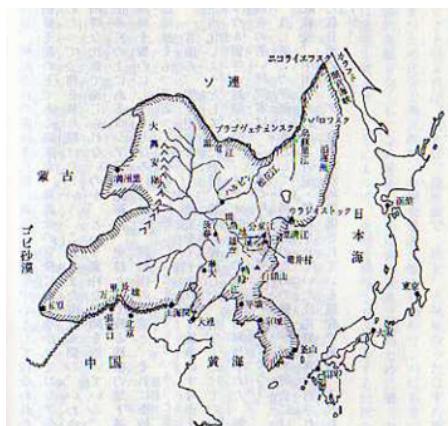
1910년 9월 12일 한일병합 이후, 일본 정부는 식민지 조선 내에서의 일체의 정당 활동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일병합을 강력히 추진했던 일진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른 정당과 함께 일진회는 해산되었고, 해산 비용으로 15만 엔을 지급받았다. 50만 엔을 지원해주겠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해산비용을 나누어보았자 한 사람 앞에 겨우 10전 정도만 떨어질 뿐이었다. ‘이래서는 내정개혁이니 봉황의 나라니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일진회는 존재하지 않고, 정치에도 관여할 수 없다.’ 만주 이주로의 길이 끊긴 일진회 회

109) 일본 세력이 배후에서 그 독립국을 조종함으로써 러시아로부터 다가오는 공산주의의 파도와 중국의 항일운동에 대항하기 위한 일종의 원총지대를 형성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110) 여기서의 간도는 백두산을 수원으로 하는 두만강과 해란하가 합류하는 지역의 총칭

원들은 조선에서, 또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한일병합은 완전히 실패했다.

일진회가 해산하고 일진회재단의 계획이 좌절되자¹¹¹⁾, 그동안의 마음고생과 과로가 누적되어 있던 이용구(李容九)는 피를 토하고 병상에 눕게 되었다. 이어서 설상가상으로 병합운동의 파트너 다케다 한시(武田範之)는 후두암을 앓게 되었다. 결국 1911년 6월 23일, 다케다 한시(武田範之)는 숨을 거두었고, 이듬해인 1912년 5월 22일 이용구(李容九)도 요양지 스마(須磨)에서 병사하였다. 하지만 일진회에 몸담았던 간부들과 나누었던 생활 보장의 약속은 여전히 시급한 문제였다. 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는 이후 이용구(李容九)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용구(李容九)를 기념하는 사업과 만몽(滿蒙)으로의 이민 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였으며, 이는 1920년대의 대고려국 구상, 그리고 만주국으로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죽마고우인 다케다 한시(武田範之)를 잃고, 야심차게 준비했던 봉황의 나라 프로젝트가 물 건너간 이후, 곤도 세이쿄(權藤成卿)는 급격하게 흑룡회(黑龍會)에서 멀어져 갔다. 한일병합과 일진회재단, 봉황의 나라 계획은 일본 정부에 의해 실패한 셈이 되었고, 곤도 세이쿄(權藤成卿)는 이를 통해 당시 일본 정권의 무서움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중오를 느끼게 되었다.



1921년 흑룡회(黑龍會)에서 한일병합 계획 논의에 참여했던 스에나가 미사오(未永節)¹¹²⁾가 다이쇼 일일신문(大正日日新聞)에 ‘대고려국’의 구상을 발표했다. 이 글에는 대고려국의 지역 결정안, 건국규칙, 헌법 초안¹¹³⁾, 국기, 국새 등 대고려국 프로젝트의 대강이 나타나 있다. 대고려국이란 고대 연해주와 만주(滿洲)에 일대 세력을 펼치고 있었던 조선민족의 조상인 부여족의 판도를 답습한 것이다. 북으로는 연해주를 포함하고 헤이룽강(黑龍江) 하구에서 출발하여 헤이룽강(黑龍江)을 따라 만저우리(滿洲里)까지를 잇는 중국~러시아 국경선을 경계로 하고, 서로는 싱안링(興安領) 산맥을 따라 몽골(蒙古) 사막을 경계로 삼으며, 남쪽으로는 만리장성을 따라 중국과 접경하고 산하이관(山海關)에 들어가며, 한반도를 영역에 포함하는 거대한 판도이다. 여기서 한반도를 머리로, 연해주를 왼쪽 날개로, 몽

111) 한일합방을 일본과 한국의 대등한 연대나 연합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일진회 회원들은, 한일합방이 결과적으로 일본 측의 일방적인 식민지 병합 형식으로 끝난 것에 대해 큰 불만을 가졌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전 일진회원들은 1920년 5월에 주도자였던 스기야마 시게마루(杉山茂丸)에게 한국 식민 지배에 책임을 묻고 자결을 요구하는 소동을 벌였다. 이 사태에 당황한 흑룡회 측에서는 스기야마 시게마루(杉山茂丸)의 부하인 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를 내세워 1920년 7월 경성에서 전 일진회원들에게 과거의 잘못을 사죄하고 화해를 촉구하였다. 나아가 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 등은 일진회측에 대한 회유책으로 同光會라는 단체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112) 스에나가 미사오(未永節)는 일본의 대표적 우익단체인 玄洋社에 속하며, 특히 '支那處理案'을 주창한 중국 문제 전문가로 잘 알려진 사람이다. 그는 만주 내의 한국인 한국인 거류 지역을 중립지대로 만들려는 계획안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 스에나가 미사오(未永節)는 1922년 일본에서 남북만주 및内外蒙고를 종필하고, 이것으로 세계적 중립 국토를 조립할 목적으로 肇國會(조국회)라는 단체를 결성하였다. 肇國會(조국회)는 '대고려국'의 실현을 지향한 일본족의 지원단체였다. 실제로 조국회에는 이누카이 츠요시 등 거물급 인사들이 많았으며, 스에나가 미사오(未永節)는 그들로부터 대대적인 협찬을 얻을 수 있었다.

113) 대고려국의 7개조로 된 건국규약(헌법초안) 중에 눈에 띠는 것은 제 4조는 공자의 교를 따른다는 것이다. 한일합방 이후 일본의 통치로 신제도가 도입되어 유림들은 사회적 역할과 특권적 지위 등을 송두리째 빼앗겼기 때문에 일본 측에 반감을 느끼고 배일 운동에 나서게 되었다. 조선에서 지도적인 존재였던 유림이 다시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고려국에서는 유교를 국교로 제인하였다.

골(蒙古) 초원을 오른쪽 날개로, 만주(滿洲)를 몸통으로 하면, 나라의 형태가 두 날개를 펼친 봉황의 모습이 되므로 이를 봉황의 나라라고 했다. 수도로 예정되어 있던 간도의 룽징춘(龍井村)은 봉황의 심장으로 여겼다. 이러한 부여족의 판도, 대고려국, 봉황의 나라를 구상하는 데에 있어서는 곤도 세이쿄(權藤成卿)의 역할이 꽤 컸다. 다양한 서적을 섭렵하고 한문과 역사책을 많이 접한 곤도 세이쿄(權藤成卿)는 자신의 역사적 교양과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이 전국될 대연방의 역사적 당위성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봉황의 나라는 민중의 자치 집단으로 구성된 농업국가를 추구하였다. 스에나가 미사오(末永節)의 ‘대고려국’ 구상에는 ‘일체의 국토는 모두 국가의 공유로 한다’고 하여 부의 불평등을 가져오는 토지 사유를 금한다는 문구가 있다. 또 ‘봉황의 나라 안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인종, 민족을 불문하고 시민의 자격 권리를 갖기를 원하면 차별없이 권리를 부여한다.’고 하였다. 이는 장빙린(章炳麟)이 토지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이라고 말한 것이 겹쳐지면서, 훗날 곤도 세이쿄(權藤成卿)가 주장한 사직국가론과도 닮아 있다.¹¹⁴⁾

다이쇼 일일신문(大正日日新聞)의 기사를 보면, ‘대고려국’ 구상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재만 항일운동가들로는 이시영(李始榮), 이범윤(李範允), 홍범도(洪範圖), 양기탁(梁起鐸), 이세영(李世榮/永), 이동휘(李東輝), 김규식(金奎植), 안창호(安昌浩), 이승태, 안건근¹¹⁵⁾ 등이라고 열거하고 있다.

양기탁(梁起鐸)과 정안립(鄭安立)은 의친왕(義親王)을 망명시켜 대고려국의 국왕으로 세우려고 하였다. 의친왕과 관련된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의 전략을 독립운동에 역이용하였다. 그러한 결과로 이들은 해방 후에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친일파라는 공격을 받게 되었다.

VI. 의친왕(義親王) 망명 미수사건(朝鮮民族大同團 사건)

압록강 철교는 1909년 5월 조선통감부 철도국에서 착공하여 1911년 11월에 준공되었다. 철교의 중앙에는 단선철로가 부설되어 있고 양쪽에 인도가 설치되었으며, 길이는 944m이다.¹¹⁶⁾ 1919년 11월 의친왕(義親王)은 압록강 철교를 건너 안동(安東)역까지 갔으나, 일제에 체포되어 망명계획이 실패하였다. 이 때 의친왕(義親王)은 상복차림으로 발견되었는데 정안립(鄭安立)도 상복차림으로 망명하였다.¹¹⁷⁾ 의친왕(義親王) 망명과정에서 정안립(鄭安立)의 조언이 있었다.¹¹⁸⁾

이릉양행의 조지 엘 쇼우(George L. Show)가 한국인의 독립투쟁을 은밀하게 지원하였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의 의결에 따라 교통부령이 발표되었는데 이릉양행 2층에 교통국을 설치하여 극비리에 활동을 시작하였다.¹¹⁹⁾

안동(安東)시 철도구에는 평안북도 의주군 비현면에서 이주한 김재엽(金載燁)이 경영하던 비현 정미소가

114) 네이버 블로그: 스에나가 미사오, 곤도세이쿄 04-봉황의 나라 대고려국, 2009년 2월15일.

115) 안정근이나 안공근의 오기인 듯함

116) 최범산: 압록강 아리랑, 최범산의 항일 유적 답사기, 도서출판 달과소, 2012, 18쪽

117) 정순택: 선각자 정안립, 예술의 숲, 2010, 56쪽~64쪽

118) 1919년 10월 3일 발신한 ‘機密公 제 58호 불령단 관계 잡간 – 조선인의 部 – 재만주의 部 12 鮮人 비밀집회 상황보고의 건’ 발신자: 森田寛藏(길림총영사), 수신자: 内田康哉(외무대신)

119) 최범산: 압록강 아리랑, 최범산의 항일 유적 답사기, 도서출판 달과소, 2012, 24~34쪽

있었다. 비현 정미소는 평범한 방앗간이었지만, 대한독립단, 광복군사령부, 대한청년단 등의 은신처이자 무기를 보관하고 전달하는 비밀 연락기지였으며 상하이(上海) 임시정부로 보내는 독립자금의 보관처였다.¹²⁰⁾

양기탁(梁起鐸)과 정안립(鄭安立)은 만주에 고려국을 세울 목적으로 국내의 고종황제(高宗皇帝)나 의친왕(義親王) 혹은 영친왕(英親王)의 망명을 피하였다.¹²¹⁾ 김새를 챈 일제는 텐진(天津)에 있는 양기탁(梁起鐸)을 체포하여 국내로 압송하였다. 이회영(李會榮)이 입국하여 고종황제(高宗皇帝)의 망명을 허락받았으나, 고종황제(高宗皇帝)가 갑자기 독살되는 바람에 실패하고 말았다. 조선민족대동단 사건 이전에도 의친왕(義親王)은 몇 차례나 망명을 결행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전협(全協)은 의친왕(義親王)을 망명시키기 위하여 특급요원인 이을규(李乙奎)와 정남용(鄭南用)을 시켜 의친왕(義親王)을 이릉양행¹²²⁾으로 모셔오도록 하였으나, 안동(安東)역에서 의친왕(義親王)이 체포되어 실패하였다.¹²³⁾ 그 후에도 의친왕(義親王)의 망명을 위하여 대동단의 이대정(李大鼎)¹²⁴⁾스님, 대한독립단의 김기한(金起漢) 등이 활동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의친왕(義親王)의 유고(諭告)는 다음과 같다.

통곡하며 우리 2천만 민중에게 고하노라. 오호라, 이번의 만주행¹²⁵⁾은 무슨 이유인가? 하늘과 땅 끝까지 이르는 깊은 원수를 갚으려 함이요, 뼈가 부서지고 창자가 찢어지는 큰 수치를 씻으려 할 따름이라. 지난날 선제 폐하의 밀지를 받아들여 바로 일어나려 하였으나¹²⁶⁾ 무수한 가시밭길에서 만신창이가 될 것을 생각하여 이를 숨기고 아직 수행하지 못하였더니 희세의 대 흥한은 선제를 그 독수로 시해하였도다.¹²⁷⁾ 슬프다. 생명을 보전하여 무슨 일이 있으리요. 오직 스스로가 죽지 못함이 한이었도다.

이때를 당하매 개인적인 잘됨을 꾀한 바가 없으며, 우리 2천만 민족의 생사가 중대한 시기를 맞이하여 앞의 합정도 뒤의 채칙도 돌보지 아니하고 궐연히 나는 궐기하였노라. 오로지 민중은 한 뜻으로 나와 함께 궐기하고 분발 전진하여 3천리의 식민지화를 극복함으로서 2천만의 치욕을 씻고 공통적 세계 운수의 도래를 맞이함에 후퇴하지 말라.¹²⁸⁾

오호 만세

건국 4252년 11월 9일
의친왕 이 강

120) 최범산: 압록강 아리랑, 최범산의 항일 유적 답사기, 도서출판 달과소, 2012. 51쪽

121)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6 6권 대동단사건 ॥)예심재판사신문조서)李達河 신문조서 문: 그에 대하여 피고는 '지금의 독립운동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헛되이 민심을 불안케 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 독립운동은 반드시 통일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을 통일하려면 이조의 복벽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며 피고는 어디까지나 이조의 복벽을 주장하였다는데. 어떠한가? 답: 그것은 내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全協이 주장한 것이다. 그가 말한 為義帝發喪主義라는 것이 즉 복벽을 말하는 것이다.

122) 국외항일운동자료, 일본외무성기록, 불령단관계전건–조선인의 部–재만주의 部 15 > 이릉양행 관계에 관한 건. 高警 제5328호 발신자 京畿道 警察部長, 수신자 齋藤實(朝鮮總督) 발신일 1920년 2월27일

123) 정순택: 선각자 정안립, 예술의 숲, 2010.

124) 박희승: 조계종의 산파 지암 이종우, (주) 조계종 출판사, 2011. 100쪽

125) 길림에서 망명을 주도한 흔적을 나타내고 있다.

126) 여러 번 망명을 시도하였음을 드러내고 있다.

127) 고종황제의 독살을 주장하고 있다.

128) 최진동도 의친왕의 유고와 의친왕 이하 33인의 선언서를 읽고 도문으로 돌아가 군무도독부를 설치한 것 같다.

1919년 11월에 발표된 의친왕 이하 33인의 선언서가 독립신문¹²⁹⁾ 1920.1.1에 게재되었으며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반만년 역사의 권위와 2천만 민중의 성충을 장하야 우리국가의 독립국됨과 우리민족의 자유민됨을 천하
만국에 선언하며 且 증언하노라. 槿域青邱는 非人之殖民地며 檀孫麗族은 非人之奴隸種일세니라 國則東方君
子오 民則先進善人이라 運當蹇屯이오 治久生亂일세 外有鯨吞之強鄰하고 內有病國之奸賊이라 5천년 신성역
사와 2천만 예의민족과 5백년 皇皇宗族이 一朝湮滅하니 朝有殉國之臣하고 野有死節之民이나 皇天이 不吊하
고 국민이 무복하야 皇帝聲明에 遽遭廢遷之辱하고 士民舉義에 輒受殲族之禍하며 濫世苛法과 處遇奴使에 族
不聊生일세 不平而鳴則律以強盜로 碩之戮之하야 凡夫忠義之魂이 消滅於殘刃之下者 幾千幾萬가 飲恨茹痛하
고 臥薪嘗膽이 十經星霜이라 陰極陽面하고 否往泰來는 天理之好運이며 處死求生하고 久屈思起는 人道之至
情일세 世界改造 民族自決之論은 高於天下하고 我國獨立 我族自由之聲은 漢於宇內라 於是焉 3月 1日에 宣
言獨立하고 4月 10日에 建設政府러니 頑彼 日本이 不顧時勢之推移하고 徒使豹狼之蠻性하야 大肆壓抑에 白
手徒衆을 銃斃하고 城邑村落을 火燒하니 此가 人類良心에 堪爲할 바일가 吾族의 丹忠熱血은 決코 此 非正理的
의 壓迫에 減縮될 바가 아니오 益益히 正義人道로써 勇往邁進할 뿐이로다. 萬一 日本이 終是悔過가 無하면
吾族은 不得已 3月 1일의 公約에 依해야 最後 1人까지 最大의 誠意와 最大의 努力으로 血戰을 不辭코자 兹에
宣言하노라.

大韓民國元年 11月 日

義親王 李囉, 金嘉鎮, 全協, 楊楨, 李政, 金商說, 田相武, 白初月, 崔銓九, 趙炯九, 金益夏, 鄭嵩教, 李碩
春, 金世應, 鄭義南, 羅昌憲, 韓基東, 申道安, 李信愛, 韓逸浩, 朴貞善, 魯弘濟, 李直鉉, 李來修, 金炳起, 李
謙容, 李霄吼, 申泰鍊, 申瑩徹, 吳世德, 鄭奎植, 金寧鎮, 廉光祿

大韓民國臨時政府 獨立新聞 1920.1.1

1) 조선민족대동단장 전협(全協)

조선민족대동단(大同團) 단장인 전협(全協)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어 연구하기가 힘들다. “의친왕(義親
王) 이강”을 쓴 소설가 박종윤에 의하면 의친왕(義親王)은 전협(全協)과 1905년 경 부터 사동궁을 드나들며
교류하였다고 한다.¹³⁰⁾ 전협(全協)은 의친왕(義親王)의 심복으로 군자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사주전을 만들다
가 발각이 되었으며, 1908년 윤치호(尹致昊)의 부평일대 공한지를 사취하였다가 1912년 구속되어 1914년 석
방된 전력이 있다. 전협(全協)은 친일단체인 일진회(一進會)¹³¹⁾에 관여하였고 한일합방 청원서에 세 번째로
이름이 올라갔다.

129) 大韓民國臨時政府 獨立新聞 1920.1.1

130) 박종윤: 의친왕 이강(장편소설), 2009, 17쪽

131)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 5권 대동단사건 1 > 경무총감부, 경찰서 조서》全協 신문조사(제1회) 주소는 중국 奉天省 海龍縣 山城子
大荒溝. 9년 전 全國煥이란 이름으로 사기취재죄에 의해 징역 3년의 처형을 받았다가 明治 폐하 봉어 때 감형되어 2년 4개월의 實役을
치르고 방면되었다. 明治 37년(1904년) 일진회원이 되어 평의원 및 총무원 등을 지냈으며, 明治 38년(1905년) 경기도 부평군수를 拜命, 3
년만에 사직하였다.

이용구(李容九)는 23세 때 동학에 입도하여 최시형(崔時亨)에게 배워서 손병희(孫秉熙)와 함께 동학혁명 중심에 섰었다. 이용구(李容九)는 손병희(孫秉熙)와 함께 일본으로 망명할 정도로 손병희(孫秉熙)의 심복이었다. 러일전쟁 직전인 1904년, 이용구(李容九)는 손병희(孫秉熙)의 지시를 받고 귀국하여 동학교도를 중심으로 처음에는 민희의 이름을 대동회라고 하였으나, 7월에는 중립회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손병희(孫秉熙)는 중립회의 목적이 동학혁명 때와 비슷한 것을 알고, 중립회 설립 자체를 임의로 무효화 하고 전국에 진보회의 지회를 설립하였다. 이용구(李容九)는 손병희(孫秉熙)의 지시를 받아 일본군의 군수물자 수송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송병준(宋秉畯)의 권고를 받아 진보회를 일진회와 합병하여 손병희(孫秉熙)의 뜻을 배신하였다. 을사늑약이 체결된 후인 1905년 손병희(孫秉熙)가 귀국하여 반일 사상의 천도교를 설립하고 대고천하하자, 이용구(李容九)는 친일사상의 시천교를 창설하였다. 손병희(孫秉熙)는 진보회에 대하여 몇 차례 회유를 하였으나, 이용구(李容九)가 듣지 않자, 이용구(李容九) 외 62명에게 출교를 선포하였다. 이 결과로 동학교단을 재건하여 민희를 설립하고 정부를 혁신하는 민족운동을 전개하려는 손병희(孫秉熙)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나, 출교 1년도 안되어 이용구(李容九)를 따랐던 교인의 과반수가 다시 돌아와 교세를 되찾게 되었다.¹³²⁾ 이 때 전협(全協)도 최익환(崔益煥)과 같이 일진회에서 천도교로 돌아온 것 같으며, 손병희(孫秉熙)가 의친왕(義親王)에게 전협(全協)을 소개했던 것 같다. 그 후로 이용구(李容九)는 일진회 총 위원장과 회장을 역임하면서 1905년 을사늑약이 발표되기 12일 전에 ‘외교권을 일본에게 이양할 것’을 촉구한 선언서나, 1909년 12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대한제국 정부를 폐지하고 일본이 직접 통치할 것’을 결의한 선언서를 고종황제(高宗皇帝)와 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 통감 등에게 올렸다.

조선민족대동단(朝鮮民族大同團)은 전협(全協)¹³³⁾이 최익환(崔益煥)¹³⁴⁾ 등과 조직한 단체이다. 전협(全協)은 1918년 여름부터 활동하였다. 이것은 지린(吉林)에 있는 정안립(鄭安立)의 동삼성한족생계회(東三省韓族生計會)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135,136)} 월정사 승려 이종우(李鍾郁)은 안창호(安昌浩)¹³⁷⁾의 지시로 국내로 잠입하여 전협(全協)과 안창호(安昌浩) 사이를 오가며 의친왕(義親王) 망명 작전을 진행하였으며, 먼저 김가진(金嘉鎮)의 망명에 성공하였다.¹³⁸⁾

132) 손윤: 간급명령. 국부 손병희를 살려내라, 에디터, 2012, 99쪽~102쪽

133)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 5권 대동단사건 Ⅰ > 경무총감부, 경찰서 조서> 全協 신문조사(제1회) 가족은 3년 전 겨울 柳河縣에서 지금의 주소로 옮겨, 가사는 전적으로 사위가 취급토록 하고 나는 奉天 방면에 많이 있었다.

134)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6 6권 대동단사건 Ⅱ>공판시말서> 공판시말서(一) 피고 全協에게 문: 출옥 후 처음 崔益煥과 만난 것은 언제였는가? 답: 大正 7년(1918년) 봄경 경성 남대문동에서 우연히 만났고 그 해 여름 무렵 崔益煥이 피고의 집에서 동거하기에 이르렀다. 문: 피고가 만주 및 上海 방면을 돌아다니다 온 것은 언제인가? 답: 崔益煥과 우연히 만나기 전 만주에 간 일이 있는데 그때는 가족들이 만주에 있기 때문이었고, 崔益煥과 해후한 후 大正 7년(1918년) 겨울 만주 및 上海에 갔다 왔다.

135)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6 6권 대동단사건 Ⅱ>예심판판사신문조사> 鄭斗 和 신문조사 문: 피고는 全協를 언제부터 알고 있는가? 답: 大正 7년(1918년) 여름 무렵, 金鳳濟라는 나의 한문선생이 黃金町 4丁目 青橋 부근의 韓이라는 사람 집에 묵고 있었으므로 그 선생을 방문 했다가 마침 그곳에 全協이 와 있었으므로 金선생의 소개로 인사를 하고 처음으로 알게 되었던 것이다. 문: 그때 全協과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가? 답: 서로 주소 등을 물었을 뿐이고, 특별히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그때 全協은 만주 奉天에 있다고 하였다.

136) 국사관논총 제15집 >국민회를 논년합(박창욱)>Ⅲ. 간도반일민족운동에서의 국민회의 역사작용. 국민회는 또 각종 途徑과 형식을 이용하여 군중들을 조직하여 반일운동에 힘을 기울였다. 1919년 5월, 上海에서 대동단이 건립되자, 간도의 일부군중들도 이에 호응하여 대동단 조직을 결성하려 할 때 국민회에서는 이를 적극 지지하여 나서 具春先 본인이 대동단 간도본부단장을 겸임하고 군중들을 반일에 동원하였다.

137) 일제 경찰에는 안창호로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정안립의 지시였다. 이종우는 한성임시정부에 관여하였는데 정안립과 관계된 권희목, 이규갑 등도 한성임시정부에 관계되었다.

138) 박희승: 조계종의 산파 지암 이종우, (주) 조계종 출판사, 2011, 54쪽~72쪽

전협(全協) 일행은 언제 변심할지 모르는 총독부 직원 정운복(鄭雲復)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공평동에 있는 첫 번째 비밀가옥에서 구기동에 있는 두 번째 비밀가옥¹³⁹⁾으로 이동하였다. 24살의 나창현(羅昌憲)은 육혈포를 들고 의친왕(義親王)을 호위하였고, 인력거꾼에게 사정해 인력거꾼으로 위장하는 등 의친왕(義親王) 망명은 긴장 속에 신속하게 진행되었다.¹⁴⁰⁾ 나창현(羅昌憲)은 의친왕(義親王) 망명 미수사건 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탈출하여 대한민국 임시 의정원과 내무차장 겸 경무국장으로 활발히 활동하였다. 나창현(羅昌憲)은 박용만(朴容萬)을 만난 후 철혈단 단장을 맡았는데, 박용만(朴容萬)의 배후에는 김규홍(金奎興, 金復)과 정안립(鄭安立)이 있었다.

봉오동에 있는 최진동(崔振東)은 1919년 11월 11일 의친왕(義親王)이 이릉양행에 온다는 소식을 정안립(鄭安立)¹⁴¹⁾을 통해서 듣고 서로군정서를 통하여 이릉양행에 도착하였다.¹⁴²⁾ 최진동(崔振東)은 의친왕(義親王)이 안동(安東)역에서 체포되어 만나지도 못했으면서 의친왕(義親王)과 무력독립운동을 결의하고 헤어졌다. 그 당시 이릉양행에는 동삼성한족생계회(東三省韓族生計會)¹⁴³⁾ 간부들이 온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이 최진동(崔振東)에게 무력 항일투쟁을 지시하였다. 1924년 최진동(崔振東)이 일본인 아나키스트(Anarchist)들과 연락하여 40여명의 결사대를 도쿄(東京)에 잠입시킬 계획을 추진한 것¹⁴⁴⁾을 보면 의친왕(義親王), 최진동(崔振東), 아나키스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제 機密公信 第一五號에 따르면 '1920년 1월 1일에 일송정(一松亭, 훈춘(琿春)동북방십리)에서 열린 강연회에서는 의친왕(義親王)을 황제로 추대할 목적으로 윤동철(尹東喆) 등 28명이 모여서 부흥회(復興會) 혹은 복황회(復皇會)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정회부장(政會部長)에 황병길(黃丙吉), 급진단¹⁴⁵⁾ 단장(急進團團長)에 그레고리 박, 신민단 단장(新民團團長)에 오병묵(吳秉默), 복황단 단장(復皇團團長) 장봉한(張鳳漢)이며, 급진단은 폭탄투하와 조선침입을 연구하고 신민단은 감리교 신자를 중심으로 행동하고, 복황단은 장로교 신자를 중심으로 기부금 모집 등을 결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은 안동(安東)에 다녀온 최진동(崔振東)이 주도하였다고 추측된다.¹⁴⁶⁾

139) 북한산 구기매표소 부근, 최성호의 집

140) 신복룡: 대동단 실기, 도서출판 선인, 2003, 139쪽~154쪽

141) 일제가 1919년 10월3일 발신한 '機密公信 제 58호 불령단 관계 잡건 - 조선인의 부(部) - 재만주의 부(部)12 선인(鮮人) 비밀집회 상황보고의 건' '정안립(鄭安立) 등 제1차 비밀회의 개최, 정안립(鄭安立) 등 한국, 중국, 러시아(華俄鮮)의 연합독립국 건설논의, 정안립(鄭安立)의 중국, 러시아, 한인 대표로 의친왕(義親王) 추대, 정안립(鄭安立)의 3·1운동 공박, 정안립(鄭安立) 등의 중한연합 수뇌회 개최 결의, 정안립(鄭安立) 등의 마적 두목 초청 결의, 정안립(鄭安立) 등의 임시연합군정부 설립 결의, 정안립(鄭安立) 등의 의친왕(義親王) 호송 결의, 정안립(鄭安立) 등의 비밀회의 기록장부를 오가와(小川) 서장에게 대여' 정안립은 1919년 10월3일 이후 의친왕의 호송을 위하여 최진동을 안동 이릉양행으로 오도록 하였다. 최진동이 서로군정서를 거쳐온 것을 보면 서로군정서에서도 의친왕의 호송을 위해 누군가를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 동삼성한족연합회와 서로군정서에서 의친왕의 호송을 준비하였다.

142) 김춘선, 안화춘, 허영길: 최진동 장군, 흑룡강 조선 민족 출판사, 2006, 71쪽~82쪽

143) 국외항일운동자료, 일본외무성기록,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 부-재만주의 部 14 권형제 구금에 관한 귀전에 관해, 제 385호 발신자 赤塚正助(奉天總領事), 수신자 内田康哉(外務大臣), 발신일 1919년 12월04일, 權道相, 權輔相형제 지나 김을 구금중 鄭安立 일시석방, 동삼성 독립기독교, 정우회에서 운동자금, 조선인을 위한 독립국 건설, 이강공 유괴사건 당시 정 등은 이강공을 환영하기 위하여 안동(安東)으로 가다가 지나죽에 체포되어

144) 김춘선, 안화춘, 허영길: 최진동 장군, 흑룡강 조선 민족 출판사, 2006, 220쪽

145) 재외동포사 총서 13 중국 한인의 역사 (상) 제1장 초기 한인 이민 사회의 형성(1860~1919) 국권피탈과 만주 한인사회) 북간도 지역의 한인 사회와 독립운동. 급진단은 1919년 3·1운동 직후에 조직되었으며, 노령의 과격파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146)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42 42권 중국동북지역편 IV) 중국동북지역민족운동 IV) 排日結社復皇會ニ關スル件 (101) 機密公信 제15호

전협(全協)은 재판에서 일제의 수사망에 혼선을 주려고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147,148)}

2) 최익환(崔益煥, 力田)

최익환(崔益煥)의 부친은 동학운동으로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사하였으며, 그의 어머니는 남편이 옥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서대문 형무소 옥문 앞에서 순종(殉從)하였다. 혁명가의 가정에서 출생한 최익환(崔益煥)은 강직하고 투지가 강할 뿐만 아니라 기골도 장대하였다. 최익환(崔益煥)은 석성, 서천, 서산의 세무분서에 재직중 공금을 혁명운동의 자금으로 돌린 관계로 3년의 형을 받고 서대문 감옥에서 옥중생활을 하였다. 여기서 이웃 감방에 있던 전협(全協)을 알게 되었다. 전협(全協)은 서울 출생으로 부천군수로 있다가 일진회의 평의회 의장으로 있을 때에 운동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150만원의 돈을 사주(私鑄)하고 투옥되어 있었다. 이들은 서로가 의기 상통하여 출옥 후에 조국광복을 위하여 같이 일할 것을 굳게 언약하였다. 두 사람은 출옥하자 약속대로 서간도를 거쳐 만주^{149,150)}를 전전하다가¹⁵¹⁾ 상하이(上海)로 임시정부를 찾아 가 당시 경무국장이었던 김중호, 김원일 등을 만났다. 1919년 2월¹⁵²⁾에 상하이(上海)에서 서울로 잠입하여 대동단이란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였다. 총재로 상하이(上海)에 있는 김가진(金嘉鎮)을 추대하고 단장에 전협(全協)을, 그리고 자신은 총무가 되었다. 권태석(權泰錫)으로부터 300원의 자금을 얻어 김주환, 김봉석을 상하이(上海)에 밀파하여 대동단 본부를 상하이(上海)에 두고 의친왕(義親王)을 상하이(上海)로 탈출시켜 대동단의 수령으로 추대할 것을 임정의 국무총리인 안창호(安昌浩)와 의논했다. 임정에서는 이종우(李鍾郁)을 급파하여 협력하기로 하였다. 김가진(金嘉鎮)은 의친왕(義親王)의 서울 탈출을 요망하는 동시에 의친왕비(義親王妣)의 아우인 김춘기(金春基)까지도 탈출하여 줄 것을 바라는 서신을 냈다. 최익환(崔益煥)¹⁵³⁾은 신복룡(申福龍)교수의 장인이다.

147)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 5권 대동단사건 1) 경무총감부, 경찰서 조서》全協 신문조서(제3회)

문: 전하를 모시려던 목적지는 정말 上海였는가? 답: 그렇다. 上海에는 宋世浩가 왕래하며 연락하고 있었는데, 그 밖에는 우리 대동단으로서는 연락기관은 없었던 것이다. 다른 단체인 국민대회에는 鮮于煥이 安東縣에 있어 上海는 물론 미국, 기타의 해외 동지들과 통신 연락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들었으나, 우리쪽에서는 실제 확실한 연락은 없었던 것이다.

148)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 5권 대동단사건 1) 경찰서 조서(제2회) 문: 그대는 그 가정부 조직의 취지에 찬성하는가? 답: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문: 그대들은 李壇을 上海로 연행하여 가정부의 수령으로 해두고 조선인의 인심을 수렴하여 조선독립을 도모할 생각이 있는가? 답: 그렇지는 않다. 가정부와는 별도로 金嘉鎮, 李壇 등을 중심으로 한 조선독립운동기관을 설치할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조선 내의 조선인의 독립사상을 고취하여 조선독립을 도모할 작정이었다.

149)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 5권 대동단사건 1) 경무총감부, 경찰서 조서(국한문) 崔益煥 신문조서(제1회) 4년 쯤 전(1915년 경)부터 경업으로 隱元豆의 중매를 위해 중국 하르빈 혹은 小綏芬을 왕복하고 있었다. 大正 7년(1918년) 3월경부터 경성에 거주를 정하였다. —— 최익환이 이범윤과 접촉한 흔적이 보인다.

150)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 5권 대동단사건 1) 경무총감부, 경찰서 조서(국한문) 崔益煥 신문조서(제2회) 小綏芬을 목적하여 갔던 것은 그곳에 아는 사람인 강원도인 朱鎮洙가 있었기 때문으로,

151)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6 6권 대동단사건 1) 공판시말서》(피고 崔益煥에게) 문: 相被告 全協과는 전부터 친한 사이인가? 답: 17~8년 전부터(1903~4년경) 잘 알고 지냈다. 문: 피고가 출옥한 후 처음 全協를 만난 것은 언제인가? 답: 大正 7년(1918년) 여름 무렵 오랜만에 남대문통에서 全協를 만나 주소를 물었더니 동대문 안 효제동에 있다는 것이었으므로 얼마 안 있다가 그 집을 방문하였던 것이다.

152) 상하이 임시정부는 1919년 4월13일 설립되었으므로 이때는 임시정부가 없었다. 전협과 최익환은 일제의 수사망에 혼선을 주기 위하여 임시정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153)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6 6권 대동단사건 1) 예심재판사신문조서》崔益煥 신문조서(제2회) 문: 그 후 어떻게 하였는가? 답: 그 후 세무조사가 되어 충청남도 석성, 서천, 서산의 세무분서에 근무하였는데, 明治 41~2년경(1908~9년경) 官의 돈을 소비하여 공주지방법원에서 처벌을 받고 서대문감옥에서 복역하다가 大正 3년(1914년) 9월에 출옥하였으며, 그 후 잠시 경성에 있다가 大正 6년(1917년) 북만주의 吉林省 東寧縣 東清鐵道 沿線인 小綏芬에 가 1년 쯤 농업과 상업을 경영하였고, 大正 7년 1월에 京城으로 돌아와 그 뒤로는 경성에서 살고 있다. 문: 全協를 아는가? 답: 그는 일진회 총무였기 때문에 내가 그 회에서 경영하는 광무학교에 재학하던 중에는 자연히 그 집에 출입하여 그때부터 아는 사람이다. 문: 피고는 언제부터 全協의 집에 있었는가? 답: 大正 7년(1918년) 여름 쯤 경성 동대문통 노상에서 5년만에 全協과 만나 가끔 그의 집으로 놀러 가게 되었고, 함께 만주에 가기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해 9월인가 10월경 하숙을 겸



이을규 의사

3) 이을규(李乙奎)와 이정규(李丁奎) 형제¹⁵⁴⁾

이을규(李乙奎)와 이정규(李丁奎)가 상하이(上海)임시정부의 밀명으로 서울에 잠입하여 의친왕(義親王) 망명을 꾸미는 것과 1922년 이을규(李乙奎)가 베이징(北京)에 있는 이회영(李會榮)을 찾아가서 아나키스트(Anarchist)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박은식(朴殷植)이 “한국독립운동지 협사”에서 전협(全協)과 최익환(崔益煥)의 행적을 기록한 것¹⁵⁵⁾을 보면 조선민족대동단의 배후는 신구식(申圭植)¹⁵⁶⁾, 안창호(安昌浩), 김규홍(金奎興, 金復), 이회영(李會榮)으로 보지만, 실질적인 배후는 정안립(鄭安立), 양기탁(梁起鐸)이다.

이을규(李乙奎)는 상하이(上海) 임시정부에서 송달된 선전물을 배포하면서 민족의식 함양에 힘썼으며, 정남용(鄭南用), 이재호(李在浩, 李範宰) 등과 함께 의친왕(義親王)을 상하이(上海)까지 수행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을규(李乙奎)는 인천 상업학교를 졸업하고 평안 농공은행 의주지점에 근무하게 되었다. 1918년 평안 농공은행 의주지점을 그만두고 압록강 건너 안동(安東)에서 박광(朴洸)¹⁵⁷⁾의 도움으로 간성덕(艮成德)¹⁵⁸⁾ 및 동신공사(東新公司)라는 무역상¹⁵⁹⁾을 차리고, 국내외 동지 간에 연락과 자금조달을 해주고 있었다.¹⁶⁰⁾ 1919년 9월 말 임시정부는 안동(安東)과 서울간 비밀통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강태동(姜泰東), 김한(金翰), 이을규(李乙奎), 이정규(李丁奎), 유자명(柳子明)을 국내로 잠입시켰다. 그런데 이들이 국내에 들어오자마자, 강태동(姜泰東)과 이을규(李乙奎)에게는 의친왕(義親王) 망명공작이 추진되고 있었으며, 이을규(李乙奎)는 의친왕(義親王)을 모시고 수색역에서 안동(安東)역까지 갔으나, 안동(安東)역에서 의친왕(義親王)이 정남용(鄭南用)과 같이 체

어치우고 全協의 집에서 동거하였던 것이다. 문: 全協의 가족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답: 가족은 만주에 있으며, 내가 全協의 집에 갔을 때에는 그는 소실 卜榮和와 함께 동대문 안 효제동에서 살고 있었는데, 大正 8년(1919년) 1~2월경 봉익동으로 이사하였던 것으로, 가족으로는 소실 외에 하인이 한 사람 있을 뿐, 그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문: 그것 때문에 金鳳陽, 金用煥(정안립)과 관련된 인물인 듯 하다.)이 全協의 집에 출입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답: 金鳳陽은 4~5회 全協를 찾아온 일이 있으나,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며, 金用煥이란 사람은 알지 못하므로 월었는지 안 월었는지 모르겠다. 문: 그때 피고는 權泰錫에게 자기가 맡은 일은 조선독립을 위해 활동하는 대동단으로, 본부는 중국吉林省에 있는데 이번에 京城에 지부를 설치하기로 되었으므로 지금까지 각 단체가 개별적으로 활동해 오던 것을 일괄해서 활동하는 단체로서 上海 및 미국에 있는 동지들과 연락을 취하고, 조선독립에 대하여 인쇄물을 출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답: 그처럼 자세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다만 大同團은 조선독립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뿐이다. 문: 이 인쇄물에는 황족 대표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누구를 그 대표로 할 생각이었는가? 답: 나는 李王를 대표로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나만의 생각일 뿐, 그 방면의 일은 全協이 담당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의 역량 여하에 따라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정해질 것이었으므로 누구라고 하는 짐작은 되지 않았던 것이다. 문: 李堉公을 그 대표로 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답: 내게는 그런 생각은 없었다.

154) 이정식, 김학준, 김용호: 혁명가들의 항일회상—김성숙, 장건상, 정화암, 이강훈의 독립투쟁, (주)민음사, 1988. 329쪽

155) 박은식, 김도형: 한국독립운동지 협사, 소명출판 2008. 330쪽~334쪽

156) 이정규: 우관문준, 국민문화연구소 출판부, 2014. 126쪽. 상하이방면에는 한말 고종제의 밀사로 민영익이 파견되고 뒤이어 5조약의 보호 조약과 이율러 외교권이 박탈당하게 되니 서구에 파견되어 있던 현상건 등 외교사절이 상하이로 모였고 뒤이어 창강 김택영이 남 통자 우로 오고 박은식, 신규식이 상하이로 왔다. 민영익, 현상건 등의 인물도 연로와 이율러 시세변천에 따라 운동선에서 멀어지고 신규식이 운동의 대표로서 중화혁명 정계의 인물인 진기미, 손문 등 인사들과 관리를 가져왔으며 뒤따라 김구식, 신재호도 왔다.

157) 호는 남정(南丁)

158) 이정규, 우관문준, 국민문화연구소 출판부, 2014. 127쪽, 149쪽. 만주 안동(安東)현에 박광과 이을규를 중심으로 간성덕과 동신공사 같은 무역상 물산객주(위탁매매업)를 차리고 동지들의 내왕과 금전거래의 기관적 역할을 하였다. 평톈(奉天)에서는 이해천 씨를 중심으로 해천양행을 설립하였다.

159)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6 6권 대동단사건 ॥ >공판시말서 >공판시말서(一) 피고 李乙奎에게 문: 安東縣에는 언제부터 거주하였는가? 답: 大正 7년(1918년) 8월부터 安東縣에서 곡물상을 하고 있다. 문: 피고는 鮑于煥과 자주 만난 일이 있는가? 답: 安東縣에서 처음 만났다. 문: 姜錫龍(강태동)과는 언제부터 친한 사이인가? 답: 작년(1919년) 7월 말경 처음 만났던 사람이다

160) 2015년2월7일 이문창 증언

포되는 바람에 이을규(李乙奎)는 의친왕(義親王)의 돈가방을 가지고 2Km 떨어진 이릉양행¹⁶¹⁾으로 피신하였다. 이 당시 이정규(李丁奎)는 종로 화신 옆에 있는 한창 양화점(보금장시계점)을 연락장소로 하여 상하이(上海) 임시정부와 연락하였다. 교통국원 김기준(金基畯)¹⁶²⁾이 서울을 내왕하면서 상하이(上海)에서 들여오는 ‘독립신문’, ‘신대한’ 등의 인쇄물 전달과 서신연락을 이정규(李丁奎)와 취하고 있었으나, 그 횟수가 잦아지면서 일경의 의심을 사게 되었다. 이에 이정규(李丁奎)는 이 방식을 중지시키고 서울과 안동(安東) 간을 격일 내왕하는 인천 출신 여객 전무 우계(牛溪) 전진원(全鎮源)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유자명(柳子明)은 전진원(全鎮源)의 도움으로 철도 안내원으로 변장하고 신의주 국경선을 넘나들며 임시정부 비밀 문건을 반입할 수 있었다. 이 당시 이정규(李丁奎)는 1920년 11월 이을규(李乙奎)¹⁶³⁾가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1년 동안 강태동(姜泰東), 김한(金翰), 이기만(李起晚), 양기탁(梁起鐸)¹⁶⁴⁾, 이종옥(李鍾郁), 유자명(柳子明), 이종락(李種洛), 정화암(鄭華岩) 등 각계각층의 인사와 접촉하고 있었다.¹⁶⁵⁾

이을규(李乙奎)가 이릉양행¹⁶⁶⁾에 맡겨놓은 고종황제의 상하이(上海) 독일은행 25만불의 예금증서는 이을규(李乙奎)가 이릉양행의 배를 타고 안동(安東)에서 4일 동안 항해하여 상하이(上海)에 도착하여 독일은행에서 고종황제(高宗皇帝)의 비자금을 찾았으며, 이것을 독립운동거점지에 전달했던 것 같다.¹⁶⁷⁾ 이을규(李乙奎)¹⁶⁸⁾는 다시 국내로 잠입하여 양기탁(梁起鐸), 강태동(姜泰東), 이정규(李丁奎) 등과 연통제 공작을 하다가 1920년 1월 체포되었다.



이정규(李丁奎)¹⁶⁹⁾는 이동휘(李東輝)의 ‘구국의 길은 오직 교육에 있다.’는 말에 감명을 받아 신식교육을 받기로 결심하고 1914년 인천공립상업학교를 마치고 1916년 일본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 대학예과에 입학하였다. 이정규(李丁奎)는 1919년 도쿄(東京)에서 독립선언문과 일본 조야에 보내는 통고문을 인쇄하여 배포하는 임무를 맡았고 독립운동에 관한 선전 자료를 수집하여 파리(Paris) 강화회의에 한국대표로 간 김규식(金奎植)에게 보내는 일을 하였다. 4월에 학업을 중단하고 상하이(上海) 임시정부로 망명하였다. 6월 상하이(上海) 임시정부 충청도 대표로 임시의정원 의원에 선

161) 이정식, 김용호: 혁명가들의 항일회상—김성숙, 장건상, 정화암, 이강훈의 독립투쟁, (주)민음사, 1988, 201쪽

162) 교통부 교통국 초대국장 흥성익, 교통국원 김기준

163)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42 42권 중국동북지역역편 Ⅳ) 중국동북지역민족운동 Ⅳ) 怡隆洋行關係ニ關スル件 (135) 高警 제5328호 大正9年 (1920년) 2月27日 임시정부안동교통사무국장 흥성익(洪成益)과 이을규(李乙圭) 체포기록

164) 이정규: 우관문준, 국민문화연구소 출판부, 2014, 151쪽. 독립운동 사화, 이정규는 강태동, 이기만, 양기탁과 안동교통국을 연통제로 결합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기탁은 비밀조직의 노출을 꺼려하여 연통제를 반대하였다.

165) 이문창: 해방공간의 아나키스트, 이학사, 2008, 51쪽~53쪽

166) 이정규: 우관문준, 국민문화연구소 출판부, 2014, 150쪽. 독립운동 사화, 당시 중국 안동 세관에는 한인 미국유학생 정윤교, 장건상이 있었고, 그들이 간성덕과 동신공사를 경영하는 박광, 이을규와 친한 사이여서 이릉양행 주인이며 영국 명예영사 쇼씨와 관련이 생길 수가 있었던 것이다. 거기다 이릉양행이 상하이와 안동간의 정기항로를 가지고 하물과 여객을 수송하는 기선회사 지점이며 대영제국의 치외법권이 미치는 곳이었다. 그래서 기미년 초부터 이릉양행은 독립운동지들의 교통기관이 되었고, 안동 구시가에 있는 간성덕은 중계기관이 되었다.

167) 신복룡: 대동단 실기, 도서출판 선인, 2003, 154쪽

168)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 5권 대동단사건 1) 경무총감부, 경찰서 조서) 宋世浩 신문조서(제2회): 이달 1일경이었다고 생각되는데, 李乙圭를 만났을 때 그는 말하기를 종래에 安東縣과 上海假政府 사이의 연락은 鮮于燦이 주선했으나, 그는 현재 上海에 있으므로 지금은 자기가 그 뒤를 이어받아 연락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나서 3~4일 후 黃金町 4丁目 李在浩의 집으로 鄭南用을 방문했을 때 그는 부재이고 王世俊(羅昌憲)이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李乙圭가 安東縣과 上海假政府의 연락기관인 것을 알게 되었으나, 별로 협의라고는 하지 않았다.

169) 이정규: 우관문준, 국민문화연구소 출판부, 2014, 7쪽~15쪽

임되었으나 콜레라에 감염되어 40여 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9월에 귀국하였다. 귀국 후에 의친왕(義親王)의 망명계획에 참여하여 서울과 상하이(上海)를 연결하는 교통망을 설치하는 일에 참여하였다가 1920년 8월 미국의 원단환영사건으로 예비 검속되어 10여 일 간 투옥되었다.

4) 뚝섬나루터¹⁷⁰⁾와 저자도



압구정터

손병희(孫秉熙)는 1914년 지일기념일(地日紀念日)에 기념식을 마친 후 한강에서 40여 척의 유람선을 띄워 지방교역자 500여명과 함께 대규모로 여흥을 즐기기도 하였으며, 해마다 천일기념일(天日紀念日)에는 기념식 후 원유회(園遊會)를 열어서 지방에서 온 교인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1915년 7월 동대문 밖 낙산 남쪽 자락에 있는 박영효(朴泳孝)의 별장을 4만원에 구입하고 ‘상춘원(常春園)’이라고 하였다.

1884년 갑신정변 주동자들은 박영효(朴泳孝)의 별장인 압구정에서 모의를 하였는데¹⁷¹⁾, 옥수동과 압구정동 사이에 있던 저자도에서 정변 모의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뱃사공을 죽였다. 특히 조선민족대동단장 김가진(金嘉鎮)은 갑신정변 관련자인 김옥균(金玉均), 박영효(朴泳孝), 서재필(徐載弼)등과 친밀하였다. 갑신정변 이후, 압구정은 반란의 진원지로 헐리게 되어 지금은 돌로 된 표지만이 그 위치를 알려주고 있다.



170) 의친왕의 4녀 이해숙의 생모인 박영희(朴英喜)의 친정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449번지. 이해숙(음력 1920년 4월 24일생)

171) 김옥균과 박영효의 집. 동대문 밖 탑골승방, 박영효 별장인 압구정변에서 거사를 준비하였다.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갑신정변 회고록,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6, 23쪽

저자도는 고려말 한종유(韓宗愈)의 소유였으나, 조선개국과 함께 왕실재산으로 귀속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기우제를 저자도에서 지냈으며, 종묘에서 사용하는 얼음을 저자도에서 채취하여 옥수동 빙고골에 저장하였다. 세종대왕(世宗大王)은 둘째 딸인 정의공주(貞懿公主)에게 저자도를 하사하였다. 세종대왕(世宗大王)은 쓰시마(對馬島) 정벌에 출정하는 이종무(李從茂)를 저자도에서 전송하였다. 왕실과 선비들은 저자도에서 연회를 베풀며 시를 지었으며, 한명회(韓明渾)는 저자도의 풍광에 매료되어 압구정을 지었다. 철종(哲宗)때 저자도는 박영효(朴泳孝)에게 하사되었으며, 갑신정변시 국가에 몰수되었으나, 후에 박영효(朴泳孝)가 다시 돌려받았다. 저자도는 1925년 을축년 대홍수때 섬전체가 잠기고 유실되어 면적이 줄어들었으며, 1970년대 저자도의 흙을 압구정 택지 조성사업에 사용하면서 저자도가 사라졌다.

3.1운동 직후 1919년 4월경 한강에서 뱃놀이를 가장하여 조선민족대동단(朝鮮民族大同團)이 결성¹⁷²⁾되었다. 여기서 천도교의 한강 뱃놀이와 조선민족대동단의 한강 뱃놀이가 유사성이 있다. 그런데 의친왕(義親王)의 4녀 이해숙(李海淑)의 생모인 박영희(朴英喜)의 집안이 똑섬나루터라는 사실¹⁷³⁾에서 조선민족대동단이 똑섬나루터에서 의친왕(義親王)이 즐겨하는 기생 잔치를 가장하여 결성되었으며, 이해숙(李海淑)이 1920년 4월 24일생인 것을 보면 의친왕(義親王)은 1919년 3.1운동 직후인 조선민족대동단 결성 시에 똑섬나루터의 박영희(朴英喜)와 관련이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한강의 변화한 다섯 곳의 나루는 똑섬, 노량, 용산, 마포, 양화나루인데 이것을 오강나루라고 한다.¹⁷⁴⁾

의친왕(義親王)은 박영희(朴英喜)에게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한국전쟁 때 박영희(朴英喜)를 사동궁에 들어와 살게 하였다.¹⁷⁵⁾ 아마도 3.1운동을 전후한 시기에 똑섬나루터 박영희(朴英喜) 집안이 의친왕(義親王)을 도와준 것에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5) 김경천(金擎天)

1919년 6월 최초의 김일성 장군으로 알려진 김경천(金擎天)은 명월관 기생으로 의친왕(義親王)의 애첩인 현계옥(玄桂玉)과 염문이 났다는 소문¹⁷⁶⁾을 퍼뜨리고 이청천(李青天)과 함께 만주로 망명하였다.¹⁷⁷⁾ 이러한 이야기는 의친왕(義親王)이 명월관을 매개로 하여 김경천(金擎天)과 이청천(李青天)의 망명에 관여하였다는 느낌을 준다.

6) 지암 이종육(李鍾郁) 스님¹⁷⁸⁾

조선민족대동단 연루자로서 사건당시 일제에 체포되지 않은 사람은 네 사람¹⁷⁹⁾으로 이종육(李鍾郁), 이을규(李乙奎), 나창현(羅昌憲), 김중육(金仲玉, 廉源)이며, 이을규(李乙奎)는 안풍(安東)에서 의친왕(義親王)의

172) 신복룡: 대동단 실기, 도서출판 선인, 2003, 62쪽

173) 이해준: 황실학논총 제 13호, 의친왕 망명 미수사건과 봉오동 전투의 고찰, 한국황실학회, 2012, 121쪽

174) 손종흠: 한강에 배 띄워라, 굽이굽이 사연일세, 도서출판 인이래(주), 2011, 83쪽

175) 이숙경(이학진과 이해숙의 딸) 증언

176) 이해경: 나의 아버지 의친왕, 도서출판 진, 1997, 247쪽~249쪽

177) 김경천: 경천아일록, 학고방, 2012, 69쪽

178) 박희승: 조계종의 산파 지암 이종육, (주) 조계종 출판사, 2011.

179) 신복룡: 대동단 실기, 도서출판 선인, 2003, 173쪽

가방을 가지고 이릉양행으로 도주하여 상하이(上海)로 갔으며, 재차 입국하다가 체포되었다.

이종욱(李鍾郁)은 월정사 출신 승려로 상하이(上海)임시정부의 연통제 요원으로 임정과 국내 독립운동단체의 연락을 책임지고 있었던 인물로 의친왕(義親王) 망명미수사건 직전 상하이(上海)로 탈출하는데 성공하여 체포를 모면하였다. 이종욱(李鍾郁)은 이탁(李鐸)이 중심이 되어 만주에서 결성된 의열단체인 27결사대의 일원으로 활약하였다. 27결사대는 을사오적과 해이그 밀사사건 이후 고종황제(高宗皇帝)의 양위를 강요한 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 내부대신 임선준(任善準), 탁지부대신 고영희(高永喜), 군부대신 이병무(李秉武), 법무대신 조중응(趙重應), 학부대신 이재곤(李載崑, 載昆), 농상공부대신 송병준(宋秉畯) 등 이른바 7적을 암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7결사대는 1919년 3월 3일 고종황제(高宗皇帝)의 국장일에 거사를 계획하고 망우리 고개에서 기다렸으나 역적들의 위치가 순종황제(純宗皇帝)가 탄 어가와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황제(純宗皇帝)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거사를 실행하지 못하였다. 이종욱(李鍾郁)은 4월 2일 인천 만구공원에서 개최된 국민대회에 박한영(朴漢永)과 함께 불교계의 대표로 한성임시정부¹⁸⁰⁾의 발족에 참여하였으며, 그 후 상하이(上海)로 건너가 임시정부의 내무부 참사로 임정 활동에 참가하였다. 이종욱(李鍾郁)은 1919년 5월경에 상하이(上海)로부터 국내로 돌아와 조용주(趙鏞周), 연병호(延秉昊), 송세호(宋世浩) 등과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을 결성하였다.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은 국제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상하이(上海) 임시정부를 지원할 것을 목적으로 성립되었다. 1920년 2월말 이종욱(李鍾郁)은 연통제 실행의 책임을 지고 서울에 들어왔다.¹⁸¹⁾ 1920년 3월 이종욱(李鍾郁)은 임시의정원 강원도의원에 선출되었다. 1921년 3월 이종욱(李鍾郁)은 임시정부 내무부 특파원으로 다시 국내로 들어와 연통제 조직을 위하여 활동하다 8월 김상옥(金相玉)의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사건으로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함흥형무소에서 3년간 복역하였다. 출옥 후 이종욱(李鍾郁)은 오대산 월정사에서 승려로서 연통제조직을 지하화하는 등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그 후, 조선총독부의 회유로 친일파로 변절하였다고 하는데, 이종욱(李鍾郁)은 월정사를 구하기 위하여 조선총독부와 협상하려고 위장 친일을 하였다. 이종욱(李鍾郁)이 오대산 석존정골탑묘찬양회를 조직할 때, 박영효(朴泳孝)가 회장이 되었으며, 1936년 9월 창덕궁(昌德宮)과 이우(李鶴)공도 금일봉을 보냈다.

이종욱(李鍾郁)은 월정사 터전을 잡도록 애를 썼으며, 불교의 불모지인 주문진에 포교하기 위해서 79세에 주문진 동명사를 창건하였다. 지암화상 평전에는 ‘1944년 강태동(姜泰東), 유석현(劉錫鉉) 등과 함께 무장봉기를 위한 국민동지회를 조직해 유격대 조직에 착수하여 이듬해 8월 18일을 거사일로 삼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광복회 회장을 역임했던 유석현(劉錫鉉)이 1977년 2월 정부에 제출한 ‘공적사항확인서’에는 이종욱(李鍾郁)이 1924년 함흥감옥에서 출옥 후 8·15 광복 때까지의 유공사항을 적어놓았다. 이 확인서에는 이종욱(李鍾郁)이 비밀리에 독립운동자금을 상하이(上海)로 전달했다는 내용은 물론 1944년 무장봉기를 일으켜 독립국가를 재건한다는 계획까지 담겨져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이종욱(李鍾郁)은 1944년 강태동(姜泰東), 이웅진(李應辰), 김현국(金鉉國), 유석현(劉錫鉉) 등과 함께 파고다 공원 뒤 송죽원에서 비밀회담을 갖고 미군이 제주도에 상륙할 경우 일본군에 대해 후방교란작전을 펴는 동시에 종전 후에는 교전단체로 인증을 얻어 세계강화회의에 대표를 참석시킬 목적으로 국내에서 무장봉기하여 게릴라전을 전개하기로 하였

180) 권희목도 이종욱과 같이 한성임시정부에 참여하였다. 정안립과 관계된 사람들은 한성임시정부에 관여하였다.

181) 이정규: 우관문집, 국민문화연구소 출판부, 2014. 150쪽. 독립운동 사화,

다.¹⁸²⁾"고 유석현(劉錫鉉)은 증언하였다. 조계종 종무총장으로 있는 이종욱(李鍾郁)이 재정책임을 맡고 유석현(劉錫鉉)은 무기를 책임지기로 했으며, 1945년 9월 18일을 거사일로 잡았는데, 이범석(李範奭)의 광복군이 본토에 상륙하기로 한 시기와 일치한다.

'초혼문'¹⁸³⁾은 1962년 백중에 주문진 동명사에서 이종욱(李鍾郁)이 백중 천도재 및 위국선열지사 천도재에서 봉독하기 위해 작성하였던 것이다. 당시 79세의 이종욱(李鍾郁)은 회한에 찬 항일운동을 회고하며 먼저 간 독립운동가들의 천도재를 동명사에서 '위국선열초혼 및 백중천도식'이란 이름으로 거행하였다.

가) 안창호(安昌浩) 회상

1919년 3·1운동 직후인 1919년 4월에서 1921년 3월까지 상하이(上海)임시정부에서 내무부 참사와 의정원 의원직을 맡아 국내 독립운동조직을 위해 '연통제'를 추진하였는데, 당시 내무부 총장으로 '연통제'를 구상하였던 안창호(安昌浩)가 이종욱(李鍾郁)에게 국내에 잠입하여 '연통제' 조직을 부탁하는 광경을 회상하면서 안창호(安昌浩)를 추모하고 있다. 실제 '안창호(安昌浩)일기'에 의하면, 1920년 1월부터 3월말까지 이종욱(李鍾郁)은 안창호(安昌浩)와 7차례 면담한 기록이 있다. 안창호(安昌浩)와 이종욱(李鍾郁)은 상하이(上海)에서 수시로 면담하여 독립운동을 같이한 동지였다. 그래서 이종욱(李鍾郁)은 '초혼문'에서 가장 먼저 안창호(安昌浩)를 회상하며 애절한 추모의 심경을 표현하였다.

나) 김가진(金嘉鎮) 회상

대동단 총재 김가진(金嘉鎮)은 한일합방 당시 합방에 동조한 대신이었으나 후일 깊은 참회의 나날을 보내다 항일운동단체인 '대동단'에 참여하였고, 마침내 1919년 10월 임시정부의 권유와 대동단의 결의에 따라 임정요원 이종욱(李鍾郁)의 안내로 국내를 탈출하여 상하이(上海)임시정부에 참여하였다.

다) 김구(金九)와 이시영(李始榮) 회상

백초월(白初月)과 이종욱(李鍾郁)은 3·1운동 직후부터 항일운동을 하였다. 이종욱(李鍾郁)은 상하이(上海)와 국내를 오가는 특파원으로 활동하였고, 백초월(白初月)은 진관사에서 독립자금과 청년승려를 임시정부에 보내는 활동을 하였다. 백초월(白初月)은 1919년 6월 대동단 사건시에는 해인사 주지인 이회광(李晦光)에게 조선독립운동 자금 3천원을 기부하도록 하고, 이를 부하 승려 김포광(金包光)으로 하여금 상하이(上海) 임시정부에 가져가 제공케 하였다. 그리고 백초월(白初月)은 1919년 6월 김상옥(金相玉) 일파가 조직한 혁신단 사건, 1920년 2월 동경에서 3·1운동 1주년의 기념일을 히비야(日比谷) 공원에서 개최하려한 재도쿄(東京)조선인학생의 만세 소요 사건 등에 관계되는 등 조선독립운동에 분주하여 몇 차례 검거된 인물이었다. 1939년 백초월(白初月)은 진관사에서 체포되어 1944년 청주교도소에서 순국하였는데, 1946년 1월3일 김구(金九)가 진관사를 이시영(李始榮), 이종욱(李鍾郁)과 함께 직접 동행하여 방문하였다. 1919년 상하이(上海) 임시정부의 내무부 참사였던 이종욱(李鍾郁)은 내무부 경무국장이던 김구(金九), 재무국장 이시영(李始榮)과

182) 박희승: 조계종의 산파 지암 이종욱, (주) 조계종 출판사, 2011. 221쪽-225쪽

183) 박희승: 조계종의 산파 지암 이종욱, (주) 조계종 출판사, 2011. 304쪽-307쪽

독립운동 동지였다. 이런 까닭에 불교계의 문필가로 널리 알려진 김어수(金漁水)는 ‘불교신문’(1984년 8월1일자)의 한 칼럼에서 “김구(金九)가 귀국하여 찾은 사람이 이종욱(李鍾郁)이었고, 그가 아니었다면 임시정부가 유지될 수 없었다.”고 말하였다고 회고한 바가 있다.

라) 대동단 정남용(鄭南用)¹⁸⁴⁾

정남용(鄭南用)은 대동단 총무로 독립운동에 눈부신 활약을 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옥사하였다. 이종욱(李鍾郁)은 ‘대동단 활동의 동기’에서 대동단 총무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금강산 건봉사 승려 정남용(鄭南用, 20대 중반)의 사망 이유가 일경의 몰매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밝혀 주었다. 대동단 단원이 일망타진된 계기가 한 독립운동가가 밀고했기 때문이며, 이 밀고자는 결국 피를 대량으로 토하고 사망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마) 전진원(全鎮源)

1919년 중반 이종욱(李鍾郁)이 서울에서 연통제 국내 본부를 조직하면서 대동단, 청년외교단 등과 접촉할 때 상하이(上海) 임정과 다양한 연락선을 활용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철도 기관사 전진원(全鎮源)이었다.

전진원(全鎮源)은 만주로부터 경의선 철도 기관차를 직접 운전하던 역무원으로 청년외교단원인 동시에 비밀교통국의 연락원이었다. 그는 1919년 중반경 임정의 교통국이 설치된 후, 안동(安東) 이릉양행과 평톈(奉天) 우옹규(禹應奎) 집에 도착한 임정의 각종 비밀문서, 자료, 물품 등을 서울 만리동 전진원(全鎮源)의 집에 던져서 가족들이 받아 이를 이종욱(李鍾郁)에게 전달하였다. 3.1운동후 상하이(上海) 임정은 항일 독립 투쟁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친왕(義親王)을 모실 계획도 짜고 있었다. 그때 전진원(全鎮源)이 승무하는 열차를 의친왕(義親王)이 탔으면 분명히 압록강을 무사히 넘어 안동(安東)을 거쳐 상하이(上海)까지 갈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의친왕(義親王)이 세검정에서 하루 더 유숙하므로 인해 전진원(全鎮源)의 근무하던 열차를 놓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다음 열차에 승차했던 의친왕(義親王)은 신의주에서 체포되고 말았다. 이 점도 이종욱(李鍾郁)의 회고 가운데에 나타나 있다.¹⁸⁵⁾

이종욱(李鍾郁)은 회고에서 대동단 지도부가 활동하게 된 동기를 왜적들이 기미독립운동하는 동지들을 악평하여 독립운동하는 자들은 조선내에서 제일하류계급들에 망동이요, 상류계급에서는 일본에 동화되어서 추호부동한다고 미영불 기타 각국에 선전하는 고로 전기 양 동지는 적의 이 선전을 봉쇄할 목적으로 왕족 중에서는 의친왕(義親王)을, 귀족 중에서는 김가진(金嘉鎮)을 상하이(上海) 임시정부로 모셔낼 계획을 하였다

184)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 5권 대동단사건 1 > 경무총감부, 경찰서 조서》鄭南用 신문조서(제1회): 문: 京城에 온 용건 및 그 月日은 어 떠한가? 답: 금년(1919년) 음력 4월 20일 京城에 왔는데. 용건은 나의 외사촌 형인 嚴享仁이란 사람이 奉天 東十字街 十間房에서 집화상을 경영하고 있는 바. 그의 누이동생을 奉天으로 불러들인 바 있어 나는 그곳까지 배웅하려 따라갔다가 와서 지금까지 경성에 있다. 全協이 그렇다면 자기 친구의 친척이 정의문 밖에 있으니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고 그리고 나서 적당한 역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여 全協, 羅昌憲, 나도 그곳의 집을 보러가서 정했던 것이다. 그때 李乙圭는 전하께서 安東縣으로 가시면 여관으로서 어떤 서양 사람의 집을 빌어두었다고 하였다. 나는 李와는 세검정 위의 소림사(종로구 흥지동 80)에서 만날 약속을 하고 한발 먼저 나는 崔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서 점심 후 소림사로 가던 도중에 宋世浩와 李乙圭가 있는데, 宋은 용건이 있다며 성안으로 갔으므로 李를 데리고 崔의 집으로 되돌아 와 전하게 소개하였다. 그날 점심을 마쳤을 때 전하의 소실 두 사람이 의복을 넣은 가방 2개를 가지고 왔는데, 결국 소실은 뒤에 전하가 계신 곳으로 가기로 하였다.

185) 네이버 지식백과: 전진원. 문화콘텐츠닷컴(문화원형백과 첨보)/문화원형백과>군사/외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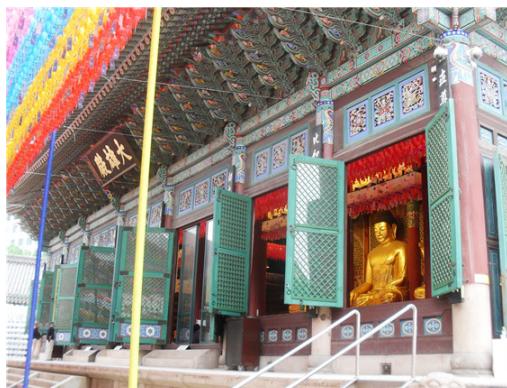
고 증언하였다. 대동단 지도부가 상하이(上海)임정의 특파원 이종욱(李鍾郁)에게 탈출 계획의 협조를 구하는 경위와 임정의 협력 내용, 그리고 이종욱(李鍾郁)이 직접 김가진(金嘉鎮)을 안내하여 상하이(上海)로 망명한 과정을 매우 생생하게 증언하였다.

1927년 7월 30일 동아일보는 “대동단 사건의 강태동(姜泰東)씨와 관계된 사실 내용”의 제목으로 강태동(姜泰東)의 진술을 기록하고 있다.

‘이종욱(李鍾郁)이 의친왕(義親王)을 모시고 나갈 계획을 대동단에 부탁하여 전협(全協) 일파의 활동이 시작되었을 때 강태동(姜泰東)은 베이징(北京)에서 나온 김춘기(金春基)와 역시 의친왕(義親王)을 모시고 나가고자 여러 가지로 활동하던 중 의친왕(義親王)께서 없어진 것을 김춘기(金春基)에게서 듣고 초조히 지내던 중 이재호(李在浩)가 찾아와서 비로소 세검정에 계신 것을 안 것이고, 송세호(宋世浩)를 미행한 일은 없었으며, 세검정에 가 본 결과 전협(全協)은 전에 감옥에서 서로 면식이 있던 사람으로, 한 방에서 시세를 논의하고, 의친왕(義親王)의 출발시기가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여부와 성공기 어려움을 의논하고 이를 날 오후 2시쯤에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김태석(金泰錫)이가 강태동(姜泰東)의 집을 찾아가 만난 일은 없었다 한다. 그리고 당시 쌍방의 주장이 강경하여 육혈포를 가슴에 대인 일은 있었으나, 결박이나 구금을 당한 일은 없었다 한다.’

이상으로 미루어 보아 김태석(金泰錫)은 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한 흔적이 보이며, 일제는 조선민족대동단 사건을 단순납치사건으로 격하시키고, 조선민족대동단 내의 사소한 의견다툼을 내분으로 크게 부풀린 흔적이 보인다. 그리고 김춘기(金春基)가 베이징(北京)에서 왔다는 것은 이회영(李會榮)과 양기탁(梁起鐸)의 지시를 따랐다는 증거가 된다.

7) 이종욱(李鍾郁)과 조계종¹⁸⁶⁾



스님의 선 정신을 담은 조선불교 조계종을 출범시켰다. 종정과 종무총장(지금의 총무원장), 종회를 만드는 등 자생적인 종단을 출범 시켰다. 대홍사 조실 천운스님이 2005년 4월 15일 인터뷰기사는 이종욱(李鍾郁)의 친일논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중·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제는 우리 불교를 전쟁의 총알받이와 재산을 강탈할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대표기관 설립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반응이 없자, 당시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를 기념하는 사찰인 박문사의 일본 스님이 “한국불교를 장악하고 통제하겠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이에 이종욱(李鍾郁), 김상호(金尙昊), 만공(滿空), 오성월(吳惺月) 스님이 본사주지회의를 열고 총본산과 종단을 만들자고 추진해 각황사를 보수해 현재 조계사¹⁸⁷⁾로 이전하고 1941년 4월 23일 임제

186) 박희승: 조계종의 산파 지암 이종욱, (주) 조계종 출판사, 2011.

187) 박희승: 보천교의 십일전을 해체하여 서울로 옮겨와서 태고사를 지었는데 지금의 조계사이다. 태고사를 지을 때 실무를 맡아서 처리한 사람이 이종욱(李鍾郁)이다.

김구(金九)가 귀국하여 공항에 도착했을 때 당시 불교혁신동맹 청년당원이었던 강석주, 김어수(金漁水) 등이 김구(金九)를 마중하러 갔다. 이들은 이종욱(李鍾郁)이 친일파라 하여 종무총장 자리에서 끌어내린 주역들이었다. 김구(金九)가 마중나온 불교계 인사와 악수하다가 이종욱(李鍾郁)이 보이지 않는 까닭을 물었고, 친일파라 하여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했다는 대답을 들더니 진노하였다. ”이종욱(李鍾郁)이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전해준 불교계 대표적 인사“라고 김구(金九)가 설명하자, 김어수(金漁水) 등은 이종욱(李鍾郁)을 찾아 참회하였다. 용성, 만공, 한암, 구하, 성월, 대은 스님이 이종욱(李鍾郁)을 좋아하였다. 이들이 이종욱(李鍾郁)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 준 스님들이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요령을 좌우로 흔들며 움마니반메훔을 외우면 임시정부의 지령을 받았다는 뜻으로 서로 교감하였다.

범어사의 이동인(李東仁)과 백담사의 탁몽성(卓夢聖)은 갑신정변 때 혁신파에 속하는 스님이었는데, 탁몽성(卓夢聖)은 화계사에서 김옥균(金玉均)을 만나 참가하게 되었다. 탁몽성(卓夢聖)의 제자가 불영사의 이설운이며, 이설운의 제자가 이종우(李鍾郁)이다.¹⁸⁸⁾ 경허(鏡虛)의 제자는 범어사의 성월, 부산 선암사의 혜월, 수덕사의 만공(滿空), 만주의 수월, 월정사 한암, 해인사의 제산 등이다. 만공(滿空)은 한용운(韓龍雲)을 “내애인”이라며 아꼈으며, 김좌진(金佐鎮)과는 팔씨름을 하며 허물없이 지냈다.

8) 백초월(白初月)스님^{189, 190)}과 진관사 태극기



2009년 5월 진관사 칠성각을 수리하기 위해 벽체를 뜯던 중 불단과 기둥 사이에서 일명 “진관사태극기”, “자유신종보”, 신채호(申采浩)가 발간한 항일 지하신문 “신대한” 1호, 2호, 3호¹⁹¹⁾가 발견되었다. 백초월(白初月)은 감시하는 시선을 피하기 위해 죽은 거북이를 방안에 비치하여 두고, 요시찰인들이 내방하여 묻는 말은 대답하지 않고, 죽은 거북이와 자문자답하여 정신이상자로 오인하게 하여 문답을 교묘히 피하였다. 백초월(白初月)은 1918년 화엄경에서의 일심에 착안하여 이것을 독립운동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백초월(白初月)은 3·1운동 직후 불교계 중앙 차원의 독립운동을 추동하면서 비밀결사체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래서 일심교를 창설하고 마포에 있는 진관사 포교소에 사무소를 개설하였으며, 강령을 제정하였다. 백

188) 박희승: 조계종의 산파 지암 이종욱, (주) 조계종 출판사, 2011. 26쪽

189) 네이버 지식백과, 백초월, 네이버캐스트/ 한국사)일제강점기역사

190) 김광식: 백초월(독립운동가 초월스님의 불꽃같은 삶), 민족사, 2014.

191) 신대한 1호, 17호, 18호만 있었는데 이때 1호, 2호, 3호가 발견되었다.

초월(白初月)의 항일투쟁은 임시정부와의 긴밀한 연계아래 국내 불교도 독립운동본부를 운영하고, 군자금을 모금하며, 상하이(上海) 임정 및 만주 독립군에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다양한 국내의 비밀결사체와의 연계하여 태극기를 이용한 시위와, 의용승군을 기획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승려 독립선언서의 배포와 상하이(上海)에서 유입된 독립운동 신문의 배포, 그리고, 용산역에서의 대한독립만세 낙서 사건 등 실로 다양하였다. 일심교는 일심만능, 군교통일, 세계평화 등의 3대 강령을 정하고 진관사 포교소에서 예득성(藝得成), 박수남(朴壽男), 박수희(朴洙熙), 유창섭(柳蒼燮), 조정원(趙貞元), 박동진(朴東鎮) 등을 동지로 포섭하고 김동조(金東招), 김성(金星)에게 자금출자를 부탁하여 목적 달성을 위해 활약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1939년 10월 만주로 가는 군용열차에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낙서사건을 주도한 것이 일제에 발각되어 일심교의 전모가 드러났다.¹⁹²⁾ 일심교에 관련된 80여명이 체포되고, 3명은 고문으로 순국하였다. 백초월(白初月)도 체포되어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 1944년 순국하였다.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인물에는 낙서 주범인 박수남(朴壽男), 진관사 포교당 주지인 김형기(金灑機)와 여학생도 있다.

의친왕(義親王)이 망명 직전 거처하였던 구기동 최성호(崔成鎬)의 집이 진관사에서 사모바위 넘어서 3시간 걸리는 거리에 떨어져 있다는 것은 백초월(白初月)이 의친왕(義親王) 망명 작전에 가담하였다는 것을 나타내준다.¹⁹³⁾



진관사에서는 요즈음도 국행수륙대재를 지내는데, 국행수륙대재는 조선시대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평안을 기원했던 불교식 천도 의례였다. 진관사는 왕실의 사찰이었는데, 의친왕(義親王) 망명미수사건에 직접 관여하였다. 1907년 의친왕(義親王)이 북한산성에서 의병봉기를 돌려하는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 진관사도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우이동의 봉황각도 위치는 다르지만 북한산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2015년 1월 27일 이문창¹⁹⁴⁾은 해방직후에 아나키스트들의 집회로 진관사를 방문하기도 했다고 증언하였다.

192) 국내항일운동자료,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사상에 관한 정보 12 >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일심교 검거에 관한 건, 京高特秘 제 1128호, 1940년 05월 04일.

193)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 5권 대동단사건 1 > 경무총감부, 경찰서 조서》 董昌律 신문조사(제1회) 韓基東이 나간 후 羅昌憲도 어디론가로 나갔는데, 그리고 나서 약 2시간 쯤 있다가 崔成鎬 집의 어머니가 문밖에서 들어오더니 일본인이 많이 왔다고 알리므로 나는 무서워 져 도망치려고 그 집에서 산 쪽으로 올라가 약 1丁 (1정=109m)가량 갔을 때 붙잡혔던 것이다.

194) 마지막 아나키스트

8) 보천교주 차경석(車京石)^{195,196)}

보천교는 1909년 차경석(車京石)에 의해 창시되었다. 차경석(車京石)은 동학농민군 지도자 차치구(車致九)의 장남으로 강증산(姜甑山)의 제자이다. 보천교는 종교적 근원을 증산교(甑山敎)에 두고 있다. 보천교 교도들은 사고(史庫)를 지키는 관리들의 후손이었다. 보천교¹⁹⁷⁾는 상하이(上海) 임시정부 등에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였다. 1922년 모스크바(Moskva) 극동민족대회에 김규식(金奎植), 여운형(呂運亨), 김철수(金綴洙), 김상덕(金尙德), 나용균(羅容均), 정광호(鄭光好), 장덕진(張德震) 등을 파견하기로 할 때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팔용(崔八鏞), 장덕수(張德秀)가 차경석(車京石)을 방문하여 1만 엔을 받아 김철수(金綴洙)를 통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보천교 사장 임규(林圭)가 5만 엔을 영국 유학중인 나용균(羅容均)을 통해 임시정부에 전달하였다. 1923년 국민대표회의에 강일(姜逸)은 태을교 대표로, 배치문(裴致文)은 보천교 청년대표로 참석하였으며, 그 후, 강일(姜逸)과 배치문(裴致文)은 김원봉(金元鳳)을 만나 의열단에 입단한 뒤 국내에 들어와 활동하였다. 그리고 1924년 11월 보천교가 김좌진(金佐鎮)에게 2만 엔을 지원했는데 이 때 최진동(崔振東)이 장쭤린(張作霖)에게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김좌진(金佐鎮)은 낭안현(寧安縣)으로 피신하였다.¹⁹⁸⁾ 김좌진(金佐鎮)은 보천교 교주 차경석(車京石)을 북만주로 이주하도록 하여 그의 자금력과 만주로 이주하는 보천교7도들을 독립군으로 양성할 계획이었으나 차경석(車京石)을 만주로 이주시기지는 못했다.¹⁹⁹⁾

신채호(申采浩)의 두 번째 부인인 박자혜(朴慈惠)²⁰⁰⁾는 보천교 부인선포사라는 직책으로 활동하였다고 정의부사간 판결문에 기록되어 있다. 1925년 조만식은 보천교도들과 함께 정의부(正義府) 군자금 모집사건으로 검거돼 재판을 받았다. 경성법원의 재판기록부에 따르면 그해 조만식은 만주에서 돌아와 정읍으로 가 차경석(車京石)을 만나 군자금의 일부를 받았다. 이후 권총 두 자루와 실탄을 반입해서 군자금을 모으려다 체포된 사건이다. 당시 정의부 조만식²⁰¹⁾은 권총을 휴대하고 보천교 한규숙(韓圭淑), 김정곤과 함께 활동하였다. 차경석(車京石)도 수배령이 내렸지만 소재 불명으로 기소가 중지되었다.²⁰²⁾

그래서 일제는 보천교 자금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보천교는 물산장려운동과 민립대학설립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잡지 “보광”을 발행하고, “시대일보”를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그리고 보천교는 자급자족운동으로 기산조합을 설립하였으며, 직물공장과 염색공장을 운영하였다. 대중문화운동으로 ‘보천교 농악단’을 조직하였다. 조만식(曹晚植), 여운형(呂運亨), 장덕수(張德秀), 송진우(宋鎮禹), 설태희(薛泰熙), 안재홍(安在鴻) 등 독립운동가들은 비밀리에 보천교를 내왕하며 독립운동자금을 제공받았으며, 일부는 직접 입교하여 신도가 되기도 하였다.

195) 네이버 지식백과: 차경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종교/철학>신종교

196) 차치구의 장남은 차경석이다. 차경석의 아들은 차일혁이고, 차일혁의 아들은 차길진이다. 차일혁은 1945년 11월2일 원남동 124번지 일제 경찰 사이가(齊賀七郎: 송남현을 고문한 악질형사)의 집 앞에서 사이가(齊賀七郎)를 김지강(김성수), 이규호(이규창), 공형기등과 같이 암살하였으며, 아나키스트들과 같이 활동하였다. 6·25동란기 빨치산 토벌담당 전투경찰대 제2연대장으로 활약했다. 1951년 5월 빨치산이 숨어들 만한 절과 임자를 소각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구례 화엄사 대웅전의 문짝들만 뜯어내 불태운 일화로 유명한 인물이다. 차길진은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대행), 사단법인 후암미래연구소장 등 직함이 여럿이다. 대중에게는 ‘법사’로 통한다. 영능력자, 예언가다.

197) 이정규: 우관문집, 국민문화연구소 출판부, 2014, 151쪽, 독립운동 사화. 양기탁은 시천교, 보천교, 유림 등 일부 인사들을 결속하여 통천 교란 신흥교단을 만들고 가회동 취운정에 본부를 두었다.

198) 김준선, 안화춘, 허영길: 최진동 장군, 흑룡강 조선 민족 출판사, 2006, 225쪽

199) 이성우: 만주 항일무장투쟁의 신화 김좌진, 역사공간, 2011, 134쪽-135쪽

200) 네이버 지식백과: 박자혜, 네이버캐스트/인물>독립운동가

201) 고당 조만식(曹晚植)과 동명이인이다.

202) 2008년 3월20일 주간경향: 한국의 창종자들, 함양 황석산에서 창교와 건국을 선포하다.

1936년 차경석(車京石)이 사망하자 보천교는 강제로 해산되었다. 보천교의 십일전을 강제로 철거하려 하였다. 이종옥(李鍾郁)²⁰³⁾은 십일전²⁰⁴⁾을 서울로 옮겨와서 태고사(지금의 조계사)를 지을 때 실무자였다. 보천교 정문은 내장사 대웅전이 되었는데 2012년 10월 31일 오전 2시에 화재로 소실되었다.²⁰⁵⁾

옹오정사(龍塢精舍)²⁰⁶⁾는 고창군 무장면 덕림리에 있는데 용오는 정관원(鄭官源)의 호로 정관원(鄭官源)의 덕행을 기리기 위하여 당대에 유명한 유익서(庾益瑞) 대목장이 지은 건축물이다. 정관원(鄭官源)과 기삼연(奇參衍)의 영정이 있다. 유익서(庾益瑞) 대목장은 차천자궁(車天子宮)을 지었는데 그 솜씨를 아까와 한 사람들이 차천자궁(車天子宮)을 헐어버리는 대신 뜯어서 옮겼다. 정관원(鄭官源)은 의병을 모집하여 항일투쟁에 앞장섰다가 고종황제(高宗皇帝)가 승하한 뒤에 통곡하며 지내다가 병을 얻어 사망하였다. 흥의재 앞에 있는 강당인 경의당에는 의친왕(義親王)의 친필인 ‘金聲玉振’의 친필행서가 있다. ‘金聲玉振’은 八音을 연주할 때 먼저 종을 치고 마지막에 경을 친다는 뜻으로 시종일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지덕을 겸비하라는 내용이다.

보천교의 2인자 김홍규(金洪奎)의 자제 김탄허(金吞虛)는 1936년 경 오대산 한암 스님 문하에 출가하여 지암 이종옥(李鍾郁) 스님과 인연이 있다.

9) 나창현(羅昌憲)과 김중옥(金仲玉, 廉源)

1920년 3월 베이징(北京)에서 김가진(金嘉鎮), 신구식(申圭植), 박용만(朴容萬), 이종옥(李鍾郁), 손영직(孫永稷), 고광원(高光元), 김의한(金毅漢), 나창현(羅昌憲), 김중옥(金仲玉, 廉源) 등이 대동단 해외 본부를 조직하였는데, 박용만(朴容萬)은 대동단 무정부장으로 활동하였다.²⁰⁷⁾ 대동단 사건 관련자인 나창현(羅昌憲)과 김중옥(金仲玉, 廉源)이 상하이(上海)에 온 후 대동단 해외본부에 가담하였다. 대동단 해외본부는 1920년 4월 월정사 승려 이대정(李大鼎)²⁰⁸⁾을 ‘상하이(上海)임시정부 의원참모사’ 사령으로 삼고 박영효(朴泳孝)를 통해 의친왕(義親王)을 다시 상하이(上海)로 모셔가려고 꾀하다가 이대정(李大鼎)이 일본 형사에게 1920년 8월 16일 체포되어 실패하였다.

김중옥(金仲玉)²⁰⁹⁾은 가명으로 대동단에 참여하였으며 본명은 용원(庸源)이다. 3·1운동 후 상하이(上海)로 망명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경무원이 되었다. 김중옥(金仲玉)은 독립운동 및 외교후원회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에 들어와 대동단을 조직하고 의친왕(義親王)과 접선하여 상하이(上海)로 망명시킬 계획을 세웠으나 실패하고 홀로 망명하였다. 김중옥(金仲玉)은 1921년 5월에는 김구(金九)의 후임으로 임정경무국장에 임명되었으며 동시에 의정원 청원징계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었고, 그 해 11월에는 태평양회의에 관한 임시정부의 후원과 지도를 목적으로 외교위원회를 조직하고 박찬의(朴贊翊)의 후임으로 간사가 되어 태평양회의 축하회를 거행하였다. 그리고 김중옥(金仲玉)은 홍진(洪震), 신익희(申翼熙), 이진산(李震山) 등 25명과

203) 박희승: 조계종의 산파 지암 이종우, (주) 조계종 출판사, 2011, 167쪽~168쪽

204) 십일전의 원목은 만주 등지에서 구하였다. 상량보는 3년의 공덕을 들여 백두산에서 구하였는데 압록강으로 실어왔다.

205) “정을 내장사 대웅전 전소, 화재원인은?” 동아일보 2012.10.31.

206) “구불구불 휘어진 용 닮은 기둥, 선계 오르려던 속세의 염원” 문화일보 30면 2014.3.5.

207) 김도훈: 미 대륙의 항일무장투쟁론자 박용만, 역사공간, 2010, 119쪽

208) 이대정도 정안립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성이 높다.

209) 김상기: 강산 김용원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 제 24집 59쪽~93쪽, 2005.

함께 연서한 청원서를 재미 각국 대회자에게 송부하여 한국의 독립을 역설하였다. 김중옥(金仲玉, 廉源)은 1924년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독립공채를 가지고 귀국하여 활동하다가 일본경찰에게 체포되어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 중 병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이튿날 병사하였다.²¹⁰⁾

10) 한국 노병회²¹¹⁾

한국 노병회는 1922년 10월 28일 상하이(上海)에서 김구(金九), 이유필(李裕弼), 여운형(呂運亨)을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1만 여명의 노병을 양성하고, 100만원 이상 전쟁비용을 조성한 후 무장투쟁을 통해 조국의 광복을 쟁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되었는데, 김구(金九)는 한국 노병회를 임시정부 산하 지원단체로 발전시키려는 구상을 하고 있었다. 이때 나창현(羅昌憲)은 노병회 통상회원이었으며, 후에 나창현(羅昌憲)은 철혈단 단장을 역임하였다.

11) 의친왕 처남 김춘기(金春基)

1915년 신한혁명당 사건이후 의친왕(義親王)의 독립운동은 의친왕(義親王)의 처남인 김춘기(金春基)²¹²⁾가 수행하였다. 김춘기(金春基)는 베이징(北京)에서 파견되었다. 조선민족대동단 사건 재판기록²¹³⁾을 보면 김춘기(金春基)는 어렸을 때 한문을 배웠고, 13세 때 중앙청년회중학과에 입학하여 17세에 졸업하고, 18세 때 영국 런던에 건너가 폴리텍니크 대학에 입학하여 입학 준비 교육을 3년 동안 받고, 21세 때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 있는 연합태평양철도회사에서 서기로 1년 동안 근무하였으며, 캘리포니아 주 포클리시 캘리포니아 관립대학교 상과에 입학하여 1년간 수학하였고, 1917년 10월 13일 서울에 돌아왔다. 1918년 2월 평안북도 구성에서 금광업에 종사하다가 실패하고 5월에 다시 귀경하였다. 의친왕(義親王)은 김춘기(金春基)를 통한 정보를 믿고 움직였다.

김춘기(金春基)는 부여군 임천 사람 강석룡(姜錫龍)²¹⁴⁾을 알고 있었는데. 강석룡(姜錫龍)은 그 후 중국 방면으로 건너갔다가 상하이(上海) 방면을 돌아 서울로 왔는데 김춘기(金春基)가 사동궁에 거주하던 중 내방하여, 의친왕(義親王) 전하를 상해임시정부로 모셔갈 것을 희망하였다. 김춘기(金春基)도 외유의 뜻이 있었고 조선에 있어도 영어를 가지고는 취직 자리가 없어 어딘가로 가 봉급 생활이라도 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으며, 의친왕(義親王) 전하께서도 또한 귀족 등이 처우에 대해 불평이 있는 김에 '하나의 평민이 되어 자유의 땅에서 생활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김춘기(金春基)도 강석룡(姜錫龍)의 요청을 승낙하여 의친왕(義親王) 전하께서는 '돈이 없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210)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39 39권 독립군자금모집 8) 독립공채권에 의한 군자금 모집사건》경찰신문조사》金庸源 신문조사(제2회) 문: 그 후는 어떻게 했는가? 답: 대정 9년 음력 1월경까지 항리에서 짐복하고 있었으나 그 달 말일 경 처와 함께 신의주에 가서 밤에 중국선으로 安東縣까지 밀항하였고 安東縣에서 배로 上海까지 도항하였다. 그리하여 미리 도항하여 가 있는 羅昌憲과 만나 당시 임시정부내의 일력으로 좋지 못한 사정 때문에 羅昌憲, 盧武用, 金載熙 등과 철혈단을 조직하여 정부에 반항적인 태도를 취한 일이 있었다. 문: 그 철혈단은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가? 답: 철혈단은 하룻밤 사이에 조직한 것이어서 별로 활동할만한 목적으로 조직된 것은 아니다. 羅昌憲, 친구 某가 임시정부의 경무국에 체포당한 일이 있었으므로 그를 구출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이며 그 목적을 달성한 이후 자연 소멸된 것으로써 별다른 활동을 한 것도 없었다.

211) 김상철, 김상구: 범재 김규홍과 3·1혁명, 한국학술정보(주), 2010. 332쪽~341쪽

212) 박은식, 김도형: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소명출판 2008. 332쪽

213) 한민족 독립운동사 사료집 5권, 대동단 사건1, 김춘기 신문조사(1회)

214) 강태동

고 대답하시므로 그 뜻을 강석룡(姜錫龍)에게 전한 일이 있다. 그 후에도 의친왕(義親王) 전하를 면담할 때에는 언제나 불평 이야기가 나와 ‘公이라는 신분을 벗어나 돈벌이를 해서라도 자유 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뿐이었다. 그런데 10여 일 전 ‘돈이 되었으니 함께 중국 방면으로 가자.’는 말씀이 계시어 김춘기(金春基)도 동반코자 기뻐하고 있었다. 그 돈이 조달되는 것이 지난 9일이라는 것이었는데, 다른 파의 사람이 의친왕(義親王) 전하를 바꾸어 모시고 가려 했던 것이다. 10일 오후 4시경 수송동 김춘기(金春基)가 자기 집에 돌아왔더니 강석룡(姜錫龍)이 있다가 ‘어젯밤 전하가 나가셨다. 다른 파가 전하를 데리고 나갔다.’고 놀란 모습으로 이야기하며 ‘나를 따라가자. 전하를 우선 귀가하시도록 부탁하겠다.’고 하므로 그를 따라 창의문 밖에 나갔다가 세검정 못미처에서 수인당 김홍인과 간호부가 돌아오는 것을 만났는데 두 여자는 ‘큰 일이다. 전하는 오늘 저녁 출발하여 우리들에게 당신(金春基)과 함께 용산에서 기차를 타고 오라는 것이니 함께 우선 사동궁으로 가자.’고 권하였으나, 김춘기(金春基)는 ‘강석룡(姜錫龍)은 김춘기(金春基)가 전에 의친왕(義親王) 전하게 말씀드린 일이 있는 사람이므로 강석룡(姜錫龍)의 보증으로 우선 환궁을 말씀드리고자 지금 계시는 곳으로 가는 도중이니 계신 곳까지 가자.’고 하여 강석룡(姜錫龍)과 동반해서 잠시 갔던 바, 개울가 바위 위에 청년이 3명 있고, 그 밖에 한 명 상복을 입은 청년²¹⁵⁾이 위에서 그곳으로 오므로 강석룡(姜錫龍)이 ‘의친왕(義親王) 전하는 어디에 계시느냐?’고 묻자, 청년은 ‘그것을 물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싸웠으며, 강석룡(姜錫龍)은 ‘우리들이 이미 전하를 모시고자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너희들이 난폭하게도 바꿔쳐서 의친왕(義親王) 전하를 모셔간다 함은 쾌심하다. 그러한 난폭한 짓을 하면 관헌에게 발견되니 우선 환궁한 후 조용히 모시는 것이 상책이리라’고 주장하였으나, 그들은 의친왕(義親王) 전하가 한번 환궁하시면 다시 외출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이대로 모셔감이 득책이라고 서로 싸우고 있던 터에, 그들 중에는 시간이 지체되니 두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눈치로 전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자고하여 강석룡(姜錫龍)이 갔는데, 한 청년은 나에게 ‘당신은 부인을 출발하지 않도록 하라. 전하는 환궁하시도록 주선하겠다.’고 하므로 강석룡(姜錫龍)이 모시고 환궁할 것으로 믿고 수송동으로 귀가하여 저녁 식사를 마치고 사동궁 부속 건물로 가서 수인당을 불러 ‘출발을 유예하라. 전하는 곧 귀환하실 것이라.’고 그들이 김춘기(金春基)를 속인 줄을 모르고 그녀에게 그대로 알렸는데, 10일 밤 오전 1시경까지 기다리고 있었으나 환궁하지 않으셨고 별씨 경찰이 의친왕(義親王) 전하를 수색하는 소란이 일어났던 것이다. 김춘기(金春基)가 증언하기를 강석룡(姜錫龍)은 장래에는 조선도독부를 두게끔 내정하고 있으므로 의친왕(義親王) 전하를 도독으로 할 작정이라고 말하였고, 동행에 관해서도 자기 외에 2~3명의 동지가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나, 누구누구인지 모른다고 하였다. 의친왕(義親王) 전하를 상하이(上海)로 데리고 가는 노정은 얼음이 얼기 전이면 안동현(安東縣)에서 화물선으로 가고, 얼음이 언 후면 풍티엔(奉天)과 텐진(天津)은 기선으로 간다고 하였다.²¹⁶⁾

김춘기(金春基)가 사동궁의 부속 가옥에 거주할 때인 지금으로부터 5주일 쯤 전, 강석룡(姜錫龍)이 오후 8시 반경 동생인 강석린(姜錫麟)에게 김춘기(金春基)의 집을 가르쳐 달라고 내방하여, 1년 7~8 개월 만에 만나게 되었는데, 강석룡(姜錫龍)은 두 번 가량 국가에 관해 처형을 받은 사람으로 ‘지난 번의 처형 이후로는

215) 나창현임. 이을규, 정안립은 망명 당시 상복을 입었는데, 정안립의 조언을 의친왕과 대동단이 수행한 훈적이다.

216) 안뚱 이릉양행에 도착한 후의 계획을 김춘기가 일제에 자백한 내용으로 의친왕과 정안립이 사전에 연락된 훈적이다.

하얼빈(哈爾濱), 창춘(長春) 방면을 편력하고 그로부터 상하이(上海)에 가 있었다. 현재 상하이(上海)에 있는 한국 독립 임시정부는 마침내 독립을 확실한 것이라 하여 나라를 소생시키는 운동 중인데, 이번에 전하를 임시정부에서 모셔오라고 하여 서울에 어젯밤에 도착했다. 상하이(上海)임시정부는 물론 지린(吉林)의 동지²¹⁷⁾ 등도 전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전하께서 오신다고 하면 인심을 하나로 합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시도록 주선하라. 전하께 특별히 자격은 없으나 인심을 통일하는 데에는 전하를 제외하고는 달리 없다.'고 하였으며, 또한 미국 은행가가 와서 국채 3백만 원을 임시정부를 위해 모집한다는 계약도 성립됐다고 자꾸 권하였으므로, 처음에 진술한 대로 전하께 말씀드렸더니 '돈이 없어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다. 빈 손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대답이 계시었다. 미국 은행가 운운에 관해서는 '미국이 조선을 위해 어째서 그러한 일을 하느냐?'고 조금도 신용하는 빛이 없었던 것이다. 그 후에도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나, 전과 같이 밤에 세 번 가량 와서 전하께서 어떠한 대답이 계셨는가고 묻기에 앞서와 같이 대답했는데, 강석룡(姜錫龍)은 '시기가 늦으면 아무 것도 안된다.'고 하며 자꾸 결심을 채근하였다. 그 시기가 급하다고 하는 것은 국제연맹체결 전이라는 뜻이었다. 전부터 의친왕(義親王)은 '쿠바나 스위스 등으로 건너가 자유 생활이 하고 싶다. 그 지방은 생활비가 싸고 기후도 좋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외유의 생각은 일어나셨으나 언제나 생각대로 되지 않았고 돈 조달을 위해 고심하고 계셨는데, 이달 7일 오후 7시경, 김춘기(金春基)에게 의친왕(義親王)은 9일에는 돈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씀이 계시어, 김춘기(金春基)는 전부터 외유의 뜻이 있었으므로 목적을 달성하리라 믿고 강석룡(姜錫龍)도 한번 만나보실 것을 말씀드리고 출발 준비도 하려고 그날 밤 강석룡(姜錫龍)에게 통지하였으나, 아직 강석룡(姜錫龍)도 만나지 못하고 돈도 되지 않았으며, 9일 밤 같은 파의 사람이 끌어냈던 것이다.

3~4주일 전에 강석룡(姜錫龍)이 '의친왕(義親王) 전하께서 돈이 없어 외유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데 돈이 무엇인가? 돈이 없어도 의친왕(義親王) 전하를 받들며, 식사도 드리지 않는 것 같은 일은 하지 않는다.'고 자꾸 재촉하므로 의친왕(義親王) 전하께 말씀드렸으나, 그 대답은 '그래도 차용금이 많이 있다. 그 정리는 하지 않으면 안된다. 수화당(藤田)에게 차용금이 있으므로 돈을 조달한 후에는 차용금을 갚고, 수화당(藤田)은 전부터 토쿄(東京)의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 하고 있으니 여비라도 주어 보낼 사람은 보내고, 정리하지 않으면 출발할 수 없지 않은가?'고 대답이 계셨던 것이다. 의친왕(義親王) 전하의 외출 4~5일 전에 아침 일찍 수송동 김춘기(金春基)의 집에 강석룡(姜錫龍)이 韓과 崔²¹⁸⁾와 같이 와서 2매의 증명서를 건네주며 이것은 안동현(安東縣)에서 경성을 왕복하는 여행증명서인 즉 이것을 가지고 안동현(安東縣)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한다는 것 이었으며, 그날 낮에 의친왕(義親王) 전하께 강석룡(姜錫龍)의 설명과 함께 드렸더니 그대로 책상 서랍에 넣으셨다.

1919년 대동단 사건으로 김춘기(金春基)의 거동이 일제에 노출된 후, 의친왕(義親王)은 이기권(李基權)과 유정순(柳貞順)을 밀사로 활용하여 이회영(李會榮), 양기탁(梁起鐸), 정안립(鄭安立), 유동열(柳東說), 김규홍(金奎興), 박용만(朴容萬) 등 독립운동 지도부와 비밀리에 연락하면서 독립운동을 남모르게 지원하였다.

217) 정안립 등을 비롯한 동삼성 한족 생계회.

218) 한동호와 최순남의 명의로 발행된 여행증명서

12) 유경근(劉景根)²¹⁹⁾

유경근(劉景根)은 강화도 월곶리 303번지가 자택으로 강화군과 개풍군에 보창학교를 설립하고 교장으로 재직하였다. 유경근(劉景根)은 1919년 3.1운동 시에 강화와 김포의 지휘관으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으며, 대동단 사건의 주역이다. 1920년 미국의원단 내한 시에 광복군 군영 특파결사단의 활동을 돋기 위해 무기를 서울 내자동 자택에 은닉하였으며 후에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으로 망명하여 이동휘(李東輝)²²⁰⁾가 운영하는 군관학교에 사재를 헌납하고 국내에서 군자금 모금과 지원병을 모집하여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으로 보내다가 체포되어 3년 반의 형을 받고 복역하였다. 유경근(劉景根)은 대동단²²¹⁾의 11개지단²²²⁾ 중 군인 단의 총대장을 맡았다. 만주 독립군의 위원모집은 대동단원에 의해서만 이루어졌고, 이 일은 모두 유경근(劉景根)이 총괄하였다. 당시 유경근(劉景根)은 강화도의 교육자로 알려졌으며, 본격적인 대동단 활동과 관련하여 만주와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 등 해외파와 두루 교분을 나누었다.

유경근(劉景根)은 노준(魯駿), 조규상(曹圭象), 현완준(玄完俊), 위계후(魏啓厚), 고경진(高景鎮) 조주현(曹柱鉉), 김형권(金衡權) 등 군인지망생에게 신의주의 김성일(金成鎰)²²³⁾ 앞으로 암호로 된 소개장을 써주어 7월 4~5일경에 이들이 남대문역에서 신의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었다. 즉 유경근(劉景根)은 조직의 암호를 관장할 만큼 특별한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이 일은 조규상(曹圭象)이 일제의 밀정이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유경근(劉景根)은 금광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이 돈으로 유경근(劉景根)은 자기집에 광창학교를 설립하고 1906년 7월 보창지교로 개편하며, 1909년 광명학교로 이름을 바꾸었다. 졸업생은 10명을 배출하였다. 광창학교를 보창지교로 개편한 것은 보창학교의 설립자인 이동휘(李東輝)와 유경근(劉景根)의 관계가 돈독했던 것을 보여준다.²²⁴⁾ 이동휘(李東輝)는 1902년 강화도 진위대장으로 부임하였다. 유경근(劉景根)은 감리교²²⁵⁾ 잠두교회의 분회를 지어 헌납하였다. 의친왕(義親王)의 땅은 김포군 월곶면 고막리에 있었는데 염하(鹽河)²²⁶⁾ 건너 강화도에 있는 유경근(劉景根)을 의친왕(義親王)이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219) 신복룡: 대동단 실기. 도서출판 선인. 2003. 96쪽~98쪽

220) 이동휘는 강화도 진위대장으로 근무하다가 1904년 무관직을 사임하였다. 강화도 유지들과 더불어 보창학교설립과 도내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회와 교육을 통한 계몽운동에 헌신하였다. 1907년 신민회에 참여했다. 서북지방을 중심으로 100여 개교에 달하는 보창학교 지교 설립은 그의 활발한 교육활동에서 비롯되었다. 1911년 봄 일경에 체포되어 대무의도에 1년간 유배당했다가 풀려난 후 1913년초 북간도로 망명하여 간민회에 관여하다가 뜻을 품고 9월 시베리아로 이동하였다. 거기서 권업회의 단합과 조직 강화에 노력하던 중 1914년 러일개전설에 대비해 의병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대한광복군정부를 조직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과 권업회 해산으로 휘하의 세력을 이끌고 북간도로 이동하여 새로운 기지획총을 기도하고 있었다. 이동휘는 간민회와 권업회에 모두 관여한 인물로 특히 간민회에서는 윤해, 김립, 김하식, 계봉우, 오영선, 장기영 등 그를 따르는 청년화원들이 이동휘와 연계를 맺으면서 주된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제 17권 1910년대 국외 항일운동 Ⅱ-중국, 미주, 일본, 제 1부. 1910년대 중국 관내 항일운동. 제 2장, 국제적인 연대와 신한혁명당 2.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신한혁명당

221)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 5권 대동단사건 1) 경무총감부, 경찰서 조서(국한문) 權泰錫 신문조사(제1회) 崔益煥은 나에게 만주 吉林에 조선독립에 관한 의용병사령부 본부가 있는데, 자기는 그 본부와 京城과의 기맥을 통하는 임무를 띠고 있지만 當地에 있어서는 인쇄물을 작성하고 그것을 널리 국민에게 배포하는 것이 목적이니 너도 일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으므로 나는 찬성의 뜻을 표했던 것이다. 그것은 吉林 본부에서 大同團이란 것을 조직하였으며, 이곳에 지부를 만들어 종래부터 독립에 관한 운동을 해오던 몇 개의 단체들을 이大同團에게 물여서 활동케 하여 오래도록 계속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방침이라고 말하였다.

222) 황죽, 진신단(縉紳團), 유림단, 종교단, 교육단, 청년단, 군인단, 상인단, 노동단, 부인단, 지방구역등 11개지단으로 나누고 각 부 조직책을 종대로 불렀다. 청년단: 나창현(羅昌憲), 노인단: 김상열(金商烈, 70세), 종교계: 정남용(鄭南用), 유림단: 이기연과 이내수, 상인단: 양정, 군인단, 유경근(劉景根), 부인단: 이신애

223) 용천군 객주무역

224) 2007년 2월14일 경인일보 9면 보도

225) 유경근과 강우규를 숨겨준 한기동은 감리교 신자이다.

13) 장현식(張鉉植)²²⁷⁾

장현식(張鉉植)은 1896년 9월 17일 지금의 전라북도 김제 지금의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서도리에서 만석꾼의 아들로 태어났다. 중앙고등보통학교가 설립될 당시 거액을 기부하였으며, 고려대학교가 설립될 당시에도 재단에 사재를 기부하여 교육을 통해 침체된 민족의 기운을 부흥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동아일보사가 창간될 당시에는 인쇄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거금을 기부하였다. 1919년 4월 비밀결사인 대동단(大同團)이 창단되자 운영 자금 3,000원을 이건호(李建浩)에게 제공하고, ‘대동신문(大同新聞)’의 재정을 담당하였다가 체포되어 1921년 4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 후 민족어 보존을 염원하여 ‘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 편찬을 위하여 3,000원을 제공하고 지인에게도 권유하여 1,400원을 제공하게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4년간에 걸쳐 옥고를 치르다 8·15 해방과 함께 출옥하였다. 이 때 일경은 장현식(張鉉植)의 혀에 대못을 박는 고문을 자행하였는데 이 일로 장현식(張鉉植)은 말더듬으로 살아야 했다.²²⁸⁾ 제2대 전라북도 지사로 재임 100일만에 물러났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납치되어 평양재북인사묘역에 묻혀있다.²²⁹⁾

14) 기생문화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는 1906년 3월 조선통감으로 부임할 때 4명의 화류계 여성들도 데려왔다.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는 “취해서 미인의 무릎을 베고 눕고, 깨어서 천하의 권력을 잡는다.”는 한시를 지을 정도로 여자, 술과 정치를 동일시했던 인물이다. 임종국(林鍾國)은 “일제는 한 손에 대포와 한 손에 기생을 거느리고 조선에 건너왔다.”고 말했는데 손병희(孫秉熙)와 의친왕(義親王)은 일제의 기생문화를 독립운동에 역이용하였다. 이러한 정치문화는 1970년대까지 요정정치로 이어졌다.²³⁰⁾

VII. 봉오동 전투(1920년 6월 7일)²³¹⁾

최진동(崔振東, 明錄, 喜)은 서전서숙을 통하여 이상실(李相高)과 교분을 쌓게 되었고, 헤이그(Hague) 밀사로 임명된 이준(李儁)을 연해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안중근(安重根)과 사포대에서 같이 활동한 황병길(黃炳吉)²³²⁾도 최진동(崔振東)과 같이 엔벤(延邊)과 연해주 지역의 항일 무장투쟁을 논의 하였는데 1907년 말부터 1908년 초까지 안중근(安重根)도 투먼(圖門) 회막동에 체류하면서 항일 무장투쟁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최진동(崔振東)은 이동휘(李東輝)의 처남인 오병묵(吳秉默)과 항일 무장투쟁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최진동(崔振東)이 의친왕(義親王)을 만나려 안풍(安東)으로 간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의친왕(義親王)의 망

226) 인천광역시 강화군(강화도)과 경기도 김포시 사이에 있는 남북 방향의 좁은 해협(海峽)이다. 마치 강(江)과 같다 하여 염하(鹽河)라고 부르며 강화해협 또는 김포강화해협이라고 한다. 폭이 좁은 곳은 200~300m, 넓은 곳은 1km 정도이고, 길이는 약 20km이다.

227) 네이버지식백과, 항도문화대전, 장현식

228) 장현식(張鉉植)은 6.25직전 치러진 민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하였는데, 누군가가 ‘말 못하는 장현식’이라고 조롱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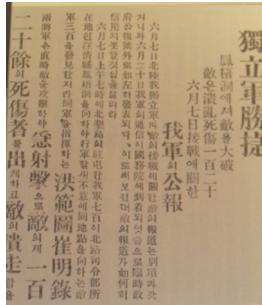
229) 장상록: 백세청풍 일송 장현식 선생을 기리며, 독립정신 통권80(2015년 3·4월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15. 51쪽

230) 이덕일: 이덕일의 역사평설, 근대를 말하다. 위즈덤하우스, 2012. 199쪽~204쪽

231) 김춘선, 안화준, 허영길: 최진동 장군, 흑룡강 조선 민족 출판사, 2006. 127쪽~165쪽

232) 안중근과 함께 단지동맹에 가담하였다.

명사실을 최진동(崔振東)에게 알려준 사람은 정안립(鄭安立)²³³⁾이다. 전협(全協)은 대동단이란 단체를 조직하여 일제를 혐혹시켜 자기가 모든 것을 뒤집어쓰고 배후자인 세력을 보호하였다. 이범윤(李範允)²³⁴⁾, 조성환(曹成煥), 정안립(鄭安立), 이동휘(李東輝), 최진동(崔振東) 등이 뒤에서 움직여서 북간도의 독립군단체를 서로 통합시켜 봉오동 전투를 승리하도록 하였다.²³⁵⁾



1919년 11월 안동(安東)에서 국내로 진공하라는 의친왕(義親王)의 명령을 받은 최진동(崔振東)은 봉오동으로 돌아가 자신의 자위단과 박영(朴泳, 英, 應世)의 장정 60여명을 토대로 1919년 12월 31일 군무도독부²³⁶⁾를 건립하고 무기를 구입하였으며²³⁷⁾, 소작농 가운데 장정을 모집하여 군사훈련을 시켰다. 건립 초기 군무도독부의 총 병력은 200여명이었다. 1920년 봄부터 최진동(崔振東)은 봉오동 근거지에 귀틀집형태의 병영을 만들고 연병장을 건설하였다. 봉오동은 최진동(崔振東)의 땅이며 본거지로서, 군무도독부의 근거지였다. 최진동(崔振東)과 중국 지방 당국자들은 절친한 사이로 중국 지방 당국자들은 봉오동에서 일어나는 일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최진동(崔振東)은 귀화입적한 조선인이었기 때문에 일본영사관에서는 최진동(崔振東)이 항일운동

233) '機密公 제 58호 불령단 관계 잡건 - 조선인의 부(部) - 재민주의 부(部) 12 선인(鮮人) 비밀집회 상황보고의 건'에 의하면 '정안립(鄭安立) 등 제1차 비밀회의 개최, 정안립(鄭安立) 등 한국, 중국, 러시아(華俄鮮)의 연합독립국 건설논의, 정안립(鄭安立)의 중국, 러시아, 한인 대표로 의친왕(義親王) 주대, 정안립(鄭安立)의 3·1운동 공박, 정안립(鄭安立) 등의 중한연합 수뇌회 개최 결의, 정안립(鄭安立) 등의 마적 두목 초청 결의, 정안립(鄭安立) 등의 임시연합군정부 설립 결의, 정안립(鄭安立) 등의 의친왕(義親王) 호송 결의, 정안립(鄭安立) 등의 비밀회의 기록장부를 오가와(小川) 서장에게 대여'

234)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42 42권 중국동북지역민족운동 IV > 중국동북지역민족운동 IV 국외정보(간도파견원보고요지) (449) 大正9년6월2일 高警 제16044호 국외정보(간도파견원보고요지)

235) 국사관론총 제15집) 국민회를 논년함(박창욱) > III. 간도반일민족운동에서의 국민회의 역사작용. 결사대는 총대장 金夏錫, 군단장 韓光復(張基永), 침모 吳永善, 陳瑞이였고, 그 소속 하에 좌우전후 등 4개 대를 편성하여 좌대는 金精이 인솔하여 蛤蟆塘 지구에 와서 李鳳雨, 鄭玄高(國民會) 등과 연락하여 군자금과 군량장만에 힘쓰며 우대는 金剛이 인솔하여 嘎呀河 일대에 와서 崔喜(崔明祿, 최진동), 朴泳(이상 都督府) 등과 모의하여 신병증모에 힘써 병력을 충실히하며, 전대는 李逸이 인솔하여 依蘭溝일대에 와서 黃一甫, 趙文伯(이상 國民會員) 등과 연락하여 和龍縣南 두만강 연안으로 진출할 수 있는 노선을 개척하며. 후대는 金一이 인솔하여 緇芬荀子(羅子溝)에 와서 崔正國, 朴昌俊(羅子溝議事部)과 연락하고 지방의 漢族 반일부대(土匪라고 기록되어 있다)들의 성원을 받도록 활동할 것이며 만약 파리강화 회의에서 교섭이 실패된다면 전대는 백산의병대장 洪範圖 대장의 영술 하에 의기사를 들고 혈전할 계획이었다고 하였다. 이 계획은 물론 뜻대로 실현되지 못하였으나 내용을 검토해 보면 결사대는 국민회와 흥법도의 지휘 하에 대일작전이라는 의도였다. 사실 1919년 9월 이후 흥법도부대가 대일작전을 위해 露領에서 대를 나누어 緇芬河, 羅子溝, 瑾春과 蛤蟆塘 등을 거쳐 長白縣 방향으로 나가 두만강 상류에서 국경을 넘어 국내 습격전을 진행하였다. 당시, 洪範圖部隊는 산포대를 골간으로 하였으나 그 밖에 다수의 결사대들도 부대에 편입시켰다. 예컨대 1919년 11월13일, 흥법도부대(당시 대장은 李永根, 金泰俊, 침모 高平 등이었다)의 韓相烈은 120~170명의 결사대를 인솔하여 국민회의 소재지인 依蘭溝에 도착하여 局子街 방면에서 被服, 馬匹, 粗布 등을 운반하여 갔다고 하였다. 이는 흥법도부대에 결사대가 다수 편입되어 있었다는 것과 국민회와 흥법도부대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국민회의 각급조직이 인적, 물적 등 각 방면에서 洪範圖의 동계국경습격전을 적극 지원하였다는 것을 설명한다. 1920년 1월, 동계습격작전을 일단락 짓고 洪範圖 부대는 국민회와 연합하였는데 그때 흥법도부대는 소모된 병력과 군비를 보충 받아(주로 결사대에서) 3백여 명으로 증대되었다고 한다.

236) 한민족 독립운동사 사료집 5권, 대동단 사건1, 김춘기 신문조사(1회)장래에는 조선도독부를 두게끔 내정하고 있으므로 의친왕(義親王) 전하를 도독으로 할 작정이라고 말하였고, 동행에 관해서도 자기 외에 2~3명의 동지가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나, 누구누구인지 모른다고 하였다. 의친왕(義親王) 전하를 上하이(上海)로 데리고 가는 노정은 얼음이 얼기 전이면 안동현(安東縣)에서 화물선으로 가고, 얼음이 언 후이면 풍티엔(奉天)과 텐진(天津)은 기선으로 간다고 하였다.

최진동은 의친왕이 오면 조선도독부를 두려고 하였는데 의친왕이 오지 못하여 군무도독부를 설치한 것 같다. 의친왕은 망명이 성공하면 上하이(上海) 임시정부 외에도 풍티엔(奉天)과 텐진(天津)으로 갈 계획을 한 것 같다. 그 후에도 이대정의 의친왕 망명미수사건이 일어 났는데 정안립과 이동휘가 움직였다.

237)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42 42권 중국동북지역민족운동 IV > 중국동북지역민족운동 IV 不逞團ノ銃器運搬ニ關スル件 (570) 機密公信第68號 不逞團ノ銃器運搬ニ關スル件 去6月19日付機密公信第62號ヲ以テ報告ノ通リ汪清縣軍務都督府幹部崔振東ハ露領ヨリ到着セル兵器受領ノ爲メ珲春縣太平溝ニ來リ小銃50挺彈藥1200發機關銃一挺ヲ受取り部下29名ト共ニ珲春縣頭道溝ニ宿泊昨27日同地發荒溝ヲ經テ汪清縣長洞(鳳梧洞附近)ニ向ヒタリト聞込有之候ニ付此段及報告候 敬具 大正9年6月28日 在珲春 副領事 秋洲郁三郎 [印] 外務大臣 子爵 内田康哉 殿

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 봉오동, 왕청(汪清), 석현, 대감자, 밀강, 석건, 걸만동 등지에는 조선인 지주들이 많았는데 김활석과 이태성(李泰星) 등은 최진동(崔振東)이 군무도독부를 건립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자위대를 도독부군으로 편입시키는데 합의하였다. 군무도독부는 사립 봉오동 학교에 군사 훈련반을 설치하고 독립군 전사들을 번갈아 입교시켜 철저한 군사교육을 받게 하였다. 군사지식이 있는 중대장을 교관으로 임명하여 군사훈련을 시켰으며, 러시아 군인과 중국군 장교를 초빙하여 군사훈련을 돋게 하였다.

1920년 4월 7일 최재형(崔才亨, 在亨)이 4월 참변으로 순국하자, 장남인 최기욱은 봉오동으로 와서 최진동(崔振東)과 같이 무력 항일투쟁을 하였다.²³⁸⁾

1920년 6월 당시 일제자료에 의하면 군무도독부의 병력은 약 600명이고, 군총 약 400정, 권총 약 50정, 수류탄 약 120개, 기관총 2문을 보유하고 있었다. 최진동(崔振東)은 군무도독부를 건립한 후 재산을 털어 총기와 탄약등 군수품을 사들여서 독립군을 최신식 무기로 무장하게 하였다. 그리고 국내진공작전을 계속하면서 군사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였다.



1919년 겨울 최진동(崔振東)의 군무도독부 독립군은 홍범도(洪範圖)의 대한 독립군과 양하청(梁河淸)의 독립군 부대와 연합하여 두만강 건너 회령, 종성, 온성등지의 일본군 수비대를 공격하였다. 1920년 회령전투에서 군무도독부등 독립군 연

합부대는 일본군 군영을 기습 점령하고 일본군을 300여명을 사살하였다. 1920년 3월에는 종성 일본 현병대를 습격하여 많은 무기와 탄약을 노획하였으며, 이어서 온성읍을 함락시켰으며, 온성군의 미산 현병 주재소를 공격하여 일본군을 섬멸하였다. 1920년 4월 18일에는 향당동 일본 경찰서를 습격하였다.

엔벤(延邊)지역 독립군부대는 이용(李鏞)의 경호대, 안무(安武)의 대한국민회군, 서일(徐一), 김좌진(金佐鎮)의 대한군정서, 홍범도(洪範圖)의 대한독립군, 김규면(金圭冕)의 대한신민단, 방우룡(方雨龍)의 대한의민단, 이범윤(李範允)의 대한광복단과 의군부, 최진동(崔振東)의 군무도독부, 황병길(黃炳吉)의 훈춘(琿春)한민회 등이 있었다.²³⁹⁾

1920년 5월 하순 최진동(崔振東)의 군무도독부와 구춘선(具春先)의 대한국민회, 그리고 홍범도(洪範圖)²⁴⁰⁾의 대한독립군이 연합하여 대한 북로독군부를 결성하였다. 대한국민회의측 행정사무를 관장하고, 군무도독부와 대한 독립군측이 군사업무를 담당하였다. 1920년 8월 일본의 “불령선인 근거지 및 각 조직에 관한 건”에는 “최진동(崔振東) 군무도독부 약 670명, 홍범도(洪範圖)와 안무(安武) 부하 약 550명 도합 1,200명으로서 보총 900자루, 권총 200자루, 기관총 2정, 폭탄 약 100개, 망원경 7개, 군총 한 정당 150발”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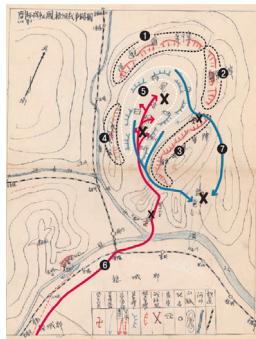
238) 김덕형: 한국의 명가 근대편 1, 21세기북스, 2013, 257쪽

239) 우사연구회: 우사 김규식 통일. 독립의 길을 가다. 2, 논형. 2007, 115쪽-119쪽

240) 김삼웅: 빨치산 대장 홍범도 평전. 현암사, 2013, 228쪽

고 기록되어 있다.²⁴¹⁾

독립군의 국내진공작전에 위협을 받은 일제는 1920년 6월 봉오동에 침입하다가 독립군에게 섬멸당하였다.²⁴²⁾



1920년 10월 청산리 전투가 시작되었다. 최진동(崔振東)은 대한총군부의 총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독립군을 인솔하고 동부 전선에서 일본군과 싸웠다. 최진동(崔振東)이 지휘한 동부 전선에서 전개된 전투들 중 하마탕 서북쪽에서의 전투를 제외하고 모두 대한총군부 독립군들이 주동하여 일본군을 습격한 전투였다. 최진동(崔振東)이 인솔한 대한총군부 독립군들은 동부 전선에서 비록 분산하여 전투를 전개했지만 이런 전투들은 일제의 토벌 계획을 교란하고 홍범도(洪範圖)와 김좌진(金佐鎮)이 지휘한 서부전선의 독립군 부대를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김규식(金奎植)은 서간도 독립군들이 소규모 투쟁을 전개하는 동안 북간도 독립군은 보다 대규모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²⁴³⁾ 이들 부대가 통합되기 전에 일본군과 교전을 벌이는 바람에 독립군들은 시베리아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244,245)}

봉오동 전투는 의친왕(義親王)의 명령에 의해서 최진동(崔振東)이 승리한 전투로 대한제국의 마지막 전투였다.^{246,247)}

241) 2015년 9월 23일 동아일보21면 독립군 주력 소총은 영화 '암살'서 안옥윤이 쓴 '모신나강'(러시아제 소총 M1891): 1920년 7월 간도지역 독립군 무장현황[자료: 조선총독부 보고 '불령선인의 근거지 이동에 관한 건']

대한군정서(서일) 1000명 군총(소총, 장총) 1800정, 탄약 총 1정마다 800발, 권총 150정, 기관총 7정, 수류탄 다수, 대포 2문(도입예정)

대한국민회(구춘선) 500명 군총 400정, 권총150정, 수류탄 약간

대한북로독군부(최명록) 300명 군총 800정, 권총 50정, 기관총 2문, 수류탄 약간

대한북로사령부(홍범도) 300명 군총 200정, 권총 40정, 탄약 총 1정마다 200발 가량

대한광복단(이기운) 200명 군총 150정, 권총30정

대한신민단(김준근) 200명 군총160정, 권총과 수류탄 약간

대한의민단(방위룡) 300명 군총 400정, 권총 50정, 탄약과 수류탄 약간

242) 우사연구회: 우사 김규식 통일, 독립의 길을 가다. 4. 통일뉴스, 2009. 287쪽~291쪽

243) 신현한국사, 홍범도는 1919년 9월에 李範允, 黃炳吉 등의 독립군 지도자들과 연락을 취하며 백두산 부근에 근거지를 두고 다방면에서 대규모 국내진입작전을 전개할 계획을 세워 놓고, 이를 상해 임시정부에 보고하였다. 당시 임시정부를 주도하던 안창호는 이에 대해 시기상조를 이유로 1919년 11월까지 계획을 연기하라는 회신을 보냈다. 그러나 홍범도는 임정의 이러한 권고를 따르지 않고 다음 달인 10월에는 압록강을 건너가 강계와 만포진을 점령하였으며 자성에서는 일본군과 격전 끝에 '70여 명을 살상하는' 큰 전과를 올렸다. 이는 곧 3·1운동 이후 독립군이 수행한 국내진입작전에서 거둔 최초의 큰 승첩이었다.

244) 우사연구회: 우사 김규식 통일, 독립의 길을 가다. 3. 통일뉴스, 2009. 151

245) 재외동포사총서 13 중국 한인의 역사 (상) 제2장 일제의 대륙 침략과 국공내전 시기의 한인 사회(1919~1949) 중국한인사회와한인민족 운동) 3·1운동과 민족 운동의 고조 하지만 당시까지는 행정 기관 성격의 민족 운동 단체가 군사 기관을 통제할 수 없었다. 동만주 지역의 무장 역량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던 대한북로독군부와 대한군정서에 대한 대한민단의 지도와 통제력이 제대로 관찰될 수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대한북로독군부 산하의 여러 단체는 하나의 지휘 체계로 통합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왕정 현 쪽으로 이동한 최진동의 군무 도독부군을 제외하면 홍범도를 중심으로 여러 독립군이 결합되어 있어, 우리는 흔히 홍범도연합부대라고 한다. 대한북로독군부와 경쟁 관계에 있던 김좌진의 대한군정서는 군사 기관의 지휘권 문제에서 거리를 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병력과 군수품을 원비한 후에야 독립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사실상 따로 움직였다. 결국 통일된 행정 기관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대한북로독군부와 대한군정서가 각자 행동했던 현실은 1920년 10월의 청산리대첩(青山里大捷)에서 그대로 재현되었다.

246) 최진동 아들 최인국 증언(2009년5월)

247) 봉오동 전투에 참가한 독립군 박승길 선생(신민단 사령)이 당시 상황을 그린 전투도가 2015년 8월 10일 공개됐다.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 7일 중국 지린(吉林) 성 왕정(汪清) 현 봉오동(鳳梧洞)에서 독립군 연합 부대가 일본군을 크게 무찌른 전투다. 일본군 부대(⑤)를 포위하고 있는 독립군 부대(①홍범도 부대 ②독군부 부대 ③신민단 부대 ④의군부 부대)의 위치와 일본군 침투로(⑥) 및 도주로(⑦)가 표시돼 있다. X표는 격전지. 김병기 씨 제공

VIII. 결론

1. 함석태(咸錫泰)의 부친 함영택(咸永澤)은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함영택(咸永澤)과 강우규(姜宇奎)는 고향친구였다. 함석태(咸錫泰)는 강우규(姜宇奎)의 손녀 강영재(姜英才)의 학비를 뒷바라지하였으며, 대한제국대황제보령육순어극사십년칭경기념비각(大韓帝國大皇帝寶齡六旬御極四十年稱慶紀念碑閣)의 철제문을 함석태(咸錫泰)가 보관하였다가 고종황제(高宗皇帝)께 바쳤다.
2. 함석태(咸錫泰)는 순종황제(純宗皇帝)와 윤황후(尹皇后)등을 치료하였다. 함석태(咸錫泰)의 존황의식은 황실독립운동과 관계가 있다.
3. 강우규(姜宇奎) 의거와 대동단 사건은 부분적으로 관련자가 일치하며, 황실과 관련된 조직에서 일으킨 사건이다.
4. 강우규(姜宇奎)에게 수류탄을 제공한 사람은 봉오동의 최진동(崔振東) 장군이다.
5. 강우규(姜宇奎) 의거와 대동단 사건, 봉오동전투는 무오독립선언, 3.1만세운동과 계속적으로 연결된 황실독립운동이다.

IX. 참고 문헌

1. 대동단 사건에 대한 경성지방법원 예심결정서, 동아일보 1920.6.29.~7.3.
2. 안천: 황실은 살아있다. 하, 인간사랑, 1994.
3. 안천: 신흥무관학교, 교육과학사, 1996.
4. 이해경: 나의 아버지 의친왕, 도서출판 진, 1997.
5. 정정화: 장강일기, 학민사, 1998.
6. 안천: 일월오악도 2, 대한황실 독립전쟁사 연구, 교육과학사, 1999.
7. 안천: 여성 대통령은 언제 나올까, B. B. Books, 2002.
8. 신복룡: 대동단 실기, 도서출판 선인, 2003.
9. 안천: 일월오악도 4, 대한황실 황족사 연구, 교육과학사, 2003.
10. 신재의: 한국근대치의학사, 도서출판 참윤퍼블리싱, 2004.
11. 안천: 일월오악도 5, 대한황실 명예회복사 연구, 교육과학사, 2005.
12. 김춘선, 안화춘, 허영길: 최진동 장군, 흑룡강 조선 민족 출판사, 2006.
13. 이문창: 해방공간의 아나키스트, 이학사, 2008.
14. 김위현: 동농 김가진 전, 학민사, 2009.
15. 박걸순: 북간도 간민회 해산과 추이, 중앙사론 30집, 중앙대학교 사학연구소, 2009.
16. 박종윤: 의친왕 이강(장편소설), 2009.
17. 정순택: 선각자 정안립, 예술의 숲, 2010.

18. 이해준: *황실학논총* 제 12호, 이기권 밀사의 황실 독립 운동, 한국황실학회, 2010.
19. 김광식: *백초월의 항일운동과 一心教*, 2011.
20.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 2010 문화, 예술, 체육계를 빛낸 치과의사들*, 2011.
21. 박희승: *조계종의 산파 지암 이종육*, (주)조계종 출판사, 2011.
22. 손종흡: *한강에 배 띠워라, 굽이굽이 사연일세*, 도서출판 인이레(주), 2011.
23. 손 윤: *긴급명령, 국부 손병희를 살려내라*, 에디터, 2012.
24. 이덕일: *이덕일의 역사평설, 근대를 말하다*. 위즈덤하우스, 2012.
25. 이해준: *황실학논총* 제 13호, 의친왕 망명 미수사건과 봉오동 전투의 고찰, 한국황실 학회, 2012.
26. 김삼웅: *빨치산 대장 홍범도 평전*, 현암사, 2013.
27. 김광식: *백초월(독립운동가 초월스님의 불꽃같은 삶)*, 민족사, 2014.
28. 안 천: *임금님 대관식*, 교육과학사, 2014.
29. 이정규: *우관문존*, 국민문화연구소 출판부, 2014.

〈교신저자〉

- 이 해 준
- 강남 구봉은사로 474 쌍용플래티넘B/D 207
- Tel. 02-558-2440, Email: llhj@paran.com

치과의사학 학생발표수업의 실제와 개선방향

The actual direction and improving teaching Student Lecture
and Presentation in Dental History Class

이 주연
Lee, Jue-Yeon

1. 서론
2. 본론
3. 고찰 및 결론

치과의사학 학생발표수업의 실제와 개선방향

세브란스치과의원,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사편찬위원회 이 주연

The actual direction and improving teaching Student Lecture and Presentation in Dental History Class

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the students participating lecture in Dental History and Class field, is to seek more effective teaching methods.

The subject of this case study is the third year student lecture in *** School of Dentistry and Student Presentation of 'think view' freshman class in Yegwa **Dental College in 2014 and 2015. The results obtained on the basis of Student Course Evaluation are as follows.

Both wanted to "increase the unit portion of modern and comtemporary periods in the syntactic form" for other syntactic class configuration to the lesson plan of dental history.

They think it is important that the field was the development of the net dentistry and dental health care system in Korea comtemporary, modern world of dental health system, moder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Japan and Europe.

Freshman and third year students are similar to historical comprehension. It is appopriate that fresh man in Yegwa are assessed learning oriented introduction, third years student way of solving the problem of the real world.

Student centered classroom lectures and presentations is Yeawa rate of 83% and the third year rate of 91%(2015) if they have the appropriate feedback from the faculty. Student participate in class is considered to be steadily developed areas referred.

I. 서론

치과의사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는 치과의사학 수업일 것이다.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데 중요한 네 가지 요소를 뽑으라면 수업주체인 교수와 학생, 수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을 들 수 있겠다. 우리나라 11개 치과대학(원)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치과의사학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교수협의회’에서는 치과의사학 교육목표에 맞게 2015년 ‘치과의사학 교안’을 개발하였다. 치과의사학의 교육목표는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치의학과 치과의사의 연원과 발전과정을 사회역사적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치과의사로서의 정체성과 전문직업성을 확립한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 치과의료 현실의 문제들을 역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결할 능력을 배양한다. 셋째 일방적인 지식 전달을 지양하고 교수와 학생들이 능동적이며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교육목표 중 앞의 두 가지는 역사적 지식과 사고력 및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 치과의사학 역량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마지막은 수업방식에 관한 것으로 학생 참여와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들은 역사교육이 지니는 인지구조와 현실 참여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 한 세기동안 역사학, 교육학계와 더불어 국가가 역사교육에 끼친 영향을 간략히 살펴보자. 19세기 말 랑케를 비롯한 근대 실증주의 사학자들은 역사를 독립적인 학문으로 정립하였다. 이 시기 서구의 제국들은 애국적인 역사교육 강화정책을 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국가 형성과 발전에 기여한 영웅들의 유적지와 박물관, 산업단지를 탐방하며 애국심을 고취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카(E. H. Carr)와 같은 진보사관을 지닌 역사학자들은 과학적 이성과 권력에 대한 회의와 비판적 성찰로 돌아섰다. 1930년대 교육학자들은 학생들의 관심과 인지발달수준에 맞춰 역사수업을 구성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역사교육은 학생들이 현실의 문제들을 역사적으로 인식하고 성찰하도록 고안되었다. 현대에 들어 각 국가나 기관들은 역사교육을 통해 애국심이나 세계시민의식을 고취하고자 하고, 치과의사학도 전문직업성을 체득시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높이려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역사교육자들은 역사를 역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는 학문으로 인식한다. 역사적 사고에는 연대기적 사고, 역사이해, 역사해석과 분석, 역사탐구력, 역사적 쟁점분석과 판단력 등이 있다.¹⁾

따라서 ‘치과의사학 역량(Dental History Competence)’은 ‘전문가주의에 입각한 치과의사가 치과의료 현실의 문제들을 역사적 사고를 통해 해결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2015년에 개발한 ‘치과의사학 교안’은 시대순서에 따라 교과내용을 기술한 통사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소단원별로 학습목표와 강의내용, 생각해보기, 참고문헌을 계재하였다. 그리고 각 학교 상황에 맞게 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치과의사학 수업현장에서 활용된 학생참여 사례를 소개하고, 학생강의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수업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본 사례 연구의 대상은 2014년과 2015년 ***치의학대학원 본과3학년과 ** 치과대학 예과1학년들의 학생참여수업이다. 학생참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 National Center for History in the School, National Standards for United States History, UCLA, 1996, www.nchhs.ucla.edu

***치의학대학원 본과3학년에서는 매 수업시간마다 조별대표 2~3명이 각기 다른 소단원의 교과내용을 파워포인트 강의록으로 제작해 각각 10~15분정도씩 발표하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즉 학생들이 강의(Student Lecture)의 80%를 진행한 것이다. 학생들은 소단원 교과 강의록을 파워포인트로 제작해 인터넷 교신 등을 통해 담당교수에게 사전 점검을 받았다. 수업시간에는 학생 강의 후 다른 학생들과의 질의응답과 교수의 보충설명을 듣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학생들은 매시간 핵심적인 수업 내용과 소감, 궁금한 점 등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 치과대학 예과1학년 학생들은 수업 첫 시간에 ‘치과의사학 교안’에 담긴 ‘생각해보기’ 과제를 2문제씩 분담 받았다. 수업 전반부 6시간 동안에는 담당교수가 고대에서 중세, 근대, 현대 순으로 치과의사학의 개괄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을 강의했다. 그 후 4시간 동안 복습형식으로 학생들이 생각해보기 과제를 발표하였다. 학생들은 한 문제당 파워포인트 1~2매로 요약해 담당교수의 사전 점검을 거친 후 2~3분 이내로 발표하였다. 발표한 내용은 기말고사 주관식 문제 준비 자료로 활용하도록 해 학생들의 책임감과 집중력, 협동력을 높였다.

본고에서는 두 가지 학생발표 수업이 치과의사학 역량 개발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치과의사학 교안에 바탕을 둔 통사적 내용구성이 학생들의 치과의사학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학생들의 ‘강의평가’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둘째, 본과3학년과 예과1학년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내용과 구성방식을 수업이해도와 과제해결능력 등을 고려해 분석해보자 한다. 치과의사학 교과내용과 과제가 예과1학년과 본과3학년처럼 학령별로 차별화될 수 있는지, 또 쿼터 형식으로 분산된다면 학령별로 어떻게 배치되어야 할지 살펴볼 것이다.

셋째, 예과1학년 학생들이 발표한 생각해보기 과제는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파악해볼 것이다.

넷째, 본과 3학년 학생들의 학생주도강의수업과 예과1학년의 생각해보기 발표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볼 것이다. 학생발표수업이 교수가 직접 강의한 것과 비교해 학생들의 치과의사학에 대한 관심과 역사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어 고찰에서는 치과의사학 수업이 학생들의 강의발표로 이어질 때, 교수가 해야 할 역할과 필수적인 교수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되짚어보고자 한다. 교수내용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란 교과내용을 심층적으로 파악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잘 알아듣게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을 의미한다.²⁾ 이어 학생발표수업이 치과의사학 역량강화를 위해 향후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양호환, 역사교육의 입론과 구상, 책과함께, 2012, 29

II. 본론

1. 치과의사학 교육 관련 개념 및 이론

1) 역사 교과내용 구성방식과 수업진행

역사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에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교과내용과 더불어 ‘어떤 순서로 가르칠까?’라는 내용조직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 역사 교과내용 구성방식은 크게 연대순에 따른 것과 주제 중심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³⁾

첫째, 연대순이나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순으로 역사적 사실을 구성하는 ‘통사적 방법’은 가장 전통적이며 역사 교수의 골격을 이루는 방법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이해하기 쉽고 현대사회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탐구하는 역사의 본질에도 적합하다. 한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상호 관련성이나, 각 지역의 차이를 비교해서 이해하기 쉽다. 즉 역사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전체적인 통찰력을 갖출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학생들의 관심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2015 치과의사학 교안은 통사적으로 구성되었다. 전체에 대한 통찰력을 획득하기 위해 횡적으로 우리나라와 세계의 치의학과 치과의료체계를 종적 으론 시대 순서에 따른 변화과정을 다루었다. 통사적 교안에 따라 치과의사학 수업이 진행되면 학생들은 치의학과 치과의료제도의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계통적인 학습을 하게 된다. 2015년 교안 생각해보기 중 치과의사의 기원과 사회적 위상 변화, 구강병 치료의 패러다임 변화, 치의학문의 독립과 기초 및 임상, 인문사회 치의학의 분화 과정 등은 이러한 연대기적 사고력에 기반을 둔 문항들이다. 세계치의학의 시대구분과 동서양 비교분석 등을 통해 역사적 사실들의 인과관계와 상호관련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하지만 치과의사학 과목에 배당된 수업 시간이 적거나, 예과에서 본과로 이어지는 쿼터제 수업으로 진행될 경우 ‘넓이’ 보다는 ‘깊이’ 있게 특정 시기나 주제를 잡아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둘째 ‘시대중심학습법’은 연대순에 따른 모든 시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거나 의도한 목적에 달성하기에 적합한 시대만을 학습하는 방법이다. 먼저 현대 우리나라 치의학과 치과의료제도의 특성을 파악하거나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위해 어떤 시대의 어떤 측면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선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시대를 종체적으로 또는 역사적 준거기준(historical referential framework)에 따라 분석한다. 특정 시대의 정치, 사회, 경제, 의료등의 사회시스템이나, 인구, 전쟁, 통상, 철학과 가치 등의 복합개념을 활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8세기 프랑스 절대왕정의 영토 확장과 매뉴팩처 산업화와 계몽주의는 피에르 포샤르가 외과학으로부터 치의학을 독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 우리나라에 최초로 치과의사법이나 교육, 시험, 면허제 등이 이식된 일제강점기는 현대 한국 치과의료체계 형성과정의 특징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시기이다. 하지만 특정 시대만을 중심으로 한 학습방법은 그 분절성으로 인해 각 시대의 상호 관련성이나 역사적 사실의 인과관계를 정밀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치과 역사의 흐름에 대해 어느 정도 개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효과적인 학습이 될 가능성이 높다.

3) 김한종, 역사수업의 원리, 서울, 책과 함께, 2007, 129–153

셋째, 시대가 아닌 주제나 토픽, 쟁점중심의 학습방법이다. 학생들이 관심을 갖거나 현재의 삶에서 역사적으로 의미를 갖는 문제들을 선정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주제(theme)는 역사학의 계통적 방법에서 내용을 구분하여 묶어 놓은 항목이다. 2015년 치과의사학 교안에서 주제는 시대별로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따라서 주제별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제나 관련 사건별로 교수방안을 재구성해야 한다. 주제별로 여러 시대에 걸쳐 지속 반복되는 내용, 사건 전개양상이나 행동적 특징을 파악해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치과의료의 영리화와 전문가주의, 의학과 치의학의 통합과 문화, 전근대의학과 대안의학 등의 내용이 그러하다.

이에 비해 토픽(topic)은 시대적으로 관심이 되는 문제, 이야기거리를 의미한다. 토픽의 학습에는 주로 일정기간 지속된 정책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분석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활용된다. 토픽에 대한 대응은 시대 상황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인체해부의 허용, 특허권, 전문치과의사제도, 1인1개소 의료법안 위헌심사등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역사 속에서 법제도에 대한 해석이나 정책에 대한 평가가 사회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며 임시적인 속성과 관계가 깊다.

이에 반해 쟁점(issue)은 사회의 공통관심사이면서 의견의 차이로 논란이 되었던 문제들이다. 쟁점을 기초로 한 내용구성은 문제해결을 모색하여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밟거나 상호토론을 위한 것이다. 치과의사학에서는 의료영리화 찬반론, 패인리스 파커와 영리적 네트워크 치과의 문제, 의료불평등과 비용효율성의 문제, 의치간 영역분쟁 등의 내용이 주된 쟁점이 된다. 역사적 사실과 현실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차원의 불화는 권력이나 기술 발달, 시장 등에 의해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기도 한다. 하지만 쟁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민주적 합의 절차와 형평에 근거한 사법적 속성을 지닌다.

2015년 치과의사학 교안은 통사적 학습체계를 지닌 개론서이다. 일반적으로 교수요목의 구성방식은 크게 계통학습과 문제해결학습으로 나눌 수 있다. 계통학습은 학문의 체계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는 것이며, 문제해결학습은 사회나 그 구성원의 삶이나 생각과 관련된 주제, 토픽, 쟁점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방식이다. 2015년 치과의사학 교안은 계통학습은 연대기적 사고에 의해 7강으로 구성하였고, 역사 이해의 중심이 되는 주제에 따라 소단원별로 학습목표와 강의내용, 참고문헌으로 제재하였다. 한편 문제해결 학습은 역사적 개념이나 주제의 해석, 토픽이나 쟁점분석은 생각해보기 항목으로 넣어 구성하였다.

치과의사학 역량을 키우는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왜 치과의사학을 공부하는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역사적 사실이 지니는 의미를 시대상황과 관련시켜 맥락적으로 파악하여, 현대사회에서 부딪치는 역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수업진행에 있어 먼저 지식의 성격을 명제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구별하여야 한다. 수업내용이 치과의사학에 대한 명제적 지식이라면 학생들의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절차적 지식이라면 지식과 관련된 학생들의 토론이나 탐구활동을 강조해야 한다.

수업전달지식과 역사적 사고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자. 치과의사학 내용 중 명제적 지식에 해당하는 것이

연대기적 사고와 역사이해이며, 절차적 지식에 해당하는 것은 그 역사해석과 탐구, 쟁점분석과 판단력이라 할 것이다. 역사적 상상력을 통해 역사적 인물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사건을 추체험하는 것은 교수와 학생 모두의 몫이다. 치과의사학 담당교수는 교과내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학생들의 흥미와 능력에 맞게 다양하게 학생참여수업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학생 주제발표식 수업진행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송창훈의 연구가 있다.⁴⁾ 의학과 2학년 학생들에게 매 수업시간 100분간 6~8명에게 주제발표식 강의를 하도록 하였다. 학생평가 결과는 긍정적이며 계속 보완 발전 시켜야 할 강의방식으로 평가된 바 있다.

2) 국가주의 역사 교육과 세계주의 역사교육⁵⁾

현재 세계의 역사 교육은 크게 두 가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국가주의에 입각한 역사교육이다. 국가주의 역사교육은 국가나 민족의 발전 과정을 연대기적 서사로 학습시켜 애국심을 고취하고 합리적인 시민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을 교육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세계 각국에서 자국의 역사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전통적인 교육방식이다. 애국적인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1900년대 초부터 구미 각국에서는 ‘국가 역사 표준(National Standards for History)’을 개발해왔다. 하지만 현재 세계 여러 국가들의 상호의존도와 인구이동의 급격한 증가로 세계주의적 시대에 어울리는 역사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국가와 지구촌 사이에 역사교육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역사적 준거기준(historical referential framework)도 마련해야 했다. 그 동안 ‘국가역사표준’을 개발해 온 역사교육자들은 ‘세계역사 표준’ 개발에도 참여해왔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사회경제적 선진국들의 애국적인 역사를 세계사의 표준으로 삼는 것을 경계해왔다. 선진국 기업들의 세계진출과 이주민들과의 융화를 위한 문명교류 차원의 세계사 교육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문명이나 국가 간의 역사적 차별성에 집중하는 대신 ‘전 세계의 장기적이고 단기적인 변화에 대한 탐구’로서의 세계사를 주장했다. 이것이 두 번째 조류인 세계주의 역사교육이다. 이들은 세계사를 ‘세계주의에 입각한 인류사’로 본다. 인류가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교류하면서 발전을 공유해 온 통사로 접근한다. 그 예로 미국의 ‘세계사 대학과정 선이수제AP(Advanced Placement)’교과를 들 수 있다. 여기서는 “단일한 연대표를 사용하여 주요 사회 간의 비교뿐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변화의 원인과 성격, 결과를 강조”하고 있다. 인류에 속하는 각 개인과 집단, 국가는 평등한 방식으로 현재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과 전 지구적 변화에 공동 대처할 수 있는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국가주의나 세계주의가 추구하는 이상과 이해관계는 다르지만 역사 교육을 대하는 태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특정한 규범이나 이데올로기적 역사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역사교육을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역사적 실제나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역사교육보다는 역사학을 특정한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수사학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 따라서 현재에는 수많은 연구와 타협을 통해 각 개인과 집단 및 국가가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다원적인 역사교육이 인정되는 추세이다. 동시에 ‘세계사 국가 표준(National Standards for World History)’과 같은 거시

4) 송창훈, 현대의학이 직면한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학술정보(주), 2008, 73~75

5) 린다 심콕스, 애리 월셔트, 이길상, 최정희 옮김, 세계의 역사 교육논쟁, 서울, 푸른역사, 60~97

적인 준거기준도 개발되고 있다.

치과의사학 교육도 전문직업성 획득을 목표로 한다.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치과의사들은 그들이 속해 있는 국가와 세계의 각 개인과 사회, 전문직에 대한 봉사와 윤리적인 책무를 지닌다. 전문직 내부의 폐쇄적인 문화와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비판도 있지만 전문지식과 기술의 남용을 막기 위해 자율적인 규제를 사회적 승인을 얻고자 한다.

2015년 치과의사학 교안은 이한수의 ‘세계 치과의학사의 시대구분’을 차용했다. “단일한 연대표를 사용하여 동서 치과의학 발달에 영향을 준 의설과 문화적 배경의 비교 뿐 아니라 치의학 발달 단계변화의 원인과 성격, 결과를 강조” 하고 있다.⁶⁾

우리나라의 치의학도 동양과 서양치의학과 단일한 연대표를 사용하여 시대별 소항목으로 편찬하였고, 동서 치의학 교류와 전래 및 21세기 한국과 세계의 치과의료체계의 변화도 다루고 있다.

2. 결과 분석

첫째. 치과의학사 교안에 다른 통사적 수업구성에 대해 예과 1학년은 34%가 ‘만족’을, 본과3학년은 70% 이상이 ‘통사형식에서 비중 보완’을 원했다. 예과1학년과 본과3학년 모두 통사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된 것은 치과대학(원)에 입학해서 처음으로 치과의사학 수업을 접했기 때문이다. 치과의학사 과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과3학년과 예과1학년 모두 90%이상이 ‘필요하거나 유익하다’고 답하였다. 그 이유로 치의학문과 치과의사, 치과의료제도의 연원 및 장기적인 발전과정을 알아, 인류의 구강건강향상에 기여하는 전문가정신을 갖게 되었다는 내용이 가장 많았다. 통사적 수업구성이 치과의사학 교육목표 달성에도 일정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학령별로 비교하면 예과1학년에서는 치의학 입문으로 적절하여 예비치과의사가 되었다는 자부심과 소속감, 역사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내용이 많았다. 본과3학년에서는 사회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직업성 체득과 진로 및 방향설정에 유익했다는 평이 많았다.

한편 한국사와 동서양의 치의학사를 시대별로 나눠서 배치하고 그 교류에 대해 강의한 것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적었다. 고대와 전근대시기의 동양과 서양치의학의 공통점과 대안의학 등에서는 예과1학년들이 더 학구적인 자세를 취했다. 소수지만 서양사 위주로 정리된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고대나 중세, 중국이나 이슬람 치의학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이에 비해 중국과 일본, 한국의 전근대 치의학을 별도의 소단원으로 수업한 본과3학년 학생들은 그 비중을 절반 이하로 압축해서 정리하기 원했다.

통사적 구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는 예과 1학년과 본과 3학년 모두 내용과 분량이 매우 방대하며, 연대기 순서로 고대, 중세의 동서양을 공부하는 것에 별 의미를 느끼지 못했거나, 지루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역사학에 학구적인 관심을 갖는 일부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연대만으로 세계 여러 지역의 시대 상황과 문제를 실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통사적 구성이라도 시대적 특징보다는 역사적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과정 중심으로 수업내용을 편성해야 치과의사학적으로 중요한 사건과 인물, 의설들에 대한 기억이 오래 남을

6) 이한수. 치과의학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8. 1~37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과3학년은 2014년에 84%, 2015년에 85%, 예과 1학년은 47%가 모두 한국 현대의 치과의료체계의 비중이 늘어나길 원했다. 다음 순서로 세계 주요국들의 현대 치과의료제도와 근대 치의학의 전문화과정의 비중을 늘려 현대 한국과의 인과 및 상호 관계를 파악할 수 있기를 원했다. ‘수업내용 중 중요도’를 묻는 문항에서도 본과 3학년과 예과1학년 모두 한국 현대, 현대 세계치과의료제도, 한국근대, 치의학의 역사개론, 미국과 유럽의 근대, 치과대학사 순서대로 중요하다고 답했다. 따라서 학령에 따라 통사적 수업 구성에 대한 역사적 이해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을 느끼는 깊이와 정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세부적인 차이로는 예과 1학년 학생들의 경우 치의학 개론이나 입문 수준에서 치의학과 구강보건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비해 치의학 교과이론학습을 거의 마치고 사회에 나가야 할 본과3학년들은 한국 현대 치과계 이슈가 되는 문제들의 구체적인 해결과 세계 각국의 구강보건제도의 현황에 대한 비교 이해 부분을 더 자세히 다루길 원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과 세계의 현황정보를 통해 미래의 치과의사들이 가져야 할 마인드맵으로서의 전문 직업성 교육 및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기를 원했다. 사회적으로는 일본과 미국, 유럽처럼 한국 치과의료제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나라의 발전상황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의료법과 보험과 의료제도, 의료영리화 등의 의료정책과 제도 등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한국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싶다. 이는 본과 3학년들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더욱 절박하게 느끼고 있으며, 향후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과 더불어 가치판단 기준들을 배우고 싶어 했다. 따라서 학생들이 예과나 본과 1,2학년 때 통사적 수업을 통해 치과의학사에 대한 통사적인 개괄적인 이해를 갖출 수 있다면 본과 3,4 학년 때는 현대 치과의료계의 현실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시대중심학습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생각해보기 과제가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 향상에 끼친 영향은 학생들의 파워포인트 결과물, 강의 평가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2015년 치과의사학 교안 총 175문항은 고대와 동양이 51문항, 중세 32문항, 서양근대가 54문항, 한국 근현대와 제도가 38문항이었다. 그 중 예과1학년 수업시간에 중점적으로 다룬 단원을 중심으로 94개의 문항을 추렸다. 역사적 사고의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대 기적 이해에서 각 시대 지역별 배경 지식과 이해가 30문항, 주제나 항목별 발전과정이 9문항으로 약 42%의 비중을 나타냈다. 역사적 해석은 13문항, 비교분석이 10문항, 역사적 쟁점분석이 13문항, 역사탐구력 10문항, 역사적 인물이나 상상력이 필요한 문항은 9문항이었다. 예과1학년 학생들은 자신이 할당받은 문항에 대한 답안을 파워포인트 1~2매에 요약 정리해 3분 정도의 시간동안 비교적 잘 전달했다. 하지만 근현대 구강 보건제도나 각 시대의 특성을 보다 상세하고 깊이 있게 비교분석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피상적인 이해수준을 보여주었다.

이에 비해 ‘2015년 치과의사학 교안’의 ‘생각해보기’를 별도의 강의 자료로 제공받지 못한 채 교과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 본과 3학년 학생들은 연대기적 지식과 발전의 인과관계, 특징비교, 역사적 상상력에 대해서는 비슷한 학습 능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역사적 시기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 쟁점 분석과

판단력 부분에서는 훨씬 정교하고 논리적인 문제해결방식을 제시했다. 특히 윤리적 쟁점인 아말감전쟁, 특허권, 패인리스파커와 의료영리화 등의 문제에서는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했다. 구강과와 치과논쟁, 의치분리와 영역논쟁등에서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영역을 넓히려는 모습을 보였고, 건강사회보험제도(NHI)와 국가건강보장제도(NHS)의 특징, 의료불평등과 비용효율성 등의 내용에 있어서도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통사나 시대중심의 수업 구성속에서도 학생들의 발달단계에서 관심을 갖는 주제나 현실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토픽, 쟁점을 적절히 섞어서 토론이나 심층 질의응답, 심화과제를 유도하는 방법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발표수업에 대한 반응은 예과 1학년이 본과 3학년 모두 매우 긍정적 이였다.

‘생각해보기’를 발표한 예과1학년의 경우 ‘좋다’가 83%였다. 좋은 이유로 자기주도로 심화학습을 하고, 발표하고 듣는 과정이 재미있고, 교수의 사전점검을 거쳐 다른 학생들이 정리 발표한 내용으로 복습과 주관식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좋지 않은 이유로는 문항의 수준이 일정하지 않다. 모호하거나 조사해서 답을 찾기 힘들기도 하고, 교안대로 답을 제시해야 할 경우도 있다. 학생 한 사람이 2~3분간 파워포인트 1~2매로 한 주제를 발표하는 방식이 산만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개선 방법으로 교수가 시대별로 강의와 생각해보기 발표를 병행하거나, 학생 일인당 주제가 연관된 2가지 문항을 한 번에 발표하여 발표의 질을 더욱 높이는 방법을 추천하였다.

본과 3학년 학생들이 파워포인트로 발표한 후 지도교수가 추가 질문과 설명을 하는 수업 방식에 대해서는 ‘좋다’가 2014년 86 % 2015 본과3학년 91%로 매우 높았다. 학생강의가 좋은 이유로 새롭고, 재미있고, 친근하며, 쉽고 설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담당교수가 발표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고, 학생 발표 후 중요한 것은 추가 질문하거나 더 자세히 설명하고, 보다 최신 내용을 언급해 주어서 질 관리가 되는 것 같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좋지 않은 이유로 교수 강의보다 전문적 내용 전달이 약하며, 50분 동안 학생 3명이 각기 다른 시대와 주제로 발표하다보니 시간이 촉박해서 충분히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내용이다. 개선 방향은 50분 수업시간 동안 학생 2명 발표에 교수가 20분 설명해주면 적절할 것 같다는 의견이 주를 이뤄 학생 강의에 교수의 심층 강의를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III. 고찰 및 결론

치과의사학 수업에 있어서 2015년 치과의사학 교안에 따른 통사적 구성과 학생발표수업은 학생들의 수준과 관심을 고려해서 비중을 조절하면 학습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는데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연대기적 구성과 학생들의 발표로 진행되는 강의와 생각해보기가 지니는 장단점과 특성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한계를 보완하지 못한다면 다른 수업방식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먼저 연대기적 구성은 학생들에게 세계 치의학과 제도의 장기적인 발전과정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혀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최근 치과의사들의 사회적 위상 변화나 치의학과 제도의 발전방향에 더 관심이 많다. 따라서 연대기만으로는 예비 치과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기꺼이 감당해야 할 역 사적 과제와 해법을 찾으려는 동기가 부여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수업진행에 있어서 예과 1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치의학의 역사를 개론적 수준에서 포괄적으로 이해를 시켜주어야 한다. 치과의사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치의학과 의학 및 보건학, 역사학이 결합된 과목이어서 전문적 용어와 개념을 비롯해 역사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치과의사학 개론부터 고대에서 현대까지를 다루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수업시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수방법에 있어서도 방대한 분량을 너무 짧은 시간에 요약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형식으로 그 시대 상황과 치의학적 변화를 생생하게 전달할 때 학생들의 이해가 높아질 것이다. 치과의사학의 내용지식이 많은 것에 비해 예과 1학년생들은 학업집중도가 낮고 성적관리에 부담을 적게 느끼는 상태이다. 개인적 관심사나 단체 활동, 행사일정 등이 수업출석과 과제제출 및 시험 준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매 수업마다 적절한 학습동기를 부여하면서 내용이해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수업 시수를 적절하게 확보하지 못할 때에는 보다 핵심적인 시대와 사건 중심으로 수업내용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본과 3학년은 학생들이 직접 강의록을 파워포인트로 제작해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치과의사학 수업에서 교과과정에 따른 내용과 교안, 참고서적 등이 적절히 제시된다면 학생 강의로도 학습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실제 교수의 역할은 강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과내용에 타당한 수업방식을 결정하고 진행을 돋는 것도 포함된다. 학생강의는 교수가 직접 강의하는 것보다 사전 준비과정과 발표 후 교수가 해주어야 할 일이 많다. 학생이 강의록을 충실히 작성했는지, 발표과정에서 역사적 사실과 맥락의 전달 및 주요문제 답안제시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학생 강의자 역시 자신의 역사적 입장이나 관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강의자의 입장이 편향되어 있다면 강의 후 질의와 응답 등을 통해 다양한 입장에 대한 간략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학생 강의와 질의응답 형식으로 상충되는 입장에 대한 심층적인 비판과 성찰은 어렵다. 별도의 토론이나 과제들을 통해서 보충해야 할 것이다.

예과1학년 학생 전원이 ‘생각해보기’ 문항을 정리해 발표한 것은 학생들의 관심과 성취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었다. 보통 발표수업은 발표하는 학생은 심층적인 학습이 되나, 듣는 학생들은 산만하고 신뢰도가 떨어져 학습효과가 낮은 경향이 있다. 하지만 발표가 반복되면서 학생 중 일부는 교안을 익듯이 피상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학생들의 준비부족도 원인이지만, ‘생각해보기’의 문항의 적합성과 파워포인트 1~2매로 생각을 요약 정리해 발표하는 것이 ‘사고력 확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기 문항의 모호성’은 역사학이 지니는 본질적 특성이기도 하다. 역사의 모호성은 대부분의 역사적 사건은 하나의 원인이 아닌 여러 가지 원인에서 시작되며, 그 해석도 관점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데서 시작된다. 담당교수는 생각해보기 문항이 역사에 대한 명제적 지식을 묻는 문항이라면 올바른 답을 내도록 유도해주고, 절차적 지식의 문제라면 접근방법의 타당성을 판단해 주

어야 한다. 생각해보기 학생 발표로는 학생들이 충분한 이해가 되지 못할 경우, 교수는 그 문항에 대한 별도의 토론이나 참고문헌조사, 리포트 쓰기 등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도 좋겠다. 현재 11개 치과대학(원)은 치과 의사학 소그룹 토론을 이끌 보조교수들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치과의사학의 핵심적인 쟁점이나 사건 한두 가지만이라도 학생들이 토론식 발표 수업을 기획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한편 예과 1학년이나 본과 3학년 학생 모두 현재 우리나라와 세계의 구강보건제도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관심이 많다. 현재 미국의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의 경우 1학년 때 의학의 역사와 미국 및 세계보건제도의 기초에 대한 강좌를 열고 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경우 1학년 때 전문직업성, 3학년 때 세계보건제도에 대해 강좌를 열고 있다.⁷⁾

따라서 예과 1학년 때에는 치과의사학에 보건체계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과 유형을 익히고, 본과 3,4학년 때 우리나라와 세계보건제도에 대한 자세한 현황과 발전방향을 파악해낼 수 있도록 교과 과정과 내용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이 예과1학년과 본과3학년 치과의사학 학생발표수업은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참여도를 높여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수업방식이라 생각한다. 학생들은 교수의 일방적인 강의와 시험 위주의 수업에서 학생들의 리더십과 발표능력,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경험할 수 있는 수업을 원하고 있었다. 치과의사학 담당교수는 치과의사학의 독특한 내용과 구조를 연구하여 지속적으로 교안을 개발해야 하며, 교수방법의 하나로 학생발표수업을 활용하는 것도 학습목표 달성을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치과의사학 역량 강화는 학생들이 능동적인 마음과 태도로 치과학의 역사를 배우고 생각하여 자신의 삶속에서 활용하는데서 시작될 것이다.

〈교신저자〉

- 이 주연
- 서울 구로구 구로2동 722-8 세브란스치과
- Tel. 02-854-0027, Email: mar123a@hanmail.net

7) 권복규, 의료윤리교육 방법론, 로도스 출판사, 2015, 202-203

치과의사학으로 떠나는 프랑스 여행

A trip to France through history of dentistry

권 훈
Kweon, Hoon

1. 서론
2. 본론
3. 맺음말

치과의사학으로 떠나는 프랑스 여행

미래아동치과 권 훈

I. 서론

영화 미드 나이트 인 파리(2011년)는 어떤 낭만적인 소설가가 홀로 파리의 밤거리를 거닐다 클래식 푸조를 타고 1920년대와 1890년대로 시간여행을 하며 30명의 예술가들을 만나는 판타지다. 프랑스는 예술로 유명 하지만 19세기에는 과학도 세계 중심에 있었던 나라였다. 예술과 과학을 융합하는 전문 직업인 치과의사에게 프랑스는 성지와도 같은 곳이다. 고대부터 중세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치과의사학적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프랑스 여행 상상만 해도 벌써부터 설렌다.

치과의사학으로 떠나는 유럽여행(2012), 미국여행(2013), 한국여행(2014)이 시리즈 형식으로 본 학회에서 구연을 했었다^{1,2,3)}. 이제는 종론에서 벗어나 각론의 틀로 유럽 여행 중에서 프랑스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2012년에 발표된 자료를 돌아보니 Musee d'Art Dentaire Pierre Fauchard과 루브르 박물관 딱 두 곳이 소개되었었는데 이번에는 24군데이다. 앞으로 더 추가가 될 것이 확실한데 이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묘미가 아닐까 싶다.

세계 연인들이 즐겨 찾으며 사랑을 약속하는 풍네프, 치의학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에펠탑. 관광 명소에 치과의사학적 지식이 버무려지면 여행이 더 특별해 질 수 있다. 치과의사학을 공부하면서 프랑스 여행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하고자 한다.

II. 본론

1. 풍네프 다리(Pont Neuf) : Le Grand Thomas(????~1757)

세계 연인들의 성지중 하나인 파리 세느강에 있는 풍네프(Pont Neuf, Pont: 다리, Neuf: 새로운)는 원래 나무로 다리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양리 4세 때 현재의 다리처럼 새로운 양식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로 풍네프다. 18세기 40년 동안 풍네프에는 유명한 tooth-puller가 있었다(그림1)^{10,23)} 그의 이름은 Jean Thomas 언제 태어난지는 모르지만 1757년에 사망했다. 토마스의 또 다른 이름은 Le Grand Thomas다^{9,11)}.

Le Grand는 훌륭한 임금에게나 붙이는 호칭을 토마스에게 줄 정도이니 토마스의 명성을 짐작할 수 있다. 토마스는 양리 4세 동상 옆 수레에 만들어진 무대에서 발치를 하였다(그림2). 귀족을 연상하게 하는 화려한 의상과 코끼리 상아를 까아 만든 대형 치아 모형은 지금의 치과 광고 과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다. 진료하는 수레에 걸려있는 토마스 초상화에도 치과의사 실력을 홍보하는 문구가 인상적이다¹²⁾.

Our Grand Thomas, beplumped in glory,

The Pearl of Charlatans

Your tooth aches? You need never doubt.

Le Grand Thomas will yank it out.

프랑스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양리 4세 동상 옆에서 치료하는 것이 우연의 일치보다는 양리 4세의 유명세를 빌리려는 고도의 목적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다. 루이 15세의 첫 아들은 1729년 태어났다. 그래서 루이 15세는 출생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노틀담 성당을 향하여 풍네프를 건너고 있을 때 갑자기 토마스는 이렇게 외쳤다고 한다. “Long live the King.”

부르봉 왕조의 시조 양리 4세와 그의 손자 루이 14세는 낭트 칙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낭트 칙령은 치의학의 중심이 이동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다¹³⁾. 양리 4세는 신교도와 구교도에게 모두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낭트 칙령을 선포한 반면에 루이 14세는 할아버지가 만든 그 칙령을 폐지하였다. 낭트 칙령 폐지는 상공업자 및 수공업자들이 조국 프랑스를 떠나게 만들었고, 이 직종에 종사한 사람들이 주로 치과 치료를 주로 맡아왔다. 종교가 과학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예라 할 수 있다.

2. 오 라팽 아질(Au Lapin Agile, 민첩한 토끼) : Andre Gill(1840~1885)

몽마르뜨에 볼 것이 엄청 많지만 ‘오 라팽 아질(Au Lapin Agile)’ 카바레(Cabaret)에서 하는 라이브 공연을 강추한다. 공연은 저녁 9시에 시작하여 2시간 30분 동안 계속되며 6명의 뮤지션들은 언플러그드 뮤직을 제공함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파리 낭만의 바다에 흠뻑 빠지게 한다. 27유로 입장료가 너무 싸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혼신의 공연을 한다.

라팽 아질은 앙드레 길(Andre Gill, 1840~1885)이 1880년 핑크빛 벽에 그린 냄비에서 도망간 토끼 그림이 상징이 되어 가게 이름을 ‘라팽 아질(Lapin : 토끼, agile : 민첩한)’로 부르게 되었다. 앙드레 길의 본명은 Gosset de Guines인데, 가명인 Andre Gill을 쓰면서 풍자만화가로 활동한 예술가이다. 그는 19세기 중반 목숨을 걸고 누구든 어떤 이슈이든 풍자하는데 멈춤이 없었던 만화가중 한 명이었다. 앙드레 길의 수많은 작품 중에 치과와 관련된 것들도 몇 장 있다.

치과와 관련된 풍자만화의 공통점은 발치와 틀니다. 왜냐하면 19세기에 행해지는 치과 치료는 딱 이 두 가지 뿐이었기 때문이다. 한 남자가 원손에 치아를 들고 이렇게 외친다(그림3). *Arrachez! ne guerisse pas!* 영어로 번역하면 Pull, Don't Cure. 국어로 번역하면 발치하라!!⁹⁾ 낫지 않는다! 의역하면 발치가 치료다.

3. 물랑 루즈(Moulin Rouge, 붉은 풍차) : Toulouse Lautrec(1864~1901)

몽마르뜨 초입에 있는 물랑루즈는 파리 관광객에게 인증 샷 필수 코스 중 하나다. 그런데 물랑루즈를 깊게 파고 들어가면 치아가 보인다. 이곳이 지금도 유명한 데에는 천재 화가 툴루즈 로트렉(Toulouse Lautrec, 1864~1901)의 공이 크다. 그가 제작한 물랑루즈 홍보 포스터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물랑루즈도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로트렉은 그곳에서 자신의 작품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그림4). 그는 고흐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고, 피카소에게는 반대로 영향을 많이 준 화가이기에 미술사에서 꼭 언급되는 인물이다.

로트렉은 화가이지만 유전학 책에서도 자주 언급된다. 그의 신장은 148cm, 난장이에 가깝고, 외모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신드롬을 연상시킨다. 로트렉의 부모님은 친사촌 사이로 근친혼에 의한 왜소발육증이 그에게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트렉은 생을 마감할 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어머니! 진정으로 제겐 당신뿐이었습니다.” 그에게 어떤 검사도 시행되지 않았지만 Pycnodyostosis를 가졌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 질환의 또 다른 용어는 Toulouse Lautrec Syndrome이다⁶⁾. 이 신드롬은 조콜세포에서 골격을 형성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카텝신 K에 결함이 생긴 경우 발생하므로 치아도 역시 약하게 만들어져 우식이 호발한다. Pycnodyostosis는 여러 증상이 있는데 구강 증상으로는 irregular permanent teeth, Partial anodontia, Tooth caries이다. 실제로 로트렉은 평생 동안 치통으로 고생했다고 한다.

1977년 프랑스에서 출판된 치과의사학 도서의 표지에도 로트렉의 작품이 소개되고 있다⁸⁾. 제목은 ‘Dr. Pean operating’이고 1891년에 그려졌다(그림5). 필자도 처음엔 진료중인 치과의사로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 그림에 나오는 주인공은 산부인과 및 외과의사다. 19세기 최고의 프랑스 외과의사로 평가받고 있는 Jules-Emile Pean(1830~1898)은 최초로 성공한 수술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의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¹⁴⁾.

안면부 외과 수술 발전에도 크게 공헌한 Pean은 1888년 역시 최초로 안면부에 발생한 악성 종양을 제거하였는데 상악, 협골, 안와부 기저까지 포함되었다고 한다. 19세기에 수술을 한 점을 감안하면 실로 대단하다. 표지에 나온 그림은 상악골을 절단하고 있는 시술 장면이며 손에 쥐고 있는 기구는 지혈겸자이고 또 다

른 이름은 개발자의 이름을 붙여 Pean forcep이다. 그는 1868년 지혈겸자를 최초로 개발하여 대중화시킨 장본인이다.

고대 그리스어인 *historia*의 뜻은 ‘조사해서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다. 이처럼 역사적 사실을 알게된 후 그림을 자세히 보니 손에 있는 기구가 지혈겸자로 보인다. 다만 술자가 맨손이라는 점이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은 성공이었다고 한다. 1894년 William S. Halsted에 의해 외과용 글러브가 소개되기 전까지는 수술하는 의사의 손은 맨손이었다. 안면부 기형도 동반되어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졌을 것으로 추측되는 로트렉에게 그 당시 외과의사 Jules Emile Pean은 어찌면 구세주와 같은 존재로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도 모델로 등장하지 않았나 싶다.

4. 인류 박물관(Musee de l'Homme)

에펠탑은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구스타브 에펠(Gustave Eiffel, 1832~1923)의 설계로 파리 만국박람회장에 세워진 철탑이다. 에펠탑을 가장 좋은 위치에서 볼 수 있는 장소는 샤이오 궁(Palais de Chaillot)이다. 이곳 역시 파리 만국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 1938년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세워진 건물이다. 샤이오 궁의 서쪽에 자리 잡은 인류 박물관에서 치과의사학적으로 매우 소중한 자료를 만날 수 있다.

이집트 고대 무덤에서 발견된 성인의 두개골에서 치아 우식증으로 인하여 치질이 심하게 파손된 하악 제1대구치가 관찰된다⁹⁾. 신기한 것은 제1대구치 치근부에 직경이 2mm인 두 개의 원통 모양의 구멍이 보인다(그림6). 바로 그 옆에 이공이 있어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물이라기보다는 인위적인 조작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아마도 통증 완화를 위해 치과 시술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유골은 기원전 1570~1075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의 유골이라고 밝혀졌다.

아프리카 부족 중에서 치아를 날카롭게 갈아 치아 사이에 공간이 있도록 하는 모습이 그려진 그림도 인류 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그림7). 그들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동물을 숭상하였기에 아마도 그 모습을 닮고자 하는 욕망에서 이처럼 치아를 훼손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에는 가지런하게 배열된 치아는 약함과 상스러움(Vulgarity)으로 인식되었다고 한다¹⁵⁾. 오늘날의 생각과는 참 많이 다름을 알 수 있다.

5. 루브르 박물관(Musee du Louvre)

프랑스 파리에 가면 무조건 들러야 할 곳이 있다면 단연 루브르 박물관이다. 하루에 모든 작품을 구경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려 35,000점 중에서 일부분만이 전시되어 있기에 평생해도 할 수 없다. 그 중에 필자가 발견한 치과와 연관된 작품은 8개다. 아폴로니아 그림 2점은 바로 다음에 소개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6개 유물에 대해 언급한다. 루브르 박물관은 워낙 방대한 유물을 보관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a) Bridge consists of a gold wire ligature of female human teeth

1862년 레바논 공동묘지에서 발견된 보철물은 기원전 4~5세기로 추정된다(그림8). 고대 페니키아의 중심 도시였던 Sidon에서 발굴되었는데 6 unit bridge는 유골에 부착되지 않은 채였다. 치아 4개는 형태학적으로 여성의 것으로 보이며, 자연치 사이에 있는 2개 치아는 ivory를 깎아서 gold wire로 연결한 상태였다⁹⁾. 2개의 pontic인 치아 중앙에 hole을 형성하여 역시 gold wire로 연결시켰다. 이러한 보철 방법은 지금의 것과 원리면에서는 동일하고, 이때도 치아처럼 단단한 물체에 구멍을 뚫을 수 있었다니 놀라울 뿐이다.

b) 함무라비 법전

프랑스 탐험대는 1901년 페르시아에서 원형의 돌에 새겨진 함무라비 법전을 발견하였고 현재는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그림9)¹⁰⁾. 고대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왕이 B.C. 1750년경에 만든 성문법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대목이 있다. 즉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를 부러뜨렸다면 그의 이도 부러뜨릴 것이다.” 보복이라는 잔인함도 있지만 ‘죄와 벌’의 측면에서 보면 합리적으로도 보인다. 치아 인문학 제자인 한상국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다음에 이러한 문구가 있을 것이라고 해석한다⁷⁾. “그러나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하는 것만 한 것은 없다.” 이러한 해석은 21세기에 살고 있는 치과의사들이 곱씹어봐야 할 내용이다.

c) L'Ours dentiste(The Dentist Bear)

프랑스 조각가 Christopher Fratin(1801~1864)은 청동으로 ‘The Dentist Bear’라는 제목의 작품을 제작하였다(그림10). 크기는 약 10센티 정도인데 왜 곰으로 만들어졌을까 하는 호기심이 발동한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감정과 자세를 동물 주로 애완동물을 통해 표현한다. 따라서 치과와 관련된 엽서 또는 도서 등에 동물 치과의사가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치과관련 기자재를 광고할 때에도 동물이 나온다. Fratin도 이런 심리였을 것 같고 아마도 곰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었을 것 같다.

d) The Tooth Puller : Gerard van Honthorst(1599~1656)

바로크 시대 네델란드 화가 Gerard van Honthorst가 1627년 작품 ‘The Tooth Puller’다(그림11)¹¹⁾. 치과의사가 서서 발치하는 모습을 다섯 명의 관객이 놀라면서 애처로운 표정으로 구경하고 있다. 17세기 치과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는 발치였다. 안타까운 사실은 국소마취제가 1800년대 후반쯤에 개발되었기에 그 이전에 발치할 때 통증은 상상불가이다. 또 한지 눈길이 가는 부분은 가장 원쪽에 있는 사람의 오른 손이다. 앞사람의 바구니에 있는 오리를 훔치고 있는 중이다. 이 시기에 화가들은 작품에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이 그림도 발치하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동시에 소매치기를 조심하라는 공익 광고라 할 수 있다.

e) The Extraction of Tooth : Gerrit Dou(1613~1675)

伦勃朗特의 첫 번째 제자인 네델란드 풍속화가 Gerrit Dou는 1635년 ‘The extraction of Tooth’라는 작품을 남겼다(그림12)¹¹⁾. 헤릿 도우는 일상의 사물을 소재로 정교한 회화를 제작하였다. 발치하는 장소가 외부가 아니라 실내여서 좀 더 전문적으로 보이며 탁자에 놓인 두개골과 바이올린이 눈에 띈다. 두개골은 해부

학 공부, 바이올린은 치과의사의 취미를 위한 물건일 거라는 상상을 해본다. 이 그림에서도 환자가 가지고 온 계란 바구니를 볼 수 있다.

f) The Tooth Puller : Jan Steen(1625~1679)

네델란드 화가 Jan Steen의 'Tooth Puller'는 1630~5년에 그려진 작품이다(그림13)¹⁰⁾. 성인 어깨 높이 정도 되는 무대에서 치과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고 있고 대형 파라솔이 그늘을 제공해준다. 파라솔위에 부엉이가 앉아 있는데 서양에서 부엉이는 현명함을 뜻한다. 따라서 부엉이는 치과의사의 실력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제대로 읽을 수 없는 글씨와 그림이 커다란 현수막에 그려져 있는데, 그 목적은 분명 홍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왼쪽에 서서 무슨 말을 계속하고 있는 남자가 있다. 이 사람 역시 치과를 광고하는 만담꾼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g) The Charlatan : Giovanni Domenico Tiepolo(1727~1804)

'The Charlatan'은 베네치아 풍속화가 Giovanni Domenico Tiepolo 1755년에 그린 작품이다(그림14)¹¹⁾. 그림은 18세기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축제가 열리는 장터 같은 곳에서 진료하는 치과의사를 묘사하고 있다. 무대에 서있는 남자는 발치한 치아를 포셉으로 들고 큰 목소리로 뭔가를 외치고 있는 것 같고, 바로 그 옆에서는 담뱃대를 물고 앉아 있는 남자가 환자의 입안을 검사하고 있다. 이 그림에서도 홍보용으로 사용 중인 대형 현수막과 원숭이가 관찰된다.

6. Saint Apollonia

치과의사와 치통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수호성인 아폴로니아는 자신의 뽁힌 치아를 포셉으로 들고 있는 젊은 여성으로 묘사된다. 3세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한 중년의 여성 선교사 아폴로니아는 필립보 황제(재임244~249)때 일어난 그리스도교 박해 때 순교하였고 축일은 2월 9일이다⁴⁾. 개종을 거부한 아폴로니아에게는 턱이 부서지고 치아가 하나씩 발거되는 고문이 행해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굴하지 않았다. 또한 신성모독을 행하지 않으면 산 채로 화형을 시키겠다는 협박에도 불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순교의 길을 선택하였다.

아폴로니아는 249년(A.D.)에 순교하였으나 50여년의 세월이 흐른 300년에 성인으로 공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또 수세기 동안 잊혀졌었다. 치과 질환이 증가하고 있었지만 그에 대한 치료 방법은 무척 미숙한 상태였기에 14세기 무렵부터 아폴로니아에 대한 찬미가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다¹⁶⁾. 그 결과 성녀 아폴로니아를 묘사하는 작품들이 수없이 탄생하였다. 본 고에서는 프랑스에서 만날 수 있는 성녀 아폴로니아의 흔적을 찾아가 본다.

a) 루브르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된 '성녀 아폴로니아'는 프란치스코 데 수르바란(Francisco de Zurbaran, 1598~1664)이 1636년에 그린 작품이다(그림15)¹⁰⁾. 수르바란은 17세기 스페인 여인 복장을 한 성녀 아폴로

니아를 그렸다. 아폴로니아는 3색(황금색, 분홍색, 연두색)이 조화를 이루는 옷을 입고 있으며, 왼손에는 순교를 나타내는 팔마나무 가지를 들고 있고 오른손은 자신의 발치된 치아를 포셉으로 쥐고 있다.

루브르 박물관에는 아폴로니아가 그려진 또 한 점의 작품이 있다. 이탈리아 화가 Ercole de' Roberti(1451~1496)의 작품 'Griffoni Polyptych: St. Apollonia'이고, 이 그림은 1470~1473년 사이에 그려졌다(그림16)¹¹⁾.

b) Musee d'Art Dentaire Pierre Fauchard : Jacob Jordanes(1593~1678)

근대 치의학의 아버지 피에르 포샤르(Pierre Fauchard, 1678~1761)를 기념하기 위해 1937년 피에르 포샤르 치의학 박물관(Musee d'Art Dentaire Pierre Fauchard)이 설립되었다. 이곳에는 19세기 치과에서 사용된 기구, 문서, 도서 및 그림 등 다양한 수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2001년 폐관되었다. 그러나 모든 유물들은 파리 공공병원 박물관(Musée de l'Assistance Publique – Hopitaux de Paris)으로 양도되었지만 이 박물관 역시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2012년 문을 닫고 말았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찬 소식은 2016년 적절한 장소를 찾는 대로 재개관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피에르 포샤르 치의학 박물관은 야코프 요르단스(Jacob Jordaens, 1593~1678)의 작품 'The torture of St. apolline'을 소장하고 있다(그림17)¹⁷⁾. 바로크의 회화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요르단스가 그려서인지 이 그림은 신화를 소재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난다.

c) 콩데 미술관(Musée Condé), Chantilly : Martyrdom of St. Apollonia

파리 북쪽 샤를 드골 공항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샹티 성(Chateau de Chantilly)안에 루브르 박물관 다음의 규모를 자랑하는 콩데 박물관이 있다. 샹티성의 마지막 소유자 오말공작(Duke of Aumale) 양리 오를레앙(Henri d'Orleans)이 1886년 샹티 성, 공원과 그의 소장품을 국가에 기증함으로써 콩데 미술관이 탄생하였다. 샹티성은 또 다른 히트 상품을 탄생시켰다. 케이크와 커피에 사용되는 생크림(크림 10대 설탕 1의 비율로 휘핑해서 만들)을 크림 샹티(Crème Chantilly)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샹티성에서 근무하는 요리사 바델이 최초로 만들어서 샹티성의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미술관의 상뚜아리오(Santuário)에 라파엘로의 그림과 함께 전시되어 있는 장푸케(Jean Fouquet, 1415~1480)의 작은 그림(A4 사이즈 반)들 중에서 치과의사 성녀 아폴로니아의 순교 장면이 있다(그림18)⁹⁾. 로마 황제 데키우스의 명을 받은 사형 집행인이 아폴로니아를 꽁꽁 묶고 머리를 잡아당긴 상태에서 치아를 부러뜨리는 모습이 그려졌다.

아폴로니아 순교 그림은 장푸케가 1452년경에 템페라(안료와 매체가 혼합된 그림 물감의 일종)로 그린 Hours of Etienne Chevalier인데 원본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18세기에 찢겨져 곳곳으로 흩어졌다. 그중 일부인 40장을 오말 공작이 1891년 독일 은행가 브렌타노(Bren -tano)의 아들에게서 이십 오만 프랑에 구입

한 채식본(illuminated books)이 콩데미술관에 전시중이다(그림19).

d) Musee Albert-Demand, Champlitte

프랑스 동쪽에 있는 쟁풀리뜨(Champlitte)는 16~18세기 성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작은 도시다. 르네상스 형식의 wing을 갖고 있는 쟁풀리트 성에 Musee Albert-Demand이 있고, popular arts와 traditions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곳에도 역시 성녀 아폴로니아가 새겨진 작은 조각품이 보관되어 있다(그림20)¹⁷⁾.

e) Ordre National des Pharmaciens : Guido Reni(1575~1642)

이탈리아 풍속화가 피에트로 롱기(Pietro Longhi, 1701~1785)의 1752년 작품 'The Apothecary Shop'를 보면 약제사가 환자의 치아를 치료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롱기는 매일 발생하는 일상속의 생활을 캔버스에 그리는 화가로 유명하였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약제사가 치아를 치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와 똑같이 프랑스 약사협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귀도 레니(Guido Reni, 1575~1642)의 작품 'Martyrdom of Saint apollonia'도 똑같은 이치다(그림21)¹¹⁾. 또한 약사협회에는 치과와 관련된 몇장의 그림도 갖고 있다.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 볼로냐가 낳은 세계적인 화가 귀도 레니가 그린 아폴로니아 그림도 신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듈다.

f) 마르모탕 미술관(Musee Marmottan Monet) : virgin and child with six Saints

파리 16구에 위치한 마르모탕 미술관은 1970년대에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의 작품(수련과 인상, 해돋이)등을 기증받은 이후 사람들에게 유명해졌다. 이곳에는 이탈리아 움브리아파(Umbrian School)에서 제작한 '아기 예수와 동정녀(Virgin and child with six Saints)'라는 제목의 판넬이 있다.

판넬의 정중앙에는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과 판넬 좌우측에는 4명(시계 방향으로 : St. John the Baptist, St. Jerome, St. Apollonia, St Catherine of Alexandria)의 성인이 있다. 그리고 판넬을 닫으면 2명(좌 : St. Christopher, 우 : St. Sebastian)의 성인이 그려져 있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프란시스 코 데 수르바란의 작품처럼 오른손에는 포셉을 왼손에는 팔마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그림22).

g) 프랑스 국립도서관 : Le martyr de Sainte Apolline(1467)

프랑스 국립도서관에는 15세기 독일 화파가 제작한 'The martyr St. Apollonia'이 소장되어 있다(그림23). 이 그림에서는 고문관이 chisel과 hammer를 들고 아폴로니아의 치아를 발거하는 모습이 좀 더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¹⁸⁾.

7. 프랑스 국립 도서관(Bibliotheque nationale de France, Paris)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시초는 1368년 샤를 5세(Charles V)가 열었고 3500만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이며, 최초의 민간 도서관이다. 또한 이곳에서 잉태된 박병선(1929~2011) 박

사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라 사랑의 본보기를 보여준다. 박병선 박사의 헌신적인 열정으로 1866년 병인양요 때 약탈당한 외규장각 의궤가 임대 형식이지만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도서관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인 직지심체요철과 신라시대 승려 혜초가 고대 인도의 오천축국을 여행하고 쓴 왕오천축국전이 남아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명확하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는 치과의사학과 관련된 자료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상당하다. 그러나 필자가 보관하고 있는 도서들을 기반으로 작품의 작가가 확실히 밝혀진 것들만 언급하고자 한다. 바로크 양식의 회화를 주로 그린 네델란드 풍경화가 Adriaen van de Velde(1636~1672)의 작품 'Le Dentiste'에는 17세기 치과의 광경을 볼 수 있다(그림24)¹¹⁾. 깃털이 꽂혀 있는 모자를 쓴 치과의사의 복장이 눈에 띈다. 비록 초크로 그려진 드로잉이라 색상은 알 수 없지만 웬지 멀리서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화려한 옷일 것 같은 짐작이 든다. 진료하는 장소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로 보이며 치료 바닥에는 치료 기구와 약이 담긴 병들이 놓여있다.

독학으로 그림을 배운 프랑스 화가 Adophe Roehn(1780~1867)의 그림을 기초로 하여 판화가 Gottfried Engelmann(1788~1839)은 'Sans Douleur(Without pain)'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남겼다(그림 25)⁹⁾. 그 작품은 1829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직 국소마취제가 발명되기 전이므로 '무통'이라는 제목은 무리수가 있어 보인다. 치과의사는 발치한 치아를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지만 환자는 오른쪽 다리를 들고 있고 얼굴 표정도 그다지 밝아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잘 훈련된 원숭이마저 치과의사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 무통 치료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게 한다.

프랑스 화가이자 판화가인 루이 레오폴드 부알리(Louis Leopold Boilly, 1761~1845)의 그림은 일화적 주제를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서 다양한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 낸다. 1827년 작품 'The Steel balm'도 그 중 하나이다(그림26)⁸⁾. 밤(balm)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립밤(lip balm)과 같은 의미이다. 기능은 상처를 치료하거나 통증을 완화하는 연고이다. 그렇다면 제목에서 Steel balm은 어떤 의미일까? 19세기에 치통의 치료는 발치였고 발치는 스테인레스로 제작된 발치기구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치통을 치료하는 기구라는 뜻으로 제목을 Steel Balm이라 한 것 같다. 그림에서 술자와 환자의 손에도 나름 메시지가 있다. 환자의 손동작을 보면 마치 고통을 호소하는 신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에이프렌을 꽉쥐고 있다. 반면에 술자는 고정을 위해 원손으로 환자의 머리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누르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부알리는 절묘하게 묘사하고 있다.

8. 오르세 미술관(Musee d'Orsay)

오르세 미술관 1층 사실주의 대표적인 화가 밀레 전시실 바로 옆 공간에 사람 인형들이 진열되어 있다. 인형들은 풍자만화에 나오는 프랑스 정치인들인데, 인형 제작자인 오노레 도미에(Honore Daumier,

1808~1879)는 화가이자 정치 풍자 만화가이다. 밀레의 ‘이삭줍기’는 농촌 여성들의 고단한 삶을 표현하였다면 도미에의 ‘세탁부’는 도시 여성 빈민의 고단한 삶이다. 빨랫터에서 뺄래한 후 가파른 계단을 아이와 함께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도미에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화가는 아니지만 유명 화가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⁵⁾. 피카소는 도미에를 19세기 예술의 미켈란 젤로라는 찬사를 보냈고, 밀레는 도미에의 명암 기법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고흐는 자신의 편지에서 도미에를 50번 넘게 언급하였고, 드가는 도미에의 판화를 750점이나 소유하였다. 미술사에서 큰 업적을 남기고 떠난 도미에는 사회를 풍자하는데도 앞장섰는데 그의 작품들 중에 치과를 묘사한 것들도 꽤 많다(그림27).

형태는 단순화하고 혼합된 색상으로 선호하는 나비파의 대표적인 화가 에두아르 뷔야르(Edouard Vuillard, 1868~1940) 작품 중에서 치과를 배경으로 하는 초상화 2점이 오르세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다. 그는 특히 초상화에서 절제된 공간미와 빛의 유희가 펼쳐지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작업을 하였다. 첫 번째 그림은 뷔야르의 1914년 작품 ‘Portrait of Dr. George Viau’이고 주인공은 치과의사 George Viau(1855~1939)이다(그림28)¹¹⁾.

Viau는 치과의사면서 미술품 수집가였고 또한 많은 화가들을 후원도 하였다. 그 화가들의 면면을 보면 세잔(Cezanne), 모네(Monet), 르느와르(Renoir), 투루즈 로트렉(Toulouse Lautrec)등이 있다. 에두아르 뷔야르도 그 중 한명이었고 어쩌면 치과의사 Viau의 환자였을지도 모른다. Viau는 파리 치과학교(School of Paris Dentaire)를 설립하였고 이 학교 박물관에 상당한 금액도 기부하였다¹¹⁾. 뷔야르의 1937년 그림 ‘Portrait of Doctor Louis Viau in his office’에서는 그 당시 Viau의 치과 진료실 풍경이 세밀하게 그려져 있다(그림29).

9. 파리 시립 현대미술관 : David Solot(1909~1985)

파리 16구 월슨 대통령 거리 11번지에 있는 파리시립미술관은 치과의사 David Solot(1909~1985)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다. 제28대 미국 대통령 우드로 월슨은 충치 치료를 포기해서 흉측한 치아를 가진 채로 대통령 직을 수행하였다. 월슨 거리에 있는 미술관에 치과의사의 작품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뭔가 운명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만약 월슨이 제안하여 만들어진 국제연맹에 미국이 가입했었다면 2차 세계 대전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유대인 치과의사 David Solot의 인생도 평탄했을 것이다. 그러나 Solot은 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여 삶과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면서 느꼈던 감정을 예술로 승화시켜 많은 그림들을 남겼다.

David Solot는 루마니아 Falcu에서 9남매 중 여덟째로 태어나 1933년 프랑스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였다. 파리 인근에서 개원 중이던 Solot는 1939년 2차 세계 대전 때문에 입대하였으나 체포되어 포로가 되었다. 다행히 탈출에 성공하여 1945년 다시 치과의사의 길을 걸었고 동시에 화가의 꿈을 버리지 못하

고 일주일에 이틀은 그림에만 몰두하였다. 1950년부터 그는 tooth(삶)와 forcep(죽임)을 작품에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 1959년 미국치과의사협회 100주년 기념행사중 하나로 진행된 Solot작품 전시회를 통해 그는 유명 화가의 반열에 올라서게 된다. 그는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 1904~1989)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그림30)²⁰⁾, 작품에 그려진 포셉과 치아를 통해 자신이 경험한 그 당시의 상황을 전달하였다.

1956년 작품 'The Revolt of the Molars'에는 안락함과 슬픔이 창문을 통해서 오버랩되고 있다(그림 31)¹⁹⁾. 가족처럼 보이는 4명의 포셉은 방안에서 창밖에 펼쳐지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 치아들이 봉기해서 포셉을 교수대에 끌어올리고 있으며 무장한 치아들은 희생자 포셉을 둘러싸고 있다. 이 그림을 치과 임상적으로는 '자연치 살리기 운동'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발치와 보존사이에서 번민하는 임상가들에게 이 그림은 무언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다. 너무 쉽게 발치로 결정되는 치아들이 봉기하여 치과에서 포셉을 제거한다는 과대망상처럼 보이지만 나름 알레고리를 내포하고 있다.

10. 파리 중세 박물관 : Stalls of Saint-Lucien of Beauvais

중세 박물관은 로마 시대(1~3세기)에는 대중목욕탕, 15세기에는 클뤼니(Cluny) 수도원 이었다. 프랑스 대혁명 후 이 건물을 소유하게 된 알렉상드르 뒤 솜므라드(Alexandre Du Som -merard)는 약 40여 년 동안 중세 및 르네상스 예술품 2만 여점을 수집하였다. 그가 사망하자 1842년 프랑스 정부는 건물과 그의 소장품 일체를 구입한 후 1844년 중세박물관을 개관하였다.

이 박물관에 있는 생-뤼시엥의 성직자석(Stalls of Saint-Lucien)에 치과의사학적인 의미가 있다. 1492년 제작된 이 의자에는 종교적 및 세속적인 모습들이 조각되어 있는데, 그 중에 수도사의 치아를 치료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그림32)¹⁷⁾. 파리에서 북쪽으로 80km떨어진 보베(Beauvais)의 생-뤼시엥 성당에 있었던 이 의자는 프랑스 혁명 때 파괴되었다고 한다. 중세 예술품 수집가가 19세기 초 보관하다 중세 박물관으로 양도되어 지금도 전시중이다.

11. Musée du Ranquet, Clermont-Ferrand

프랑스 중남부에 있는 클레르몽페랑(Clermont-Ferrand)은 교통의 요지일 뿐만 아니라 상공업이 발달한 도시이다. 이곳은 화산지대에서 캐낸 검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들이 고풍스러운 풍광을 제공하며, 철학자 파스칼의 고향이기도 하다. 특히 미쉐린(Michelin) 타이어 본사가 이곳에 있고, 도심 한복판에 회사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미쉐린 박물관의 존재는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프랑스인의 마음이 보이는 것 같다.

클레르몽페랑 도심에 있는 Ranquet Museum의 정식 명칭은 Hotel Fontfreyde이고 1998년까지는 박물관 기능을 하였는데 지금은 사진 작업을 하는 장소로 사용 중이다. 1921년 오베르뉴(Auvergne) 자치 단체에서 역사 및 지역 예술품을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개관하였다. 2차 세계 대전 때는 모든 전시물을 포장해

서 Chateau de Cordes로 옮기기까지 했다는 이 박물관에 치과의사학적 가치가 있는 프랑스 전통의 채색 도자기가 있다(그림33).

파란색으로만 그려진 그림이 있는 흰색 도자기인 파이앙스(Faience)는 그림 장식이 가능해지고 납 유약에 주석 산화물을 첨가함으로써 매끄러운 표면을 갖게 되어 도자기 역사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 치과의사가 포셉을 들고 발치를 하려는 모습이 파이앙스에 그려져 있는데, 이 시기에는 발치가 정신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한다¹¹⁾.

12. Carnavalet Museum, Paris

프랑스 의회 의장 Jacques des Ligneris는 1560년 르네상스 양식으로 대저택을 건축하였는데 Hotel Carnavalet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는 바스티유 감옥 열쇠, 단두대 모형과 같은 프랑스 혁명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물들을 보유하고 있어 지금은 파리 역사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카르나바레 박물관에는 1792년 수채화 물감으로 제작된 판화가 있는데 프랑스 화파로 추정되며 작자 미상이다. 그런데 그림 제목이 'The National Dentist'로 뭔가 사연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그림34). 치과의사가 성직자의 치아를 발치하고 있는 모습인데 신부님이 무척 고통스럽게 보인다. 이 그림에서 발치는 교회 재산의 국유화를 암시하고 있다¹¹⁾.

13. Musee du val de Grace(Museum of Military Health Service), Paris

: Georges Eveillard(1879~1965)

군인 건강 서비스 박물관은 본래는 1667년 바로크 양식으로 건축된 교회였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기간인 1793년부터는 발 드 그라체(Val de Grace) 육군 병원으로 사용되었고 1850년에는 군인 의학교도 설립되었다. 이 박물관의 처음 목적은 군대 의학교 학생들의 해부학 교육을 위해 꾸며졌었는데, 1880년대 후반부터는 다양한 그림과 수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 군대 의학의 발전사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군대 의학 역사 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이곳에는 Georges Eveillard의 작품 'Military Dentist at the American Hospital of St. Nazaire(1918년)'이 있다(그림35)¹¹⁾. 백년 전쯤 사용되었던 유니트 체어와 가운은 별 특별한 사항이 없으나 제목에서 언급된 생나제르에 있는 미국 병원에 주목이 간다. 왜냐하면 생나제르는 지정학적으로 프랑스 서쪽 끝 대서양 근처의 루 아르강 어귀에 있기에 미국과 교역이 수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14. Musee Fabre, Montpellier : David Ryckaert(1612~1661)

눈부신 지중해의 풍경이 펼쳐지는 남프랑스 여행 루트에 몽펠리에가 있고 그 고풍스러운 도시안에 파브르 미술관이 있다. 미술관의 명칭은 과학과 예술의 절묘한 조합으로 곤충학자 Jean Henri

Fabre(1823~1915)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파브르가 몽펠리에 대학에서 물리학과 수학을 전공한 졸업생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몽펠리에 의과대학은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곳이다.

파브르 미술관에는 네델란드 화가 David Ryckaert의 작품 'The toothpuller'가 있다(그림36)¹¹⁾. 작품이 그려진 날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17세기 작품이다. 그림에서 두 가지가 눈에 띠는데 왼쪽에 있는 bottle과 jar와 오른쪽에 있는 오리가 담겨있는 바구니다. Bottle과 jar는 진료 중 또는 진료 후에 사용되는 액체나 고체가 들어있을 것 같다. 바구니는 치과와 관련된 명화에 자주 등장하는데 어쩌면 치료비는 바구니에 있는 물건으로 지불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듦다.

15. Ecole des Beaux-Arts, Paris

예술의 나라 프랑스는 에콜 데 보자르(Ecole des beaux arts)라는 이름의 예술학교들이 지방마다 여럿 있다. 그중에서 루브르 박물관을 마주보고 있는 파리 보자르 즉 파리 국립 예술학교는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역사를 갖는 예술 명문이다. 6년의 교육과정을 거쳐야 졸업을 하고 유독 이 학교만은 프랑스 대통령이 교장을 임명할 정도로 프랑스에서 큰 비중이 있는 학교이다.

파리 보자르는 45만점의 예술품과 도서를 보유하고 있어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수집품을 갖고 있는 곳 중 하나이다. 이곳에는 'The Charlatan'이라는 제목의 그림 한 점이 있다(그림37)¹¹⁾. 진료하는 사람 뒤쪽으로 발치한 치아를 들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 큰 프랑이 인상적이고 그 아래에는 다음 진료할 환자를 검진하는 또 다른 치과의사가 보인다. 많은 화가들이 작품에 사람과 가장 친근한 동물인 개를 자주 그려 넣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꼭 있다. 이 그림에서도 개가 있는데 홀로 외롭게 서있으며 시선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나는 곳과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어쩌면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치료 받고 있는 사람이 개의 주인일지도 모른다.

16. Musee des Beaux-Arts(Museum of Fine Arts)

a) Musee des Beaux-Arts, Rennes : David Teniers the Younger(1610~1690)

프랑스 북서쪽 브르타뉴(Bretagne) 수도인 헨느(Rennes)미술관에는 다비드 테니르스(David Teniers the Younger)의 작품 'The tooth extractor'이 있다(그림38)¹¹⁾. 풍속화와 실내 묘사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테니르스는 그 시기의 생활 모습을 그린 작품을 많이 남겼다. 이 시절에 마늘은 악마를 쫓아내기 위해서 보통 집 대문에 붙여놓는데 진료하는 벽에 걸려있다. 어쩌면 치과에 온 환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치과의사의 배려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제목은 발치하는 치과의사이지만 그림 속 치과의사는 기구를 팬슬 그립으로 하여 충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니면 발치하기 전 폭풍 전야의 모습을 묘사한 것일 수 있다. 치과의사 바로 뒤에는 진료를 보조하는 여인이 서있고, 앉아 있는 탁자 앞에 서있는 소년은 진료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약을 컵에 따르고 있다. 탁자 위에 있는 병들에 담겨있는 것은 아마도 발치 중 또는 발치 후에 사용될 약물처럼 보인다. 한편 바닥에

널 부러져 있는 기구들은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상상에 맡긴다.

b) Musee des Beaux-Arts, Dijon : Thomas Gerard(1663~1720)

파리의 동남쪽에 있는 디종(Dijon)은 브르고뉴(Bourgogne) 지방의 중심 도시이며, 브르고뉴 공국의 궁전에 있는 디종 미술관(1787년 개관)은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곳 중 하나이다.

이 미술관에는 네델란드 화가 Thomas Gerard의 작품 'The Charlatan'이 있다(그림39)¹¹⁾.

그림에 보이는 다양한 종류의 병과 책들, 유리병을 들고 있는 노인은 신비한 묘약을 제조하고 있는 연금술사처럼 보인다.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이집트에서 시작된 연금술은 속임수 마술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중세 시대에는 역사의 뒤판길로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18세기에도 주술적인 약물을 믿는 일부 지방도 있었다.

그림에서 앉아 있는 사람은 환자의 소변을 육안으로 검사하는 의사이고 그림의 우측에 서있는 사람은 환자의 치아를 치료중인 외과의사이다¹¹⁾. 환자는 의자에 앉아 있고 반면에 술자는 선채로 치료하고 있고 진료보조자는 등불을 비추고 있다. 역시 이 그림에서도 술자는 기구를 펜슬 그림으로 잡고 뭔가를 긁어내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 그림의 제작 연도가 확실하지 않으나 17~18세기 네델란드에서 볼 수 있는 병원의 일상으로 추측된다.

c) Musee des Beaux-Arts, Carcassonne : Henri Baron(1816~1885)

남프랑스의 까르까손느는 1100년대에 지어진 성벽으로 도시 전체가 둘러싸여 있는 중세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까르까손느 미술관은 Bastide Saint-Louis(Bastide : 프랑스 남부에서 전술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종합적으로 설계되어, 단기간에 건설된 소도시)에 있는 다소 황폐한 건물에 있다. 이 곳은 한가로운 분위기이지만 둘러볼 전시실이 꽤 있으며 주로 근세의 회화들이 전시되어 있다.

Henry Baron의 작품 'The first Tooth'에는 엄마로 보이는 여인이 아직 돌도 안 된 아이의 하악 치아를 손으로 가르키고 있고 그 주위로 4명의 어른이 신기한 듯 쳐다보고 있다(그림40)¹¹⁾. 화가 Baron은 1846년에는 오말 공작(Duke of Aumale)으로부터 그림 주문을 받았고, 1867년 튀릴리 궁에서 열리는 만국 박람회의 그림을 유진 황후(Empress Eugenie)로부터 부탁을 받았다. 따라서 'The first tooth'도 어떤 귀족으로부터 의뢰를 받았던 작품으로 추정되며 그림속의 분위기 또한 그렇게 보인다.

17. The statue of Talma : Francois Joseph Talma(1763~1826)

르네상스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파리 시청은 길이 143미터, 폭 80미터, 종각 높이 50미터로 매우 웅장해 보인다. 특히 시청 건물 전, 후면에 프랑스를 빛낸 인물들이 138개의 동상으로 장식되어 있어 마치 프랑스 역사책을 보는 것 같다. 그중에 25번째 동상인 프랑스 국민배우이자 치과의사인 프랑수아 조제프 탈마의 동상은 시청의 뒷면 가장 좌측에 자리 잡고 있다(그림41).

탈마는 치과의사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삼촌 그리고 형도 치과의사다. 1776년 가족이 영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탈마 역시 그곳에 치과의사가 되었다. 1785년 프랑스로 돌아와서는 약 18개월 동안의 짧은 치과의사 인생을 겪다가 연극배우로 방향을 전환하였다²¹⁾. 1787년 Francaise theater에서 Voltaire's "Mahomet"에서 Seide역으로 데뷔하였다²²⁾. 특히 탈마는 유명한 비극 배우였는데 대사 없이 감정만으로도 눈물을 콸콸 쏟았다고 한다. 또한 그는 공동으로 Theatre of the Republic을 설립하였고 나폴레옹이 가장 좋아하는 배우 중 한 명이었다.

18. La Fresque des Lyonnais : Laurent Mourguet(1769~1844)

프랑스 3대 도시 중 하나인 리옹(Lyon) 그런데 공항 이름이 생택쥐베리(Saint-Exupéry)다. 어린왕자로 유명한 그는 프랑스의 대문호이자 리옹의 자랑스러운 인물이다. 리옹 출신의 또 다른 명사는 기뇰의 창시자이자 거리의 치과의사 였던 롤랑 무르게(Laurent Mourguet, 1769~1844)다. 이 두 사람은 손(Saone) 강변에 있는 건물 벽에 나란히 그려져 있는데, 이 건물은 리옹 사람들의 벽화(Fresque des Lyonnais)라고 불리운다(그림42). 중세 시대부터 최근까지 리옹이 배출한 명사들이 건물에 그려져 있는데 실제 모습과 쉽게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그려져 있다.

리옹에서 비단을 짜는 장인의 아들로 태어난 무르게(Mourguet) 역시 비단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였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 비단 무역이 쇠락하면서 아버지의 가게에 비단이 쌓이게 되자 무르게는 장터에 나가 비단 판매를 하게 되었다. 그는 장터에서 우연히 본 치과 진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1797년부터는 길거리 치과의사로 일을 하였다. 마취제가 없었던 18세기 치과는 그 누구에게라도 치료라기보다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1804년 무르게는 직접 비단으로 기뇰(Guinol)을 만들어 고통스러운 치과치료를 받는 사람을 위한 인형극을 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인형극을 보고 웃으면서 치과 치료로 인한 불안과 고통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한다. 그는 치과의사를 접고 본격적으로 인형극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활동을 하여 지금의 기뇰(끈 없이 직접 손가락으로 인형을 조종하여 그 인형들이 등장하는 프랑스 전통 인형극)이 있게 하였다. 19세기에 환자를 위해 이러한 배려를 하였다니 아마도 최초의 행동조절 요법이라 할 수 있다. 리옹의 구도심에 가면 프랑스 손 인형극의 창시자 롤랑 무르게의 동상을 만날 수 있다(그림43)²⁵⁾.

19. Horace Wells Monument : Horace Wells(1815~1848)

마취의 효시자라고 불리우는 웰스의 고향 미국 코네티컷 주 Hartford에는 Horace Wells 동상이 우뚝 서있다²³⁾. 그런데 미국 치과의사 웰스를 기념하는 조각상이 파리 시내에도 있다(그림44). 1910년 제10회 FDI 총회가 파리에서 열렸는데 이때 웰스를 추모하기 위하여 대리석으로 만든 부조상이 세워졌다²⁶⁾. 웰스의 조각상 하단에는 마취 기술을 개선하는데 공헌을 한 프랑스의 생리학자 Paul Bert의 얼굴도 함께 새겨져 있다. 미국 치과의사와 프랑스 과학자의 만남으로 볼 수 있다.

파리에 세워진 웰스 모뉴먼트는 웰스 못지않게 수난의 세월을 겪다 지금의 자리에 서있다. 반미 감정 때

문에 여러 번 동상이 내동댕이 쳐졌고 제2차 세계 대전 때에는 독일군이 파괴할까봐 잠시 피난 생활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대리석 돌덩어리까지 피신시키는 프랑스인의 배려가 돋보인다. N₂O/O₂를 이용하여 무통 발치 방법을 발견한 웰스 모뉴먼트는 가장 건강한 치아를 가졌던 토마스 제퍼슨(미국 제3대 대통령) 스케어 안에 자리잡고 있다. 그 광장 한쪽에는 미국의 틀니 변천사를 기록한 조지 워싱턴(미국 초대 대통령) 장군의 동상이 웰스 모뉴먼트를 바라보면서 서 있다. 마취의 탄생을 기념하는 장소에 치아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던 대통령의 동상이 함께 있다. 조지 워싱턴과 웰스는 서로 어떤 대화를 하고 있을까라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다.

19. Henri Moissan(1852~1907)

치과에서는 불소도포 가정에서는 불소치약, 불소는 이젠 치과와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있다. 하지만 이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불소를 단독으로 분리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는데 모두 실패했다.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실험 중 희생을 당하였는지 불소 순교자(Fluorine martyrs)란 용어도 생겼을 정도다.

불소 분리가 힘든 이유는 불소의 끊거운 반응성 때문이었는데 헬륨과 네온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응을 하니 불소의 사교력은 대단하다. 어떤 것과 한번 결합을 이루면 안정적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기에 Fluoroapatite란 용어가 결코 이론뿐이지 않다. 지금처럼 우리가 불소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이유는 프랑스의 과학자 앙리 모아상(Henri Moissan, 1852~1907)의 덕택이다. 모아상은 전기분해를 이용하여 불소 분리를 성공함으로써 프랑스 최초로 1906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²²⁾. 파리에서 북동쪽으로 약 40 km 떨어진 도시 모(Meaux)에 있는 고등학교(Lycée Henri Moissan)에 앙리 모아상을 기념하는 동상이 세워져 있다(그림45).

III. 맷음말

프랑스 여행을 하는 동안 예술품을 감상하면서 그 당시 예술가의 특출한 재능에 감탄하고, 명소를 방문함으로써 그 시절의 감흥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평범한 돌덩이에 조각된 사람들의 스토리를 알게 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도 갖게 되었다. 프랑스는 예술과 과학이 오묘하게 결합되어 있기에 Art & Science를 다루는 치과의사는 꼭 둘러봐야 할 나라다. 프랑스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문득 떠오르는 생각으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

환자의 구강은 캔버스, 치과의사는 화가, 내가 근무하는 치과는 화실이다. 어려운 고난과 힘든 역경을 이겨내며 불후의 명작을 탄생시키는 화가처럼 치과의사도 같은 입장이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치과의사의 참뜻에 대해서도 필자의 해석을 소개한다.

역사적 시기에 따라 치과의사의 호칭은 Tooth-puller, Charlatan, Dentist 등이 있었다. 영어 접미

사만을 보면 -er은 그냥 뭘가를 하는 사람(예 : guitar player), -an은 기술을 가진 사람(예 : guitar musician), -ist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예 : guitarist)으로 의미는 같지만 뜻은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번 프랑스 여행을 하면서 DENTIST에서 D는 의사로서 자신을, 환자를, 직원을, ENT는 대접하는 (Entertain), IST는 전문성을 지닌 사람임을 깨닫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5. 참고문헌

- 1) 권 훈 : 치과의사학으로 떠나는 유럽여행, 대한치과의사학회지, 제31권 제1호, 2012
- 2) 권 훈 : 치과의사학으로 떠나는 미국여행, 대한치과의사학회지, 제32권 제1호, 2013
- 3) 권 훈 : 치과의사학으로 떠나는 한국여행, 대한치과의사학회지, 제33권 제1호, 2014
- 4) 기창덕 편저 : 의학, 치과의학의 선구자들, 아카데미아, 1995
- 5) 박홍규 : 오노레 도미에, 소나무, 2000
- 6) 정재승 : 뇌과학자는 영화에서 인간을 본다, 어크로스, 2012
- 7) 한상국 : 치아인문학, 대한나래출판사, 2014
- 8) Dechaume M. and Huard P. : *Histoire illustree de L'art dentaire*, Roger Dacosta – Paris, 1977
- 9) Ring M.E. : *Dentistry, An illustrated history*, Mosby – Year Book Inc, 1985
- 10) Heinz E.L., Rainer A.M. : *Dentistry in the history of art and civilization*, 1985
- 11) Pierre Baron : *L'art Dentaire A Travers La Peinture*, Vilo, 1986
- 12) Colin Jones : *The smile revolution in eighteenth century Par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13) Curtis E. : *Hand to mouth : Essays on the Art of Dentistry*, Quintessence, 2002
- 14) https://en.wikipedia.org/wiki/Jules-%C3%89mile_P%C3%A9an
- 15) Marie S. : *L'influence du symbolisme des dents sur la rehabilitation prothetique de la cavite buccale*, Universite de Nantes unite de formation et de Recherche D'odontologie, Thesis, 2010
- 16) Swanson B.Z., Hamann C.P. : *hog bristles, hucksters & radioactive paste : a historical collection of dental postcards*, Smartpractice, 2006
- 17) Lefebure C. : *Une histoire de l'art dentaire*, Privat, 2001
- 18) Proskauer and Witt : *Pictorial history of dentistry*, Abrams, 1962
- 19) Robert Vrinat : David Solot, Sur Les Arts, 1978
- 20) Pindborg J.J. and Marvitz L. : *The dentist in art*, George Proffer, 1961
- 21) Schwartz AW : *An organized comprehensive dental collection of stamps*, AW Schwartz, 1995
- 22) Loevy HT, Kowitz AA : *Dentistry on stamps*, K&L Publishing, 1990
- 23) Israel Y. : *La Carte A Belles Dents*, Gilletta, 1987
- 24) Dalayeur F. : *La douleur dentaire*, Creafirst, 2002
- 25) William Susi : *Dentistry in Stamps*, ANDI Servizi srl, 2010

26) Horace Wells Dentist : Father of Anesthesia, Horace Wells Centenary committee of the American Dental Association, 1948

〈교신저자〉

- 권 훈 (Kweon, Hoon)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1동 1250-2 미래아동치과
- Tel. 062-672-2543, Email: 2540go@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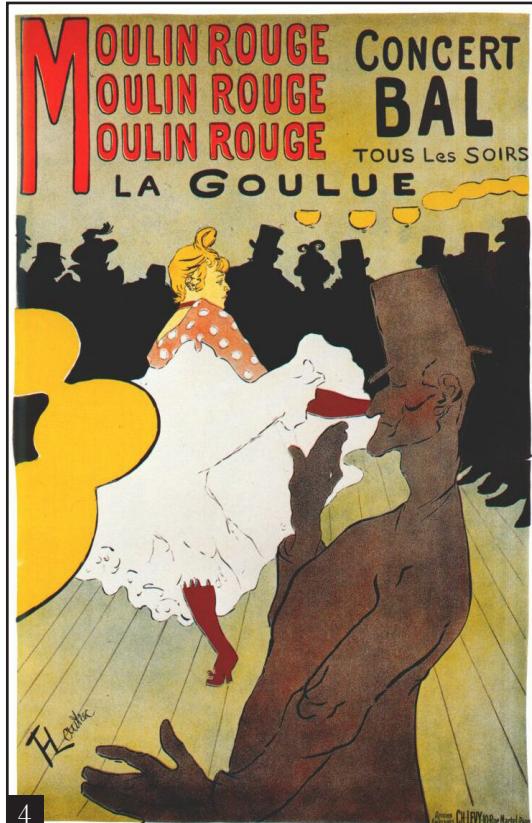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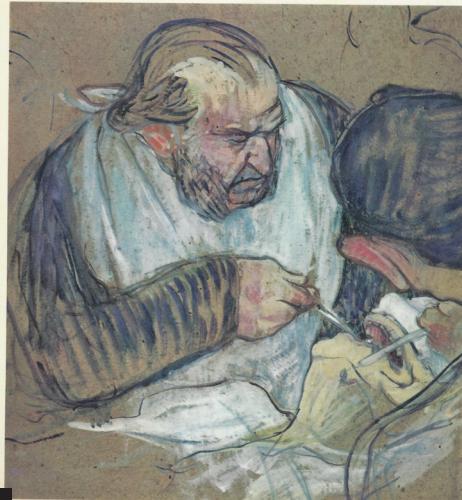


4

1. Le Grand Thomas(?) ~ 1757)
2. The true portrait of the great empirical wholesale Thomas
3. 프랑스 신문 'L'Eclipse'에 실린 Andre Gill의 삽화 (1873년)
4. 트루즈 로트레이 그린 몰랭루즈 광고 포스터

HISTOIRE ILLUSTRÉE DE L'ART DENTAI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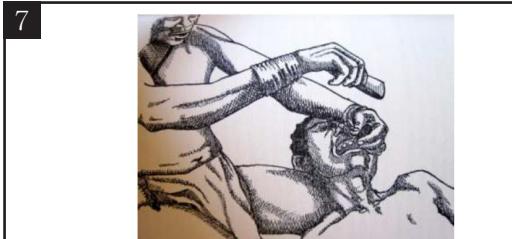
Stomatologie et Odontologie



5



6



7

Figure 15 : Mutilation dentaire en Haute-Volta. Dessin d'après photo du Musée de l'Homme, Paris.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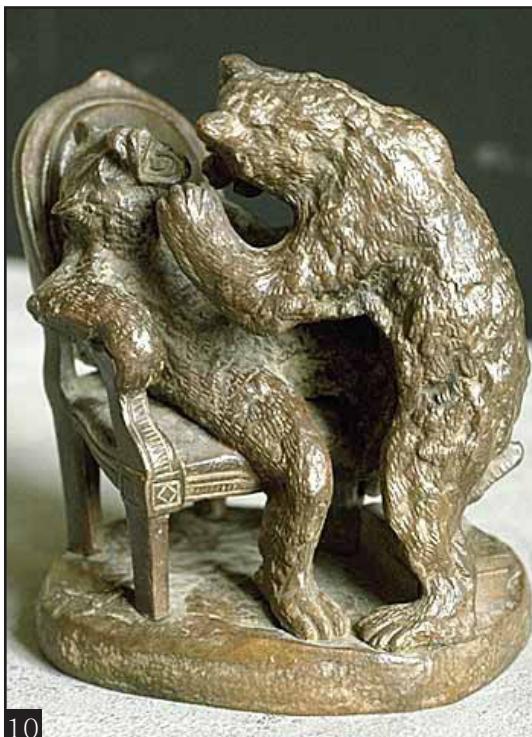
5. 1977년 출판된 프랑스 치과의사학 도서 표지

6. 인류박물관에 전시중인 1570 ~ 1085 B.C.로 추정되는 하악골

7. 아프리카 종족에서 행해지는 상악 전치부 Dental mutilation

8. 기원전 4~5세기로 추정되는 하악 6 unit bridge

9. 함무라비 법전이 새겨진 비석



10. Christopher Fratin의 조각 'The Dentist Bear'

11. The Tooth Puller(1627년), Gerard van Honthorst

12. The Dentist(1635년), Gerrit Dou

13. Tooth Puller, Jan Steen

14. Tooth Puller(1755), Giovanni Domenico Tiepolo



15



16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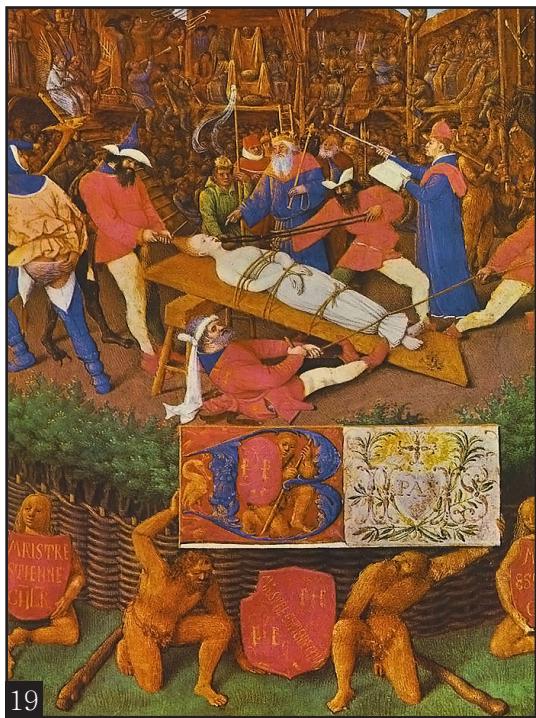
15. 성녀 아폴로니아(1636년), Francisco de Zurbaran

16. Griffoni Polyptych : St. Apollonia, Ercole de' Roberti

17. The torture of St. apolline : Jacob Jordaens



18



19



20

18. 콩데 미술관 상뚜아리오(Santuario)에 있는 장푸케(Jean Fouquet, 1415–1480)의 작은 그림(A4 사이즈 반)

19. Martyrdom of St. Apollonia

20. 성녀 아폴로니아가 새겨진 작은 조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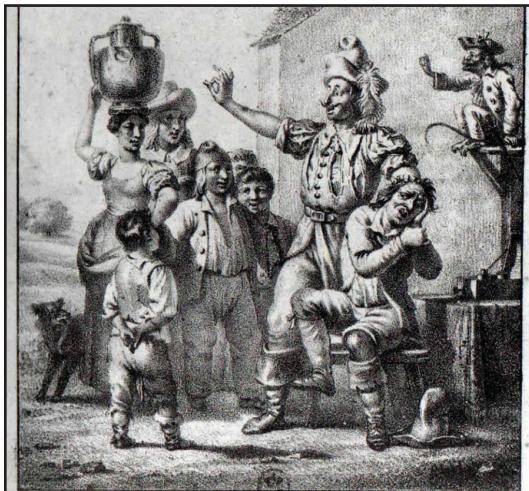


21. Martyrdom of Saint apollonia, Guido Reni

22. Virgin and child with six Saints 판넬에 있는 성녀 아폴로니아

23. 독일 화파가 제작한 The martyr St. Apollonia

24. Le Dentiste, Adriaen van de Vel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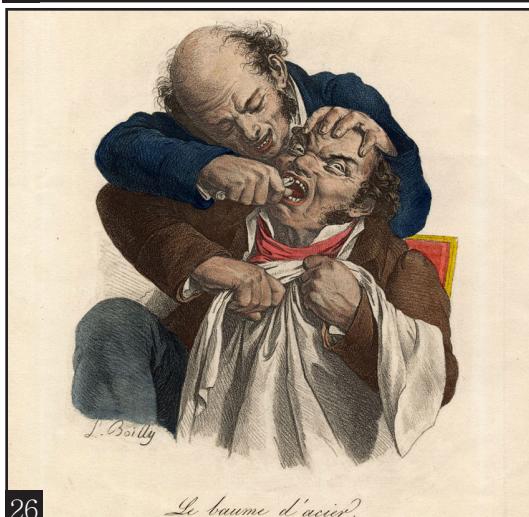
25

Sans doule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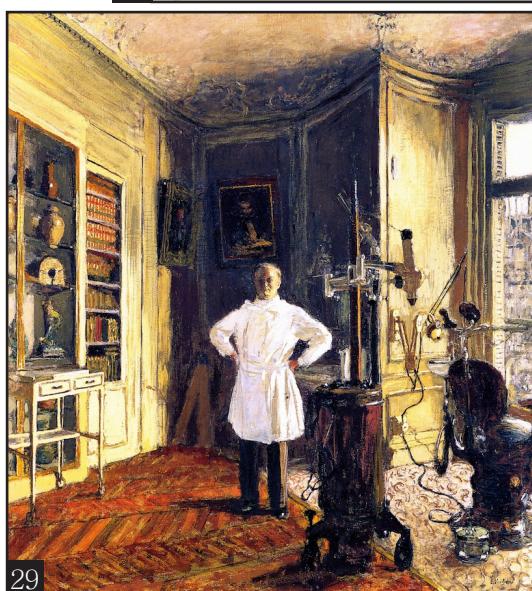
27

*— Où ! là . . . là . . . là . . . là !
— Tant mieux . . . tant mieux . . . ça prouve qu'elle vien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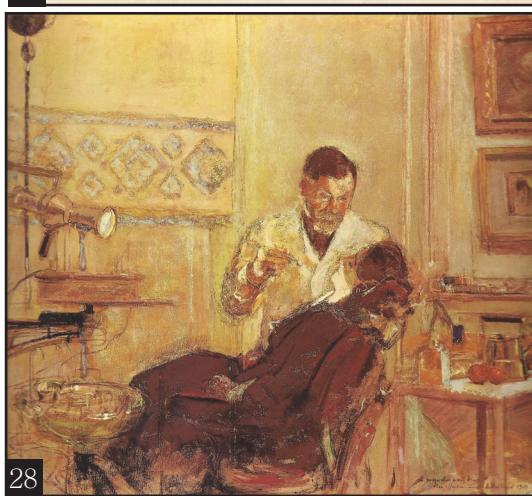


26

Le baume d'acier?



29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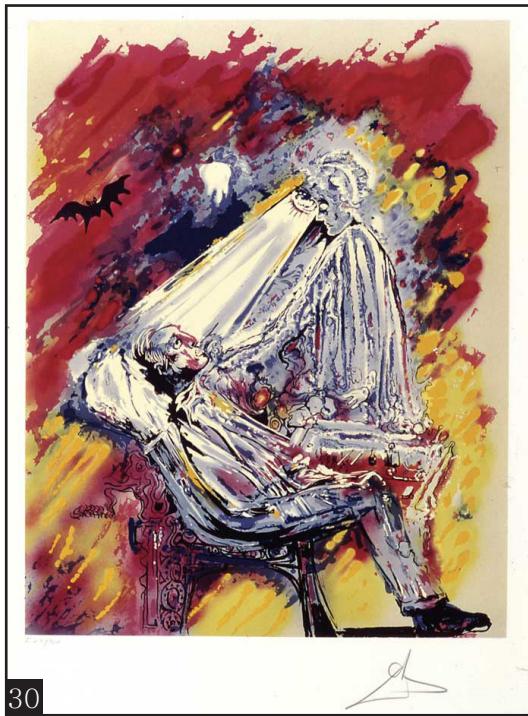
25. Sans Douleur, Adophe Roehn

26. The Steel balm(1827년), Louis Leopold Boil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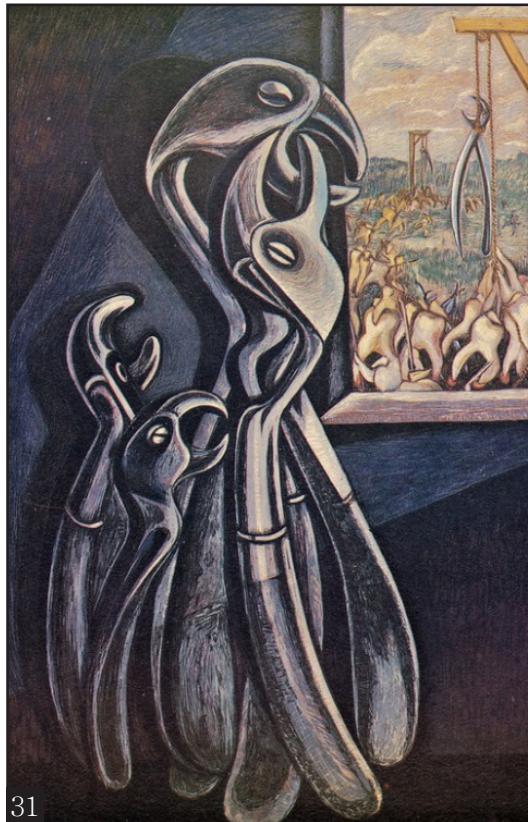
27. The Dentist, Honore Daumier

28. Portrait of Dr. George Viau(1914년), Edouard Vuillard

29. Portrait of Doctor Louis Viau in his office(1934년), Edouard Vuillard



30



31



32



33

30. The light of healing, The Dentist(1980년),
Salvador Dalí

31. The revolt of the molars(1956년), David Solot

32. 파리 중세 박물관에 있는 Stalls of Saint-Lucien

33. 18세기에 제작된 Bottle blue faience



34



37



35



38



36

34. The National Dentist(1792년)

35. Military dentist at the American Hospital of St. Nazaire(1918년), Georges Eveillard

36. The Tooth Puller, David Ryckaert

37. The Charlatan

38. The Tooth Extractor, David Teniers the Younger



Planche 109 : « La Première Dent », par BARON. Musée de Carcassonne (Photo BULLOZ).



39. The Charlatan, Thomas Gerard

40. The First Tooth, Henry Baron

41. 파리 시청에 있는 프랑스 국민배우 치과의사 Talma 동상

42. 리옹 사람들의 벽화에 그려진 Laurent Mourgu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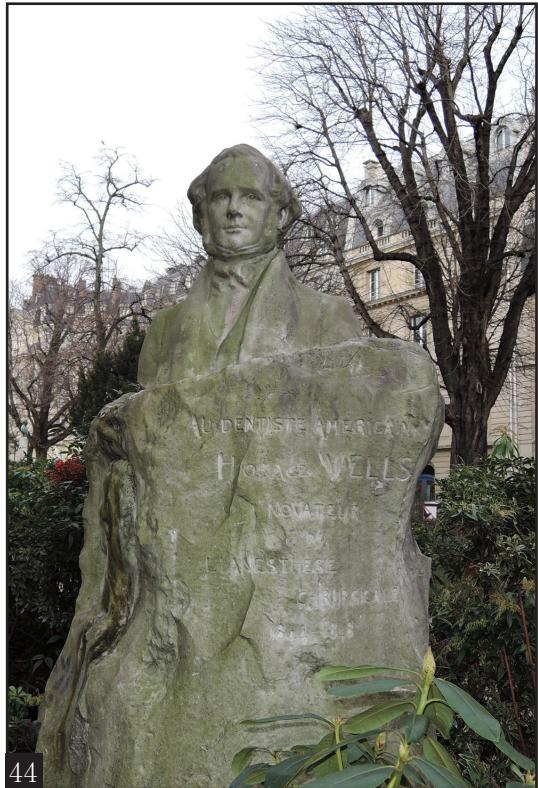




43



45



44

43. 프랑스 전통 인형극 기늘의 창시자 Lauren Mourguet 동상

44. Horace Wells Monuments

45. Lycee Henri Moissan 교정에 있는 양리 모아상을 기념하는 동상

대한치과의사학회 활동내역

1. 2015년 3월 30일: 대한치과의사학회 학술집담회 및 정기총회 개최

장 소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8층 세미나실

연제 및 연자

19:00 – 20:00 대통령과 치과 이야기(권훈 원장)

20:00 – 21:00 정기 총회 (신임 회장 박준봉 교수님 취임인사)

2. 2015년 4월 29일: 초도 이사회 개최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2-2 강남대로 330 우덕빌딩 (강남역) 4층 회의실

일 시 : 2015년 4월 29일 수요일 19:00

안 건 : 1. 신임 이사 소개 및 이사회 일정 준비

2. 조직 편제 개선, 관심회원의 증가 방안

3. 2015년 7월 23일: 제 2차 이사회 개최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2-2 강남대로 330 우덕빌딩(강남역) 4층회의실

일 시 : 2015년 7월 23일 목요일 19:30

참석자 : 박준봉, 이해준, 김남윤, 김진철, 강경리, 유동기, 백장현, 박정철

안 건 : 1. 각 부서별 사업기획 발표

2. 회원배가 방안

3. 이사회 운영 방안

4. 학회지 발행 준비

4. 2015년 8월 13일: 제 3차 이사회 개최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2-2 강남대로 330 우덕빌딩(강남역) 4층회의실

일 시 : 2015년 8월 13일 목요일 19:30

참석자 : 박준봉, 이해준, 김남윤, 김진철, 이우철, 강명신, 강경리, 박정철, 이동운

안 건 : 1. 학술집담회 준비

2. 홍보 실행상황 및 계획

3. 해외 치과의사학회와의 연계 모색

4. 소위원회 중심 운영 방안

5. 2015년 9월 10일: 제 4차 이사회 개최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2-2 강남대로 330 우덕빌딩(강남역) 4층회의실

일 시 : 2015년 9월 10일 목요일 19:30

참석자 : 박준봉, 이해준, 김남윤, 김진철, 이우철, 강명신, 강경리, 박정철, 이동운

안 건 : 1. 학회 통장, 고유번호증 발급, 직인 마련

2. 학회지 원고 모집

3. 학술대회 사전 기사 및 신문 광고

4. 학회 카페 운영 방안

6. 2015년 10월 8일: 제 5차 이사회 개최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2-2 강남대로 330 우덕빌딩(강남역) 4층회의실

일 시 : 2015년 10월 8일 목요일 19:30

참석자 : 박준봉, 김희진, 이해준, 김진철, 김남윤, 이동운, 강경리, 백장현, 박정철

안 건 : 1. 학술대회 주제, 연제 및 연자 결정

2. 장소 및 부스 섭외

3. 학술대회 초록집 발간

4. 기타 준비 세부사항

7. 2015년 11월 12일: 제 6차 이사회 개최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2-2 강남대로 330 우덕빌딩(강남역) 4층회의실

일 시 : 2015년 11월 12일 목요일 19:30

참석자 : 박준봉, 이해준, 김진철, 김남윤, 이동운, 강경리

안 건 : 학술대회 준비 사항 총점검

8. 2015년 11월 28일: 추계 종합학술대회 개최

장 소 : 경희대학교치과대학병원 지하1층강당

일 시 : 2015년 11월 28일 토요일 13:30 – 21:20

주 제 : 치의학의 인문학

연제 및 연자

14:00 – 15:00 북한 구강의료의 이해(이송현 선생)

15:00 – 16:00 치과보철물! 어떻게 만들기 시작하여 어디까지 왔는가?(백장현 교수)

16:30 – 17:30 치의학적 최소침습 열굴회춘(김희진 교수)

17:30 – 18:30 치과의사가 찾는 인문학, 어디에 있는가?(류인철 교수)

19:00 – 20:00 치과의사학으로 떠나는 프랑스 여행(권훈 원장)

20:00 – 21:00 함석태, 강우규 그리고 대동단(이해준 원장)

9. 2015년 12월 10일: 제7차 이사회 및 송년회 개최

장 소 : 강남구 7호선 선릉역 1출구 상제리제빌딩 2층 동보성

일 시 : 2015년 12월 10일 목요일

참석자 : 박준봉, 이해준, 김진철, 김남윤, 이동운, 강경리, 권 훈, 신재의, 김종열

안 건 : 1. 2015년 종합학술대회 평가 및 달성 목록 수정

2.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칙 수정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칙 (1960. 10. 7 창립)

1984. 6. 30 제정
1986. 10. 14 인준
1987. 3. 11 개정, 1990. 5. 28 개정, 1995. 5. 23 개정, 1999. 4. 8 개정, 2012년 3. 13.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 학회는 대한치과의사학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 학회는 과학사 특히 치과의학사에 관한 연구를 하며, 회원 상호간의 학술적 유대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본 학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에 의거하여 설립한다.

제 2 장 사 업

제 1 조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집담회, 학술연구발표회
2. 해 관계 자료의 수집
3. 연구논문의 인쇄배포
4. 해외사계와의 학술교류
5. 회원의 친목

제 3 장 회 원

제 5 조 본 학회원은 치과의사학에 관심이 있는 치과의사로 회원 2명의 추천을 받은 자로써 임원회의 의결로써 구성한다.

제 6 조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제 1 항 본회 회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2 항 결정된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제 1 항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 2 항 회원은 회원자격에 대한 증명을 받을 수 있다.

제 8 조 회원으로서 회비를 2년 이상 미납 시에는 임원회의 결의로서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 4 장 기구 및 선거

제 9 조 본 학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고 문 약간명
2. 명예회장
3. 회 장 1 명
4. 부 회 장 2 명
5. 총 무 1 명
6. 이 사 약간 명
7. 감 사 2 명

제10조 본 학회는 각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11조 고문은 회장 역임자나 덕망있는 분으로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된다.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으로 한다.

제12조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장은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는 이를 대신한다.

제14조 총무 및 이사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무를 각기 분담하여 처리한다.

제15조 감사는 필요에 따라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부회장, 총무,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도 있다.

제18조 회장단 결원 시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한다.

단,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감사의 결손이 있을 때는 회원 중에서 최 연상자로서 보선한다.

제 5 장 총 회

제19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정기총회는 연1회로 하되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총회 전 1
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20조 총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어 진행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은 다수결로 결정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재석 3분의 2가 동의하여야 가결된다.

제22조 총회에서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 1 항 회칙에 관한 사항

- 제 2 항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제 3 항 감사의 보고에 관한 사항
- 제 4 항 사업에 관한 사항
- 제 5 항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 제 6 항 회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 6 장 임 원 회

- 제23조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제24조 임원회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재석자의 다수결로 의결한다.
- 제25조 회장은 총무 및 이사로 하여금 각 부를 분담케 할 수 있다.
- 제26조 임원회의 의결로 필요에 따라 회장의 자문에 응할 별도 명칭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27조 임원회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회무전반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재 정

- 제28조 본 학회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29조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8 장 부 칙

- 제30조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 제31조 본학회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2조 본회칙은 총회의결 후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한치과의사학회지 투고규정

1. 투고 자격

대한치과의사학회 및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2. 투고 원고의 종류

본 학회지에 게재 가능한 원고는 본 학회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치의학과 관련된 원저, 증례보고, 종설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투고된 원고는 타지에 이미 게재된 동일 내용의 것은 불허하며 본지에 게재된 것은 임의로 타지에 게재할 수 없다.

3. 원고의 게재

투고예정 원고의 학문적 의의, 논리성, 창의성, 독창성 및 윤리성 등을 고려한 게재 여부 및 게재 순서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수정이나 보완 그리고 일부 삭제를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수정된 논문은 재심사하여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저자가 수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게재될 수 없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 원고 중에서 게재가 불가능한 것은 그 이유와 함께 원고를 저자에게 반송 한다.

4. 원고는 한글 또는 영문

한글 원고인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단어를 한글로 기록하고 번역이 곤란한 것을 영문으로 기록하며 번역 어인 경우에는 이해를 돋기 위하여 첫 인용 단어 다음에 괄호로 원어를 병기할 수 있다. 또한 투고규정에 없는 용어는 치의학회 용어집에 준용한다.

5. 원고의 첫 장

원고의 제목, 각 저자의 소속, 저자 이름, 초록, 연구비 지원 내용(필요한 경우) 순으로 작성한다. 원고의 제목은 간결하며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서, 원고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저자는 가능한 총 5명 이내로 한다.

6. 연구비 지원

연구비 지원 내용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한하며, 첫 장 하단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7. 초록

초록은 한글 원고인 경우에는 영문 초록을, 영문 원고인 경우에는 한글 초록을 작성한다. 초록의 내용으로는 연구의 목적, 재료와 방법, 결과, 그리고 결론 등이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되어야 한

다. 분량은 한글인 경우에는 500자 이내로 영문인 경우에는 20단어 이내로 한다. 단, 약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초록 하단에 주요 단어(key words)를 6개 이내로 가나다(영문인 경우에는 알파벳) 순으로 작성한다.

8. 연구에 이용된 상품의 상품명을 인용

연구에 이용된 상품의 상품명을 인용할 경우에는 처음 인용 시에 상품의 이름, 제조 도시 명, 나라 순으로 괄호 안에 기록한다.

9. 원고의 제출

원고는 HWP 2007 이상으로 작성하며 글씨체는 신명조, 글씨 크기는 10point, 줄간격은 160으로 작성하여 페이지가 기록된 2매의 복사본과 원본이 입력되어 있는 CD 또는 file을 함께 제출한다. 원고의 양은 원저인 경우에는 15쪽, 중례 보고 등 기타 원고는 7쪽 전후로 하며 원고의 분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수정을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원고의 구성은 본 학회지 편집 방향에 따라 편집 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0. 원고의 작성 순서

원저인 경우는

- (1) 제목
- (2) 소속 및 저자명
- (3) 연구비 지원내용(필요한 경우에만 첫 장 최 하단에)
- (4) 서론
- (5) 연구 재료 및 방법
- (6) 연구 성적
- (7) 총괄 및 고안(고찰)
- (8) 결론(또는 요약)
- (9) 참고문헌
- (10) 교신저자
- (11) 그림 설명 및 그림(필요한 경우)
- (12) 초록, 주요 단어

순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상 증례, 종설 등의 원고도 이에 준하여 작성한다.

11. 참고문헌

원칙적으로 출판되었거나 계재 완료된 문헌만을 참고문헌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급적 초록(Abstract) 인용은 피한다. 본문 중에서는 인용 순서대로 인용문 끝에 어깨 번호를 붙여 표기하는데 문장인 경우에는 쉼표나 마침표 뒤에, 그리고 특정 명사나 연구자 이름인 경우에는 바로 그 뒤에 번호를 붙인다. 한 인용문에서

세 개 이상 참고문헌이 제시될 경우에는 처음 문헌 번호와 마지막 문헌 번호를 ‘-’로서 표시한다(예: -라고 주장했다. 3, 9-13). 본문 중에서 저자는 성만 기입하는데 두 명인 경우에는 모두 병기하고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한 명만을 명기하고 나머지는 ‘등’으로 표기한다(예: 김과 박2는, 김 등2는).

참고문헌은 결론 및 요약 뒤에 본문에서 인용된 번호 순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논문인 경우에는 저자명, 제목, 잡지명, 발행년도, 권(호), 페이지 순으로, 책인 경우에는 저자명, chapter제목, editor이름, 책제목, 출판도시, 출판사, 연도, 인용페이지 순으로 작성한다. 국내문헌도 영문으로 표기한다. 저자가 다섯 명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 세 명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et al로 한다. 저자명은 성, 그리고 이름의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예: Sorensen JA, Cho IH), 가능하면 본지 게재된 논문을 2회 이상 인용한다.

예) Iwama CY, Preston JD. Cobalt-chromium-titanium alloy for removable partial dentures. Int J Prosthodont 1997;10:309-317

예) Hilton TJ. Direct posterior composite restorations. In: Schwartz RS, Summitt JB, Robbins JW(eds). Fundamentals of Operative Dentistry. Chicago: Quintessence; 1996:207-208

예) Jang JS, Jeong YT, Chung CH. Finite element stress analysis of implant prosthesis of internal connection system according to position and direction of load. J Korean Acad Stomatog Func Occ 2005;21:1-14

12. 사진

사진의 크기는 3X5 inch를 기본으로 하고 사진 뒷면에 연필로 사진 번호와 상하 구분을 사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가볍게 기록한다. 사진은 현상도가 우수한 두 장의 광택 인화지 사진, 또는 편집이 완성된 고해상도 그림파일 형식으로 보낼 수 있다. 사진은 저자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 반송하지 않는다. 가능한 칼라 사진은 두 페이지 이내로 제한한다.

13. 도표 및 그래프

컴퓨터로 작성된 것을 사진이나 레이저 프린터로 출력하여 제출한다. 손으로 그릴 경우는 조잡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편집위원회는 반송하여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4. 사진/그림 설명

필요할 경우 다수의 사진/그림 설명은 교신저자 뒤로 배열하여 작성하고, 현미경 사진은 배율, 염색 방법 등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15. 사용 단위

사용 단위는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며 타 단위를 사용한 경우에는, 처음 기술 시에 괄호 안에 머터법으로 환사하여 기록한다.

16. 교신저자

원고의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영문으로 표기하여 참고문헌 다음에 기입해야 한다. 내용은 추후에 연락이 가능하도록 이름, 소속, 주소, 팩스, e-mail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예) Corresponding author

Kung-Rock Kwon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26,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130-701, Korea.

Tel: +82-2-958-9343; Fax: +82-2-958-9349

E-mail address: krkwon@khu.ac.kr

17. 계재료

계재료 부가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교신저자에게 신청되며, 계재료는 기본 계재료 이외에 원고 추가 분량, 또는 컬러 사진 계재 등에 필요한 추가 경비가 포함될 수 있다. 별책은 저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실비로 제공한다.

18. 원고마감

원고는 매년 12월 첫 째 주 및 6월 첫 째 주까지 접수된 것을 취합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계재 여부 및 순서를 정한다.

19. 원고 접수

원고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한치과의사학회 편집부

주소 : 서울시 강동구 동남로 892 강동경희대학교치과병원 치주과 강경리 교수

Tel : 02-440-7515, Fax : 02-440-7549, email : periokkl@khu.ac.kr

大韓齒科醫史學會 임원 명단

고문	김정균	교재위원장	김병옥	이사	조영식
고문	박승오	총무이사	이해준	이사	박영준
고문	신재의	재무이사	김진철	이사	박덕영
고문	변영남	대외이사	김남운	이사	이주연
고문	김평일	교육이사	강명신	대학이사	강신익
		학술이사	이우철	대학이사	박호원
자문위원	김종열	편집이사	강경리	대학이사	이재목
자문위원	차혜영	섭외이사	창동욱	대학이사	박찬진
자문위원	허정규	정통이사	이동운	대학이사	김성태
자문위원	홍예표	정책이사	권훈	대학이사	김지환
자문위원	백대일	기획이사	유동기	대학이사	이홍수
		연구이사	박영범	대학이사	최홍란
명예회장	이병태	국제이사	백장현	대학이사	박용덕
회장	박준봉	법제이사	박정철	대학이사	박병건
부회장	류인철	총무간사	임해수	대학이사	유승훈
부회장	김희진	이사	임용준	감사	조영수
부회장	권궁록	이사	김명기	감사	배광식
		이사	이준규		

大韓齒科醫史學會誌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제 34권 제1호 통권 36호 2015

Vol 34, No 1, 2015

발행인 : 박준봉

Publisher : Joon Bong Park

편집이사 : 강경리

Editor-in-Chief : Kyung Lhi Kang

인쇄일 : 2015년 12월 24일

Printig date : December 24, 2015

발행일 : 2015년 12월 31일

Publication date : December 31, 2015

발행처 : 대한치과의사학회

Published by :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06154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74, 207호

Bongeunsa-ro 474, Suite 207, Gangnam-gu, Seoul, 06154

(삼성동 쌍용플래티넘) 이해준 치과의원

Lee Hae Jun Dental Clinic

전화) 02-558-2440, 팩스) 02-558-2443

Tel : +82-2-558-2440, Fax : +82-2-558-2443

<http://cafe.daum.net/denhistory>

<http://cafe.daum.net/denhistory>

편집인쇄 : 도서출판세계

Edition&printing : Publishing World

